

CHAPTER ONE

•아도라

“나는 처음으로 본 빛의 아름다움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숭고한 그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왔
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소리도 어둠에 묻힌 그런 작은방, 빛도 들지 않는 작은 방안에는 부러지고 더럽혀진 많은 인형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어두운 방안 구석구석은 진한 초록색 이끼로 감싸져 있었고 많은 인형들은 회색 빛 눈 같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크고 곧은 소나무로 만들어진 망아지 인형은 너무 오래되어 녹녹해지고 타오를 듯이 붉었던 색깔도 바래졌다. 바래진 그 인형처럼 전에는 화려했던 모든 인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본 모습을 점차 잃어갔다.

망아지 인형 옆에는 더럽고 보잘것없는 옷이 입혀진 목각인형이 바닥에 앉아있었다. 그는 차갑고 습한 벽에 힘없이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 인형의 팔은 부러져서 그의 몸과는 반대방향으로 젖혀져 있었고 다리는 온통 검붉은 이끼로 감싸져 있었다. 엉덩이는 습한 바닥에 삼켜져 심하게 부패했고 하얀 꽃 같은 곰팡이가 피었다.

목각인형의 얼굴은 더럽고 오래된 몸과는 다르게 매우 깨끗했으며 밝고 하얗다. 특히 커다랗고 맑은 눈은 마치 이슬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투명한 두 눈 아래에 있는 붉은 입술은 항상 굳게 닫혀있었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목각 인형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런 어둡고 쓸쓸한 방에서 나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이런 차갑고 외로운 방을 나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깊은 소망은 항상 그보다도 더 깊은 실망만을 가져다 주었다.

또각. 또각.

구두굽이 내는 경쾌한 소리는 성의 깊은 지하를 울렸다. 한 소녀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복도를 걸었다. 통로의 양 벽에 걸려 있는 햇불들에 비추어진 지하세계는 어린 소녀에게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운 광경이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소녀는 복도 끝에 붉게 녹슬어 있는 철문 앞에 다다랐다. 일렁거리는 햇불에 비춰진 철문 중앙에는 열은 푸른색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어린 소녀의 눈에는 마치 푸른 나비가 자신을 이 어두운 복도 끝에 위치한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있을 것만 같은 방안으로 인도하려는 듯 보였다.

소녀는 한참을 망설인 뒤에 희고 작은 손으로 녹슨 손잡이를 움켜잡고 문을 세차게 열었다. 서서히 커다란 문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닫혀있었던 문은 깊은 어둠을 깨우는 듯 괴성을 지르는 것만 같았다.

“무슨 소리지?”

목각인형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뚱그랗게 뜨고 소리가 들리는 쪽을 멍하니 응시했다. 커다란 문이 완전히 열리자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처럼 반짝이는 무언가가 온 세상을 휘덮더니 모든 사물에 각각의 색의 향기를 불어넣었다. 그것은 따스했으며 포근했다.

그것은 바로 빛이었다.

“너무 아름다워.”

목각인형은 난생 처음으로 본 빛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앗겨버렸다. 요정의 눈물로 만들어진 투명한 심장은 부끄러운 듯이 빠르게 뛰었다.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들어오는 문에는 작은 소녀가 서있었다. 그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자했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저 아름다운 빛마저 삼켜버릴 그 무언가가 내게 다가왔다는 것을.’

소녀는 방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꽤 꽤한 먼지를 손으로 가르며 방안으로 들어왔다. 방안에는 오랫동안 내버려진 수많은 인형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소녀는 오래되고 망가졌지만 생김새 하나 하나가 독특하고 신기한 인형들을 보면서 기뻐했다.

“어! 작고 예쁜 나무 곰 인형이네.”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곰 인형은 코르크 마개가 끼워진 물병 속에 들어있었다. 그 물병 속에는 젤리 같은 푸른 액체가 담겨 있었고 그 푸른 액체 속에는 반짝이는 은가루들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파란하늘에 벚꽃이 휘날리는 것과 같이 아름다웠다.

물병 속에 들어있는 그 곰 인형은 어른 키만한 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선반아래에는 색이 바랜 망아지 인형이 묵묵히 서있었고 그 망아지 인형 옆에는 항상 슬픈 미소를 짓고 있는 목각인형이 앉아있었다.

“다행이다. 저 망아지 인형을 밟고 올라가면 저 높은 선반 위에 있는 곰 인형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소녀는 킁킁거리며 망아지 인형의 등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두 팔을 뻗어 작고 예쁜 곰 인형이 들어있는 물병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작고 고운 손은 허공을 휘젓을 뿐이었다.

“치,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물병을 쉽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소녀는 심술이 난 듯 얼굴을 찡그렸지만 다시 인형을 향하여 손을 쭉 뻗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발뒤꿈치를 높이 들어올렸다.

그 시간, 목각인형의 눈은 망아지 인형의 등위에 위태롭게 서있는 소녀를 향해 있었다. 그는 걱정스런 마음에 입을 열어 말하고 싶었지만 굳게 닫힌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위험해요. 어서 내려오세요.’

하지만 목각인형의 말은 어린 소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조금만, 조금만 더…….”

소녀는 물병을 잡으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쳤지만 소녀의 손은 물병을 잡지 못하고 툭 건드리기만 했다. 이에 물병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소녀를 향하여 떨어질 듯 빙글빙글 춤을 추었다.

“큰일났어. 물병이 떨어지려고 해.”

소녀는 겁을 먹고 망아지 인형의 등에서 서둘러 내려오려고 했다. 하지만 망아지 인형 등위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작고 고운 먼지에 발이 미끄러졌다. 소녀의 몸은 순간 허공에 붕 떠서 거꾸로 내리박히듯 딱딱한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까아아아.”

목각인형은 떨어지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안돼……. 어서 소녀를 구해야 돼.’

목각인형의 절실한 바람과 달리 그의 몸은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나의 무기력한 팔이 소녀를 위해 움직일 수 있기를, 나의 힘 없는 다리가 소녀를 향해 걸을 수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비읍니다.’

갑자기 시간이 멈추고 목각인형의 심장에서 아름답고 황홀한 녹색 빛이 새어 나왔다. 눈부신 빛은 온 몸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갑자기 가슴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빛이 나오는 거지?’

그 빛은 단단한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요정의 눈물로 만들어진 심장이 내려주는 생명의 불빛이었다. 그 생명의 불빛이 지나간 곳에는 거칠고 딱딱한 나무는 사라지고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부드럽고 하얀 살결이 나타났다. 따스한 생명의 불빛이 온 몸을 휘덮고 사라지자 낡고 더러운 목각인형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소년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눈부신 빛이 사라지자 멈추었던 시간도 다시 흘러갔다.

목각인형은 소녀를 향하여 부서진 몸을 힘차게 던졌다. 다행히도 그는 소녀가 바닥에 부딪치기 바로 직전에 떨어지는 소녀를 사뿐히 안을 수 있었다. 목각인형은 그가 몸을 움직여 소녀를 구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얼이 나간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 몸이 움직여 지다니…….”

목각인형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소녀를 내려다 보고 물었다.

“괜찮으세요?”

세상 밖으로 처음 울려 퍼진 목소리는 상당히 여리고 부드러웠다. 목각인형의 물음에 소녀는 껍 감은 눈을 서서히 떴다. 소녀의 눈은 마치 이슬처럼 투명하고 맑았다. 그리고 눈같이 하얀 피부와 연분홍 색의 작은 입술은 마치 어린 천사의 그것처럼 아름다웠다. 소녀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고 큰 숨을 쉬었다.

“휴~ 다행이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목각인형을 바라보며 방긋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날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제 날 내려줘도 돼.”

목각인형은 소녀를 천천히 품에서 내려놓았다. 소녀가 옷을 툭 툭 털고 일어서자 부드러운 황금빛 머리카락이 하늘하늘 등까지 흘러내렸다. 소녀는 목각인형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로구나.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네가 인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거야. 그건 그렇고, 만나서 반가워.”

그 시간에도 작은 곰 인형이 들어있는 물병은 아직도 선반의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물병은 생명이 다한 듯 마지막 춤을 추면서 소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앗! 위험해요.”

목각인형은 재빨리 소녀를 온 몸으로 감싸서 보호했다. 물병은 소녀의 머리대신 목각인형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많은 유리파편으로 나뉘어졌다. 목각인형은 정신을 잃고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눈앞에서 목각인형이 기절하자 소녀는 흠칫 놀라서 가슴이 콩

닥콩닥 뛰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레 목각인형에게 다가가 그를 붙렸다.

“이봐요. 제발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소녀가 수 차례 목각인형의 몸을 흔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여전히 목각인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힘없이 바닥에 누워있었다. 소녀는 매우 난처한 듯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조금 찡그렸다.

“어찌지?”

소녀는 두 무릎을 세우고 쪼그려 앉아 궁리를 짜냈다.

“그래. 우선 이 애를 방 밖으로 데려나간 다음 생각해보자. 여기는 너무 어둡고 공기도 탁해서 편히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방안에 있는 것이 조금 무서워.”

소녀는 목각인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팔을 힘껏 잡아당겼다. 하지만 부러진 팔은 똑 하는 소리와 함께 목각인형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갑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자 무게가 와락 뒤로 쏠리는 바람에 소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어? 어! 어? 아고!”

소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동바동 뒷걸음질을 치다가 결국 떨어진 팔과 함께 뒤로 좌당 넘어졌다. 소녀가 넘어진 곳에서는 회색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 올랐다.

그 시간, 어느 여자 한 명이 은으로 장식된 램프를 들고 소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램프 속에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여인의 그림자 또한 편치 않은 듯이 술렁거렸다. 그녀는 마치 새끼 양을 잃어버린 목동처럼 불안해하며 소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에이미 공주님! 어디 계세요? 제 말이 들리시면 제발 좀 대답해주세요.”

소녀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로이스?”

갑자기 소녀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아졌다. 소녀는 여인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로이스! 나 복도 끝에 있는 방에 있어! 어서 와서 나를 좀 도와줘!”

로이스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서둘러 목소리가 들리는 방을 향해 뛰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여인은 꽤 꽤한 먼지를 뒤집어쓴 소녀를 보며 투덜거렸다.

“에이미 공주님, 오늘은 또 무슨 말썽으로 이 가엾은 시녀를 괴롭히실 건가요?”

에이미는 미안한 듯 머리를 연신 긁적거렸다. 그리고 양증맞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해.”

로이스는 에이미의 애교 섞인 사과에 공해있던 마음을 풀었다. 그리고 램프를 바닥에 내려놓고 공주의 머리를 덮고 있는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먼지를 뒤 짚어 쓰신 채 이렇게 밝게 웃으시니 제가 더 이상 뭐라 나무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오늘 제가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아세요?”

로이스는 에이미의 두 팔을 힘껏 잡아당겨 공주를 일으켜 세웠다.

“로이스, 정말 미안해. 이제 두 번 다시 혼자 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을게.”

“에이미 공주님, 어디를 가시기 전에 저에게 꼭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주님, 뭐하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는 인형의 팔은 뭐예요?”

로이스는 에이미가 들고 있는 목각인형의 팔을 가리켰다.

“어라? 어느새 나무 팔이 되었네. 로이스, 나 오늘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

로이스가 되물었다.

“신기한 일이에요?”

“어. 있잖아 이 팔은 저기 바닥에 쓰러져있는 인형의 팔이야. 나는 저 인형을 일으키려다가 넘어진 거구.”

로이스는 에이미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온 신경을 공주의 형클어진 머리를 다시 매만지는 데 곤두세웠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왜 저 인형을 일으키려고 하셨나요?”

“로이스, 나 아까 전에 저기 붉은 망아지 인형 위에서 떨어졌는데 저기 저 쓰러져 있는 목각인형이 날 구해줬어. 만약 저 인형이 날 안 구해주었으면 난 아마도 크게 다쳤을 거야.”

“네? 인형이 공주님을 구했다고요?”

“응, 정말이야.”

유연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빗질을 하던 로이스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방 구석에 쓰러져있는 목각인형을 잠시 동안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저 인형에게 감사해야 하겠네요. 공주님이 이렇게 무사한 것이 저 인형 때문이라면요. 그건 그렇고. 에이미 공주님, 이제 그만 방으로 돌아가셔야죠?”

로이스는 램프를 다시 집어 들었다. 그녀가 방을 나가려 하자 에이미는 머뭇거리며 로이스의 검은 드레스 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로이스, 잠깐만…….”

로이스는 공주가 뭔가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공주의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에이미 공주님, 저에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으신 거죠?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말하세요.”

“저기, 있잖아…….”

에이미는 잠시 머뭇하더니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목각인형을 가리켰다. 로이스는 소녀의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으

로 고개를 돌렸고 곧 더러운 목각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공주님, 저 인형을 가지고 올라가고 싶으신 거죠. 그렇지요?”

“응. 나 저 인형을 내 방에 두고 싶어.”

로이스는 에이미가 왜 보잘것없고 더러운 인형을 방으로 가져가려 하는지 의아하기는 했지만 일단 공주의 부탁이니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공주님, 왜 하필이면 저 인형이죠? 이 방안에는 다른 예쁜 인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뭐 공주님께서 정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인형이 보기보다 상당히 더럽네요. 올라가서 따뜻한 물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어휴, 먼지야.”

로이스는 목각인형을 안고 방을 나섰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떨어진 팔을 안고 종종걸음으로 로이스를 쫓아갔다.

오랫동안 목각인형은 깜깜한 꿈속을 헤매었다. 어둡고 희미한 방안에 많은 인형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고 독한 눈빛으로 목각인형을 시기하며 쳐다보았다. 그 섬뜩한 눈빛은 그의 목을 조르고 괴롭혔다. 그는 온 몸을 바둥거리며 그 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몸을 뒤틀며 가는 신음소리를 목이 쉬도록 낸 후에야 그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만해!”

목각인형은 공포에 젖은 얼굴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절한 목각인형을 옆에서 보살피고 있던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낸 비명소리에 깜작 놀랐다. 소녀는 몹시 흥분해 있는 목각인형을 진정시켰다.

“악몽을 꾸었나 보네.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괜찮아. 우선 숨을 크게 들이마셔봐.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목각인형은 공주의 말대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시니 몸이 한결 나아졌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앞에 펼쳐진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목각인형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폭신평신했던 침대, 이 모든 것이 습하고 어두웠던 지하세계와는 정반대였다.

에이미가 물었다.

“어때? 조금은 괜찮아졌지?”

목각인형은 낮설고 믿기지 않은 환경에 얼이 빠져 공주의 말을 듣지 못했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멍한 표정을 보고 웃었다.

“풋! 바보 같아.”

에이미는 얼굴을 목각인형에게 바짝 들이대고 목각인형의 생김새를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목각인형은 사람을 그대로 닮아있었다. 물론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희미하게 비치는 나뭇결이나 땀구멍 하나 없는 피부의 어색함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목각인형을 본다면 사람들은 그가 목각인형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할 정도였다.

에이미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이름이 뭐야?”

목각인형은 소녀의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껏 그 어느 누구도 목각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름 말이야? 너의 이름? 설마 이름이 없어?”

목각인형은 망설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없다고? 그러면 오늘 나를 구해준 보답으로 내가 너에게 멋진 이름을 선물해줄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이미는 뒷짐을 지고 목각인형의 이름을 골똘히 궁리했다. 한참 동안을 생각하고 난 뒤 에이미는 갑자기 펄쩍펄쩍 뛰면서 목각인형이 누워있는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생각났어. 자, 들어봐. 아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네 이름을 아도라(Adora)라 지어줄게. 이제부터 너는 아도라야. 아주 사랑한다는 뜻에.”

목각인형은 자신의 이름을 종알거렸다.

“아. 도. 라.”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턱 바로 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안녕, 나의 이름은 에이미야.”

목각인형은 에이미 공주의 이름을 종알거렸다.

“에. 이. 미.”

“아도라,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기뻐.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살포시 안았다. 목각인형은 공주의 깊은 관심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마음은 더없이 좋았다.

에이미는 아까부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많이 상하고 부서진 목각인형의 몸이었다.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목각인형의 몸은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언짢은 느낌을 빨리 떨쳐버리려는 듯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다친 몸을 지금 당장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아도라, 지금 나와 함께 갈 데가 있어. 이 건물 앞에는 커다란 정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정원을 ‘분수의 정원’이라고 불러. 그 정원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큰 길을 따라 십 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구불구불 굽은 산길처럼 좁고 거친 샛길이 나타나. 그 샛길은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수리소까지 이어져있어. 그 수리소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솜씨 좋은 수리공 할아버지가 살고 있지. 거기에 가면 너의 부러진 팔과 망가진 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걸 가지고…….”

에이미는 방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는 바퀴가 네 개 달린 짐수

레를 침대 앞으로 끌고 왔다. 그 짐수레는 공주가 어릴 때 자기보다 커다란 인형을 수리소로 옮길 때 사용하던 수레였다.

“아도라, 이 수레 안으로 들어가.”

“수레 안으로요?”

“응, 다리가 많이 상했으니 걷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저 침대 위에 있는 팔처럼 똑 하고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목각인형은 잠자코 공주의 말을 따라 짐수레 안으로 들어갔다. 수레는 그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작아서 그는 할 수 없이 두 다리를 수레 밖으로 빼내었다. 다리를 빼고 앉으니 몸이 꼭 끼지 않아 그나마 편하게 앉을 수 있었다.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거니까. 아차! 내가 중요한 걸 깜박할 뻔 했네. 이걸 안 가져 가면 큰일나지.”

에이미는 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목각인형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그 팔을 수레 안에 앉아있는 목각인형의 몸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수리소에 가서 몸을 고치면 한결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도라, 너는 오늘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는 거야. 자, 그럼 수리소를 향해서 출발!”

공주의 방을 나오자 긴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에는 고풍스러운 문양이 뽀뽀하게 새겨져 있는 타일이 깔려있었다. 매끄럽게 포장된 바닥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눈이 부실만큼 광택이 났다.

“우와! 멋있다.”

긴 복도의 끝에는 아래로 원을 그리며 내려가는 원형계단이 이어져있었다. 원형계단의 폭은 상당히 넓고 높이는 낮아서 경사가 그리 가파르지는 않고 완만했다. 하지만 목각인형이 보기에 수레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였다.

에이미는 불안해 하는 목각인형을 바라보며 방긋 웃음을 지어 보였다.

“네 생각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네?”

“위험하지 않다고. 수레를 타고 내려가도 말아야.”

목각인형의 정신이 뭐가 원지 모르고 어리둥절한 틈을 타서 에이미는 팔 소매를 빠르게 걷어 올렸다. 그리고 수레의 손잡이를 껏 잡고 목각인형에게 소리쳤다.

“아도라, 수레를 껏 잡아야 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려 간다.”

“네? 내려간다고요? 잠깐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도라, 나만 믿어.”

에이미는 원형계단을 향해 수레를 힘차게 밀었다. 수레가 원형 계단에 다다르자 두 발로 땅을 박차고 수레의 끝에 매달렸다.

“야호!”

수레는 마치 힘 좋은 야생마가 끄는 마차처럼 계단을 향해 질주하듯 나아갔다. 수레는 툭툭 튀어 오르며 계단을 내려갔다. 수레가 튀어 오를 때마다 목각인형의 몸이 들쭉거렸고 그의 몸 위에 올려진 팔은 박자를 맞춰가며 툭툭 춤을 추었다.

목각인형은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다.

“아. 아. 안. 돼. 애. 애. 사. 알. 려. 저. 어.”

비명소리는 마치 태엽이 딱딱거리며 풀리는 것처럼 수레가 튕길 때마다 떨렸다. 수레의 속도는 계단을 내려갈수록 점차 빨라졌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수레는 더 크게 흔들리고 튀어 올랐다. 결국 목각인형은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꼭 숙였다. 얼굴은 겁을 먹어 하얀 백지장을 보듯 창백해졌고 분홍빛 입술은 핏기를 잃어 파래졌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손은 위태로운 수레를 껏 잡은 채 부들부들 떨었다. 에이미는 고개를 숙인 목각인형의 얼굴을 억지로 들어 올리고 소리쳤다.

“아도라! 겁내지마. 그냥 나처럼 소리를 크게 질러봐. 그러면 두려움은 곧 사라지고 황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함께 소리치는 거야! 야호!”

수레는 마치 술에 취한 듯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달려나갔지만 다행히도 계단을 무사히 내려왔다. 에이미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목각인형에게 말했다.

“어때? 내가 나만 믿으라고 했지. 아도라는 무슨 겁이 그리 많아?”

“공주님, 저기…….”

목각인형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점점 가까워지는 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단단한 벽은 마치 두 사람을 덮치려는 듯 성큼성큼 다가왔고 수레는 벽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갔다.

“아도라! 어떻게 좀 해봐! 이대로라면 벽과 부딪치겠어!”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머리를 꼭 안으며 소리쳤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에 넘쳤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려는 듯 목각인형을 다그쳤다.

“네? 뭐라고요?”

목각인형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가는 눈을 뜨고 에이미를 째려보았다. 벽이 아주 가까워 지자 에이미와 목각인형은 겁을 잔뜩 먹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소리쳤다.

“누가 좀 살려주세요!”

순간 거대한 손이 수레를 잡아 세웠다. 수레가 갑자기 멈추자 수레에 매달려있던 에이미와 목각인형의 몸이 앞으로 크게 흔들렸다. 두려움에 혼쭐난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린 탓인지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했다.

에이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후유! 살았다.”

콩닥콩닥 뛰었던 가슴을 가라앉히고 난 뒤에야 공주는 수레를 멈춰 세운 남자를 올려다볼 수 있었다. 공주의 눈에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의 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주 컸고 몸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단단해 보였다. 얼굴은 무엇에 성이 난

것처럼 검붉은 색을 띠었다. 그리고 턱 주변에는 아주 검고 짙은 턱수염이 마치 땅을 깊게 파고드는 질긴 뿌리처럼 길게 돌아나 있었다. 쌍꺼풀이 없는 얇은 눈과 두드러진 광대뼈는 그의 인상을 한층 어둡고 무섭게 만들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게 했다.

에이미는 수레에서 내려와 중년의 남자에게 공손히 고마움을 표시했다.

“마르켈루스 경,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켈루스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굵은 목소리로 공주의 잘못을 꾸짖었다. 그는 얄밟게 빈정거리며 철없는 공주를 비웃었다.

“에이미 공주님, 지금 하신 행동은 지체 높으신 공주님이 하시기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되는군요. 부디 왕국의 품위를 깎아 내리는 이런 철없고 생각 없는 행동은 삼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켈루스가 잘못을 호되게 꾸짖자 에이미는 인상을 찌푸렸고 뽀로통하게 서있었다.

“마르켈루스 경, 부탁이니 아빠 아니 아바마마한테 이번 일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그건 앞으로 공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율리우스 전하께서 방금 전에 일어난 말썽을 듣게 되신다면 공주님의 철없는 행동에 적잖이 실망하실 겁니다.”

에이미는 다시 한번 부탁했다.

“앞으로 행동을 조심할 테니 오늘 일은 아바마마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르켈루스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는커녕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고 그저 공주를 내려다 보았다.

“에이미 공주님, 실례합니다만 중요한 대신회의가 곧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르켈루스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회의실로 걸어갔다.

에이미는 마르켈루스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쏙 내밀었다.

“메롱.”

에이미는 속이 상한 듯 수레의 가장자리에 턱을 살며시 얹고 투덜댔다.

“난 마르켈루스가 싫어. 그는 나의 잘못을 볼 때마다 고자질쟁이처럼 아빠한테 일러바치거든. 근데 말이야 설마 진짜로 마르켈루스가 오늘 일을 아빠에게 일러바치진 않겠지? 그렇지, 아도라?”

“그럼요. 설마 진짜 이르기야 하겠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대답을 듣자마자 환한 미소를 되찾았고 다시 수레를 힘차게 밀었다.

계단아래에는 둥그런 홀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꽤 크고 넓었다. 홀에는 몇 개의 복도와 계단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었고 각각의 통로를 따라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또한 홀의 양쪽 벽에는 경건함이 물씬 풍기는 조각상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꽤 엄숙하고 고귀했다. 건물의 입구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그들은 공주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경례를 했다. 보초들의 힘찬 경례소리와 함께 에이미는 수레를 밀며 건물 밖으로 나갔다.

건물 밖을 나서자 푸르른 나무와 오색찬란한 꽃들이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 나타났다. 정원의 가운데를 얼룩 하나 없는 하얀색 대리석 길이 가로질렀고 그 길 옆에는 싱싱한 풀잎 향을 뿜어내는 꽃나무들과 은은하고 희미한 향기를 쏘아내는 꽃들이 있었다.

그런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에서 유독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정원의 중간에 위치해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분수대였다. 그 분수대의 모든 벽에는 세밀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몹시 다채롭고 우아했다. 또한 그 분수

대에서는 유리보다도 투명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수십 개의 물줄기가 한꺼번에 하늘을 향해 치솟는 광경은 마치 수많은 폭죽이 온 하늘을 수 놓을 때처럼 경탄을 자아냈다.

목각인형은 그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수가. 정말 이 곳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도라도 이 정원이 마음에 드나 보네. 나도 이 분수의 정원을 정말로 좋아해.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곧 도착하게 될 수리소도 이 정원처럼 네 마음에 쏙 들 거야.”

에이미는 수리소를 향해 수레를 힘차게 밀었다.

CHAPTER TWO

행복을 조각하는 노인의 집

“힘찬 망치 소리와 거친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흘러나오는 수리소 안에서 늙은 수리공은 마치 낡은 동화책에나 있을 법한 오래되고 슬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통나무로 지어진 수리소에서는 힘찬 망치 소리와 거친 톱질 소리가 마치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흘러 나왔다. 소리는 매우 흥이 나서 그 소리에 맞춰 춤이라도 출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굴뚝에서는 수증기와 검은 연기가 번갈아 가며 뭉게뭉게 피어 올랐다.

조금 더 걸어가자 낮게 둘러쳐진 울타리가 보였다. 나무 줄기로 엮어진 울타리의 맨 꼭대기에는 소나무를 잘라 만든 문패가 하나가 걸려있었다. 그 길다란 문패에는 ‘행복을 조각하는 노인의 집’이라 쓰여있어 수리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듯 했다.

“다 왔다. 여기가 바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장인이 사는 수리소야. 너도 안데르센 할아버지를 만나보면 이 낡은 수리소가 얼마나 멋진 곳인 줄 곧 알게 될 거야.”

울타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꽤 넓은 마당이 나타났다. 널찍한 마당 안에는 잘 패어진 통나무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어서 보기에 좋았다. 잘 정돈되어있는 통나무들과는 다르게 부서진 여러 잡다한 물건들은 마당 구석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지만 어지러이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을 보는 것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거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런 어수선했던 풍경은 수리소라는 이름에 더 어울렸다.

에이미는 수레를 앞마당에 세워둔 채로 늙은 수리공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안데르센 할아버지! 저 왔어요!”

수리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인은 에이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소녀를 맞이하기 위해 낡은 문을 활짝 열었다.

“아이구, 저의 소중한 꼬마 숙녀님께서 오셨군요.”

안데르센은 반가움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양팔을 벌려 소녀를 맞이했다. 에이미는 노인의 품으로 곧장 달려들었다. 노

인은 공주를 번쩍 들어 안고는 소녀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다.

“꼬마 숙녀님, 오늘은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을 방문하십니까?”

에이미는 안데르센의 질문에 고개를 돌려 수레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목각인형을 손으로 가리켰다.

“오늘도 망가진 인형을 고치러 이 늙은 수리공을 찾아 오셨군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꼬마 숙녀님.”

안데르센은 에이미를 품에서 내려놓고 수리소 안에 있는 둥근 식탁으로 인도했다. 그 식탁 주위에는 통나무 의자가 여러 개 있었는데 어린 소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작은 통나무 의자가 특히 눈에 띄었다.

에이미는 마치 자기집에 온 듯 아주 편하게 그 작은 통나무 의자에 앉았다. 안데르센은 기다렸다는 듯이 낡은 옷장에서 커다란 곰 인형을 꺼냈다. 그 곰 인형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천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은 폭신평신했던 솜으로 가득 차있었다.

에이미는 인형이 망가지면 어김없이 안데르센을 찾아왔고 늙은 수리공이 망가진 인형을 고치는 동안 통나무 의자에 앉아 예쁜 곰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꼬마 숙녀님께서 좋아하시는 곰 인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 늙은 수리공은 밖에 있는 인형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안데르센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에이미에게 곰 인형을 건넸다. 그리고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걸음거리로 수레를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갔다. 어린 소녀는 할아버지의 재미난 행동에 빙그레 웃었다.

“보자, 오늘은 우리 꼬마 숙녀님께서 어떤 인형을 가지고 오셨나?”

안데르센은 수레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목각인형을 유

심히 관찰했다. 그는 생명의 축복이 깃들어 있는 목각인형의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목각인형을 조심스럽게 안아 수레에서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형이구나.”

안데르센은 목각인형을 집안으로 옮겨와 책상 위에 앉혔다. 책상 위에는 방금 전까지 그가 고치고 있던 망가진 물건들이 올려져 있었다. 그 물건들 옆에 놓여져 있는 낡은 망치와 손때가 묻은 작업 도구들은 그의 오랜 경력을 소리 없이 말해주었다.

“생명의 축복을 받은 인형아, 이 늙은 이의 보잘것없는 이름은 안데르센이라네. 자네의 이름은 무엇인가?”

목각인형은 씩스러운 듯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도. 라.”

“아도라라.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구나.”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던 에이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안데르센을 향해 종종거리며 달려왔다.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노인의 소매를 쉴새 없이 잡아당겼다. 안데르센이 고개를 숙여 어린 공주와 눈 높이를 맞추자 공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귀에 입을 바싹 들이대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아도라란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새로운 친구에게 멋진 이름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로요? 공주님께서 이 인형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주셨군요.”

안데르센은 공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나서 일을 시작하려는 듯 소매 위에 토시를 끼었다.

“어디 한번 일을 시작해 볼까나? 아도라야,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해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야.”

안데르센은 책상 위에 올려진 여러 물건들을 정리하고 난 뒤

목각인형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는 부러진 팔과 검붉은 이끼로 감싸진 다리를 목각인형이 아프지 않도록 조심스레 떼어냈다. 사람처럼 부드러운 피부의 팔과 다리는 목각인형의 몸에서 떨어지자마자 생명의 축복을 잃어 딱딱하고 거친 나무로 빠르게 변했다.

“어디 보자. 어느 나무를 깎는 것이 좋을 까나? 아! 그러고 보니 어제 들어온 좋은 통나무가 있었지. 아도라야, 너는 참으로 운이 좋구나. 이런 질 좋은 소나무 통은 여간 해서 들어오지 않는데 말이야.”

안데르센은 능숙한 솜씨로 단단하고 곧은 나무를 깎아서 새로운 팔과 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팔과 다리를 목각인형의 몸에 조심스레 붙였다. 그러자 방금 붙여진 팔과 다리로 목각인형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축복이 흘렀다. 그러자 딱딱하고 거칠었던 나무는 서서히 진짜 사람의 피부처럼 생기 있고 부드럽게 변해갔다.

“단단한 나무가 사람의 피부처럼 변하다니, 내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신기한 일로구나.”

안데르센은 다시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심한 손길로 목각인형의 엉덩이에 피어있는 곰팡이를 떼어냈다. 그리고 습한 공기로 인해 무르고 약해진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한 약품을 목각인형의 온몸에 꼼꼼하게 발랐다.

일이 다 끝나자 안데르센은 나무 가루로 인해 더러워진 손을 툭툭 털고 사용한 도구를 도구함안에 넣어 정리하였다. 책상을 말끔히 정리하고 난 후 그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목각인형을 한번 쪽 훑어보았다.

“어디 보자. 참으로 보기가 좋구나. 어때 이 늙은 수리공의 말대로 하나도 아프지 않았지?”

“예,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데르센 할아

버지.”

“고맙기는, 오늘 작업은 아주 즐거웠단다. 경험이 많고 인형을 사랑하는 장인이려면 인형의 몸에 새겨진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단다. 바로 그 인형의 재질이나 표정, 작은 문양하나를 통해서 말야. 너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인형들과 매우 다르단다. 너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

목각인형이 물었다.

“제가 특별하단지요?”

“아도라야, 너의 아름다운 얼굴과 단단한 가슴속에 감춰진 투명한 심장에는 아주 슬프고 애절한 사연이 깃들여 있단다.”

곰 인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던 에이미는 안데르센의 말에 신기해 하며 물었다.

“안데르센 할아버지, 투명한 심장이란지요?”

“에이미 공주님, 공주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아도라의 가슴 속에는 수정 같이 투명한 심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심장은 바로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로 만들어졌답니다.”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도라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요정의 눈물로 만들어진 심장이 아도라에게 생명의 축복을 내려주기 때문이죠. 아도라의 행동 하나 하나가 바로 수정 같은 심장이 내뿜는 생명의 축복 때문에 가능한 거랍니다.”

안데르센은 책상 위에 앉아있는 목각인형을 살포시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아도라의 아름다운 얼굴과 수정같이 투명한 심장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여 있는 거죠?”

에이미는 그 사연이 몹시 궁금한 듯 안데르센에게 달려들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이에 늙은 수리공은 공주와 목각인형을 통나무 의자에 앉힌 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데르센의 이야기 - ‘불의 요정’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온 세상은 차가운 눈으로 덮여있었고 요정을 포함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추운 산에는 작은 요정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마치 살을 베는 듯한 거센 바람이 항상 불어 왔고 숨마저도 얼려버릴 눈보라가 끝없이 날려왔다. 그리고 십 년에 한번씩 그 모든 것을 절망과 공포로 몰아넣는 얼음 비가 요정의 마을에 휘몰아쳤다.

요정의 마을에는 춤을춰서 불을 만들어내는 불의 요정이 살았다. 그 불의 요정이 느린 춤을 추면 주위에는 따스한 불의 바람이 불었다. 그와 반대로 그가 격렬한 춤을 추기 시작하면 주위에는 아무리 차가운 얼음이라도 녹여버리는 뜨거운 불의 폭풍이 불었다.

불의 요정은 한가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의 딸인 아름다운 요정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다. 불의 요정은 아름다운 요정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다.

“아! 저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비해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구나.”

불의 요정은 불의 축복을 받은 대신 보통 요정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다른 모든 요정이 가지고 있는 황금빛 머리카락과는 다르게 타오를 듯 한 붉은 빛을 띠었다. 그에게는 멋진 춤을 출 수 있는 가느다란 팔과 다리가 주어진 대신 요정의 자랑인 멋진 날개가 없었다. 평범하지 않는 겉모습은 다른 요정들이 불의 요정과 사귀기를 꺼려하며 그를 따돌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다른 요정들은 불의 요정을 손가락질하며 놀려댔다.

“이 날개도 없는 장애인아. 너는 날개가 없으니 이 요정의 마

을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 그 얇은 다리로 어서 마을에서 사라져! 아니면 그 가는 팔을 싹싹 비벼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구걸을 하고 빌어보던가? 하하하.”

불의 요정은 다른 요정들의 심한 말을 참아가며 고독과 슬픔을 곹씹었다.

“신은 왜 나를 이런 모습을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

불의 요정은 한숨을 쉬며 일터로 향했다. 그는 불이 꺼진 집을 방문하여 꺼진 불씨를 되살리는 일을 했다. 그가 집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집안은 곧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가끔씩 그는 난로를 향해서 세차게 발을 굴러서 뜨거운 불의 기동을 만들었다. 불기둥은 난로 안에 쌓여있는 장작을 휘감고 돌아 장작은 이내 아름다운 색을 내며 불타올랐다.

불의 요정은 불씨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아주 적은 돈을 받았지만 보수가 적다는 것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질 않았다. 그는 이세상 그 무엇보다도 춤을 사랑했다. 그가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동작들은 그의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요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의 아름다운 춤을 바라보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요정을 제외하고는…….

어느 추운 겨울 밤, 불의 요정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요정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불의 요정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아름다운 요정은 불의 요정에게 부탁했다.

“불의 요정 님, 집에 불이 꺼져서 그러는데 바쁘지 않으시다면 저의 집에 가서서 불씨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불의 요정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름다운 요정에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서 불씨를 살려드리겠습니다

다.”

불의 요정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눈과 온 세상을 포근하게 울리는 감미로운 목소리는 아름다운 요정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녀는 불의 요정과 함께 집으로 갔다. 차갑게 식은 집에 들어서자 불의 요정이 말했다.

“집이 몹시 춥네요. 어서 빨리 불씨를 살려내야겠군요.”

불의 요정은 아름다운 요정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가느다란 팔과 다리는 아름다운 선을 그리며 움직였고 타오를 듯이 붉은 머리카락은 그의 춤사위와 함께 따스하게 찰랑거렸다. 집은 곧 온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불의 요정은 잠시 춤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춤에 담습니다. 그대가 이 춤을 보지 않아도, 그대가 이 춤의 의미를 알지 못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위해 춤을 출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불의 요정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고 뛰어난 기교가 섞인 춤속에 그녀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담았다. 작은 손놀림 하나하나에 그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베어있었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발 동작 하나에도 그녀를 위한 마음이 새겨져 있었다.

불의 요정의 열정적인 사랑은 춤을 통하여 아름다운 요정의 마음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그녀는 불의 요정의 춤 속에 녹아있는 사랑을 느끼며 그의 눈 속에 비치는 슬픔, 고독, 외로움을 감싸주고 싶었다.

‘불의 요정이여,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춤을 추는 당신의 모습은 저의 가녀린 마음을 울립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감미로운 춤을 추는 그대의 눈빛은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아, 그대의 입은 굳게 닫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저는 그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춤을 통해, 아니 저 아름다움을 통해…….’

불의 요정의 춤이 끝나자 아름다운 요정은 땀에 젖어 숨을 헐떡이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에게 다가가 불에 살며시 키스를 했다.

“고마워요. 나의 불의 요정이에요.”

불의 요정은 갑작스럽고 뜻하지 않는 그녀의 행동에 매우 당황하였지만 그는 곧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녀를 가슴 깊이 안았다. 아름다운 요정 또한 그를 가슴 깊이 안았다. 불의 요정은 아름다운 요정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나의 영혼이여. 나의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여. 어떠한 고난, 슬픔, 절망이 나를 찾아온대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불의 요정이여, 당신의 황홀하도록 아름다운 춤이 불러오는 사랑에 저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몸과 마음은 그대의 곁에서 영원히 지지 않을 사랑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유일한 사랑이여.”

두 사람의 돌발적인 행동에 화들짝 놀란 아름다운 요정의 부모님은 야단스럽고 거칠게 두 사람을 떼어 놓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치 도둑을 내몰 듯 불의 요정의 멍살을 잡고 그를 문밖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심한 욕을 내뱉으며 그를 집에서 내쫓았다.

“어디 감히 천하디 천한 녀석이 우리 딸을 넘보는 거냐? 너 같이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놈에게 내 소중한 딸을 줄 순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감히 자기 주제를 모르고 설치다니. 두 번 다시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어서, 이 돈이나 받고 썩 꺼지거라!”

아름다운 요정의 아버지는 돈주머니를 길바닥에 획 집어 던지고 나서 문을 광 하고 닫았다. 그는 불의 요정을 내쫓은 후에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며 화를 삭였다.

“저런 미천한 놈이 감히 누굴 넘봐.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그의 몰상식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불의 요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 앞에 서서 아름다운 요정을 향하여 소리쳤다.

“나의 영원한 사랑이여. 그대를 위해 나의 마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의 불을 일으키겠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의 불을.”

그 날 이후로 불의 요정은 매일마다 그녀의 집 앞을 찾아가 사랑의 춤을 추었다. 아름다운 요정은 부모님의 감시 때문에 창 밖으로 불의 요정의 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춤이 불러오는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부모님의 모진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다.

며칠이 지나고 요정의 마을은 축제준비로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요정의 아버지 또한 축제를 준비하느라 몹시 바쁘게 뛰어다녔다. 마을 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멀리 떨어진 옆 마을 시장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 일은 그가 혼자 다루기에는 너무 벅찼다. 그래서 그는 딸을 불러 부탁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이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느냐? 오늘 바람의 계곡을 지나 이웃마을 시장에 다녀올 거란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약속된 시간 안에 일을 마무리해야 한단다. 그런데 이 일을 나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조금 벅찰 듯싶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한단다.”

“예,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요정의 아버지는 역참에 가서 튼튼하고 커다란 마차를 빌려 왔다. 요정의 마차는 참으로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수레를 끄는 말의 모양이 괴상하기 그지없었다. 말의 등에는 커다란 날개가 달려있었는데 모든 말이 등에 한 쌍의 날개가 아닌 한 개의 날개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가진 말과 왼쪽 날개를 가진 말이 서로 짝을 이뤄야만 마차를 끌고 하늘을 날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딸아. 어서 마차에 오르려무나. 오늘 여행은 바람의 계곡을 지나야 하니 조금 힘들고 불편한 여행이 될 것 같구나.”

“아버지,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정의 아버지가 말의 엉덩이에 채찍을 휘두르자 말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요정의 마을을 떠난 지 반나절이 지나자 마차는 산에서 가장 험하다는 바람의 계곡을 통과하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산 정상에서는 눈보라가 일어나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하늘은 알 수 없는 괴성을 질러댔고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날카로운 번개를 내리꽂았다. 산을 덮고 있던 눈들이 하늘 높이 빨려 들어가더니 이내 주먹보다도 큰 얼음이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공포스런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바로 십 년에 한번 모든 것을 차가운 얼음 속으로 묻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얼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 얼음 비예요! 어서 빨리 이 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얼음 비에 갇혀서 움짱달짝 못하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요정은 아버지에게 다급히 소리쳤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때는 늦었다. 마차는 엄청난 양의 얼음 조각들에 파묻혀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정없이 쏟아지는 주먹보다도 큰 얼음 조각들은 두 사랑의 심장을 마비시킬 정도로 큰 공포와 절망을 가져왔다.

한편 요정의 마을에서는 산 정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먹구름을 보고 사람들 모두 대피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사는 모든 요정들은 최소한의 먹을 거리와 담요를 가지고 마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대피소로 향했다.

“나의 사랑도 무사히 대피를 했을까? 이제 곧 있으면 이 마을에 얼음 비가 휘몰아칠 텐데.”

불의 요정은 아름다운 요정이 걱정되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뜻밖에도 그녀의 집에서는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불의 요정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아름다운 요정의 어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이 꺼질 듯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절규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왜 대피를 하지 않으시고 서글프게 울고만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요정의 어머니는 불의 요정을 발견하고는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불의 요정이며, 가엾은 나의 남편과 딸을 도와주세요. 그들은 지금 바람의 계곡을 휘몰아 덮친 차가운 얼음 비에 갇혀서 서서히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고 있을 겁니다.”

불의 요정은 아주머니의 말에 크게 놀라 되물었다.

“지금 두 사람이 바람의 계곡에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지금 바람의 계곡을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으며 두 사람의 구조를 냉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요정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아름다운 요정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불의 요정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불의 요정은 대답했다.

“제 생명이 차가운 얼음 비속에 묻혀 꺼지더라도 그 두 사람을 기필코 구조해오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믿고 어서 대피소로 몸을 피하세요.”

불의 요정은 아주머니를 대피소로 피신시킨 다음 바람의 계곡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의 생각은 오로지 아름다운 요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아름다운 요정이 무사하기를 바랐다.

“아름다운 요정이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구해드릴게요.”

바람의 계곡에 다다른 자 하늘에서는 주먹보다도 큰 얼음조각들

이 퍼붓듯이 세차게 내렸고 차가운 공기는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의 몸은 떨어지는 얼음조각에 맞아서 피투성이로 변했다. 그의 머리카락처럼 붉은 피가 다친 상처로부터 흘러나왔고 그 상처 안으로 얼음보다도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갔다. 하지만 어떠한 고통도 그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불의 요정이 바람의 계곡을 반정도 지났을 때 자그마한 얼음언덕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의 요정은 소리가 들리는 언덕으로 다가갔다. 그 얼음 언덕 안에는 아름다운 요정과 그녀의 아버지가 타고 있는 마차가 갇혀 있었다.

“여깁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름다운 요정의 아버지는 딸을 꼭 껴안고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사랑하는 딸에게 입히고 그 자신은 매서운 추위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불의 요정을 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불의 요정 님, 저의 나약한 생명은 매서운 추위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앞에 이르렀지만 사랑하는 딸은 아직도 추위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요정의 아버지는 불의 요정에게 딸을 부탁하고 난 뒤 차가운 마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아름다운 요정은 아버지의 힘겨운 숨이 끊어지자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의 시신을 안고 마치 비명을 지르듯 절규했다.

“아버지……. 안돼요. 제발…….”

한참을 흐느낀 뒤에 아름다운 요정은 얼음 벽 바깥에 서있는 불의 요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온몸은 커다란 얼음조각들의 부딪혀 찢어지고 부서져 새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어서 저를 버리고 이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

여 버린 바람의 계곡을 떠나세요. 저를 구하려고 여기에 계속 남아있다면 차가운 얼음이 그대마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데려갈 것 이에요. 그러니 제발 저를 위해 그대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지 마세요.”

불의 요정은 피로 물들은 입술을 움직여 대답했다.

“아름다운 요정이며, 그대 없는 삶은 나에게는 지옥과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대를 남기고 이 바람의 계곡을 혼자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당신을 꼭 구할 것입니다.”

불의 요정은 휘몰아치는 얼음 비속에서 시퍼런 피멍이 든 팔을 움직였다. 그는 마차를 가두고 있는 얼음을 녹이기 위해 격렬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손동작은 거대한 파도처럼 차가운 공기를 갈랐고 긴 두 다리는 사나운 말처럼 대지를 힘껏 밟았다. 곧 거대한 불의 기둥이 솟아올랐고 불의 기둥은 아름다운 요정이 갇혀 있는 얼음언덕을 순식간에 녹여버렸다.

마차를 둘러싸고 있던 얼음이 반쯤 녹아 내리자 불의 요정은 이제 부드럽고 느린 춤을 추었다. 그러자 불의 요정의 주위에는 따스한 불의 바람이 일었고 마차는 이내 온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불의 요정의 몸은 떨어지는 얼음에 부딪혀 찢어지고 멍들었다. 그의 몸은 심하게 부서지고 있었지만 불의 요정은 춤을 멈추지 않았다.

“사랑하는 불의 요정이며, 부디 그 잔인한 춤을 멈추어 주세요. 어서 저를 버리고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세요.”

아름다운 요정은 흐느끼며 마지막 혼을 불태우는 불의 요정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마차를 반쯤 둘러싼 얼음들 때문에 마차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불의 요정은 그녀를 향해 너무나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있기에 나의 삶은 너무나도 값지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만을 위한 나의 마지막 춤을 보아주세요. 이

것이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불의 요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슬펐다. 혼을 담은 춤이 일으키는 거대한 불의 바람은 온 대지에 따스한 온기를 퍼트렸다. 이에 세상을 덮고 있던 눈들은 모두 그 차가움을 잃어버린 채 녹아 내렸다. 그렇게 불의 요정의 생명도 녹아 내렸다.

마차를 가두고 있던 얼음도 녹아 내리자 아름다운 요정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는 불의 요정을 향해 달려갔다.

“안돼. 안돼. 나의 사랑아, 제발 다시 숨을 쉬어요. 얼른 일어나서 그대의 따스한 품으로 나를 다시 안아주세요. 그대의 뜨거운 입술로 나에게 다시 키스해주세요. 제발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하지만 불의 요정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불의 요정여, 제발 그 아름다운 두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그대의 춤으로 따스해진 세상에 저를 혼자 두고 떠나지 마세요. 그대 없는 세상은 저에게 아무 고통으로 가득 찬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없이 누워있지 말고 제발 푸른 대지를 박차고 일어나주세요.”

하지만 불의 요정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요정은 상처투성인 그의 시신을 안고 절규했다.

“하늘이시여, 나의 사랑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따스한 춤을 저에게 빼앗아가지 마시옵소서. 부디 그에게 내려진 생명의 축복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푸르른 하늘은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지우려는 듯 따스한 봄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몸을 부둥 껴 안고 흐느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따스한 대지를 향하여 떨어졌고 땅으로 떨어진 사랑의 눈물은 곧 이슬처럼 맑은 보석이 되었다.

The End

안데르센은 이야기를 마치고 에이미와 목각인형에게 조용히 말했다.

“만약 세상에 사랑과 희생이 존재하질 않는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차가울 겁니다.”

에이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곰 인형을 꼭 껴안았다.

“할아버지, 불의 요정이 너무 불쌍해요.”

목각인형은 노인의 말에 감동을 받은 듯 큰 눈을 자주 깜빡였다. 노인은 울먹이는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갔다.

“아도라를 만든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인형 장인입니다. 그는 한때 왕국에서 가장 실력 있고 잘나가는 인형 장인이었죠. ‘살아있는 인형을 만드는 손’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솜씨가 빼어났던 그는 저의 오래된 스승이자 가족이었지요. 그는 저의 친 할아버지였답니다.”

에이미가 물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도라를 만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엄청난 행운이 저의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행운이요?”

“예, 참으로 엄청난 행운이었죠. 그는 모든 장인이 가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 조각을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 요정의 눈물 조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오묘한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 눈물 조각은 어떠한 보석보다도 진귀하고 가격이 비싼 보석이었죠. 할아버지가 얻은 눈물 조각은 그 크기가 어른 주먹보다도 커서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불행 또한 그를 찾아왔죠.”

에이미는 곰 인형을 꼭 껴안고 몹시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도대체 안데르센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할아버지가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 조각을 얻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애를 배어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나두고 저 세상 사람이 되었죠.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자 고통과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자 고통과 슬픔은 점점 무더졌고 그 빈자리를 그리움이 채워갔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아들과 닮은 목각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는 아들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그 목각인형을 만들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무려 십 년 동안 아들을 되살린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목각인형을 만들었죠.”

에이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려 10년이나요?”

“예, 할아버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을 건디며 목각인형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완성한 인형은 그 어떤 인형보다도 완벽했고 어느 인형 장인도 함부로 범접 못할 위대한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인형의 겉모습이 다 완성이 되자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 조각을 인형의 가슴 깊이 넣어두었죠.”

“왜 그 요정의 눈물 조각을 인형의 가슴 속에다 넣어두었나요? 그 보석은 값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진귀한 보석이었던가요? 그 보석을 시장에다 내다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인형 장인들에게 내려져 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 조각을 가진 인형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가지 너무나도 잔인한 조건이 있었지요.”

목각인형은 다음 이야기를 매우 궁금해했다.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진정시키며 안데르센에게 물었다.

“잔인한 조건이라니요?”

안데르센은 목각인형을 바라보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인형이 생명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인형을 만든 인형 장인의 생명이었단다. 인형 장인은 그가 만든 인형에게 생명을 주고 그 자신은 재가 되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지. 어느 추운 날, 저의 할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인형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단다.”

에이미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도 아도라에게 생명을 주고는 재가 되어 돌아가신 건가요?”

안데르센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곧 늙은 수리공의 가슴속에는 빛 바랜 추억이 차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도라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다.

“아도라야, 나는 오늘 너를 고치며 너무나도 기뻐한다. 나의 할아버지가 만든 최고의 작품을 볼 수 있다니, 그리고 한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지금 나……나는 너무 행복하단다.”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된 안데르센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가족을 추억하며 조용한 눈물을 뜨겁게 흘렸다.

CHAPTER THREE

슬픈 소녀

“어린 공주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었지만 한가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의 가족의 따스한 사랑과 작은 관심이었다.”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자 궁전의 나팔수는 상쾌한 기상나팔을 불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돌아왔지만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꺼안은 채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목각인형은 침대에 누워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습하고 외로웠던 지하 방에서 어린 소녀와 운명적인 만남, 화려한 궁전, 안데르센 할아버지의 슬픈 이야기 등등 어제 벌어졌던 그 모든 일은 목각인형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 만약 이것이 꿈이라면 영원히 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각인형은 어제 수리소를 떠나기 직전에 안데르센 할아버지가 말한 충고를 떠올렸다. 늙은 수리공은 목각인형에게 우려 섞인 목소리로 당부했다.

“아도라야, 너의 몸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불을 조심해야 한단다. 특히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로 만들어진 심장은 불에 한없이 약하단다. 심장은 불에 닿는 즉시 절대 꺼지지 않는 진한 초록빛 화염에 휩싸일 거란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에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만약 어쩔 수 없이 몸이 불에 노출되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뜨거운 불길이 가슴 속에 있는 심장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각인형은 안데르센의 충고를 곱씹으며 멍하니 천장을 응시했다.

“불이라…….”

목각인형이 혼자만의 생각에 푹 빠져있을 때 공주의 방으로 서둘러 달려오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어제 목각인형을 방으로 옮긴 로이스였다. 그녀는 방문을 세차게 열고 방 안으로 헐레벌떡 달려 들어왔다. 그리고 곧장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에이미를 흔들며 깨웠다.

“에이미 공주님, 어서 일어나세요. 지금 이렇게 늦게 일어나시다간 아침 식사 시간에 늦으시겠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에이미는 반쯤 뜨인 눈을 비비며 겨우 침대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소녀는 아직까지도 잠에서 덜 깬 듯 베개를 꼭 껴안고 있었다. 로이스는 팔을 잡아당겨 에이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개를 빼앗아 침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로이스는 침대를 정리하면서 침대 가장자리에 긴장한 체로 앉아있는 목각인형을 바라보았다.

“어! 이 인형, 어제는 매우 더러웠는데 오늘 다시 보니 아주 깨끗하네요. 어제 안데르센 할아버지에게 갔다 오셨어요?”

“응. 어제 오후에…….”

에이미는 졸린듯한 얼굴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눈은 아직도 반쯤 감겨있었고 자꾸 하품이 나왔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려고 두 팔을 하늘 높이 쪽 뻗어 기지개를 폈지만 쏟아지는 잠을 쫓을 수는 없었다.

로이스는 두 눈을 깜박이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목각인형을 내려다보았다. 목각인형은 갑작스런 소란에 크게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와! 어제 공주님께서 하신 말대로 사람처럼 살아 움직이네요. 모습 또한 진짜 사람 같고요. 만약 공주님께서 제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목각인형이라고 말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도 이 인형이 사람인줄 알았을 거예요.”

로이스는 목각인형이 마냥 신기한 듯 그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훑어보았다.

“아차! 생명의 축복을 받은 목각인형아, 어제는 네가 기절해 있어서 말을 하진 못했지만 우리 공주님을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 아니예요.”

목각인형은 쑥스러운 듯 두 볼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로이스는 에이미를 따뜻한 물이 담겨 있는 세숫대야로 떠밀듯이 데려갔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공주의 얼굴을 정성스레 씻었다. 말끔해진 얼굴에 남아있는 물기를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마자 로이스는 옷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녹색 바탕에 흰색 무늬가 잘 어우러진 드레스를 옷장에서 꺼내 그 옷을 공주에게 입혔다.

에이미는 거울을 바라 보며 아직도 졸린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품을 늘어지게 했다.

“에이미 공주님, 옷도 다 입으셨으니 이제 그만 눈꺼풀 위에 얹어있는 졸음을 쫓아내셔야죠.”

“응. 알았어.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꾸 졸리네.”

“어제 그렇게 정신 없이 장난을 치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니 몸이 피곤할 수밖에요. 공주님, 잠시만 가만이 있으세요. 제가 머리를 빗어드릴게요.”

로이스는 에이미의 실크같이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빠른 손놀림으로 손질했다. 머리 손질이 끝나자 그녀는 화장대 구석에 놓여진 보석함에서 머리핀 하나를 꺼내었다. 그 머리핀에는 마치 포도송이처럼 은은한 빛깔의 진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있었다. 로이스는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예쁜 머리핀을 고정시켰다.

“에이미 공주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차려 입으시니 너무 예쁘시네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공주님께 그걸 말한다는 것을 깜박 잊고 있었네.”

“무슨 얘기? 중요한 이야기야?”

“예, 그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죠. 오늘 제가 공주님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답니다.”

“좋은 소식? 무슨 소식인데? 빨리 말해봐. 빨리.”

에이미는 로이스를 재촉했다.

“제가 동료들에게 들은 소식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는 율리우스

전하께서 친히 나오신답니다. 그리고 보니 공주님이 전하를 뵈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에이미의 아버지인 율리우스 왕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어린 딸을 만날 시간조차 충분히 가질 수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공주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식사 시간뿐이었지만 그것마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취소될 때가 많았다.

“정말? 정말로 아바마마가 오늘 아침 식사에 참석하신다고?”

“예, 정말이라니까요.”

에이미는 눈꺼풀 위에 앉아있던 졸음을 멀리 쫓아버린 듯 갑자기 활기차 보였다. 얼굴에는 미소가 한 가득 차 올랐고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로이스, 너무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에서야 알려주다니. 그러면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겠다.”

에이미는 몸을 분주히 움직였다. 공주는 한참 동안 부산스럽게 뛰어다니고 난 뒤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머리를 몇 번 만지더니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꼼꼼하게 살폈다.

“로이스, 오늘 내 모습 어때? 예뻐?”

“그럼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예쁜 요정 같으세요. 분명 율리우스 전하께서도 이렇게 예쁜 공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겁니다. 자, 이제 내려가셔야죠.”

로이스는 에이미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갑자기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로이스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이에 로이스가 물었다.

“에이미 공주님. 뭔가 부탁하실 게 있나요?”

에이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침대 가장자리에서 앉아있는 목각인형을 손으로 가리켰다.

“로이스, 아도라도 같이 가면 안돼?”

“아도라라니요? 혹시 저기 어제 방으로 옮겨온 인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좀…….”

로이스는 말끝을 흐려 에이미에게 확실한 대답을 해주질 않았다. 로이스에게 에이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리 썩 마음 내키는 일도 아니었다.

“로이스, 안 되는 거야?”

로이스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높이 들었다.

“어유, 공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저런 누추한 옷을 입고 궁 안을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새 옷으로 갈아 입혀야 해요. 제가 내려가서 목각인형에게 입힐 알맞은 옷을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로이스는 말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방을 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금색 실로 수놓아진 검은 정장 한 벌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목각인형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방금 가지고 온 정장을 입혔다.

“에이미 공주님, 이제 궁전식당으로 내려가야 해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가가는 정말로 식사 시간에 늦겠네요.”

로이스는 목각인형과 에이미의 손을 잡고 황급히 궁정 식당으로 달려갔다.

세 사람이 궁정 식당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다행히 율리우스 왕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전하께서 도착하시지 않았네요. 늦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에요. 이런 뛰어오느라 옷매무새가 말이 아니네요. 공주님,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 테니 잠시만 움직이지 마세요.”

로이스는 에이미의 옷 매무새가 정갈하고 단정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궁정 식당은 그야 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식당 내부는 마치 광장처럼 넓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천장은 뾰족한 탑처럼 높아서 마치 달과 별이 걸려있을 것만 같았다. 커다란 창문에는 휘장이 바람에 날려 하늘하늘 펄

력였는데 그 휘장은 청초한 꽃 문양이 황금 실로 빼곡히 수놓아져 있었다. 의자, 식탁, 아니 작은 수저 하나까지도 세밀한 장식이 새겨져 있었고 긴 식탁 위에 올려진 수많은 산해진미들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향기를 내뿜으며 후각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공주님, 어서 자리로 가시죠. 곧 있으면 율리우스 전하께서 도착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전하를 뵈시는 거니까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행동하시지 말고 양전히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응, 알았어.”

에이미는 종종걸음으로 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율리우스 왕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장한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율리우스 왕이 궁정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로이스는 자세를 낮추어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목각인형은 아무 생각 없이 서서 율리우스 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에 로이스는 목각인형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다.

“목각인형아, 어서 빨리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춰.”

“네? 고개를 숙이라고요? 왜 그래야 하죠?”

“이유는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우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서.”

로이스는 어쩔 수 없이 목각인형의 옷 소매를 당겨 그의 자세를 억지로 낮추었다. 다행히도 목각인형의 어수룩한 행동은 왕의 눈에 띄지 않았고 왕은 목각인형과 로이스를 그냥 지나쳐갔다. 에이미는 얼른 율리우스에게로 달려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아바마마, 소녀 아바마마께 문안인사 올리옵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 못 본 사이에 키가 더 큰 것 같구나. 오늘 우리 공주님의 예쁜 모습을 보니 이 아빠의 마음이 더욱 행복해지는 구나.”

율리우스 왕은 기분이 좋은 듯 에이미를 들어 다정하게 품에 안았다.

“그러고 보니 일주일 뒤면 우리 예쁜 공주님의 열세 번째 생일이구나. 그날 저녁은 이 아빠가 너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마.”

“네? 정말로요?”

에이미는 율리우스 왕의 뜻하지 않은 약속에 매우 놀랐다.

“그럼. 이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즐거운 생일 파티를 열 생각이란다. 아주 성대하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생일파티를 말이지. 기대해도 좋을 거란다.”

“생일 파티요?”

“그렇단다. 이 아빠는 너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항상 마음 속에 꺼림칙하게 남아있었던단다. 그래서 이번 생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보내리라고 다짐을 했지.”

“정말로 그날이 너무 기대돼요.”

율리우스는 품에 안겨있는 에이미를 의자에 앉혔다.

“자, 이제 행복한 식사시간을 가져볼까?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식사한지도 꽤 오래되었군. 어디 볼까?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왔나? 오늘 아침은 에이미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나왔군. 저기 있는 당근 요리를 제외하곤 말이야.”

“아니예요, 아빠. 저는 이제 음식투정 같은 것은 안 해요. 그리고 요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들어요.”

“그래, 그래야지. 몸이 약한 너에게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한달 전에는 네가 많이 아파서 매우 걱정하였단다. 요즘 들어 네가 예전보다 더 자주 아픈 것이 이 아빠의 가장 큰 근심거리이란다. 그러니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꼭 쉬려무나.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알려주렴. 바보처럼 꼭 참지 말고, 알겠지?”

“네, 아바마마, 꼭 알려드릴게요.”

율리우스는 에이미가 자랑스럽다는 듯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가 보여주는 작은 관심은 에이미를 기쁘게 했다.

율리우스 왕과 에이미가 즐거운 식사를 시작한지 몇 분이 지나

지 않아 마르켈루스가 굳은 얼굴로 율리우스에게 다가갔다. 그는 입을 왕의 귀에다 가까이 댄 채 속삭였다.

“율리우스 전하, 지금 국경 수비대로부터 급한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율리우스 왕은 놀란 표정으로 마르켈루스에게 물었다.

“급한 전갈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요? 좀더 상세히 이야기를 해 보시오.”

“지금 국경 수비대의 장군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얼음왕자가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뭐? 얼음왕자? 지금 얼음왕자라고 말했소?”

“예, 전하.”

마르켈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왕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수저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고 큰 한숨을 쉬더니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다.

“우리 공주님, 갑자기 이 아빠가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겼단다. 그래서 말인데 이 아빠는 지금 바로 대신들을 만나기 위해 회의실로 가야 할 것 같구나. 함께 식사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조금 전까지 환한 미소로 가득했던 에이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하지만 공주는 애써 슬픔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아빠. 전 괜찮아요.”

“그럼 마르켈루스 경, 짐은 회의실로 갈 것이니 앞장을 서게 나.”

“예, 전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율리우스는 시종들을 거느리고 식당을 빠져 나갔다. 그가 나간 식당은 그 크기만큼이나 적막하고 외로웠다. 커다란 식당 안은 공주의 슬픔으로 가득 찼다.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 거였는데…….”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에이미는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듯 두 손으로 눈물을 계속 닦았다. 하지만 슬픔은 감춰지지 않았고 무정한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로이스는 에이미의 옆으로 다가가 슬퍼하는 공주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다독였다.

“에이미 공주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전하가 공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비록 오늘은 조금 밖에 보지 못했지만 공주님의 생일에는 전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자, 힘을 내세요!”

“로이스, 고마……워.”

“원 별말씀을 다하시네요. 이제 신나는 아침 식사를 다시 시작해야지요. 여기 맛있는 음식들이 공주님의 관심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먹여드릴 테니 아~하고 입을 벌리세요.”

로이스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에이미의 입가로 가져갔다. 에이미는 훌쩍거리며 음식을 오물오물 씹었다. 그리고 두 빵을 타고 흐르는 쓰디쓴 눈물과 함께 삼켰다. 그렇게 어린 공주는 외로움이라는 괴로운 슬픔과 홀로 싸웠다.

에이미는 아침을 먹고 난 뒤 뻑뻑하게 짜여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했다. 하루 일과는 조금의 여유도 없이 마치 태엽이 움직이듯 바쁘게 돌아갔다. 에이미는 공주라는 위치에 걸맞게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고 빠르게 익혀야만 했다.

“에이미 공주님,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가셔야지요. 다음 수업은 무용수업이니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저번처럼 늦게 도착했다가는 록산느 선생님의 불호령을 또 듣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응, 알겠어.”

에이미는 서둘러 성의 왼쪽 편에 세워져 있는 건물로 걸어갔다. 건물의 이름은 새로운 지식과 사려 깊은 교양을 얻는 곳이라는 뜻의 ‘배움터’이었다. 그 건물의 벽은 얼음처럼 차가운 흰색 벽돌

로 이루어져 있었고 건물의 첨탑은 마치 하늘을 찌르려는 것처럼 날카롭게 솟아있었다.

배움터 안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책과 여러 가지 신기한 실험도구가 보였다. 그 중에서도 목각인형의 눈길을 끌은 것은 바로 천장에 걸려있는 커다란 휘장이었다. 건물 중앙에는 분홍색 휘장이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달아있었는데 그 천에는 ‘배움의 샘에서 행복을 찾고 진실의 강에서 진정한 삶을 건져 올려라.’라고 쓰여져 있었다. 분홍빛 천은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환한 빛에 반사되어 무거운 색을 발하며 건물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엄숙하게 만들었다.

이미 건물의 안에는 한 여인이 서있었다. 그 여인은 에이미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록산느이었다. 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답게 몸은 매우 날씬하고 날렵했다. 중년의 나이를 훨씬 지난 얼굴에는 잔 주름이 깊게 패어있었고 머리에는 어렴풋한 검정색 머리카락 속에 흰 머리카락이 톱툰이 나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마치 독사가 꼬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말아 올렸다. 짙은 화장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의 가슴을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도톰한 입술은 고집스런 성격을 보여주려는 듯 굳게 닫혀있었다. 손에는 가느다란 매를 사납게 들고 있었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에이미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건넸다.

“오늘도 조금 늦으셨군요. 그런 정신상태로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일부러 화나게 만들려는 것입니까?”

에이미는 두려움에 말 끝을 흐렸다.

“아니, 그게 저…….”

옆에 서있던 로이스는 안타까운 마음에 에이미를 변호했다.

“록산느 선생님, 오늘 율리우스 전하와 같이하는 아침식사가 제시간에 끝나지 않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늦은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록산느는 눈을 부릅뜨고 로이스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로이스에게 성큼성큼 다가서더니 빵을 세차게 때렸다. 갑자기 빵을 맞은 로이스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어디 천한 것이 함부로 끼어드느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두 번 다시 그 가벼운 입을 놀리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록산느 선생님, 제가 주제를 모르고 참견하였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 앉은 로이스는 불게 물든 빵을 어루만졌고 놀라고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록산느에게 거듭 사과했다. 록산느는 로이스를 사납게 내려보며 말했다.

“알았으면 수업에 방해가 되니 어서 밖으로 나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목각인형아, 어서 밖으로 나가자꾸나.”

로이스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목각인형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오늘 아침은 왜 이리도 짜증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건 그렇고 이제 방해꾼도 멀리 쫓아버렸으니 유쾌한 수업을 시작해 볼까나. 에이미 공주님, 이제 수업을 시작할 것이니 옷을 갈아입으시지요.”

에이미가 옷을 다 갈아입을 때까지 록산느는 가느다란 매를 손으로 튕기면서 건물 안을 걸어 다녔다. 잠시 뒤 에이미 공주는 옷을 다 갈아입고 록산느 앞에 섰다.

“에이미 공주님, 수업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우선 어제 배운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배운 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어제 배운 춤은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잘 추실 거라 믿습니다.”

록산느의 말과는 다르게 어제 배운 춤은 어린 공주에게는 어렵고 힘든 동작이 많이 있었다. 록산느는 에이미가 어제 배운 춤을 잘 출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주가 늦게 온 것에 대해 큰 불

만을 가지고 있었고 벌을 내릴 좋은 구실을 찾고 있었다.

“어서 빨리 어제 배운 춤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공. 주. 님.”

에이미가 서투른 동작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자 록산느는 몇 분 동안 트집거리를 잡기 위해 공주가 추는 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춤이 다 끝나기도 전에 춤이 몹시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만! 그만! 그만! 어떻게 어제 배운 춤도 잘 기억하지 못하세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건가요? 아님 수업이 지겨워서서 일부러 딴청을 부리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록산느 선생님”

“이렇게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전하께 공주님이 수업시간에 집중을 안 하시고 딴생각만 한다고 일러 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록산느 선생님, 제발 아바마마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 제발 아바마마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공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니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봐드리는데 이번 한번뿐입니다. 허나 복습을 게을리하신 것에 대한 벌은 피해가실 수 없습니다. 그럼 손을 앞으로 내미시지요. 공. 주. 님.”

록산느는 가느다란 매를 허공에 몇 번 휘저었다. 그 매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소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사나웠다. 에이미는 자그마한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내밀었다. 록산느는 가느다란 매를 세차게 휘둘러 소녀의 손을 수 차례 때렸다. 에이미는 가느다란 매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손에 부딪힐 때마다 아픔에 눈을 감았다.

“아야!”

록산느는 손을 때리고 난 뒤 기분이 풀린 듯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건물 중앙에 걸려있는 분홍빛 휘장 주위를 돌며

가느다란 매를 손으로 튕기기 시작했다.

“에이미 공주님,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룩산느는 에이미에게 오늘 배울 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나운 목소리에 맞추어 에이미는 춤을 추었다. 룩산느가 가르쳐주는 춤은 어린 공주가 배우기에는 어려운 동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룩산느는 그런 것은 아랑곳 여기지 않고 그녀의 생각과 욕심대로 고집스럽게 공주를 몰아세웠다.

“저번 달과 이번 달에는 공주님이 자주 아파서 수업을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러니 전보다 더 열심히 배우셔야 뒤흔친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공주님같이 몸이 허약한 사람은 춤을 출수록 몸이 건강해진답니다. 물론 당장은 조금 힘이 들겠지만 다 공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 어떤 불평도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룩산느 선생님.”

에이미는 룩산느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선생님의 지도를 묵묵히 따랐다. 한 시간의 힘든 수업이 지나자 룩산느는 반드시 오후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연습하라고 당부한 뒤 건물을 나갔다. 룩산느가 나가자마자 에이미는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후유”

에이미는 힘든 수업에 많이 지쳐 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마에 맺혀있는 땀을 닦으며 땀으로 젖어있는 옷을 갈아입었다.

잠시 뒤 건물 안으로 뚱뚱한 여인이 뒤통거리며 들어왔다. 그 여인은 에이미에게 자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메기였고 마치 뚱뚱한 몸을 감추려는 듯 온몸을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다. 휘황찬란한 보석들은 그녀와 상당히 어울리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어색해서 마치 포동포동 살이 오른 돼지에게 보석을 걸어놓은 것 같았다.

메기는 두꺼운 모피코트를 벗어 벽에다 걸어놓고 붉은 립스틱이 칠해진 두꺼운 입술을 움직이며 인사했다.

“어머, 공주님. 오늘 한층 더 예뻐 보이시네요. 호호호. 어쩔 공주님은 볼 때마다 예뻐지시네요. 호호호.”

메기의 거친 웃음소리와 시큼한 아부는 에이미의 기분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메기 선생님.”

“어머, 에이미 공주님은 어쩔 그렇게 목소리도 귀엽고 깜찍하실까? 공주님의 명랑한 인사를 받으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네요. 호호호.”

이 뚱뚱한 여인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상자는 여인의 취향처럼 많은 장식이 달려있어서 매우 비싸 보였다.

“자, 오늘 수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워온 장미문양을 오늘도 계속 이어서 배워볼까 합니다. 호호호. 이제 곧 공주님의 예쁜 얼굴처럼 장미모양도 아름답게 완성되겠군요. 호호호.”

메기는 자수도구와 장미 문양이 조금 수 놓아진 천을 에이미에게 건넸다.

“오늘은 어제 만들다가 만 장미 문양을 다 완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 의자에 앉아있을 테니 혹여 일이 잘 풀리지를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지체 마시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물론 공주님은 총명하기 그지 없으셔서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요. 호호호.”

“네? 꼭 오늘까지 다 완성을 해야 하나요?”

“예, 물론이죠. 율리우스 전하께서 공주님이 손수 만든 수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하십니다. 요새 자주 아프셔서 진도가 많이 늦었으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장미 문양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미 문양은 복잡하고 어려운데…….”

에이미는 자신이 없는 듯 말끝을 흐렸다.

“호호호. 공주님이 껌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수를 놓으신다면 시간 안에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장미 문양이 시간 안에 완성이 되질 않으면 공주님께서 수업시간에 게으름을 피우신 것이겠지요. 호호호.”

메기는 의자에 앉아 에이미가 자수를 짜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가만이 앉아있기가 지루한 듯 큰 하품을 했다. 그리고 따분함을 떨쳐버리려는 듯 상자에서 손톱을 다듬는 도구를 꺼내 손톱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묵묵히 수를 놓았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한 바느질 솜씨로 어려운 문양의 수를 빨리 놓는 것은 메기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손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날카로운 바늘은 손가락을 향해 수없이 위험한 거리로 스쳐 지나갔다.

“천천히 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늘에 찔리겠어. 하지만 어찌지? 바느질을 빨리 하지 않으면 제 시간 안에 끝내지를 못할 텐데. 어유, 어쩔 수 없지. 좀더 조심히 하는 수 밖에.”

에이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수를 놓았지만 날카로운 바늘은 결국 엄지손가락을 깊게 찔렀다. 손가락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공주는 짧고 깊은 아픔에 신음소리를 냈다.

“아야!”

에이미의 신음소리에 거울을 바라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는 메기는 짜증이 났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화장 도구를 거칠게 내려 놓고 다친 공주를 나무랐다.

“에이미 공주님,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바느질은 위험하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땀대다가 신경을 쓰니 다칠 수 밖에요.”

“죄송합니다, 메기 선생님.”

에이미는 붉은 피를 흘리는 손가락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붉은 핏방울은 장미가 수 놓아진 천을 향해 구슬프게 떨어졌다. 붉

은 장미가 새겨진 천은 금새 핏방울로 물들어졌다. 핏방울로 물 들어진 천을 바라본 메기는 갑자기 천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느님 맙소사. 어쩌면 좋아. 공주님! 아니, 이번 작품은 전하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망쳐놓으시면 어떡하시나요? 저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메기는 에이미의 실수로 망쳐진 천을 들어 공주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그리고 아직도 분이 다 안 풀렸는지 다시 에이미를 심하게 몰아붙였다.

“공주님! 전에도 말했듯이 공주님이 손수 만드신 아름다운 문양이 수놓아진 천을 전하께 보여 드리기로 약속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에다 핏방울을 물들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깟 손 조금 찢린 걸로 천을 망쳐놓으면 아픔이 사라지리라도 됩니까? 이걸 전하께 보여 드리면 전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공주님의 손이나 다치게 하는 능력 없는 선생이라고 냉대하시면 공주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에이미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등뒤로 숨겼다.

“오늘은 이만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붉게 물든 천을 바라보니 수업을 할 기분이 나질 않는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망쳐졌으니 어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메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정말 저를 실망시키시는군요!”

메기는 벽에 걸려있던 비싼 모피를 다시 입고 투덜거리며 건물을 나갔다. 메기가 건물에서 나가자 에이미는 다친 손가락을 움켜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붉은 눈물방울은 공주를 둘러싼 선생님들의 이기심처럼 차가운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로이스와 목각인형은 서둘러 건물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로이스는 에이미를 다독였다.

“에이미 공주님, 많이 아프시죠?”

“응.”

에이미는 훌쩍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주님, 다친 손가락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로이스는 에이미가 엄지 손가락을 내밀자 손수건을 꺼내 다친 손가락을 감쌌다.

“이제 곧 있으면 피가 멈출 거예요. 그러니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에이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로이스, 고마워.”

짧은 휴식시간이 지나자 아주 작은 몸을 가진 난쟁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커다란 책을 들고 있었다. 난쟁이는 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책상 위에 그 커다란 책을 올려놓았다.

“에이미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는 참으로 화창한 날씨네요.”

“안녕하세요, 캐네스 선생님.”

난쟁이의 이름은 그의 온화한 성격과 어울리는 캐네스(Kenneth)였다. 그는 에이미에게 시와 역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다.

“에이미 공주님, 그럼 유쾌한 시와 재미있는 역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예전처럼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저 편안하고 즐겁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캐네스는 다른 선생님과 매우 달랐다. 그는 다른 선생님처럼 에이미를 등에 업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려 깊은 그는 배움이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에이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공주가 최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시와 역사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수업을 진행했다.

“예, 캐네스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시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나 흥분돼요. 저는 정말로 선생님의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시간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주님께서 수업에 만족하신다니 저는 너무 기쁩니다. 빈 말이라도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공주님, 그럼 오늘은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펴주세요.”

“예, 선생님.”

캐네스는 왕국에 내려져오는 오래된 역사와 그 시대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아름답고 유쾌한 단어들이 춤을 추는 그의 이야기는 단숨에 공주를 사로잡았다. 에이미는 눈을 뚝그랄게 뜨고 수업에 집중했다. 캐네스의 수업을 받는 에이미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캐네스는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몸이 약한 공주에게 무리한 수업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항상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가혹한 수업방식이 공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지적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공주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른 부유한 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에이미를 독하게 가르쳤고 그들의 기대만큼 어린 공주를 몰아세웠다. 에이미를 몰아세울수록 선생님의 몸값은 높아져만 갔다. 에이미가 힘들어할수록 그들의 주위에는 다른 많은 귀족들이 자기 자식을 맡기기 위해 달려왔다.

이 상황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캐네스는 에이미 공주를 측은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그의 수업시간 만이라도 에이미가 배움을 즐길 수 있게 배려해주고 싶었다.

“에이미 공주님, 오늘 수업도 모두 끝났습니다. 저의 수업이 공주님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선생님, 정말로 즐거운 수업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허약하시니 무리를 해서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캐네스 선생님.”

수업이 끝나자 에이미는 아쉬운 얼굴로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감사를 나타냈다.

에이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갔다. 로이스는 에이미를 깨끗이 씻기고 침대에 눕혔다.

“에이미 공주님,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로이스도 오늘 수고 많이 했어. 나 이만 잘래.”

에이미는 고단한 듯 침대에 눕자마자 곧장 잠이 들었다. 로이스는 에이미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목각인형에게 말했다.

“이렇게 피곤함에 쓰러져 잠이든 에이미 공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 목각인형아, 외로운 공주님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려무나. 공주님의 곁에서 공주님의 외로움과 슬픔을 감싸주고 안아주렴.”

목각인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로이스는 에이미의 이마에 살며시 뽀뽀를 했다.

“나의 작은 공주님, 좋은 꿈을 꾸세요.”

그녀는 방안의 촛불들을 모두 끄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목각인형은 곧바로 잠든 에이미 옆에서 어두운 방안을 지켰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에이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에이미 공주님, 항상 지금처럼 공주님의 친구로 곁을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힘든 하루가 저물어갔다.

CHAPTER FOUR

혼란 속의 생일파티

“온 성안을 뒤흔드는 얼음왕자의 매서운 공격 앞에 어린 소녀의 생일은 소녀의 바람과는 달리 작은 행복마저 삼켜 버리는 어두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목각인형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에이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몹시 피곤한 듯 몸을 수시로 뒤척거렸다.

목각인형은 어제 로이스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건물 밖에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목각인형에게 에이미의 슬픈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각인형아, 공주님은 참으로 불쌍한 분이란다. 지금 공주님의 유일한 가족은 율리우스 전하뿐이지. 공주님의 어머니이신 다리아 여왕님께서는 공주님이 7살이 되던 해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단다.”

“다리아 여왕님이요?”

“그래, 다리아 여왕님께서는 매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셨지. 더불어 마음씨 또한 아름다운 외모처럼 고우셨단다. 모두들 다리아 여왕님을 사랑했고 율리우스 왕 또한 여왕님을 몹시 사랑했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도 여왕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 다리아 여왕님은 참으로 젊은 나이의 세상을 등졌어. 어린 딸을 홀로 남겨두고서 말이야.”

“참으로 애석한 일이군요. 그런데 다리아 여왕님께서는 왜 돌아가셨나요?”

“다리아 여왕님은 몸이 약해서 병을 자주 앓았단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마는 여왕님의 건강을 서서히 빼앗아갔고 그녀는 이내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났지. 공주님은 여왕님이 돌아가시자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환한 웃음을 보여주지 않았단다.”

“불쌍한 나의 공주님.”

목각인형은 수업을 받고 있는 에이미 공주를 쳐다보며 안타까워했다. 로이스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다리아 여왕님께서 돌아가신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율리우스 전하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만 했단다.”

“아니, 도대체 율리우스 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재혼을 서두르

신 거죠? 폐하께서는 다리아 여왕님을 깊이 사랑하셨다면서요?”

“재혼은 율리우스 폐하의 뜻이 아니었다. 대신들은 왕에게 왕비의 자리는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서둘러 그 자리를 맡을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한다고 간곡히 청하였지. 대신들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것을 왕에게 요구하였었다. 율리우스 왕도 대신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마지못해 새로운 왕비를 맞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슬픔을 묻어둔 체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만 했군요. 그래서 누가 왕과 결혼하게 됐나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율리우스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해 궁 안으로 모여 들었었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한 여자가 있었지. 그녀의 이름은 카밀라(Camilla)였었다. 그 여인의 외모는 매혹적이었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 또한 그녀는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는데 특히 시와 춤에 있어서는 왕국에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었다.”

“카밀라라……. 참으로 매혹적인 이름이군요. 그래서 율리우스 전하는 카밀라라는 여인을 배필로 맞이하셨나요?”

“그래, 모든 대신들은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내뿜는 여인을 왕에게 추천하였지. 왕께서는 그 여인이 그리 썩 마음에 드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다지 싫은 내색도 보이지 않으셨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께서는 그 여인을 새로운 왕비로 선택하셨고 곧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셨지. 하지만 그것은 해서는 안될 잘못된 선택이었었다.”

로이스는 나쁜 기억을 지우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잘못된 선택이라니요? 왕과 새로운 여왕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았었다. 신기하게도 카밀라 여왕과 율리우스 전하

의 결혼생활은 그다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단다. 왕은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새로운 왕비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카밀라 여왕님은 좋아했지. 여왕님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간섭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단다.”

“카밀라 여왕님께서서는 에이미 공주님을 잘 대해주셨나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단다. 카밀라 여왕님은 공주님을 마치 입안에 가시처럼 귀찮은 존재로 여겼단다.”

“율리우스 전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왕께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단다. 카밀라 여왕님은 아주 악삭빠른 사람이었지. 그녀는 전하 앞에서는 에이미 공주님을 몹시 아끼고 사랑하는 척했단다. 하지만 왕이 없는 자리에서는 공주님을 구박하고 혹독하게 대우하였지. 카밀라 여왕님의 연기가 얼마나 철저하였던지 전하께서는 왕비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단다. 어린 공주님은 새로운 어머니의 괴롭힘 속에서 여린 마음을 굳게 닫아 버렸지.”

“불쌍한 나의 공주님. 그 시간들은 공주님에게 아주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겠네요. 친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새어머니의 구박과 괴롭힘에 시달리셨으니 말이죠.”

“그래, 너의 말대로 공주님께서서는 정말로 힘들어 하셨지.”

목각인형이 고개를 갸우뚱 숙이고 물었다.

“그런데 카밀라 여왕님께서서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아침 식사 때는 보이지 않으시던데?”

“지금으로부터 오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단다. 카밀라 여왕님께서서는 전쟁 중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단다.”

“전쟁이라니요? 오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렇단다. 카밀라 여왕님이 간택되고 일년이 지나자 평온했던 나라는 커다란 전쟁에 휩싸였단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그 잔혹하기로 유명한 얼음왕자이었지. 적군은 왕의 군대를 무찌르고 곧장 수도를 향해 거침없이 진군했단다.”

목각인형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물었다.

“얼음왕자라니요?”

“얼음왕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해줄게. 지금 여기서 말하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단다.”

로이스는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심하게 눈치를 살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주세요.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얼음왕자의 군대는 율리우스 왕 휘하에 있는 거의 모든 군대를 괴멸시켰단다. 적군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그들의 차가운 칼날은 아군의 희망을 매몰차게 부숴버렸지.”

“네? 율리우스 왕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했다고요?”

로이스는 목각인형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방을 다시 살피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지 재차 확인했다.

“전투에서 패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히 부수어졌지. 주력군을 괴멸시키고 나자 얼음왕자는 곧장 수도로 직행, 포위했단다. 포위가 완성되자마자 얼음왕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용맹한 군사들로만 이루어진 별동 대를 성안으로 침투시켰지. 적들은 궁전을 빠르게 습격하여 많은 대신들을 죽이고 율리우스 왕을 사로잡았단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율리우스 왕은 전쟁에서 더 이상 이길 가망이 없자 하는 수 없이 얼음왕자와 치욕적인 강화를 맺었다고 하는구나. 전쟁에서 이긴 적군은 서슴없이 왕국을 약탈하고 수도를 철저히 파괴한 뒤 자신들의 왕국으로 돌아갔단다. 적군이 떠난 자리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와 부서진 건물, 피로 물든 슬픔만이 남았단다. 참으로 끔찍한 날들이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그런데 아까 카밀라 여왕님께서 전쟁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고

를 당하셨나요? 얼음왕자가 그 사고와 관련돼 있었나요?”

“얼음왕자의 군대가 수도에서 철수하고 난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카밀라 여왕님은 눈물의 탑 아래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셨지. 하지만 그 사고가 얼음왕자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소문에 의하면 카밀라 여왕님이 죽기 전 얼음왕자가 눈물의 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다 그렇듯 그다지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되는구나. 저기 보이는 높은 탑이 바로 그 눈물의 탑이란다.”

로이스는 궁전 뒤에 높게 솟아있는 탑을 가리켰다. 그 탑은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그 몰골이 흉물스러웠다. 꼭대기는 커다란 무언가에 심하게 부딪힌 듯 큰 구멍이 나 마치 하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울부짖는 것 같았다.

“부서진 체로 방치되어있는 눈물의 탑을 바라보니 이상하게 온몸이 오싹해지는군요.”

“율리우스 전하께서는 카밀라 여왕의 죽음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단다. 전하께서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았단다. 모든 대신들이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한다고 간청해도 왕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단다.”

“카밀라 여왕님의 죽음은 왕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군요.”

“그래, 네 말이 맞는단다. 전하께서는 얼음왕자를 애송이라 취급하여 아무 대책 없이 전쟁을 벌인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력함에 끝없이 괴로워하셨단다. 왕께서는 얼음왕자와의 전쟁에서 진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셨지. 그래서 그는 전쟁으로 피해를진 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유일한 사명이자 의무라 생각했단다.

율리우스 전하는 마치 마음 속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려는 듯 왕국의 부흥을 위한 일에만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 왕이 일에만 열중하면 할수록 어린 공주님은 외톨이가 되어갔어. 그렇게 공주님은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시간과 힘들게 싸웠단다.”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 때 마침 에이미의 수업도 마무리가 됐다. 목각인형과 로이스와의 대화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목각인형은 어제 로이스와 나눈 대화를 되짚어 볼수록 에이미가 더없이 가엽고 불쌍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찬 공주에게 이불을 다시 덮여주며 어두운 밤을 지키며 새벽을 기다렸다.

평범한 일상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눈 깜짝 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갔다. 오늘은 에이미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오늘은 바로 에이미의 열세 번째 생일이었다.

에이미는 아침부터 몹시 흥분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수업이 모두 내일로 연기되었다는 것이었다. 수업이 연기된 것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딸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 율리우스 왕의 배려 때문이었다. 그리고 에이미를 설레게 만드는 또 한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저녁에는 성대한 생일 파티가 에이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전 내내 에이미는 로이스, 목각인형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뛰어다니며 솔래잡기 놀이도 하고 넓은 궁전 안을 돌아다니며 숨바꼭질도 했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수많은 꽃과 꽃나무가 세 사람을 향해 은은한 향기로 노래를 부르며 오색 찬란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와! 너무 예뻐. 오늘 따라 꽃이 더욱 활짝 피었네.”

로이스가 맞장구를 쳤다.

“요새 햇빛이 뽀뽀 내리 쏘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난히 꽃의 색이 진하고 향기가 널리 퍼지네요.”

“아도라, 너는 어때? 너도 이 꽃을 보니 기분이 좋지? 그렇지?”

“예, 공주님의 말처럼 오늘따라 꽃이 더욱 예뻐 보이네요. 그런데 공주님, 저기 저 사람들은 누군가요?”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저기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목각인형은 손으로 넓은 마당에 모여있는 병사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긴 창과 커다란 방패를 짊어지고는 무서운 눈으로 경비를 서고 있었다. 목각인형이 가리킨 마당뿐만 아니라 궁전에 곳곳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병사가 배치되어있었다.

로이스는 많은 병사들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우뚱했다.

“그리고 보니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병사들이 보이네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무슨 훈련이라도 하는가 보지. 그건 그렇고 저기 저 진달래꽃은 너무 예쁘게 피었다.”

어린 소녀에게 고리타분한 옷을 입고 서있는 병사들은 안중에 있을 리가 없었다. 에이미는 환하게 웃으며 맵시를 뽐내고 있는 진달래 꽃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 꽃을 조심이 꺾어서 컵등에 꽂았다. 연분홍색의 꽃을 꽂은 공주의 모습은 마치 어린 천사를 보는 것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이 풍겨왔다. 그 모습은 참으로 예뻐서 만약 유명한 화가가 그 모습을 봤다면 그 모습을 당장 그림에 담으려고 했을 것이다.

“아무튼 오늘 아빠께 드릴 선물을 하나 준비하는 게 좋겠어.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많이 걱정해주시고 챙겨주시니까 말이야. 로이스, 무슨 선물을 드리면 아빠께서 좋아하실까?”

“에이미 공주님, 공주님께서 무엇을 드리던 간에 설령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전하는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아빠 마음에 드는 선물을 드리고 싶단 말이야. 아도라, 네 생각은 어때? 아빠께 무슨 선물을 드리는 게 좋을까?”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질문에 이쪽저쪽을 둘러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왕관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꽃으로 만든 왕관이에요.”

“왕관?”

“예, 지금 정원에 꽃들도 예쁘게 피고 해서…….”

로이스가 목각인형의 말에 크게 호응했다.

“목각인형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에이미 공주님, 목각인형의 말대로 전하께 꽃 왕관을 만들어드리면 분명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로이스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방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아빠께 드릴 선물로 꽃 왕관을 만들자. 아도라, 좋은 생각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자,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하지? 아하, 우선 왕관을 만들 꽃을 따야지. 로이스, 아도라, 어서 따라와. 시간이 별로 없으니 서둘러야 해.”

세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찾기 위해 온 정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무 위에 피어있는 새침데기 꽃은 점잖고 고상한 척 활짝 핀 입을 오므리며 쌀쌀맞게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로이스, 좀더 안으로 들어가면 예쁜 꽃이 피어있는 나무가 더 많이 있을 거야. 나는 키가 작아서 그 나무에 피어있는 꽃은 따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아도라와 함께 저기로 가서 꽃을 따줘. 나는 여기 아래 놓여진 꽃을 따고 있을 테니까. 알겠지?”

“예, 그렇게 할게요. 목각인형아, 공주님 말 잘 들었지? 우리는 저쪽에 가서 꽃을 딸 거니 나만 따라와.”

로이스와 목각인형은 꽃나무들이 뻗뻗하게 심어져 있는 정원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꽃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며 예쁜 꽃을 따다. 두 사람이 열심히 꽃을 따자 얼마 안 되었지만 바구니에 한 가득 꽃이 채워졌다.

“목각인형아, 꽃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이제 공주님에게 되돌아가자꾸나.”

목각인형이 짧게 대답했다.

“예, 이제 그만 따도 될 것 같네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중에 로이스는 정원 구석에서 두 남자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두 남자는 화려한 옷을 입어 하나같이 위엄스러운 품모였다. 그들은 모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주위를 자주 살피며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저 두 사람은 무슨 대화를 하길래 저리도 조심하며 주위를 살피는 거지? 옷을 보아하니 분명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모르는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건가? 혹시 궁 안에 배치된 많은 병사들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로이스는 두 남자의 비밀스런 대화에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목각인형을 데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대화를 엿들었다. 두 남자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이 대화를 몰래 엿듣는 지도 모른 채 이야기에 열중했다. 늙은 대신이 은색 사자 마크를 가슴에 달고 있는 장군에게 물었다.

“파비우스 장군, 그 소문이 사실이요?”

파비우스 장군이 되물었다.

“무슨 소문 말이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시오.”

“얼음왕자가 우리나라를 쳐들어 온다는 소식 말이요. 정말로 얼음왕자가 지난번처럼 전쟁을 벌일 거라 생각하시요?”

“그 말은 어디서 들었소? 정확히 말하자면 국경지대는 벌써 전쟁에 돌입했소. 국경 수비대는 얼음왕자의 군과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율리우스 전하께서 대신들에게 이 일에 대해 발표하실 겁니다.”

대신은 파비우스 장군의 말에 크게 놀랐다.

“벌써 전투를 벌이고 있단 말입니까? 일이 그렇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얼음왕자가 이번에는 썬더버드

라고 불리는 희한한 독수리를 데리고 왔다더군요.”

“썬더버드라니요?”

“얼음왕자가 데리고 온 썬더버드라는 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로 그 몸집이 작은 집 한 채를 가릴 정도 라더군요. 커다란 날개를 피면 마치 넓은 지붕처럼 햇빛을 가려 사방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펼칠 때마다 소리가 나는 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사나운지 마치 천둥이 울려 퍼지는 것 같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새가 있는 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그랬었죠.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군은 썬더버드라는 그 새를 파악하느라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새에 대해 여태까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서 그저 막연한 추측만이 난무할 뿐이죠. 한가지 확실한 점은 얼음왕자가 그 비밀병기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란 사실입니다. 저번 전쟁처럼 말이죠.”

“쫓쫓!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아직 지난번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늙은 대신은 혀를 꼰꼰 찔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한 대화는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알겠소. 오늘 나눈 대화에 관하여 일체 함구하고 있겠소. 이따 봅시다.”

파비우스 장군과 늙은 대신은 주위를 살피며 각자 따로따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로이스와 목각인형은 두 남자가 사라지자 감추었던 몸을 드러냈다.

“얼음왕자가 쳐들어 온다니 이거 아주 큰일이 났구나.”

“로이스, 얼음왕자가 누구예요?”

목각인형은 지난번 로이스의 이야기를 통해 얼음왕자에 대해서 얼핏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음왕자라는 이름은 자꾸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목각인형은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했다. 그와 반대로 로이스는 얼음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꺼림칙한 듯 목각인형의 물음에 답하기를 한참 동안 주저했다.

“목각인형아, 이 궁전 안에서 얼음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서는 안돼.”

목각인형이 물었다.

“왜요?”

로이스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지 확인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음왕자는 오 년 전에 우리나라와 전쟁을 했단다.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수도를 포위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유린했지.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값진 재물을 마구 약탈했단다. 여기까지는 내가 전에 말해준 것 같구나.”

“예,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얼음왕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주신다고 했죠. 그때는 얼음왕자의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제 나도 기억이 나는 구나. 그러면 왜 궁전 안에서 얼음왕자의 이야기를 소리 내어 말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줄게. 율리우스 왕은 왕국을 파멸직전까지 몰아간 얼음왕자를 아직까지도 증오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는 얼음왕자를 증오하는 만큼 그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지. 왕은 얼음왕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단다.”

“그래서요?”

“율리우스 왕은 공포를 잊기 위해 이 궁내에서 얼음왕자에 대

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했단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렸지. 지금 생각해보면 왕은 그 공포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야. 어쨌든 국경지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니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구나.”

로이스의 얼굴에는 걱정이 번져가 그늘이 졌다.

“얼음왕자는 무시시한 사람인가요? 그는 어떤 사람이죠?”

“얼음왕자는 두 가지 특이한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단다.”

“특이한 모습이라니요?”

“얼음왕자는 항상 차가운 흰색의 가면을 쓰고 다닌단다. 그의 차가운 가면 안에 감춰진 얼굴은 야수같이 무섭고 추하다고 알려졌지. 그리고 가슴에는 차가운 얼음심장이 푸른 빛을 내며 뿜다고 알려져 있단다.”

“하얀 가면과 차가운 얼음심장이라……”

목각인형은 이상하게도 얼음왕자라는 이름에 끌리고 있었다. 운명의 실이 그들을 엮어 깊은 갈등 속으로 몰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목각인형은 알지 못했다.

에이미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의 이름을 부르며 두 사람을 찾았다.

“로이스, 아도라, 어디 있어?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

공주의 목소리를 들은 로이스와 아도라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로이스는 목각인형에게 당부했다.

“목각인형아,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는 공주님께는 비밀로 해야 돼. 알겠지?”

목각인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나만 쏙 빼놓고.”

에이미 공주는 뽀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지금 공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꽃을 따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렇지, 목각인형아?”

목각인형이 대답했다.

“예, 공주님을 위해 바구니 한 가득 꽃을 따어요.”

“정말이야?”

“에이미 공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딴 꽃들이예요. 공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예쁜 꽃만 골라서 따어요. 이정도 양이면 아름다운 꽃 왕관을 만드는 데에 충분할거예요. 자, 받으세요.”

로이스는 꽃바구니를 에이미에게 건네었다.

“우와! 이렇게나 많이 꽃을 따주다니, 모두들 너무 고마워.”

에이미는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여태까지 한아름 모은 꽃으로 왕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줄기를 잘라 왕관 모양으로 엮고 그 줄기로 만든 왕관을 수많은 꽃으로 장식했다. 꽃 왕관이 다 완성되자 에이미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에게 꽃 왕관을 보여주며 물었다.

“로이스, 어때? 로이스가 보기에 예뻐?”

“예, 정말로 예쁘네요. 휘황찬란한 보석이 박힌 그런 고리타분한 왕관보다 열 배 아니 수백 배는 더 예쁘고 아름답네요.”

“그래? 아도라, 네가 보기에 어때? 네가 보기에도 좋아?”

“예, 너무 예뻐요. 왕관에서 풍기는 향기도 좋고요.”

목각인형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대답이 마음에 든 듯 방긋 웃었다.

“아빠가 이 선물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에이미의 밝은 웃음 뒤로 해는 지평선 너머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은 석양빛으로 곱게 물들은 하늘은 마치 웅장함으로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다. 하늘에는 솜 뭉치처럼 부드러운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있었고 석양의 색이 번진 듯 붉게 물들어있었다.

생일파티 시간이 다가오자 로이스는 에이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공주가 저녁식사에 늦지 안도록 하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공주님, 파티의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네요. 제가 오늘을 위해 궁전 안에 있는 옷장이란 옷장은 다 뒤져서 준비한 옷이 있어요. 이리와 보세요.”

로이스는 옷장에서 눈처럼 새하얀 드레스를 꺼내 에이미에게 입혔다. 드레스는 황금색 실로 수놓아진 꽃으로 장식이 되어있었다

“다행이 드레스가 공주님 몸에 딱 맞네요. 마치 이 드레스를 만든 디자이너가 공주님을 위해 이 옷을 만든 것 같네요. 자, 이제 머리를 빗어드릴게요.”

로이스는 에이미의 실크같이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준 다음 은은한 황금색의 머리핀을 머리에 꽂아 주었다. 그리고 작은 발에 머리핀과 같은 색의 작고 예쁜 구두를 신겼다. 드레스를 한껏 제대로 차려 입은 에이미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예뻐다.

“공주님, 마치 어린 천사를 보는 것 같이 아름답네요. 목각인형아, 네 생각은 어때?”

목각인형은 에이미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너, 너무 예쁘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참, 아도라도. 쑥스럽게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아무튼 좋게 봐줘서 고마워.”

옆에 서있던 로이스가 에이미에게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했다.

“에이미 공주님, 이제 파티의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으니 서둘러 궁전식당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 알았어. 로이스. 아차, 잠깐만 꽃 왕관을 깜박할 뻔 했네.”

에이미는 책상 위에 올려진 꽃 왕관을 손에 들었다. 로이스는 에이미가 왕관을 집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을 데리고 서둘러 궁전식당으로 내려갔다.

“거우 제 시간 안에 도착했네요. 문 앞에 왕실 호위대가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전하께서는 도착하질 않으셨나 보네요.”

“뭐 곧 오시겠지. 우선 안에 들어가자. 오늘 궁전 안을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리가 많이 쑤서. 너무 놀았나?”

“하긴 오늘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마치 들판을 어지러이 뛰노는 새끼 노루처럼 정신 없이 뛰어다니셨죠.”

“그랬었나?”

식당의 문을 열자 에이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름답게 꾸며진 방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식당 안은 셀 수없이 많은 꽃과 인형, 초로 치장되어있었다. 작은 인형이 안고 있는 초에서는 은은한 향과 함께 아득한 빛이 타올랐다. 에이미는 새롭게 꾸며진 식당 안을 둘러보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무 예쁘다. 아빠가 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셨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아.”

율리우스의 지시로 식당 중앙에 놓여있던 긴 식탁은 치워졌고 그대신 작고 아담한 식탁 세 개가 새로 놓여졌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식탁은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예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꽃 사이로 에이미의 생일을 축하하듯 방긋 웃고 있는 토끼 인형이 놓여져 있었다.

세 사람에게 말쑥하게 차려입은 도우미가 다가왔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미 공주님, 로이스님, 목각인형님, 제가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이스는 도우미의 말에 놀라며 물었다.

“저와 목각인형도 자리가 있나요? 저와 목각인형은 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율리우스 전하께서 두 분의 자리 또한 별도로 만들어놓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인즉 율리우스는 에이미가 정원에서 로이스, 목각인형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로이스와 목각인형도 저녁만찬에 초대했다.

“이런 가문의 영광이 있다. 내 평생 전하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로이스, 너무 잘됐다. 로이스, 아도라와 함께하는 생일 파티라니 너무 설렌다.”

에이미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에이미 공주님의 자리는 가장 큰 식탁이고 로이스 님의 자리는 공주님 식탁 왼편에 놓여진 식탁입니다. 그리고 목각인형 님의 자리는 오른편에 놓여진 식탁입니다.”

세 사람은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식탁은 세모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고 가장 크고 화려한 식탁에는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금으로 치장된 붉은 색 의자가 준비되어있었다. 왕의 의자 바로 옆에는 에이미를 위한 작은 의자가 놓여있었다.

세 개의 식탁 중앙에는 커다랗고 화려한 3단 케이크가 놓여져 있었다. 케이크의 맨 위층에는 고운 갈색 과자로 만든 꽃말이 꽂아져 있었다. 그 꽃말에는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宝物, 나의 삶의 행복이자 유일한 안식처인 에이미의 열세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에이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가’ 라고 쓰여져 있었다. 에이미는 율리우스 왕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

“아빠, 고마워요.”

식당의 문밖에서 흥겨운 음악이 새어 들어왔고 궁전식당 안으로 다섯 명의 궁전 악사들이 들어왔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사람이 공주에게 자신들을 소개했다.

“에이미 공주님, 저희는 공주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견된 궁전 악사들입니다. 공주님의 열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감미로운 음악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전악사님.”

다섯 명의 궁전 악사들은 잔잔한 음악을 연주했다. 에이미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며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다. 식탁에는 에이미가 정성을 들어 만든 꽃 왕관이 올려져 있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빠가 오질 않자 에이미는 서서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율리우스 왕이 오기로 약속한 시간은 벌써 많이 지나있었다. 갑자기 창문 밖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수많은 군사가 횃불을 들고 무리를 지어 뛰어다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돌았고 지휘관처럼 보이는 군인은 무서운 표정을 지은 채 쉬지 않고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모두들 긴장을 풀지 마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지휘관은 곧 장교들에게 둘러싸여있는 한 장군에게 다가갔다. 그 장군은 바로 오늘 아침에 정원에서 늙은 대신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파비우스 장군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은색 사자 마크가 달려있었다.

“파비우스 장군님, 궁전 식당 내부의 수비대 배치를 제외하곤 모든 방어준비는 끝났습니다.”

“알겠네. 무슨 사태가 벌어지던 간에 항상 침착하게 행동하게 나. 지휘관이 당황해 하면 병사들은 더욱더 불안해 하오. 그럼 이곳은 자네에게 맡기고 나는 그만 지휘소로 가보겠네.”

“네! 파비우스 장군님.”

왕실 수비대 대장인 파비우스 장군은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지휘소를 향해 사납게 걸어갔다. 파비우스가 자리를 뜨자 장교가 병사들에게 외쳤다.

“궁전식당 밖을 경계하는 병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은 모두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경계를 서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대령님.”

수십 명의 병사들은 궁정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경비를 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빛이 사나웠다. 에이미는 많은 병사가 식당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자 매우 놀랐다. 공주는 무서워서 로이스에게 달려갔다.

“로이스, 무서워. 왜 이곳에 병사들이 온 거지?”

“에이미 공주님, 별일 아닐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의 상관으로 보이는 한 장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 남자는 에이미에게 다가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주를 안심시켰다.

“공주님, 지금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훈련 때문에 궁의 경비가 일시적으로 삼엄해졌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바마마는 어디에 계시나요? 오늘 같이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셨거든요.”

지휘관은 짧막하게 대답했다.

“지금 율리우스 전하께서는 군사훈련을 총괄하는 군사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에이미는 장교의 대답을 듣고 난 뒤 매우 속상해했다.

“그, 그럼 오늘 못 오시는 거야. 오늘은 내 생일인데…….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오,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에이미의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맺혔다. 로이스는 눈물을 글썽거리는 에이미를 무릎 위에 앉히고 달래 주었다.

“율리우스 전하는 꼭 오실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전하가 오셔서 공주님의 눈물로 젖은 얼굴을 보시면 매우 속상해하실 겁니다.”

“그럴겠지? 꼭 오시겠지?”

“물론이죠.”

“그래, 꼭 오실 거야. 일 때문에 조금 늦으시는 거겠지.”

에이미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로이스는 에이미가 장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다섯 명의 궁전 악사들에게 소녀의 기분이 풀어질만한 신나는 음악을 연주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율리우스 왕은 에이미와의 저녁 약속도 잊은 채 대신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신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율리우스 또한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자주 책상을 두드렸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혼자 중얼거렸다.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려 하다니…….”

국방장관이 왕의 집무실로 커다란 지도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숨을 잇따라 가쁘고 거칠게 몰아 쉬었다. 한참 동안 국방장관이라도 착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린 모든 대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국방장관을 맞이했다. 율리우스는 국방장관을 보자마자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조금 늦으셨구려. 어서 지금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쟁상황에 대해 간단히 요약 보고를 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은 첩보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 얼음왕자의 군대가 우리나라의 국경 주변을 맴돌며 국경 지역일대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축이 들어맞자면 얼음왕자의 군사 수는 대략 이십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대신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 하셨소? 얼음왕자의 군사수가 무려 이십만이나 된단 말입니까? 국방장관, 정보가 확실한 게 맞습니까?”

국방장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예, 정확한 정보입니다.”

율리우스 왕이 침착하게 물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강구해둔 계획이 있으면
어서 말하십시오.”

“저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사 오만 명을 급히 국경
요새로 파견하였습니다. 예비 병력 또한 가능한 빨리 편성하여
국경지대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지휘관들에게 병력의 차
가 너무 심하니 적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라 명했습니다.”

율리우스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럼 또 다른 첩보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예, 전하. 오늘 아침 얼음왕자의 진영으로부터 수백 마리의
커다란 썬더버드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어리둥절한 듯 서로의 얼
굴을 맥없이 쳐다보았다.

“썬더버드? 그것은 또 무엇인가?”

“썬더버드의 몸집은 보통 독수리의 그것보다 열 배나 크다고
합니다. 이 동물의 힘은 코끼리보다 세고 움직임은 제비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독수리 부대라는 건가? 그것이 그렇게나 위험한가?”

“예, 그렇습니다. 썬더버드는 세심한 조련을 거치면 사람을 태
운 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썬더버드 부대는
하늘을 날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없는 저희로서는
그들의 진군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썬더버드 부대는 가고 싶은 곳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군.”

“예,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은 다시 보고를 이어갔다.

“오늘 아침 국경의 수비대의 지휘관들은 썬더버드 부대가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왔다고 전해왔습니다. 수비대 지휘관들은 적이

노리는 목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수도를 향해 날아갔다고 알려왔습니다.”

한 대신이 일어나 책상을 손으로 거세게 내려치며 국방장관을 나무랐다.

“아니! 수비대 지휘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들을 진군을 막지 못했소? 이렇게 무능력 할 수가 있나!”

옆에 있는 늙은 대신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에 호응을 보였다. 하지만 율리우스 왕은 국방장관을 질책하는 대신을 진정시켰다.

“지금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오. 국방장관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고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적은 지난 전쟁 때처럼 수도를 급습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파비우스 장군이 이끄는 왕실 수비대 전체에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율리우스의 얼굴은 분노로 불타오르듯이 붉어졌고 목에는 붉은 핏줄이 새겨졌다.

“수도를 습격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궁전을 피바다로 만들 작정이라고! 냉정한 얼음왕자는 도대체 얼마나 나의 왕국을 부수어야만 만족할 것인가! 탐욕스런 얼음왕자는 도대체 얼마나 나의 재물들을 빼앗아야만 만족할 것인가! 잔인한 얼음왕자는 도대체 얼마나 나의 백성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맛보아야만 만족할 것인가!”

왕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격노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율리우스에게 달려들어 그를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얼굴이 붉어진 율리우스 왕은 숨을 헐떡이며 가까스로 흥분을 가라앉혔다.

“국방장관, 그렇다면 적의 습격 시간은 언제가 될 것 같은가?”

“빠르면 지금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수도에 이를 것 같습니다.”

“빠르면 지금이라니…….”

국방장관의 대답을 들은 율리우스의 표정은 어두웠다.

대신들의 표정은 더욱더 어두워 보였다. 그들은 지난 전쟁의 참상을 떠올리며 공포에 사로잡혔다. 대신들의 모습은 마치 호랑이와 마주친 토끼의 모습같이 무력해 보였다. 율리우스는 허둥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대신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마르켈루스는 아직도 도착하질 않았나?”

“예,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율리우스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대신들과 함께 대책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별빛 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하늘에서 찌어지는 듯한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의 새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수백의 같은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그 날카로운 새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알 수 없는 불안을 일게 했다. 에이미의 생일은 소녀의 바람과는 달리 불안한 하늘아래 어두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CHAPTER FIVE

빠른 습격

“불안한 하늘아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든 파비우스의 병사들은 커다란 독수리를 탄 얼음왕자의 병사들을 상대로 처절한 죽음의 춤을 추었다.”

높은 탑 위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는 공포에 질린 듯 탑 안에 있는 종을 쉬지 않고 쳤다. 그는 어두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독수리다! 수백의 독수리가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보초의 짧은 외침 하나에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병사는 보초가 가리키고 있는 하늘로 고개를 일제히 돌렸다. 그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에 휩싸인 하늘을 응시했다.

파비우스 장군은 밤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인가.”

갑자기 지휘소 안으로 부 지휘관이 달려들어왔다.

“파비우스 장군님! 지금 수백의 썬더버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적군의 진격속도가 빠르군. 역시 얼음왕자다운 진격이야. 이제 곧 어두운 하늘아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겠어. 부장, 지금 즉시 훈시를 할 것이니 어서 가서 모든 병사들을 소집하게!”

“네! 알겠습니다. 파비우스 장군님”

파비우스 장군의 명령을 받은 부장은 지휘소를 나가자마자 전투를 알리는 붉은 깃발을 깃대에 달고 집합을 알리는 북을 연신 두들겨댔다. 붉은 깃발은 바람에 날려 마치 성난 전사처럼 거세게 펄럭거렸고 북소리는 구령소리처럼 힘차고 절도가 있었다. 온 진영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북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장병들은 사열대 앞으로 빠르게 모였다. 높은 하늘에 나부끼고 있는 붉은 깃발을 보자 병사들의 주위에는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다. 병사들이 다 집합하자 파비우스는 사열대에 올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훈시를 시작했다.

“모든 장병들은 들으라! 오랫동안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너희들의 용맹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조금 있으면 얼음왕자가 이끄

는 적부대가 이 성을 공격할 것이다. 얼음왕자는 아주 적은 군사로 무모하게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어리석은 공격을 분쇄하여 지난 날 우리가 받은 고통과 눈물에 대한 앙갚음을 하자! 조국의 영광을 위해 그대들의 날카로운 칼을 뽑아라!”

병사들은 파비우스 장군의 훈시에 크게 고무되어 하늘 높이 함성을 질렀다. 그들은 칼로 방패를 세차게 두드리며 전의를 불태웠다.

훈시를 마친 파비우스는 지휘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작전지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눈은 매섭게 반짝거렸고 입은 돌처럼 단단하게 닫혀있었다. 그의 옆에는 엄숙한 지휘소 안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을 아주 앓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서있었다. 그 어린 장교는 마치 영웅을 보는 것처럼 파비우스를 쳐다보고 있었다. 장군은 고개를 돌려 소년에게 말했다.

“루쿨루스야, 이번 전투가 너의 첫 실전이 되겠구나. 군인이란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항상 침착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란다. 오늘은 너에게 정말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투를 치르기에 너의 나이가 너무 어리니 안전한 곳에서 오늘 벌어지는 전투를 유심히 지켜보거라.”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같이 용맹하게 얼음왕자와 싸울 수 있습니다. 부디 저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루쿨루스는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대답했다. 파비우스 장군은 고개를 저으며 소년을 조용히 나무랐다.

“루쿨루스야, 이것은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 아니란다. 바로 대장군으로써 내리는 명령인 것이다. 본디 군인이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란다.”

“예! 알겠습니다. 파비우스 장군님.”

루쿨루스는 아버지의 뜻에 절도 있는 목소리로 파비우스 장군에게 대답한 뒤 부하들을 거느리고 비교적 안전한 후방지대로 뛰어갔다. 파비우스는 능률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루쿨루스야, 이제 너도 다 컸구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커주다니 너무나도 고맙구나. 하지만 오늘이 너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파비우스 장군은 허리의 찬 칼을 괴롭게 만졌다.

같은 시간, 대신들과 회의 중이던 율리우스는 서둘러 창가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진한 어둠에 휩싸인 하늘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종소리? 벌써 얼음왕자가 이 근처에 왔단 말인가?”

멀리서 수많은 점들이 성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왕은 이내 증오에 불타는 듯 두 손을 불끈 쥐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얼음왕자. 너 이놈, 이번에는 너에게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죽여 오 년 전의 치욕을 되 갚아주겠다.”

회의실로 파비우스 장군이 보낸 병사가 들어왔다. 병사는 국방장관에게 파비우스가 작성한 서신을 전했다. 국방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서신을 읽고 왕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다.

“전하, 수백의 썬더버드들이 성 주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이 방은 매우 위험하니 비밀 지휘소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의 말이 맞소. 그럼 비밀 지휘소로 자리를 옮길 것이니어서 앞장을 서시오.”

율리우스 왕은 대신들과 함께 궁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지휘소로 자리를 옮겼다.

불길한 검은 하늘에는 썬더버드 부대가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며 질주했다. 검은 새 등위에는 우락부락한 얼음왕자의 군사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밤하늘처럼 검은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한 손에는 긴 창과 다른 손에는 단단한 방패를 들었다.

얼음왕자가 타고 있는 썬더버드는 다른 병사들이 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몸집이 더 크고 털은 하얗다. 그가 백색의 썬더버드를 타고 병사들의 선두에 서있는 모습은 마치 백마를 타고 전군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품과 위용이 느껴졌다.

“오 년만인가? 이 성을 다시 보게 되다니. 나의 슬픈 눈물이 흠뿌려진 성을 다시 찾아오게 될 줄이야.”

얼음왕자는 서글픈 표정으로 성을 내려다보았다. 하늘아래에 놓여진 성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새벽 이슬처럼 맑고 투명했다.

“달을 가린 구름이 서서히 물러나면 고통에 신음하는 비명이 온 성안에 울려 퍼지겠군.”

얼음왕자는 하얀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 가면의 왼쪽 볼에는 피처럼 짙은 붉은 장미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다. 왕자의 머리카락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밤바람에 가볍게 나부꼈다. 그는 붉은 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백색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걸쳐진 망토는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자 마치 춤을 추듯 아름답게 펄럭였다. 매끄럽게 윤이 나는 갑옷의 정 중앙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투명한 수정이 끼워져 있었다. 그 수정 안에는 창백한 푸른색의 얼음심장이 있었고 그 차가운 얼음심장이 힘겹게 뿔 때마다 가슴에서는 푸른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왔다.

“이제 슬슬 병사들에게 훈시를 해야 할 시간이로구나.”

얼음왕자는 고개를 돌려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병사들은 들으라! 어둠이 너희들의 두 눈을 가릴 때에는 더욱더 세심한 관찰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로 한다. 모든 병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껏 보여왔던 그대들의 용맹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알리도록 하라!”

얼음왕자의 군사들은 거친 목소리로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존명!”

얼음왕자는 각 군의 지휘관들을 불러 행동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지휘관들은 절대 방심하지 마시오. 이번 전투는 우리가 여태까지 벌여왔던 전투라 생각하면 아니 되오. 지금 우리는 적은 군사로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것이오.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각 군의 지휘관들은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얼음왕자는 성벽이 점점 가까워지자 뒤따라오는 모든 병사들에게 다시 큰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모든 병사들은 집중해서 들으라! 성벽으로부터 많은 화살이 날아오면 재빠르게 하늘로 날아오른다. 적군이 화살을 재장전 할 때, 그 무방비의 상태일 때 적을 단숨에 무찔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알겠나?”

얼음왕자의 병사들은 칼을 높이 뽑아 들고 함껏 소리쳤다.

“존명!”

햇불로 밝게 밝혀진 성벽 위에서는 성벽의 수비를 맡은 지휘관이 몸을 곧추세웠다. 그는 고개를 돌려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병사들은 활의 시위를 메우라! 적이 성벽을 통과할 때 날카로운 화살을 억수같이 퍼부어 적군의 심장을 부수어버려라! 우리와 같은 함성과 용기로 적군에게 결코 잊지 못할 공포를 심어주어라!”

성벽 위의 군사들은 일제히 어깨에 메고 있던 활에 시위를 엮었다. 두 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활을 잡은 두 손은 두려움에 조금씩 떨렸다. 수비대장은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적을 겨냥하라!”

지휘관의 명령에 군사들은 썬더버드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적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자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큰소리로 명령했다.

“발사! 활을 쏘라!”

성벽 위에 병사들은 수많은 화살을 일제히 발사했다. 많은 화살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활의 시위를 떠났다. 화살은 차가운 밤을 가르며 썬더버드를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화살이 사납게 날라오자 얼음왕자는 우렁찬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하늘로 날아올라 화살을 피해라!”

썬더버드 부대는 날카로운 화살촉을 피하게 위해 일제히 어두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들은 얼음왕자의 뒤를 따라 큰 원을 그리며 성벽 위를 향해 수직으로 내려갔다.

“돌격! 성벽 위에 적을 공격하라!”

썬더버드 부대는 성벽을 따라 아슬아슬한 비행을 했다. 공같이 커다란 독수리들이 성벽을 따라 돌진해오자 율리우스 왕의 병사들은 적을 향해 큰 창을 던졌다. 하지만 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벽 위에 병사들을 부딪치며 돌파해갔다.

코끼리만큼 크고 힘이 센 썬더버드가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성벽아래로 떨어졌다. 율리우스 왕의 군사들은 썬더버드 부대의 속도와 힘에 압도되어 성벽아래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멀리서 성벽 위의 전투를 바라본 파비우스는 옆을 지키고 있는 장군에게 말했다.

“역시 얼음왕자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벽 위에 병사들을 무찌르다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군. 장군, 이제 성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오. 적은 비록 소수지만 그들의 힘과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오. 아마도 이번 전투는 매우 힘든 전투가 될 것이오.”

“목숨을 바쳐서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파비우스 장군님.”

파비우스 장군은 휘하 장수들과 함께 지휘소를 나가 성안에서 벌어질 전투를 준비했다.

기이하게도 성에서 가장 높은 천장에는 햇불처럼 붉은 털을 가진 늑대 한 마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붉은 늑대의 몸은 육중한 곰만큼 크고 단단했다. 그 늑대의 튼튼한 네 다리에는 사자의 발톱처럼 크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었다. 턱에는 진한 수염처럼 검은 털이 나있었고 목까지 연결된 수염은 줄무늬를 이루며 온몸을 향해 뻗어나갔다. 진한 갈색 빛 눈동자는 하늘을 응시했고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는 커다란 입은 하늘을 향한 채 불안한 소리를 내뿜었다.

“아우! 으르르. 아우!”

붉은 늑대는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계속 울었다. 소름이 끼치는 늑대의 울음소리는 날카로운 새소리와 섞여 율리우스 왕의 병사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파비우스 또한 붉은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해했다.

“이 소리는 늑대소리가 아닌가?”

“파비우스 장군님, 성안에 늑대를 키우고 있었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네. 하지만 참으로 불길한 울음소리군. 마치 적을 불러들이는 울음소리 같네.”

파비우스와는 다르게 얼음왕자는 붉은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자 하얀 가면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저 아래서 들려오는 늑대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군, 켈루스.”

얼음왕자는 손을 높이 치켜들어 병사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1군과 2군은 성안에 있는 율리우스 왕의 병사들을 제압하라. 번개같이 빠르고 태풍처럼 강렬하게 적을 붕괴시켜라. 3군은 나

를 따라서 켈루스가 알려준 비밀 지휘소로 신속히 돌진해 들어간다. 모두들 무운을 빈다.”

병사들은 적군의 피로 물들은 칼을 흔들며 소리쳤다.

“존명!”

병사들의 넘치는 기백을 확인한 얼음왕자는 붉은 망토를 휘날리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았다. 그는 가느다란 칼을 성을 향해 뻗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나를 따라라!”

썬더버드 부대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적을 향해 질주하듯 내려갔다. 1군과 2군은 새가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3군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져 갔다.

파비우스 장군은 얼음왕자의 군대가 빠르게 접근해오자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얼음왕자의 부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다. 모두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적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라!”

파비우스 장군의 병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대오를 맞추어 서서 적을 사납게 쳐다보았다. 이에 얼음왕자는 성안에 수비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적군에게 폭탄을 퍼부어라!”

얼음왕자의 명령에 병사들은 수많은 폭탄을 던졌다. 폭탄은 땅에 닿기 무섭게 커다란 화염을 내며 폭발했다.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는 시뻘건 불꽃과 함께 부서지고 으깨어진 시체조각들이 하늘 높이 솟아 올랐다.

파비우스 장군은 아주 가까이 터진 폭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행동했다. 그의 얼굴은 짓이겨진 주검에서 내려지는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절도 있게 명령했다.

“적은 많은 수에 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공격명령을 기다려라!”

파비우스의 병사들은 수많은 폭발 속에서도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료들의 피를 뒤집어쓰면서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얼음왕자는 맹렬한 폭탄공격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파비우스 장군의 병사들을 보았다.

“이렇게 많은 폭탄세례를 받고도 혼란에 빠지지 않다니 참으로 대단하군. 이거 전투가 점점 재미있어지는 군.”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병사들은 들으라! 적을 힘으로 제압한다. 모두 돌격 대형으로!”

모든 썬더버드 부대가 진영을 바꿔 삼각형의 대형으로 정렬했다. 얼음왕자는 적을 가리키며 크게 외쳤다.

“돌격! 적군을 섬멸하라!”

얼음왕자의 커다란 외침에 썬더버드가 일제히 적을 향해 돌진했다. 용맹한 얼음왕자의 군사들은 무서운 속도로 땅을 스치듯 나아가며 적에게 접근했다. 썬더버드 부대가 돌격해오자 파비우스 장군 또한 큰 소리로 소리쳤다.

“썬더버드를 향해 활을 발사하라! 적군의 심장에 날카로운 죽음을 쏘아라! 그들의 눈에 끔찍한 고통을 꽂아라!”

파비우스의 명령에 병사들은 수많은 화살을 쏘았다. 십 여기의 썬더버드가 화살을 맞아 고통에 신음하며 땅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나머지 썬더버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나게 돌격했다. 이에 파비우스 장군은 다시 긴장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썬더버드가 자유롭게 날지 못하도록 창과 그물을 던져라!”

병사들은 썬더버드에게 창을 던지고 그물을 던지며 적이 자유롭게 날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썬더버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수비군 깊숙이 돌진했다.

이윽고 파비우스 군사들과 얼음왕자의 군사들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얼음왕자의 군대는 땅을 미끄러지듯이 날면서 적군을 공격하였고 파비우스의 군대는 그들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창을 던

지고 화살을 쏘았다. 양방 모두 치열한 전투 속에 수많은 핏물과 비명이 하늘로 솟구쳤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서로 처절한 죽음의 춤을 추었다.

파비우스 장군은 불안한 눈빛으로 전투를 바라보았다.

“얼음왕자는 너무 무모한 싸움을 하는 군. 아무래도 이상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공공이속이 있는 게 분명해.”

파비우스 장군은 얼음왕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앞으로 부관 한 명이 급히 달려왔다.

“파비우스 장군님, 지금 적의 공격이 너무 거셉니다. 얼음왕자의 매서운 공격에 왕실 수비대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궁 안에 배치된 예비병력들을 불러 고전하고 있는 수비군을 돕게 했습니다.”

파비우스는 부관의 말에 놀라 호통을 치며 나무랐다.

“궁 안에 있는 예비병력들을 나의 허락 없이 이동시켰단 말이냐?”

“예,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한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 해주십시오.”

파비우스 장군은 눈을 크게 뜨고 궁전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이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바로 그거였어! 우리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얼음왕자는 궁전 안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갈 속셈이야. 부관, 예비병력들을 서둘러 궁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네!”

“하지만 장군님, 지금 주력병력이 고전하고 있는 터라 예비병력을 빼낸다면 수비군 전체의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율리우스 전하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일세! 지금 궁 안에는 소수의 병사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얼음왕자가 궁을 공격한다면 궁에 배치된 수비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질 게야. 나는 지금 궁으로 가서 수비대를 지휘할 테니 서둘러 지원군을 보내주게나. 한시가 급하네!”

“예! 알겠습니다, 파비우스 장군님.”

파비우스는 궁을 향해 말을 최대한 빠르게 몰았다.

파비우스 병사들과 얼음왕자 병사들의 전투는 절정에 다다른 듯 있었다. 피아간에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파괴적인 전투력을 지녔다고 알려져 왔던 얼음왕자의 군대는 소문과 달리 적을 압도적으로 밀어 부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얼음왕자가 가슴 속 깊이 숨겨둔 계략이었다. 그는 적군을 궁전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끌어내기 위해 무모한 공격으로 적을 유인했던 것이었다. 적은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궁전에 배치되어 있던 예비대가 궁을 비운 것을 확인한 얼음왕자는 높은 하늘로 날아올라 소리쳤다.

“1군과 2군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최루폭탄을 던져라! 그리고 3군은 나를 따라 율리우스 왕이 있는 궁으로 간다!”

얼음왕자의 명령대로 1군과 2군의 병사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최루폭탄을 던졌다. 땅에 떨어진 수많은 최루폭탄이 터지자 그 안에서는 매운 연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다. 율리우스 왕의 군사들은 매운 연기에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파비우스 장군은 하늘 높이 날아오른 얼음왕자의 군사들을 걱정스레 쳐다보았다.

“서둘러야 한다. 율리우스 전하가 위험하다!”

파비우스 장군은 길을 재촉했고 온 힘을 다해 말을 몰았다.

얼음왕자의 1군과 2군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수비대를 향해 화살공격을 날카롭게 퍼부었다. 수비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한 사람씩 화살을 맞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땅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울부짖음과 비명, 그리고 공포의 절규뿐이었다.

“율리우스 왕, 이제 멍청한 얼굴로 얼이 빠져있겠지.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가서 오 년 전처럼 당신을 공포로 밀어 넣을 테니까.”

얼음왕자는 3군을 이끌고 궁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궁에 도착하자 그의 눈에는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도 자신과 당당히 맞서려는 파비우스 장군이 보였다. 얼음왕자는 적군의 군세를 보고 비웃었다.

“훗! 저렇게 적은 군사로 우리의 용맹스러운 군대에 도전하니. 어리석기 짝이 없군.”

파비우스는 결연한 의지로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곧 있으면 지원군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올 때까지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이곳이 뚫리면 우리의 왕국자체가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모두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겐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병사들은 눈을 부릅뜨고 서로 호응했다.

“네! 장군님, 기꺼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파비우스는 직접 칼을 뽑아 선두에 섰다. 그는 부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전의를 다지기 위해 전투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이를 본 얼음왕자가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적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궁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 적의 장군이 앞장을 섰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적은 죽음을 각오한 군대다. 하지만 그들의 결연한 의지도 재군들의 용맹아래에서는 무의미하다. 적군을 도륙해라!”

3군의 병사들은 용맹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수비대를 향하여 빠르게 돌진했다. 그들의 앞을 파비우스가 가로막았다.

“네놈들, 이 곳을 무사히 지나가게 할 줄 아느냐!”

파비우스가 커다란 칼을 휘두르자 수많은 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장군의 활약으로 기세가 오른 수비군은 적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얼음왕자는 파비우스 장군의 활약을 지켜보

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늙은 장군은 정말로 훌륭하군. 적이지만 그의 용맹은 존경스러울 정도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나서야 될 것 같군.”

얼음왕자는 썬더버드에서 내려 파비우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더니 파비우스에게 통명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의 작전을 미리 간파하고 대비를 한 것은 높게 살만한 일이나, 그것도 나의 힘 아래에서는 모두 부질없는 짓이오. 당신의 용맹도 오늘로 끝이오. 늙은 장군.”

“네놈의 그 오만한 혀를 잘라버리겠다.”

파비우스는 얼음왕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커다란 칼을 힘차게 내리쳤다. 얼음왕자는 파비우스의 칼을 살며시 피한 후 그의 왼쪽 어깨죽지에 칼을 찔러 넣었다. 파비우스의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쳤다.

“악! 얼음왕자, 네 이놈.”

파비우스는 오른손으로 어깨를 움켜쥐며 얼음왕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시퍼런 살기가 어려있었다. 얼음왕자는 파비우스에게 비웃듯 말했다.

“늙은 장군, 전투를 하기에 당신의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군.”

“네놈!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파비우스는 커다란 칼을 높이 들고 다시 얼음왕자에게로 달려들었다. 얼음왕자의 날카로운 칼은 파비우스의 칼이 내려치기 전에 늙은 장군의 심장에 꽂혔다. 파비우스 입에서는 고통의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으악!”

가슴으로부터 붉은 피가 쉬지 않고 솟구쳐 올랐다. 파비우스의 입에는 쓰디쓴 핏물이 고였다. 그는 칼을 떨어뜨린 채 서서히 쓰러지며 말했다.

“너의 그 저주 받은 심장처럼 너에게 소중한 모든 것에 저주가

내리리라. 너의 육체를 덮은 끔직한 저주가 너의 이성을 파먹고 너의 감정을 부술 것이다. 저주 받은 왕자여.”

파비우스 장군은 고통스럽게 피를 토하며 죽었다.

“당신의 저주, 즐겁게 받겠소. 늙은 장군.”

얼음왕자는 칼에 묻은 피를 닦았다.

“파비우스 장군, 용맹한 당신의 몸을 더럽히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목을 자르는 나를 용서해 주시오. 적장의 목을 잘라라!”

얼음왕자의 병사들은 파비우스의 시체를 뒤로 빼내었다. 그들이 장군의 목을 자르려 하자 파비우스의 병사들은 시체를 찾기 위해 발악을 하며 덤벼들었다. 얼음왕자의 병사들이 파비우스 장군의 머리를 자르고 잘려진 머리를 창 끝에 꽂았다. 그러자 파비우스의 병사들은 괴성을 지르며 시체를 찾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공격했다. 하지만 얼음왕자의 군사들 또한 긴 창을 잡고 수없이 그들을 찌르며 시체를 지켰다.

얼음왕자는 장군의 머리가 꽂힌 창을 건네 받고 썬더버드를 탄 채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는 창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적의 장군이 죽었다. 승리가 눈앞에 왔다. 이제 오합지졸인 적군을 섬멸하라!”

이 광경을 본 얼음왕자의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하지만 파비우스 장군의 병사들은 장군의 잘려진 머리보고 울부짚었다. 그들은 슬픔과 분노에 미친 채 얼음왕자의 군대를 향하여 복수의 공격을 펼쳤다. 하지만 대장이 죽은 수비군은 점점 얼음왕자의 군대에 의해 압도되고 있었다.

궁의 입구에서는 장군을 잃은 수비대가 미친 듯 울부짚으며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서서히 수비군은 무너져갔고 그들의 처절한 울부짚음은 입구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결국 궁의 입구는 얼음왕자의 군에게 점령당했다. 수비대가 모두 괴멸되자 얼음왕자는 병사들에게 다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율리우스 왕을 사로 잡으러 간다. 켈루스가 전해준 정보에 의하면 율리우스는 지금 비밀지휘소에 있다고 한다. 그가 도망치기 전에 반드시 사로잡아야 한다! 알겠나?”

얼음왕자의 병사들은 적군의 피로 적셔진 입을 벌리며 소리쳤다 .

“네! 장군님”

얼음왕자의 병사들은 썬더버드를 타고 궁 안에 남겨진 적을 소탕하며 번개처럼 빠르게 비밀지휘소를 향해 날아갔다.

한편 비밀지휘소에서 전투상황을 보고 받고 있던 율리우스에게 한 병사가 달려와 전투상황을 알렸다.

“전하, 궁의 입구가 돌파되었습니다. 입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파비우스 장군은 전사했습니다. 적은 비밀지휘소를 향하여 곧장 진격하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율리우스 왕은 책상을 내려치며 울부짖었다.

“아니, 파비우스 장군이 전사했던 말인가? 신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건가!”

옆에 있던 국방장관이 왕을 재촉했다.

“전하, 한시가 급합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알겠소. 국방장관, 앞장을 서시오!”

국방장관은 왕과 대신들을 이끌고 비밀 탈출로를 향해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앞으로 부상당한 병사가 달려왔다. 그는 피로 물든 그의 가슴을 움켜쥐며 다급하게 말했다.

“전하! 지금 탈출로로 통하는 모든 길이 얼음왕자의 군사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이 앞으로 계속 가신다면 적군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병사의 보고를 들은 국방장관이 왕에게 말했다.

“전하, 하는 수없이 궁의 꼭대기 층에 있는 폐쇄의 방으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곳은 커다란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어 지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소. 그건 그렇고 얼음왕자가 궁의 내부를 속속 들이 알고 있다니. 우리 내부의 첩자가 있었어. 내부의 첩자가…….”

율리우스 왕과 대신들은 맨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폐쇄의 방으로 들어온 그들은 크고 무거운 철문을 잠갔다. 그 방에는 오로지 별빛이 들어오는 큰 창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는 두꺼운 돌과 철문으로 둘러싸여있었다.

얼음왕자가 부관에게 물었다.

“율리우스 왕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비밀 탈출로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을 알고 폐쇄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끌어볼 생각이군. 하지만 이제 독 안의 든 쥐의 꼴과 다름이 없어. 병사들은 들으라! 율리우스 왕이 폐쇄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승리가 눈 앞에 왔다!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병사들은 힘차게 소리쳤다.

“존명!”

얼음왕자는 병사들을 이끌고 궁을 나가 폐쇄의 방 창문이 보이는 곳까지 날아올라갔다. 그는 창문에 비친 율리우스와 그의 대신들을 보았다. 얼음왕자는 방안에 있는 적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병사들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얼음왕자가 율리우스를 포위한지 얼마 안 지나서 파비우스의 부관은 궁의 입구로 지원군들을 데리고 도착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군의 피로 물들은 입구를 바라보며 증오에 불타는 것뿐이었다.

병사들 중에 어린 장교 한 명이 목 없는 시체를 향해 달려갔다. 그 어린 장교는 파비우스의 아들인 루쿨루스였다. 시체의 가슴에는 은색 사자 마크가 달려있었다.

“은, 은색 사자마크……. 안돼!”

루쿨루스는 목 없는 시체를 안으며 울었다. 그 시체는 바로 방금 전 얼음왕자에게 죽임을 당한 파비우스의 시체였다.

“아버지! 어찌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 겁니까? 당신의 용맹한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차갑게 굳어있는 핏물 속에 누워계시는 겁니까? 아버지! 우렁찬 목소리로 수많은 병사를 호령하시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어두운 하늘 아래 쓸쓸히 홀로 누워계시는 겁니까?”

루쿨루스는 커다란 슬픔에 절규했다. 그의 옆으로 지원군의 대장이 다가왔다.

“루쿨루스야, 지금은 파비우스 장군님의 죽음을 슬퍼하기 보다 적을 궁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파비우스 장군님도 너의 슬픈 눈물보다는 용맹한 외침을 원하실 거다. 그러니 어서 슬픔을 거두어라!”

“죄송합니다. 장군님.”

루쿨루스는 울먹이며 아버지의 시체를 살며시 내려 놓았다. 그는 아버지의 손의 쥐어진 칼을 빼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칼을 쥐고 복수를 다짐했다.

“얼음왕자, 내 기필코 너의 육신을 부수고 으깨리라! 내 기필코 너의 입으로부터 토해내는 고통의 비명과 뿜어지는 피를 삼키며 너의 찢어진 가족을 씹으리라!”

루쿨루스는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을 훑치며 소리쳤다. 그는 분노의 찬 눈빛으로 궁 안을 바라보았다.

율리우스는 폐쇄의 방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깜작 놀랐다. 창문 가까이 다가간 그는 얼음왕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껍 깨물었다.

“얼음왕자, 이 죽일 놈!”

얼음왕자는 창문을 통해 비치는 왕의 얼굴을 바라보며 씩 웃었

다.

“어리석은 왕이여,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병사들은 폐쇄의 방으로 돌격하라!”

얼음왕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그들의 용맹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폐쇄의 방으로 빠르게 돌진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빠른 속도로 창문과 부딪혔고 커다란 창문은 귀 안이 멍멍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유리 파편들은 폭발하듯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이내 수십 기의 썬더버드가 방 안으로 난입해 들어왔다.

국방장관은 창문 가까이 서있던 율리우스 왕을 창문 멀리 밀쳤다.

“전하, 위험하십니다!”

얼음왕자의 군사들은 얼른 썬더버드에서 내려 방안에 있는 대신들과 호위병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신들은 공포에 휩싸여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썬더버드에서 내려 도망치는 적군을 죽여라!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병사들의 사나운 칼에 율리우스 왕의 대신들과 호위병사들은 힘없이 쓰러져 갔다. 대신과 병사가 모조리 죽자 국방장관은 칼을 빼어 들고 왕을 지켰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적을 노려봤다.

“네 이놈들, 죽여버리겠다!”

국방장관은 적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칼은 수많은 적군을 베었지만 그도 이내 적군의 칼에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국방장관!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율리우스 왕도 칼을 빼어 적군에게 사나운 기세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수많은 적군이 한꺼번에 공격해 그의 칼을 빼앗고 왕을 제압했다. 그들은 폐쇄의 방을 바깥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철문을 다시 잠갔다.

짧은 전투가 끝나자 얼음왕자는 커다란 썬더버드 타고 폐쇄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썬더버드에서 내려 포박당한 왕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냉소적인 인사말을 건넸다.

“율리우스, 오랜만이요. 그건 그렇고 왕의 꼴이 참으로 우습군. 자네는 오 년 전과 비교해서 하나도 나아진 게 없군. 포박당한 왕이여, 오늘의 수치는 당신이 만든 것이요. 자네는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와 맺은 조약을 어겼소.”

율리우스 왕은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 찬 눈빛으로 얼음왕자를 올려다 보았다.

“우리는 강화 조약을 어긴 적이 없다. 네가 먼저 조약을 어기고 나의 왕국을 침략했으니 우리는 너의 침략에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당신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갈 줄 아시오?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군대를 양성하고 주변국들을 꺾어 그들이 우리나라의 패권에 도전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소!”

“뜬금없이 무슨 소리요!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소. 나는 군사를 대규모로 양성한 적도 없고 다른 나라들과 공모하여 전쟁을 일으킬 생각도 절대 없었소.”

얼음왕자는 율리우스가 강하게 항변하자 부관이 가지고 온 밀서를 꺼내었다. 그는 그 문서를 왕의 눈앞에 펼쳤다.

“이 문서가 바로 당신이 주변국들에게 보낸 것이요.”

“아니, 그, 그 문서는…….”

율리우스는 밀서를 보자 몹시 당황했다.

“어리석은 왕이여, 나는 바보가 아니요. 내가 여기까지 아무런 증거 없이 무턱대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오!”

얼음왕자의 추궁에 율리우스는 눈을 치켜뜨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왕의 두 눈에는 살기의 독이 담겨있었다.

“저주 받은 왕자여, 다 알고 왔으면 어서 나를 죽여라!”

율리우스 왕은 목을 들이댔다.

“그렇게 죽고 싶은가?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네. 힘없는 당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무엇이 더 나빠지겠나? 비참하게 부수어진 왕국에서 나의 감시를 피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슬피 우는 것뿐이겠지.”

얼음왕자는 율리우스 왕을 비웃었다.

“율리우스 왕이여, 내 그대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겠소. 두 번 다시 강화내용을 위반하지 마시오. 만약 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전쟁의 무서움을 철저히 알게 해주겠소. 또다시 조약을 어겨 나를 실망시킨다면 그때에는 당신을 비롯한 왕국전체에 죽음을 선사하겠소.”

얼음왕자는 허리에 찬 칼을 뽑더니 율리우스 왕의 왼쪽 뺨에 깊은 상처를 냈다. 왕의 뺨에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얼굴은 고통과 수치로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가슴에는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얼음왕자, 네 이놈…….”

“어리석은 왕이여, 당신의 눈을 보니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군.”

얼음왕자는 율리우스를 뒤로한 채 다시 썬더버드를 탔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궁정식당으로 간다.”

얼음왕자는 부하들과 함께 어두운 별빛이 비추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CHAPTER SIX

얼음왕자

“얼음왕자가 하얀 가면을 벗자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났지만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가득 차있었다.”

율리우스의 지원군은 폐쇄의 방 앞에 도착하자마자 폭탄을 사용해서 커다란 철문을 부수었다. 지원군의 맨 뒤에는 마르켈루스가 서있었다. 그는 방안으로 들어서자 황급히 왕에게 달려갔다. 율리우스는 마르켈루스의 소매를 부여잡고 긴박하게 말했다.

“공주를 보호해야 하오. 지금 얼음왕자가 공주가 있는 궁정식당으로 갔소. 어서 빨리 병력을 보내어 공주를 보호해야 하오.”

마르켈루스는 피로 얼룩진 왕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지원군 대장에게 명령했다.

“장군! 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공주님이 있는 궁정식당을 향해 출발하십시오. 한시가 급하오!”

“알겠습니다.”

장군은 휘하 병력들을 이끌고 방을 나갔다.

“율리우스 전하, 우선 상처를 치료하시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공주님이 있는 궁정식당에는 지원군을 보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르켈루스는 부서진 창문을 바라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도 그의 미소를 알아보지 못했다.

수많은 꽃으로 장식된 궁정식당에서 에이미는 매우 심심해 보였다. 어린 공주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끌려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에이미를 호위하는 장군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공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굵고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미 공주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에이미는 뽀로통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 궁금한데…….”

공주는 어쩔 수 없이 로이스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무릎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로이스의 뺨을 꼬집으며 장난을 걸

었다.

쿵! 쿵! 쿵!

갑자기 굳게 걸어 잠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호위장군은 그 소리에 뜨거운 땀을 흘리며 긴장했다. 에이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문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화려한 꽃과 귀여운 인형으로 한껏 꾸며진 궁정식당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호위장군이 소리쳤다.

“누구냐? 이름과 소속을 밝혀라!”

동시에 그는 부하들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병사들은 문 앞에 열을 맞추어 섰고 창 끝을 문으로 향한 채 자세를 낮추었다. 호위장군의 질문에 문 밖의 한 사내가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얼음왕자라 불리지. 어서 문을 열어라. 쓸데없는 피를 흘리긴 싫다.”

얼음왕자의 차분한 대답은 식당 안에 공포를 불러왔다.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창을 더욱 꼭 움켜쥐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로이스와 목각인형 또한 크게 놀랐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얼, 얼음왕자라고?”

로이스는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에이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가 무서워하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분하게 말했다.

“공주님, 제가 공주님의 눈을 가린 손을 치울 때까지 두 손으로 귀를 꼭 막으세요. 절대로 손을 떼서는 안됩니다. 아셨죠?”

“왜?”

“그건 비밀이에요. 하지만 제가 공주님의 두 손을 치우고 나면 아마 멋진 일이 공주님 앞에 일어날 거예요. 단 공주님이 저의 말대로 귀를 꼭 막고 있어야 되지만요.”

에이미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로이스의 말대로 행동했다. 공주가 작은 손으로 귀를 막자 로이스는 에이미의 두 눈을 손으로 가리고 공주를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의 옆에는 목각인형이 궁전식당의 문을 걱정스레 쳐다보며 서있었다.

호위장군이 소리쳤다.

“얼음왕자, 네 이놈! 내가 죽기 전까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쓸데없는 저항을 하려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군. 문을 부수고 식당을 점령하라!”

얼음왕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자 궁전식당의 문이 부서지고 병사들이 방안으로 노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호위대를 여지 없이 무찔렀다. 얼음왕자의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 적군을 죽이려 하자 얼음왕자는 그들의 행동을 저지했다.

“공주 앞에서 피를 부르지 마라.”

얼음왕자의 짧은 명령에 군사들은 잘 훈련된 맹견처럼 칼을 거두고 살기를 감추었다. 병사들은 항복한 적군을 포박하여 끌고 나갔다.

“이제 서둘러 공주를 찾아야겠군.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보아하니 저 하녀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아이가 에이미 공주인가 보군.”

얼음왕자는 천천히 에이미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공주 앞으로 다가서려 하자 목각인형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목각인형은 얼음왕자에게 경고했다.

“에이미 공주님에게서 물러서!”

얼음왕자는 겁 없이 자신의 앞길을 막은 목각인형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생명의 축복을 받은 인형이라. 너는 참으로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있군. 나의 용맹한 군사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말이야. 그건 그렇고 자네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나 본데, 나는 공

주님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닐세. 나는 단지 공주님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 온 거라네.”

얼음왕자는 차분한 말로 목각인형을 설득했다. 하지만 목각인형은 얼음왕자를 향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재차 경고했다.

“에이미 공주님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생명의 축복을 받은 인형아, 나에게 있어서 저 어린 공주는 나의 목숨을 걸만큼 소중한 존재란다. 그러니 그 사나운 경계심을 풀고 길을 비켜주게나. 부탁이네.”

얼음왕자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얼음왕자가 간절히 부탁하자 목각인형은 길을 비켜주었다. 얼음왕자는 목각인형의 옆을 지나 에이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로이스에게 말했다.

“공주의 눈을 가린 그 손을 치우시오.”

얼음왕자의 명령에 로이스는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녀가 손을 치우자마자 에이미는 귀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두 눈을 살며시 떠서 주변을 빙 둘러보았다. 에이미는 앞에 서있는 하얀 가면을 쓰고 있는 남자를 올려다 보았다.

“누구세요?”

얼음왕자는 얼굴을 덮고 있던 하얀 가면을 벗었다. 그가 흰 가면을 벗자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났다. 백옥같이 흰 피부에 깊은 속눈썹, 오뚝한 콧날, 붉은 입술은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

“에이미 공주님, 그대를 보기 위해 길 고긴 여정을 참았습니다. 그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 곁에 다가왔습니다. 공주님의 열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작은 선물을 바칩니다.”

얼음왕자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에이미에게 장미 꽃 한 송이를 주었다. 그리고 공주의 이마에 살며시 키스했다. 에이미는 몸

시 쑥스러운 듯이 두 볼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에이미 공주님, 지금 바로 공주님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하는군요. 오 년 뒤에 공주님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는 세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겠군요. 그 동안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공주여.”

얼음왕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썬더버드를 타고 궁전식당을 빠져나갔다. 궁전 식당에 있던 부하들도 그를 따라 나갔고 궁 밖에서 왕실수비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병사들 또한 모두 전투를 중지하고 얼음왕자의 뒤를 따라 성을 떠났다. 얼음왕자는 고개를 돌려 쓸쓸히 솟아있는 눈물의 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푸른빛을 쏟아내는 가슴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나의 슬픔을 간직한 탑이여, 나의 눈물을 삼킨 탑이여, 흉물스럽게 부서진 너의 모습은 가슴속 깊이 숨겨둔 고통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구나.”

얼음왕자는 점점 작아지는 탑을 바라보며 슬픔에 젖었다. 얼음왕자와 그의 군사들은 끝도 알 수 없는 어두운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갔다.

율리우스 왕이 궁전식당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에이미를 찾았다. 에이미는 로이스의 무릎에 앉아 율리우스 왕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율리우스 왕은 에이미가 무사한 것을 보고는 안심했다. 왕을 발견한 에이미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로이스의 품에서 내려와 율리우스를 향해 달려갔다.

“아빠, 왜 이리 늦으셨어요?”

하지만 율리우스에게는 지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그는 에이미의 생일을 챙겨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향해 달려오는 공주를 못 본척하며 매

몰차게 돌아섰다.

“에이미는 무사한 것 같군. 마르켈루스, 지금 희생자와 부상자를 파악하고 성의 수비를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게.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모든 대신들을 소집하게나.”

에이미는 이제서야 아빠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율리우스는 에이미를 뒤로하고 왕의 집무실로 빠르게 걸어갔다. 에이미는 멀어져 가는 율리우스를 바라보며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렸다.

“아빠,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공주의 작은 손에는 율리우스 왕에게 선물하려고 만든 꽃 왕관이 쥐어져 있었다.

“아, 아빠, 미워. 아빠에게 줄려고 선물까지 만들어 왔는데…….”

에이미는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목각인형과 로이스가 서둘러 달려와 위로했지만 슬픔은 멈추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갔다. 오색의 꽃으로 장식된 궁정식당 안은 슬픈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엉엉, 아빠 미워. 나하고 같이 생일파티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에이미는 방안이 울리도록 엉엉 울었다.

울고 있는 공주가 불쌍해 보였는지 다섯 명의 궁정악사들이 에이미에게로 다가왔다. 그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한 악사가 에이미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에이미 공주님, 저의 이름은 니키아스입니다.”

에이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어 니키아스를 쳐다보았다. 니키아스는 공주에게 물었다.

“에이미 공주님, 무엇 때문에 그다지도 슬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저를 슬픔 속으로 몰고 들어가요. 저

는 왜 이리도 불행하고 아픈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이미는 자신의 슬픈 처지를 한탄했다.

“공주님을 둘러싼 모든 것이 공주님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에이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니키아스는 울고 있는 공주를 의자에 앉힌 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니키아스의 이야기 - ‘세가지 불행 그리고 세가지 행복’

많은 동물이 함께 어울리며 사는 숲이 있었다. 그 숲에서는 토끼가 호랑이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고 호랑이도 토끼를 해치지 않았다. 모든 동물이 서로 친한 친구였고 또 화목한 가족이었다.

평화로운 어느 날, 호랑이는 토끼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며 뛰어 놀았고 사슴과 곰은 밀동이 잘린 나무그루에 앉아 카드놀이를 했다. 족제비는 할 일이 없는 듯 사슴 옆을 어슬렁거리며 카드놀이를 구경했다. 그리고 뾰족한 입으로 끝없이 말을 쏟아냈다.

“어이 사슴친구, 혹시 그 소문을 들었어?”

사슴은 옆에서 자꾸 떠드는 족제비가 귀찮은 듯 통명스럽게 맞장구를 쳐주었다.

“무슨 소문?”

“내일 강 건너 숲에 살던 너구리가 이리로 이사를 온다는 소식 말이야.”

“응, 어제 참새가 우리 집에 편지를 전해주면서 말해주더군. 그런데 너는 왜 쓸데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너구리가 이사 오는 것에 그리도 신경을 쓰냐?”

“쓸데없다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데. 너는 그 너구리가 누군지 알아? 만약 내가 그 너구리가 누군지 알려주면 네 두 눈이 열간이처럼 커질걸. 놀라서 말이야.”

“도대체 그 너구리가 누구길래 오두방정을 떨어 카드놀이를 방해하는 거야?”

사슴의 말은 조금 거칠었지만 그는 족제비의 말에 관심이 가는 듯 카드를 잠시 내려놓았다. 마주 앉아있던 곰은 사슴이 카드를 내려놓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곰이 가지고 있던 패는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독수리에게 들은 건데 이번에 이사 오는 녀석은 엄청난 부자래. 그의 창고에는 맛있는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있데. 더구나 그 비싸다는 호랑나비 애벌레를 무려 천 마리나 기르고 있단나?”

“호랑나비 애벌레를 무려 천 마리나 기르고 있다고? 정말이야? 네 녀석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그 너구리가 이사오면 마중을 나가서 인사라도 건네야겠는걸. 뭐 아냐. 친하게 지내면 좋은 음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말아야.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지. 그렇지 않은가?”

“암, 그렇고 말고. 자네 말이 백 번 옳네.”

족제비와 사슴의 대화를 몰래 가만히 듣고 있던 곰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두 동물을 나무랐다.

“이 바보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은 너구리가 어떤 동물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나?”

족제비가 되물었다.

“왜? 너구리가 어때서?”

이에 곰은 나무의자에서 일어나 열렬하게 너구리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곰은 아무래도 너구리가 아주 싫은 모양이었다.

“너구리라는 놈은 성질이 더럽고 아주 사납잖아. 몇 년 전 우리 마을에 살았던 너구리를 떠올려봐. 그 녀석은 살무사가 조금 놀렸기로서니 그 친구의 목을 물어 병원에 실려가게 했잖아? 또 씹씹이는 어쩐지 알아? 집안에 산더미 같이 돈이 쌓여 있어도 제 친구나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을 봤어? 아마 이번에 이사올 녀

석도 다른 너구리와 같이 난폭한 이웃이 될게 뻔해. 나는 너구리란 녀석이 우리 마을에 이사오면 말도 안 걸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을 거야. 만약 나에게 친한 척 다가와서 말을 걸면 그 뼈뿔어진 입에다 발길질을 해서 쫓아버릴 거라고.”

“난폭한 이웃?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곰의 말을 들은 족제비와 사슴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사슴과 족제비는 마을 어귀에 나갔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동물들이 새로 이사 오는 너구리를 보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동물들의 맨 앞에 기다리다 지쳤는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곰이 보였다. 족제비와 사슴은 곰에게 다가가 눈을 흘기며 찌려보았다.

“이게 누구신가? 곰님이 아니신가? 어제 너구리하고는 인사도 안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겠다고 소리 내어 말한 것 같은데 말이야. 내 기억이 틀렸나?”

곰은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했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마누라가 친하게 지내라는 군.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마누라가 덩치도 산만하고 성격도 한 성격하잖아. 그러니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그건 그렇고 어제 내가 한말은 너구리에게 비밀로 해야 하네.”

사슴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곰을 놀렸다.

“너의 그 커다란 몸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더라도 한 거냐?”

이에 족제비 또한 곰을 놀려댔다.

“뭐 어제 하루 종일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던데 배가 너무 고프나머지 자존심도 먹어 없었나 보지. 하하하.”

한 시간 가량이 지나자 진귀한 물건을 잔뜩 실은 마차 열대가 툭툭거리며 돌다리는 건넜다. 낡은 마차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우 흔들리면서 앞으로 겨우 나아갔

다. 마차는 얼굴이 잘 생긴 호랑이 열 마리가 끌고 있었는데 힘이 좋기로 소문난 그들도 무거운 마차에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와! 짐마차가 무려 열대나 돼. 오늘 이사 오기로 한 너구리는 정말로 큰 부자인가 봐. 짐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으면 마차를 잘 끌기로 유명한 호랑이가 땀을 흠뻑 흘리며 숨을 거칠게 쉬는 모습을 봐봐.”

짐마차의 행렬이 다 지나가자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작은 수레 한대가 보였다. 그 수레에는 너구리 가족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독특한 옷을 입고 있어서 마을 어귀의 구경꾼들은 그들의 이색적인 풍채를 구경하느라 제법 쓸쓸한 재미를 보았다.

너구리는 얼굴이 납작하고 주둥이는 뾰족했다. 몸집은 족제비보다는 훨씬 컸지만 곰보다는 훨씬 작았다. 이전에 살던 숲에서는 몸집이 제법 큰 편에 속했지만 이 숲 속에서는 작은 편에 속했다. 몸은 땅딸막하고 네 다리는 짧아 맵시가 전혀 나질 않았다. 온 몸을 덮고 있는 황적갈색 긴 털은 부드럽고 광택이 났다. 특이할 만한 점은 얼굴, 목 주변의 털은 검고 텁텁해서 마치 검은 솜을 묻힌 것만 같았다.

구경꾼들은 너구리의 생김새가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했다. 그들은 부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있었다. 족제비가 사슴의 귀에 속삭였다.

“얼굴이 그다지 잘생긴 편은 아니군.”

“하지만 저 입고 있는 옷을 봐. 모두 하나 같이 맵시가 나고 부티가 찰찰 흐르잖아. 마치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편안함과 여유가 있어 보여.”

옆에서 사슴과 족제비의 대화를 들은 곰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슴의 말에 호응했다.

“사슴의 말이 맞아. 얼굴은 그다지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들이

살아온 날들은 모난데 없이 잘생겼잖아. 인생이 잘생겼으니 얼굴이 잘생긴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닌가?”

“인생이 잘 생겼다 라?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네.”

너구리 가족은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마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이웃들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사를 오게 된 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있는 너구리들은 저의 가족들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아이고, 저희야 말로 잘 부탁 드립니다.”

곰이 얼른 손을 뻗어 로이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에 다른 동물들은 선수를 뺀 것 에 속상해하며 다음 순서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

로이는 마을 생활에 잘 적응해갔다. 그는 이전에 이 마을에서 살던 너구리와는 다르게 난폭한 이웃이라 불리지 않고 상냥한 이웃이라고 불려졌다. 이웃들은 모두 로이를 좋아했고 로이 또한 새로운 이웃들을 좋아했다. 로이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동물들은 로이의 한가지 특이한 습관을 발견했고 그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의 주목을 끈 로이의 습관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한숨이었다. 사실 그는 주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집과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손으로 수많은 재화가 물려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로이는 자신의 불행을 원망했고 끝없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다.

마을의 동물들은 모두 로이를 도와주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했다. 특히 족제비, 사슴, 곰의 노력은 가히 눈물이 날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로이에게 남모를 큰 도움을 받았

다. 더구나 로이는 그들에게 생색을 내긴커녕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해했다. 그래서 세 동물은 로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신경을 쓰고 노력했다.

세 동물은 수소문 끝에 로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찾았다. 그들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기쁜 소식을 로이에게 알렸다.

족제비가 말했다.

“로이!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네.”

“좋은 소식이라니?”

로이는 세 동물의 갑작스런 방문에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동물들을 수소문한 끝에 한 거북이가 사는 곳을 찾았어. 우리가 찾은 그 동물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나무 거북이야. 아마 너도 그 나무 거북이를 만나 지혜를 얻으면 너의 곁에 항상 맴도는 불행을 조금은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럼, 물론이지.”

곰이 로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분을 북돋아 주었다.

일주일 뒤, 로이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나무 거북이를 찾아갔다. 족제비가 알려준 대로 길을 찾아가자 집을 떠나온 지 아흐레가 되는 밤에 나무 거북이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여기가 족제비가 말한 나무 거북이의 집인가 보구나.”

나무 거북이에 집에 들어가자 차곡차곡 쌓여있는 낡은 책과 수많은 지도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로이가 주인을 찾자 곧 늙은 거북이 한 마리가 느린 걸음으로 방에서 나왔다. 그 거북이는 단단한 등딱지를 입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등딱지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많은

동물들은 그 나무가 거북이에게 지혜를 내려준다고 믿었다. 등딱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는 잎이 무성해서 나무 거북이가 움직일 때마다 스스스하고 잎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로이는 나무 거북이에게 많은 선물과 재화를 주고 조언을 요청했다.

“선생님, 저는 많은 재화와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끝없는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무 거북이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구리님, 그러니까 행복을 얻고 싶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로이의 대답을 들은 나무 거북이는 시종을 불러 그에게 귀속말로 속삭였다. 시종은 잠시 뒤 작은 지도를 가지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다. 나무 거북이는 시종에게 낡고 오래된 지도를 건네 받고 책상 위에 그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 지도에는 행복을 관장하는 여신이 사는 곳이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녀를 찾아가 부탁을 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여신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여신을 찾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여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로이는 고개를 숙여 나무 거북이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거북이가 준 지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는 그 지도를 책상 위에 펼친 채 몇 주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시 몇 주가 지나자 로이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야기했다.

“나는 지금부터 행복의 여신을 찾으러 여행을 떠날 거야. 이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내가 없는 동안 모두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기 바란다.”

로이는 충직한 시종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사슴, 족제비, 곰은 마을의 어귀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로이는 도시를 떠나 깊은 숲 안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쓴 위험을 겪은 후에야 그는 행복의 여신이 사는 신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전은 나무와 덩굴로 뒤덮이고 그들과 습기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신전 안은 초라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우아하고 경건함이 물씬 풍겨왔다. 신전의 정 중앙에는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여신상이 놓여져 있었다.

로이는 그 여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신을 불렀다.

“행복을 관장하는 여신이여, 저에게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불쌍한 저를 그대의 지혜로 구원해주소서.”

갑자기 동상에서 밝은 빛이 나더니 차가운 돌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여신이 나타났다.

“저를 부른 동물이 바로 당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자여, 그대는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여신님, 저는 끝없는 불행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이 불쌍한 너구리를 가엽게 여겨 행복을 내려주십시오.”

여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구리에게 되물었다.

“행복을 얻고 싶으신 겁니까? 하지만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는데 대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불행한 그대에게 행복을 주겠습니다. 불행에 허우적거리는 너구리여, 조만간 당신에게 세가지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친구들에게는 세가지 행복이 찾아

올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후에 당신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신은 말을 마치자마자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곳에서는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여신상이 다시 나타났다.

로이는 신전을 빠져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은 전보다 편하고 안전했는데 아마 여신이 그가 가는 길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었다. 로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가족과 친구는 그를 기쁘게 반기었다. 하지만 그는 몹시 피곤했는지 가족과 친구의 환대를 뿌리치고 환영파티 도중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로이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마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마을을 큰 불길 속에 빠뜨렸다. 많은 건물에서 시뵐건 화염이 일었고 로이의 집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커다란 화염은 집을 순식간에 집어 삼켰고 집은 곧 힘없이 무너졌다. 다행히도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로이는 가족을 데리고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했다. 로이는 찢터미가 된 집을 보며 탄식했다.

“아, 이런 불행이 있나! 오늘 이 화재로 나의 보금자리가 사라졌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짓은 집인데. 하늘이시여, 왜 저에게 행복대신 이런 가슴 아픈 불행만을 주시는 겁니까?”

옆으로 사슴이 다가와 한숨을 크게 쉬는 로이를 위로했다.

“친구여, 너무 상심하지 말게.”

로이 또한 화재로 집을 잃은 사슴을 위로했다.

“친구여, 고맙네. 하지만 이런 불행이 나를 비롯한 자네에게도 찾아오다니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네.”

이에 사슴은 고개를 저으며 로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여, 나는 불행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네. 오늘 나는 내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에 감사하네. 사납게 춤추는 저 화염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히 탈출했으니 내 어찌 내가 불행하다 하겠는가?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네.”

로이는 사슴의 대답에 당황했다.

화재가 온 마을을 휩쓸고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시무시한 기습 한파가 마을을 엄습했다. 이 한파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동물이 손을 쓰기도 전에 이미 마을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마을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매서운 추위에 하나 둘씩 쓰러졌다. 로이의 외양간에 있는 호랑나비 애벌레들도 추위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로이는 가축들을 구하기 위해 외양간으로 서둘러 달려갔지만 이미 대다수의 애벌레들이 얼어 죽어있었다. 로이는 추위에 온몸을 바르르 떨며 하늘을 원망했다.

“아, 이런 불행이 있나! 오늘 이 추위로 나의 소중한 가축들이 얼어 죽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키운 가축들인데. 하늘이시여, 화재로 집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에게 또다시 이런 고통스런 불행을 주시나이까?”

옆으로 곰이 다가와 하늘을 원망하며 속을 태우는 로이를 위로했다.

“친구여, 너무 상심하지 말게.”

로이 또한 기습 한파로 많은 가축을 잃은 곰을 위로했다.

“고맙네. 하지만 이런 불행이 나를 비롯한 자네에게도 찾아오다니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네.”

곰은 고개를 저으며 로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여, 나는 불행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네. 오늘 우리 가족 모두는 이 기습적인 한파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몸을 껴안으며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다네. 사실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를 안하고 지낸 지 몇 년이 되었다네. 하지만

추위에 서로를 얼싸안고 밤을 지새우니 누가 할 것 없이 저절로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지.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 수년 동안 가슴속에 묵어있던 오해가 풀렸고 우리 가족들은 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까워졌다네. 매서운 추위가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거지. 그러니 내 어찌 불행하다 하겠는가.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네.”

로이는 곰의 말에 당황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평화로운 봄 어느 날,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왔고 이내 세찬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로이가 보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날것만 같았다. 그는 서둘러 가족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대피했다. 세찬 비가 퍼붓듯 계속 내리자 저수지의 둑은 힘없이 무너졌고 마을은 곧 짙은 황갈색 물에 잠겼다. 이에 로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로이는 하늘을 쏘아보며 탄식했다.

“아! 오늘 이 홍수로 내가 여태까지 일구어온 모든 것이 쓸려갔구나. 나의 모든 것이…….하늘이시여! 왜 저에게 잔인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달콤한 행복대신 쓰디쓴 불행만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슬픔과 억울함에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로이의 옆으로 족제비가 다가와 그를 위로했다.

“친구여, 너무 상심하지 말게.”

로이 또한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족제비를 위로했다.

“고맙네. 하지만 이런 불행이 나를 비롯한 자네에게도 찾아오다니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네.”

족제비는 고개를 저으며 로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여, 나는 불행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네. 오늘 나의 가족은 나에게 와서 상심에 빠져있는 나를 다독이며 기운을 북돋아주었지. 나의 사랑스런 아이들은 서로 힘

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해서 전보다 더 좋은 집과 땅을 일구겠다고 다짐했다네. 이 거친 홍수를 계기로 나의 가족은 서로를 다독이고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네.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으니 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네.”

족제비의 말을 들은 로이는 당황했다.

일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자 로이는 친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떠올리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밤을 며칠 동안 지새면서 그는 친구들의 말을 음미했다. 마치 운명처럼 로이는 떠오르는 새벽 햇살을 받으며 크게 깨달았다. 그는 사슴, 곰, 족제비를 불러 모았다. 세 동물은 로이가 이른 새벽에 자신들을 부른 이유에 의아해하는 기색이었다.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여, 나는 항상 행복을 누군가로부터 얻으려고만 해왔네. 하지만 자네들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니 행복이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 나는 나에게 닥친 화재, 한파, 홍수 이 세가지 재앙 속에서 불행을 찾았었다네. 하지만 자네들은 그 세가지 재앙 속에서 행복을 찾았지. 자네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닥치더라도 항상 주어진 세상의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네. 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네.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날일세.”

사슴, 곰, 족제비는 같이 기뻐하며 축하했다.

“자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니 우리 역시 너무 기쁘다네.”

어느 날 아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로이의 앞으로 행복을 관장하는 여신이 찾아왔다. 로이는 여신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을 했다.

여신이 말했다.

“절을 하는 너구리여, 약속한 대로 저는 그대에게 행복을 주었

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을 소원의 대가로 주셔야 합니다.”

“여신님, 말씀만 하십시오. 약속한 대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얻은 부자여, 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원합니다.”

로이는 조금의 동요됨 없이 대답했다.

“여신님께서 저의 모든 재화를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들을 여신님께 바치겠습니다.”

여신은 매우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고 로이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욕심 없는 부자여, 당신의 겸손함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네요. 만약 제가 낸 수수께끼를 맞춘다면 저는 당신의 재산을 받지 않고 그냥 물러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족하고 미천한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신은 로이를 내려다보며 수수께끼를 냈다.

“이것은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시무시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깊은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괴로운 고통 속에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로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여신님, 바로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깊은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괴로운 고통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신은 로이의 대답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답입니다. 행복이란 항상 당신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미소를 짓는 그대여, 행복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신은 말을 마치자 깊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로이는 여신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 그렇게 그는 긍정적인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은 기쁨들을 얻었고 그 작은 기쁨들이 피어내는 행복한 여생을 맞이했다.

The End

니키아스는 이야기를 끝내고 에이미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공손하고 차분한 어조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어린 소녀를 설득했다.

“에이미 공주님, 공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그 자체로 행복과 불행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라도 그 자체로 불행을 의미하진 않고 아무리 따스하고 평화로운 환경이라도 그 자체로 행복을 의미하진 않지요. 행복과 불행은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바로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마음가짐에 달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주님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계시지만 사실 공주님의 주변에는 공주님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에이미가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워하자 늙은 악사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을 천천히 가리켰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기에 서있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공주님의 곁에 있는 한 공주님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이미는 크게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말이 맞아요. 저 두 사람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과 관심을 주는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저 이제야 알겠어요. 왜 제가 항상 불안해하고 우울해 왔는지를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슬픈 눈물로 저의 마음을 적시지 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저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궁전 악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오히려 저의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공주님에게 제가 감사를 해야지요.”

에이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줄을. 나는 알고 있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줄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어. 내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에이미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에게 다가가 그 둘을 살며시 안았다. 시간은 밤의 끝을 달리고 있었지만 에이미의 행복한 생일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어둡고 깊은 밤 속에서 소녀의 행복한 미소가 활짝 피어 올랐다.

CHAPTER SEVEN

눈꽃의 악동들

“아이들의 순진한 행동을 볼 때마다, 다시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느낄 때마다, 에이미의 얼굴은 행복의 젖은 어린 아이처럼 밝고 환해졌다.”

목각인형은 하얀 눈 속에 파묻힌 겨울풍경을 바라보았다. 어젯 밤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눈은 오늘 아침까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달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을 가득 채웠던 눈송이들은 해가 뜨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점점 약해졌다.

궁의 자랑인 아름다운 정원의 꽃과 꽃나무들은 오색의 꽃송이 대신 백색의 눈송이를 피웠다. 커다란 나무들은 눈으로 만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하늘 아래에 서있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정원의 정 중앙에는 활기를 잃어버린 분수대가 쓸쓸히 자리를 지켰다. 분수대는 화려한 조각으로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오자 맑고 투명했던 물줄기는 더 이상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지붕 위에는 사람의 무릎 정도 높이의 눈이 쌓였다. 하인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 빗자루와 눈 삽으로 눈을 치웠다. 정원의 중앙에는 많은 하인이 모여들어 길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열을 맞추어 섰고 우두머리의 힘찬 구령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눈을 치웠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차갑게 굳은 대리석 길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따스한 입김만이 조용한 눈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뜨겁게 움직이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목각인형은 창문을 열어 난간에 쌓여져 있는 눈을 만졌다.

“모두들 눈을 치우느라 열심이네.”

작은 눈송이들은 마치 투명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며 목각인형을 유혹했다.

에이미가 물었다.

“아도라, 이른 새벽부터 창가에 서서 무엇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밖에 쌓여 있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야.”

에이미는 난간에 기대어 하얀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었다. 새벽 햇살에 비친 새하얀 눈은 진한 황금빛을 내며 반짝거렸다.

얼음왕자가 궁을 침입한지 4년이란 세월이 지나자 많은 것들이 변해있었다. 아름다운 정원의 대리석길, 화려한 분수대 등 모든 사물들은 세월의 손때가 묻어 조금씩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에이미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공주의 모습은 수줍은 얼굴로 얼음왕자에게 장미꽃을 건네 받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에이미는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빛이 나는 여자가 되어있었다. 실크 같이 부드러운 황금빛 머리카락과 티 하나 없는 맑은 피부는 세월이 지나감에도 그 생기를 잃기는커녕 더욱 빛이 났다.

그녀의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었다. 힘든 수업과 외로움에 지쳐 자주 눈물을 보이던 약한 소녀의 모습은 18살이 된 공주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열세 번째 생일이 지나자 어린 소녀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달라져있었다. 니키아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소녀는 그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갔다.

“아도라, 오늘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 눈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겠지? 이 눈으로 뒤덮인 궁전은 말이야?”

목각인형은 공주에게 되물었다.

“무슨 손님들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시는 건가요?”

“아도라는 듣지 못했어? 오늘 꼬마 손님들이 오잖아.”

“꼬마 손님들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로이스가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깜박했나 보다. 로이스는 요 며칠간 새해 맞이 축제 준비로 매우 바쁘거든.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고귀한 귀족의 어린 자제분들이 궁을 구경하러 올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접대하나요? 설마 어린 아이들이 혼자 궁을 구경하지 않을 테고…….”

목각인형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와 내가 그들을 접대할거야.”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말에 놀랐다.

“예? 제가요?”

“응. 아도라, 이번에 오는 꼬마 손님들은 귀족의 자제가 보통 그러하듯 버릇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버릇없게 굴어도 화를 내거나 야단을 쳐서는 안돼.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니까 이 궁에서 좋은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목각인형은 에이미를 안심시켰다.

“사실 저는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름에 가려진 해가 중천에 걸리자 매서운 추위는 한층 누그러졌다. 에이미는 꼬마 손님들을 마중하기 위해 목각인형과 함께 방을 나섰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매우 설레 보였다. 두 사람은 차갑게 굳은 대리석 길 위를 걸으며 활기를 잃어버린 분수대를 지나갔다. 나무에는 아직 녹지 않는 눈이 한 움큼씩 쌓여있었고 그러한 광경은 마치 오래된 동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처럼 아름다웠다.

에이미와 목각인형이 궁의 입구에 다다르자 공주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보였다. 어린 아이들의 주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귀부인들이 무리를 지어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들은 공주가 온 것을 알자 수다를 멈추고 아이에게로 달려가 자식의 옷 매무새를 다듬었다.

에이미가 귀부인들에게 말했다.

“저희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추운 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있는 귀부인이 모두를 대표하여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희도 막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으로 저희 아이들을 초대해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제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꼬마 손님들, 이제 어머니의 품과 작별을 할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는 아주 즐겁고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이 궁은 넓은 크기만큼이나 멋진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정말이요? 와! 너무 기대된다.”

어린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에이미를 따라 궁 안으로 들어갔다.

에이미는 걸어가면서 왕국의 짧은 역사를 이야기했다. 몇몇 아이들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매우 꺼리는 눈치를 보였다. 한 아이가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다.

“역사는 재미없는데.”

에이미는 그 아이에게 살며시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역사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진 않단다. 역사 속에는 네가 발견하지 못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지.”

아이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물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요?”

“그렇단다. 역사 속에는 달콤한 초콜릿보다도 더 달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단다. 그 달콤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취해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지.”

“정말이요? 공주님, 그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도 에이미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분수의 정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녀가 말하는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달콤한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커다란 눈동자는 새하얀 눈처럼 반짝거렸다.

분수의 정원에 도착하자 한 아이가 분수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와! 진짜 큰 분수대다.”

분수대는 투명한 물줄기를 하늘로 뿜어내지는 않았지만 그 웅장함과 세밀한 조각은 어린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아름다운 분수대는 이웃 나라들에까지 널리 알려진 명소 중에 명소랍니다. 이 분수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물줄기의 방향을 조절해서 각 물줄기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면서도 한 지점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정말로 아쉽네요.”

“아, 정말로 보고 싶은데.”

어린 귀족들은 분수의 멋진 모습을 보지 못한데 아쉬워했다.

에이미는 본관 건물로 어린 귀족들을 데려갔다. 오 분 정도 걸어가자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나왔다. 그 건물을 처음 보는 아이들은 그 크기에 압도되어 한동안 건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건물은 우리 성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는 율리우스 전하께서 살고 있으시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대신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커다란 회의장과 각각 다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방들이 있어요.”

에이미는 짤막한 설명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건물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었다. 아이들은 건물 안에 전시되어있는 많은 조각상과 세밀한 그림들을 보며 신기해했다. 특히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아이들은 화가가 그 그림

을 그린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한 아이가 3층을 가리키며 물었다.

“공주님, 3층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돌아다녀요? 3층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바쁘게 움직여요. 도 대체 왜 그런거예요?”

“3층에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손님들이 묵는 방이 셀 수없이 많이 있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의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린답니다. 그 파티에는 외국의 귀빈들이 많이 초대된답니다. 지금 3층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귀빈들이 묵을 방을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이 바쁜 거죠. 이번에 초대되는 귀빈들의 숫자가 장난이 아니게 많거든요.”

다른 아이가 물었다.

“공주님, 올라가서 구경해봐도 돼나요?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예, 그럼요. 그럼 우리같이 다 함께 3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해요.”

에이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 도착하자 긴 복도 양편으로 수많은 방이 보였다. 하지만 복도의 끝에 있는 오래된 나무판자로 막혀있는 방이 유독 아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 방은 깨끗한 복도 풍경과 대비되게 분위기가 스산하고 앙상해 보였다.

“공주님, 저기 나무 판자로 막혀있는 방은 무슨 방인가요? 혹시 귀신이 나오는 방인가요?”

“네? 귀신이 나오는 방이라니요? 무슨 방을 보고…….”

에이미는 고개를 돌려 아이가 가리키는 방을 바라보았다.

“저, 저 방은…….”

커튼의 진한 그림자에 묻힌 방을 바라보자 에이미의 표정은 갑자기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방을 바라보았다.

목각인형이 물었다.

“공주님,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으신가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어. 괜찮으니 걱정하지마.”

에이미는 다시 정신을 차린 후에 어린이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했다.

“저기 저 방이 무슨 방인지 물어보셨죠? 저 방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쓰시던 방이에요. 지금은 이상한 사람들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커다란 나무 판자로 막아놨습니다.”

에이미는 밝은 표정으로 아이의 질문에 대답했지만 목각인형은 환한 미소 뒤에 감추어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본관 구경이 다 끝나자 에이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정원의 한쪽 구석은 아직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여러분, 커다란 궁을 구경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가지 마시고 이 근처에서 쉬세요.”

어린 아이들은 공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하얀 눈을 향해 달려가더니 서로 눈을 던지며 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궁을 구경하느라 지쳐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눈싸움에 열중했다. 한 아이가 몰래 공주에게 달려가 공주의 등에다 차가운 눈덩이를 넣었다.

“앗! 차가워. 이런 개구쟁이들!”

에이미는 그 개구쟁이에게 달려가서 눈을 뿌렸다. 그러자 마치 미리 손발을 맞춰놓은 것처럼 주위에 있던 아이들 모두 공주에게 눈 뭉치를 던졌다.

에이미가 요리조리 눈을 피해가며 소리쳤다.

“모두 나만 공격하다니 이것은 너무하잖아. 아도라, 나를 좀 구해줘!”

목각인형은 얼굴을 장난스럽게 찡그리며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비켜라! 이 못된 아이들, 감히 나의 공주를 괴롭히다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악마들아, 나의 매서운 공격을 받아라!”

목각인형은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에게 눈을 던졌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일부러 정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공주를 따르는 쪽과 목각인형을 따르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라졌다. 두 편은 서로 눈을 던지며 즐거운 눈싸움을 시작했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못생긴 적의 대장을 향하여 눈을 던져라!”

이에 질세라 목각인형도 손을 치켜들고 붉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못생긴 대장이라고? 이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다니 저 여자는 필시 못난 마귀임에 틀림없다. 저 못난 마귀를 향해 눈덩이를 퍼부어라!”

공주는 심술이 난 듯 목각인형을 향해 커다란 눈덩이를 던졌다.

“뭐? 못난 마귀라고?”

눈덩이는 목각인형의 얼굴 한 가운데를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퍽!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목각인형의 얼굴에 부딪쳤다. 커다란 눈덩이를 맞은 목각인형은 휘청거리며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목각인형의 편에 아이들은 쓰러진 대장을 흔들어 깨웠다. 새하얀 눈에 대자로 누운 목각인형은 일부러 못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못난 마귀가 온다. 모두 도망가!”

아이들과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모두들 한바탕 크게 웃었다.

커다란 웃음소리로 옆으로 많은 대신들이 며칠 뒤에 있을 훈장 수여식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 입궁했다. 그들은 에이미와 아이들

이 소란스럽게 떠들며 노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높은 귀족들 속에서 유독 에이미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젊은이는 군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붉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준수한 용모에 굳세고 야무진 몸매였지만 얼굴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고 여유가 없어 보였다.

“정말 재미있게 노는군요.”

높은 귀족이 옆으로 다가와서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위치를 잊으시고 저렇게 품위 없이 행동하시다니, 보는 제가 다 부끄럽군요.”

“저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길래 그 다지도 품위를 강조하십니까?”

귀족은 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재차 물었다.

“설마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루쿨루스 경, 그럼 지금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저기 저분은 전하의 하나뿐인 혈육인 에이미 공주님이랍니다.”

“네? 공주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루쿨루스는 에이미에게 눈을 떼질 못했다. 루쿨루스의 가슴속에는 에이미의 맑은 미소가 새겨졌고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향한 끝없는 관심이 솟아났다.

“에이미 공주님이라, 참으로 아름다우시군요.”

“루쿨루스 경, 이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예행 연습에 늦겠습니다. 오늘 연습은 마르켈루스 경이 직접 감독을 한다고 하니 늦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네? 아, 알겠습니다.”

루쿨루스는 에이미를 한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며 귀족의 뒤를 따라갔다.

‘나의 마음을 단숨에 빼앗아가 버린 공주여.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나의 열정은 오로지 그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상처와 고통은 모두 잊혀지고 오로지 나의 마음 속에는 당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대의 해맑은 미소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린 귀족들은 한참 동안 눈싸움을 한 뒤 서로 도와가며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목각인형과 에이미는 아이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 그렇게 놀고서도 또 힘을 모아 커다란 눈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니. 아무튼 오늘 정말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마음껏 논 것도 정말로 오랜만인 것 같아.”

“공주님,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갑자기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살짝 찌려보았다.

“그건 그렇게 아도라 못난 마귀라니?”

목각인형은 별미쩍게 씩 웃고 말았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에이, 농담이야. 갑자기 그렇게 의기소침해져서 사과하면 내가 뭐가 돼?”

“죄송해요.”

“또 죄송? 그렇게 착하게 대답하면 내가 머쓱해지잖아. 그건 그렇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 슬슬 쌀쌀해지네. 바람도 좀 불고. 아으, 추워.”

에이미가 몸을 떨며 추워하자 목각인형은 겉옷을 벗어 에이미에게 덮어주었다.

“공주님, 감기 걸리시겠어요. 몸이 약하시니 차가운 바람을 많이 쐬시면 안됩니다. 우선 제 외투라도 입고 계세요.”

“고마워, 아도라.”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새하얀 눈에 반사된

빛과 어우러진 목각인형의 얼굴은 너무 아름다웠다.

“아, 아도라…….”

에이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네? 공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 아무것도 아니야.”

목각인형이 내려다보자 에이미는 급히 시선을 아이들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왜 그러지?’

에이미는 손바닥으로 볼을 툭툭 쳐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넓은 하늘이 어둡게 물들자 에이미는 어린 귀족들을 데리고 궁의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귀부인들이 한데 모여있었다. 아이들은 에이미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자 막 울기 시작했다. 공주는 우는 아이들을 한 사람씩 모두 안아주고 이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아이들을 떠나 보내는 에이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방으로 돌아온 에이미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목각인형이 옆으로 다가오자 공주는 목각인형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었다.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어.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에 너무 즐거웠고 어릴 적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 또 나를 아껴주는 아도라의 배려와 관심에도 감동했고, 아까 외투는 정말 고마웠어. 나 그때 말은 못했지만 사실 너무 추웠거든.”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해가 시작되네. 올해는 거국적으로 새해 맞이축제를 한데. 저기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도

따로 준비되나 봐. 밖에 사는 사람들은 축제날에는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한다. 밖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

“부럽다니요? 이 궁에서도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잖아요?”

“궁에서 열리는 행사는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에서 마련된 거야. 그래서 웃고 즐기는 것보다는 엄숙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 로이스가 그러는데 저 밖에 축제는 그렇지 않데. 사람들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축제를 즐긴 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말이야. 아, 나도 한번 그런 즐거운 축제를 즐겨보고 싶다.”

에이미는 창가의 턱을 괴고 상상에 빠졌다.

“아차! 올해는 새해 맞이축제로 불꽃놀이도 한데. 전쟁의 여파로 한동안 중지되었는데 이번에는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성대한 불꽃놀이를 하나 봐.”

“불꽃놀이라니요? 그게 뭐죠?”

“그리고 보니 불꽃놀이를 본적이 없겠네. 불꽃놀이란 하늘에 화약을 쏘아 올려서 공중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이나 무늬를 하늘에 그리는 거야.”

“하늘에 불꽃이 그려진다니 상상이 잘 안가요.”

“그래, 나도 불꽃놀이를 실제로 본 것은 한번밖에 안돼.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엄마와 함께 불꽃놀이를 봤어. 하늘로 쏘아지는 수많은 불꽃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행복했지. 그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바라보며 방긋 웃었지만 눈가에는 그리움이 가득 서려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는 새해 맞이축제의 날이 밝았다. 로이스는 오늘따라 유난히 옷을 아주 세심하게 골랐다.

로이스가 옷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자 에이미는 기다리다 지쳤는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큰 하품을 했다.

“로이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옷을 고르는 거야?”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더 신경을 쓰셔야죠. 많은 귀족이 연회에 참석하는데 예쁘지 않은 옷을 입고 가서 공주님의 체면이 손상돼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귀족 속에서도 돋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 여기 아주 적당한 옷이 있네요.”

로이스는 흰색 드레스를 옷장에서 꺼내었다. 그녀는 그 드레스를 에이미의 몸에 대보며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다행히도 옷이 몸에 맞는 것 같네. 오래된 옷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요즘 유행하는 모양으로 옷을 조금 수선했어요.”

“와, 옷이 정말로 곱다. 근데 로이스, 왜 하필이면 오래된 옷을 주는 거야? 새 옷도 많잖아?”

“공주님, 혹시 이 드레스가 어떤 드레스인지 아세요?”

에이미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아니, 오늘 처음 보는 드레스인데.”

“공주님, 이 드레스는 돌아가신 다리아 여왕님이 가장 즐겨 입으셨던 옷이에요. 여왕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공주님이 다 크면 전해주라고 부탁하셨어요. 이제 공주님이 이 옷이 어울릴 만큼 다 크셨으니 공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드레스를 입으시면 저 세상에 계신 다리아 여왕님도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에이미는 어머니의 드레스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드레스에는 아직까지도 어머니의 향이 배어있는 것 같았다.

“아주 희미하지만 어머니의 향기가 느껴져. 어머니의 주위에는 이 드레스에서 나는 향과 같은 은은한 장미 향이 항상 풍겨왔어.”

“향기가 난다고요? 나는 왜 그 향기를 말지 못했지? 감기가

걸려서 그러나? 그건 그렇고 에이미 공주님, 혼자서 이 드레스를 입는 것은 어려울 테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부탁할게.”

로이스는 공주에게 드레스를 정성스레 입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예쁜 귀걸이를 달아주었고 꽃 장식이 달린 머리띠를 채워 주었다. 공주가 옷을 다 입자 로이스는 드레스를 입은 에이미의 모습에 크게 놀랐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돌아가신 다리아 여왕님을 보는 것처럼 닮아있었다.

“공주님,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정말?”

에이미는 거울을 바라보며 몸을 한 바퀴 돌려 보았다. 그녀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듯 부끄러운 웃음을 지었다.

“아도라, 이 드레스 나랑 어울려?”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질문을 듣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공주를 바라봤다. 지금 그는 미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에 넋이 나가있었다. 목각인형의 속내를 모르는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속상했다. 그래서 목각인형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기며 다시 물었다.

“아도라, 이 드레스가 이상해? 왜 대답이 없어?”

에이미가 독촉하자 그제서야 목각인형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공주님의 말을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목각인형의 대답이 마음에 차지 않는 듯 에이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성이 난 얼굴로 목각인형의 한쪽 팔을 꼬집고 돌아서서는 투덜거렸다.

“바보!”

에이미의 빠진 모습에 당황한 목각인형은 서둘러 공주의 마음을 풀어주려 했다.

“공주님, 그게 아니라 실은 공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무 말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정말로 잘 어울려?”

“네, 정말로 잘 어울리세요.”

목각인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미 공주님, 이제 연회가 시작될 것이니 서둘러 연회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알았어. 지금 내려갈게. 그러니 너무 보채지마. 아도라, 준비됐어?”

갑자기 에이미는 목각인형에게 손을 건네었다.

“네? 월요?”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자신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직접 나서서 목각인형과 팔짱을 껴다.

“이 바보, 숙녀가 무도회가 열리는 연회장에 갈 때에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야. 멋진 남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가는 거지. 오늘 나의 무도회 파트너는 아도라, 바로 너야. 너는 내 무도회 파트너니까, 오늘 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 그리고 꼭 나하고만 춤춰야 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공주님.”

에이미와 목각인형이 팔짱을 끼자 로이스는 두 사람 중간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 두 사람을 떼어냈다. 그녀가 보기에 목각인형은 사람과 너무 닮아있어서 궁의 사정에 밝지 않은 사람은 공주와 목각인형의 관계를 오해할 소지가 많았다.

“에이미 공주님, 이제 공주님께서도 다 크셨으니 오해 받을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연회장에는 우리나라의 대신들이 모두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님이 낯선 남자와 팔짱을 낀 채로 연회장에 들어가신다면 모두들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릴 때처럼 목각인형과 서슴없이 지낼 수 있는 나이는 이제 지났다고요. 아리따우신 공. 주. 님!”

로이스는 곧장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목각인형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를 나무랐다.

“목각인형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너도 괜히 오해 받을 짓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엉뚱한 짓을 해서 공주님을 난처하게 만든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로이스가 목각인형을 나무라자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앞에 서서 그를 두둔했다.

“아도라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억지로 팔짱을 낀 거야. 그러니 아도라를 너무 나무라지마.”

“목각인형의 편을 드신다는 거죠. 이게 다 공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저 한 테 뭐라 하시다니 정말로 서운합니다.”

“미안. 내 생각이 짧았어.”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로 시간을 끌다간 연회에 늦겠네요. 빨리 서둘러 내려가야겠습니다.”

연회장안에는 이미 많은 귀족들이 모여있었다. 에이미는 연회장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연회장 뒤에 마련되어 있는 대기실로 향했다. 그녀는 참석자들이 모두 입장하고 연회 준비가 완전히 끝난 뒤 왕과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도라, 나는 대기실에 아바마마를 기다려야 하니까 먼저 연회장에 들어가있어. 공식 행사가 끝나면 너에게 바로 갈게.”

“예, 알겠습니다.”

에이미는 목각인형과 이별한 채 로이스와 함께 대기실로 들어갔다. 목각인형은 에이미가 시킨 대로 연회장에 들어가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아름다운 정장을 차려 입고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한 목각인형이 연회장안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귀족이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귀부인들은 서로 속삭이며 목각인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 젊은 귀족들은 어느새 그의 주위로 몰려들어 목각인형과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다.

한 여인이 목각인형에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옆에 있는 여인이 끼어들며 물었다.

“어느 가문에 자제분이세요?”

이에 뒤질세라 목각인형을 둘러싼 여인들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목각인형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여자들은 목각인형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에이미는 대기실에 들어가 율리우스가 도착하길 기다렸다. 연회장으로부터 들려오는 어수선한 소리는 곧 대기실 안까지 전해졌다. 로이스는 대기실의 문을 조금 열어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바라봤다.

“연회장이 상당히 소란스럽네요. 왜 귀부인들이 저렇게 한데 모여서 웅성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라도 떠드는 가보지. 왜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래? 정신 사납게 말이야.”

그때 로이스의 눈에 귀부인들에 둘러싸여있는 목각인형이 보였다.

“어! 목각인형이었네?”

“아도라? 아도라가 왜?”

“귀부인들에게 둘러싸여있는 게 목각인형이었네요. 저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니 인기 좋네.”

에이미는 귀가 솔깃했다.

“뭐라고? 아도라가 누구한테 둘러싸여있다고?”

에이미는 서둘러 의자에서 일어나 문가로 달려갔다.

“로이스, 정말이야? 어디 나도 좀 볼게. 잠깐 비켜봐.”

문틈 사이로 눈을 대고 연회장을 바라보자 수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목각인형이 보였다. 목각인형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자 에이미는 이상하게 화가 나고 목각인형이 이유 없이

미워졌다.

“흥! 다른 여자들이 뭐 그리 좋다고. 입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네.”

에이미는 투덜거리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태연한 척 행동했지만 시선은 자꾸 연회장안에 있는 목각인형에게 쏠렸다.

“어hem, 무슨 일로 우리 공주님이 그리 똥해 있으시나요?”

율리우스가 대기실로 들어오자마자 에이미에게 물었다. 4년이란 세월이 지나자 율리우스 왕도 많이 변해있었다. 뺨에 새겨진 상처는 아물었지만 인상을 한층 어둡게 만드는 깊은 흉터로 남았다. 머리에겐 진한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카락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율리우스 왕의 가슴속에 새겨진 수치와 분노는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못한 채 가슴 깊이 숨겨진 채로 남아있었다.

“똥해 있다니요? 아니에요.”

에이미가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다.

“그래? 그러면 다행이로구나. 그런데 오늘 그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리는 구나. 마치 네 엄마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시간, 연회장 안에서는 마르켈루스가 단상으로 올라가 귀족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는 굵고 점잖은 목소리로 청중들에게 말했다.

“율리우스 전하와 에이미 공주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분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율리우스와 에이미가 연회장으로 입장했다. 모든 귀족들은 열렬히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율리우스를 뒤탈라 에이미가 걸어 나오자 모든 귀족들의 시선은 공주에게로 모아졌다. 귀족들은 단상위로 올라가는 에이미의 우아한 자태에 눈을 떼지 못했다. 특히 붉은 제복을 입은 한 청

년은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정신이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에이미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루쿨루스였다.

루쿨루스는 허리춤에 찬 칼을 매만지며 혼자 속삭였다.

‘그대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군요. 그대를 처음 보고 난 뒤로 저는 당신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당신의 고운 미소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대를 보고 있지만 그대를 향한 나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끝없는 열정을 부추기는군요. 나의 공주여!’

CHAPTER EIGHT

부서지는 불꽃 아래서

“무엇이 저를 당신에게로 향하게끔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것뿐이에요.”

율리우스 왕은 단상에 올라서자 오른 손을 들어 연회장에 모인 귀빈들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목을 가다듬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얼음왕자와의 참혹한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왕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의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많은 귀빈들께서는 백성을 현명하게 이끌어 왕국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건국 이백년이 되는 새해에도 왕국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왕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연회장을 흔들 정도로 커다란 박수갈채로 연설에 화답했다. 마르켈루스는 단상 앞으로 나와 청중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전하께서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이번 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훈장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신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마르켈루스는 커다란 목소리로 포상을 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은 차례대로 단상 앞에 줄을 지어 나란히 섰다. 많은 이름이 불려진 가운데 한 남자의 이름이 불려지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렸다. 붉은 제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는 힘차게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훈장을 받으러 나온 쟁쟁한 귀족들 사이에서 그는 가장 어려 보였다. 하지만 그의 행동거지와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압도할 만큼 위협적이고 품위가 있었다.

마르켈루스가 말했다.

“루쿨루스는 단상위로 올라오시오.”

루쿨루스는 단상위로 천천히 올라가 율리우스 앞에 섰다. 4년

전 죽은 파비우스 장군의 어린 아들이었던 그는 이제 사납고 강렬한 눈매를 가진 사나이로 변해있었다.

“요 몇 년간 그대가 보여준 군사적 성취는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대의 번뜩이는 지략과 멈출 줄 모르는 용맹으로 우리나라의 국경지대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대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대를 왕실수비대장으로 임명하노라.”

율리우스는 루쿨루스의 가슴에 왕실수비대장의 상징인 은색 사자 마크를 달아주었다.

“저의 뼈와 살을 바쳐 전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루쿨루스의 가슴에 달린 은색 사자 마크가 반짝거리며 빛을 뿜 내자 연회장 안에 귀족들이 웅성거렸다.

“뭐라고? 왕실 수비대장이라고? 저런 젊은이한테 왕실수비대장 자리를 준다 말인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모든 귀족들은 율리우스 왕의 뜻밖의 조처에 놀랐다. 이제껏 어느 누구도 그런 어린 나이에 왕실수비대 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루쿨루스의 가문은 왕국에서도 세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젊은 귀족의 군사적 재능은 온 나라에 퍼질 정도로 훌륭했기 때문이었다. 율리우스는 루쿨루스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루쿨루스가 얼음왕자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임명식이 끝나고 단상을 내려가는 도중 루쿨루스는 율리우스의 옆에 서있는 에이미를 보게 되었다. 그의 심장은 그녀를 처음 뵈을 때처럼 강렬하게 뛰었다.

두근.

두근.

루쿨루스는 단상을 내려와서도 한참 동안 에이미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루쿨루스가 바라보는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연회장 안에 있는 목각인형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루쿨루스의 눈은 공주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녀의 시선 끝에는 목각인형이 서있었다.

‘저 남자는 며칠 전 공주님과 같이 있던 남자가 아닌가? 저 남자와 공주님은 어떤 사이지? 그리고 왜 에이미 공주님은 저 남자를 계속 바라보는 것일까?’

단상 위에 서있는 마르켈루스는 루쿨루스가 오직 에이미 공주만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왕실수비대 대장이 공주에게 관심이 있나 보군. 사랑에 눈먼 영웅이라 참으로 재미있군.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겠어.’

수여식이 끝나자 율리우스와 에이미는 다시 대기실로 들어갔다. 왕과 공주가 대기실로 들어가자 수많은 여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각인형에게 또다시 몰려들었다. 그녀들은 목각인형의 환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다. 에이미는 대기실의 문을 살며시 열고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있는 목각인형을 바라보았다.

“치, 저 여자들이 뭐가 좋다고. 나쁜 녀석.”

에이미는 투덜거리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흥! 나와 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자랑 춤추기만 해봐라.”

마르켈루스는 연회장에 있는 귀빈들에게 잠시 후 성대한 저녁 만찬이 있을 것이니 모두들 도우미의 길안내를 따라 궁정식당으로 모이라고 전했다.

한 도우미가 앞장서서 말했다.

“귀빈들께서는 저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많은 수의 도우미가 귀족을 궁정식당으로 안내했다. 루쿨루스는 도우미들 중에 한 명을 불러내었다. 그는 사람들 열의 맨 뒤로 그 도우미를 조용히 데려갔다. 루쿨루스는 목각인형을 가리키며 도우미에게 금화 몇 닢을 쥐어주었다.

“이 보게, 일하는 데 수고가 많네. 약소하지만 받아두게. 그런데 말이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저 젊은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도우미는 돈을 받고 기뻐하며 대답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장군님, 저 젊은이는 아도라라고 합니다. 공주님이 어릴 적부터 데리고 있는 목각인형이죠.”

“인형이라고? 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내가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저 남자는 생명의 축복을 받은 인형입니다. 왜 저 인형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그건 알 거 없네. 하여튼 고맙네.”

루쿨루스는 도우미에게 다시 몇 푼에 돈을 건네었다. 그는 도우미의 대답을 듣고 흡족한 미소를 띠며 목각인형의 뒤를 따라갔다.

“인형이란 말이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목각인형은 궁정식당으로 가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을 감상했다. 루쿨루스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사나운 눈빛으로 즐기며 지나쳐갔다.

‘공주님의 소꿉 친구가 저 목각인형이라 말이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과 속이 텅 빈 나무조각의 몸이라. 참으로 재미있는 조합이로군.’

저녁만찬 준비가 다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자리에 앉자 율리우스와 에이미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루쿨루스는 왕의 특별한 배려로 에이미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율리우스는 식사를 하는 도중 에이미에게 옆에 있는 신하를 잘 대접하도록 당부했다.

“에이미, 네 옆에 앉아있는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장군 중 한 사람이라네. 그는 새로운 왕실수비대 대장인 루쿨루스 경이란다. 앞으로 왕국의 중요한 일을 맡을 인재이니까 예

의에 어긋남 없게 행동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미는 고개를 돌려 루쿨루스에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님 옆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니 정말로 영광입니다.”

“에이미야, 이 저녁만찬이 끝나면 무도회가 있으니 두 사람은 같이 춤도 추면서 서로 친해지거라. 앞으로 너에게 많은 도움을 줄 신하란다.”

“예, 아바마마.”

루쿨루스는 뜻밖의 제안에 크게 놀랐다.

“전하, 그런 영광을 저에게 주시다니 정말로 황송하옵니다.”

평소에 감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 루쿨루스도 이번만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율리우스는 큰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천하의 영웅도 미인의 승낙에 맥을 못 추는 군.”

율리우스의 말에 궁정식당 안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다. 루쿨루스는 쑥스러움에 얼굴이 빨개졌다.

즐겁고 유쾌한 저녁만찬이 끝나고 에이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도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에이미는 많은 귀빈들에 주목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걸었다.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목각인형이 에이미를 발견하고 반가운 듯 그녀를 불렀다.

“공주님, 에이미 공주님!”

하지만 에이미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목각인형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나? 하긴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거리니 듣지 못하실 수 밖에 없지.”

목각인형은 아무렇지 않게 에이미를 향해 걸어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걸음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에이미의 모습과 그 유리의 비친 자신의 모습이 동시에 눈에 들어왔다. 순간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으며 당당히 걸어가는 공주의 모습이 마치 다가갈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느껴졌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공주님의 모습은 나에게 알 수 없는 큰 실망을 가지고 오는구나. 창에 비친 나의 모습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에이미 공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구나.’

목각인형은 혼자 쓸쓸히 무도회장으로 향했다.

에이미는 무도회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목각인형을 찾았다.

“아도라가 어디 있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

루쿨루스는 옆에 있는 자신은 안중에도 없는 그녀를 못마땅했다. 하지만 그는 불만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저의 마음은 언제나 그대를 향해 있는데 그대의 마음은 바로 옆에 있는 저에게 너무나 무관심하시군요.’

한참이 지나서야 목각인형은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무도회장으로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많은 젊은 귀부인이 목각인형을 발견하자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녀들은 주인의 관심을 얻으려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노골적인 애교로 목각인형의 환심을 얻고자 했다.

에이미는 여자들에 둘러싸인 목각인형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도라 미워. 오늘 나의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해놓고서는……”

에이미는 힘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무도회장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루쿨루스는 공주가 무도회장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이유를 물었다.

“에이미 공주님, 이제 막 즐거운 무도회가 시작되려 하는데 왜 이리 슬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답답해서 바람을 좀 쐬려 구여. 저는 사람

이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루쿨루스는 이 순간이 에이미와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결례를 무릅쓰기로 작정했다. 그는 에이미에게 공손히 부탁했다.

“에이미 공주님,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밖으로 같이 바람을 쐬어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런 곳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에이미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며 승낙했다.

“저는 괜찮으니 편한 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에이미 공주님.”

목각인형은 에이미를 애타게 찾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공주를 찾을 수 없었다.

‘에이미 공주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왜 안 오시지? 분명히 아까 나보다 먼저 출발하신 것 같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목각인형은 에이미가 걱정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자들을 밀치며 도망쳐 나왔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따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만 실례를 해야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각인형은 몇 걸음을 가지 못해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밖에서 한 남자와 다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이미를 발견했다. 갑자기 숨이 막혀왔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에, 에이미 공주님……”

얼떨떨하게 서있는 목각인형의 옆으로 한 여자 다가왔다.

“어머! 공주님께서는 어느새 루쿨루스가 마음에 드셨나 보네.”

다른 여자가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이번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율리우스 전하께서 저 루쿨루스를 공주님의 배필로 정하셨다는 말이 있어. 물론 소문이긴 하지만.”

목각인형은 여인들의 말을 놀래며 두 눈이 뚱그래졌다. 그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 어쩔 저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꼭 실제 연인을 보는 것 같네. 왕국의 영웅과 공주님이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여자들은 목각인형의 마음도 모른 채 에이미와 루쿨루스의 사이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흥미로운 소문으로 치장하며 수다를 떨었다. 목각인형의 가슴은 그녀들의 이야기 때문에 쓰리고 아팠다. 목각인형은 고개를 돌려 낮은 남자와 함께 있는 에이미를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공주를 바라보았다.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에이미 공주님이 이제 서서히 나에게 멀어질 거라는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하는구나.’

에이미와 루쿨루스는 무도회장 밖으로 나가 아름다운 별빛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루쿨루스는 허리에 찬 칼을 자주 매만졌다.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에이미가 말했다.

“아주 멋진 검이네요.”

“그렇게 좋게 봐주시다니 정말 황송합니다. 공주님, 이 검은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 검을 차고 계셨죠. 저는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불안할 때 이 칼에 손을 올린답니다. 그러면 마치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처럼 마음의 안정을 되찾죠. 이런 제 모습이 참으로 바보 같지요?”

“바보 같다니요? 정말 그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낭만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영혼이 루쿨루스님에게 힘을 주시는 거 같아요.”

“사실 이 궁은 저에게는 아픈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4년 전 저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얼음왕자와 싸우시다 그의 사나운 칼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울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처절한 살육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얼음왕자였기 때문에 저는 하루도 나태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를 이기려면 더 지혜로워져야만 했고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과 편안함은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슬픈 과거를 듣자 마음이 아팠다. 루쿨루스는 아름다운 별빛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시 한편을 읊었다.

칠룩 같이 어두운 밤하늘 아래
나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저 유일한 별빛이여

지옥 같은 이세상의 고통도
너의 아름다움 속에 흐려지는구나.

찢어지는 듯한 이세상의 슬픔도
너의 저 강렬함 속에 부서지는구나.

에이미는 그 다음 구절을 이어서 읊었다.

몸부림치는 고뇌의 방황 아래
나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는 저 유일한 별빛이여

끝없이 반복되는 이세상의 외로움도
너의 찬란함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거칠게 숨쉬는 오늘의 고된 일상도

너의 저 달콤함 속으로 잊혀지는구나.

에이미는 시를 다 읊고 나서 신기하다는 듯이 루쿨루스를 바라보았다.

“저는 여태까지 군인들은 모두 거친 말을 내뱉고 험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루쿨루스님을 보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대다수의 군인들이 무례하고 난폭하죠. 하지만 모든 군인이 그런 것만은 아니랍니다. 저는 그들과는 다르게 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 냄새가 흐르는 전장에서 저의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아름다운 시뿐이죠.”

“시를 읊는 젊은 장수라. 묘하게 어울리는 군요.”

에이미는 루쿨루스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다.

“이 시는 저의 스승님이신 캐네스 선생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던 시였습니다. 공주님께서 이 시에 대해서 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캐네스 선생님을 아세요? 저도 어릴 적부터 캐네스 선생님에게 시와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많은 나이를 이유로 들어 왕립학사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은퇴를 하셨죠. 그 뒤로 선생님을 못 뵈는 지 일년이 다 되갑니다. 혹시 선생님에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예, 캐네스 선생님께서는 도시 광장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십니다.”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대답에 놀라며 다시 물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다고요?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요?”

루쿨루스는 에이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아, 아닙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곧 퇴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캐네스는 중병에 걸려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휴,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나 선생님께서 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했네요.”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말을 믿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둘의 즐거운 대화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공주는 바람이 불자 추운 듯 몸을 떨었다. 이것을 본 루쿨루스가 에이미에게 말했다.

“에이미 공주님, 쌀쌀한 바람이 부니 무도회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루쿨루스 님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에이미는 무도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목각인형을 찾았다. 하지만 목각인형은 귀부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공주는 목각인형을 오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를 원망했다.

“아도라, 나는 하루 종일 이 시간만을 기다렸는데 너는 오늘 아침 나와 한 약속을 까마득히 잊었나 보구나.”

루쿨루스는 한참 동안 목각인형을 바라보며 원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공주님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 인형이 오늘 공주님의 파트너인 것 같군. 그가 사라져 줘야만 내가 공주님하고 춤을 출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저 인형을 무도회장에서 몰아낸다? 아하, 좋은 방법이 있군.’

루쿨루스는 갑자기 씩 웃더니 에이미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틈을 타서 목각인형에게 걸어갔다. 그는 목각인형을 둘러싼 여자들 중 한 사람을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귀속말로 속삭였다.

“왜 저 하찮은 인형에게 귀하신 숙녀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여자가 놀라며 루쿨루스에게 되물었다.

“아니, 인형이라니요?”

루쿨루스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저 앞에 있는 친구는 생명의 축복을 받은 인형입니다.”

“정말인가요?”

“예, 하나도 거짓됨이 없는 진실입니다. 저 남자는 에이미 공주님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놀던 목각인형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저 남자의 아름다운 얼굴과 빼어난 몸은 사실 알맹이가 텅텅 빈 나무껍데기에 불과하죠.”

여자는 루쿨루스 말을 듣자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목각인형을 둘러싼 여자들에게 달려가 루쿨루스가 전해준 진실을 알렸다. 그녀의 말을 전해들은 귀부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뀌었다.

“아니! 그러면 사람도 아닌 것이 우리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야?”

“장난감이면 장난감답게 행동해야지. 자기가 무슨 진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다니. 나 참 어이가 없군.”

여자들은 목각인형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그를 심하게 대우했다. 이를 본 루쿨루스는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귀부인들을 사납게 달궜으니 목각인형을 무도회장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시간문제로군.’

에이미는 모욕을 받고 있는 목각인형을 보자 화가 나서 여자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다. 그리고 여자들을 목각인형으로부터 떼어놓고 소리쳤다.

“더 이상 아도라를 괴롭힌다면 내가 가만있지 않겠어요! 모두 아도라에게서 물러나세요!”

에이미가 화를 내자 한 여인이 나서서 불평했다.

“에이미 공주님, 한날 장난감에 불과한 저 인형을 가지고 재미

를 좀 봤기로서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저 인형은 한날 지루해지면 버리는 장난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에이미는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여자들에게 경고했다.

“어쨌든 아도라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다른 여자가 공주의 태도에 언짢은 듯 투덜거렸다.

“에이미 공주님, 저 인형이 사람의 모습을 닮고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하듯 많은 애정을 주지 마십시오. 저 목각인형은 사람의 재미를 위해 존재하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에이미는 귀를 막고 그녀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목각인형을 둘러싼 여자들에게 소리쳤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서 물러나세요!”

멀리서 사태를 관망하던 루쿨루스는 때가 무르익자 에이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에이미와 목각인형을 둘러싼 여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이 인형이 귀부인들께 무례를 범했다면 저를 봐서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이 인형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 공주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만 물러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귀부인들은 루쿨루스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루쿨루스는 에이미와 목각인형에게 속삭였다.

“에이미 공주님, 일이 일단 수습되었지만 목각인형은 잠시 무도회장에서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목각인형이 이 안에 있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오늘 아도라와 같이 춤추기로 했는데…….”

에이미가 망설이자 루쿨루스는 멀리서 아직도 목각인형을 찌려보고 있는 귀부인들을 가리켰다.

“도망친 귀부인들이 언제 다시 모여 목각인형을 괴롭힐 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인형을 여기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춤은 나중에 추셔도 되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망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 치만…….”

에이미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공주가 선뜻 루쿨루스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루쿨루스는 공주대신 목각인형을 설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는 목각인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목각인형아, 에이미 공주님을 위해서 네가 조용히 물러가게 좋겠다. 그럴 수 있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에이미 공주님, 오늘 곤란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오히려 미안해, 아도라. 행사가 끝나면 얼른 갈게.”

“공주님, 즐거운 무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밖에서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있겠습니다.”

목각인형은 힘없이 무도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귀부인들의 말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들의 잔인한 말은 목각인형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다.

‘한날 지루해지면 버리는 장난감이라……. 재미를 위해 존재하는 장난감이라…….’

목각인형은 그녀들의 말을 되뇌며 슬퍼했다.

목각인형이 무도회장을 나간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에이미는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볼 뿐 어느 누구하고도 춤을 추지 않았다. 많은 남자들이 에이미에게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점잖게 부탁했으나 그녀는 남자들의 청을 모두 거절했다. 오랜 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린 루쿨루스는 에이미의 마음이 안정이 된 듯 보이자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에이미 공주님, 목각인형은 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고 오늘 밤하늘은 참으로 아름답네요.”

에이미는 고개를 돌려 루쿨루스를 바라보았다.

“루쿨루스 경, 아까는 정말 고맙습니다.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하다라는 말도 하지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날에 공주님께서 힘이 없어 보이시니 보는 제의 마음이 편칠 않군요.”

“걱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루쿨루스 경은 참으로 좋은 사람 같아요.”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에이미 공주님. 아, 아, 아닙니다.”

“네? 저한테 무슨 한 말이라도 있으신가요?”

“그게 저……”

루쿨루스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허리춤에 찬 칼을 매만지며 에이미에게 말했다.

“에이미 공주님, 제 작은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진지한 태도를 몹시 의아해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되물었다.

“무슨 부탁이신지?”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와 같이 춤을 춰주실 수 없습니까? 만약 제 부탁이 언짢으시다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주님께서 저와 같이 춤을 춰주신다면 저는 이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기쁠 것입니다.”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말을 듣고 피식하고 웃었다.

“왕국을 구한 영웅답지 않게 너무 조심스럽게 부탁하시는 군요. 루쿨루스님은 마치 군인이 아니라 순진한 시골 청년 같으세요. 오늘 빛을 진 것도 있고 또 아름다운 시를 읊는 장수는 춤을 어

떨게 추는 지 몹시 궁금하군요.”

에이미와 루쿨루스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루쿨루스는 자신의 두 손을 잡고 있는 공주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에이미 공주님,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던져 그 사랑을 부수고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며 그것만이 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무도회장을 빠져 나온 목각인형은 정처 없이 궁 안을 떠돌았다. 그의 발걸음은 그도 모르는 사이에 안데르센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수리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수리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목각인형은 문을 두드렸다.

“아직 안주무시나?”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안데르센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하품을 크게 하고는 문을 열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오셨나?”

문 앞에는 목각인형이 서있었다.

“아, 아도라야. 이 늦은 밤에……. 아니, 아니지. 우선 안으로 들어오거라.”

안데르센의 표정에는 목각인형이 늦은 밤에 갑자기 찾아오자 의아한 빛이 확연했다.

“아도라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수리소 안에는 부서진 많은 인형들이 쌓여있었다. 목각인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위에 있는 인형들을 바라보

왔다.

‘나도 저 인형들처럼 공주님의 관심을 잃으면 버려지는 걸까?’

목각인형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 차 올랐다. 그는 버려진 인형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크게 쉬었다.

목각인형의 슬픈 표정을 이상하게 여긴 안데르센이 다가와 물었다.

“아도라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게냐? 이곳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목각인형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안데르센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한 사람의 생각이 계속 머리 속을 떠나지가 않아요. 그녀를 생각하면 행복과 함께 불안이 동시에 제 마음속에 밀려들어와요. 제가 왜 그런 거죠?”

“나도 잘 모르겠구나.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 해보려무나.”

“오늘 저녁 귀족들 사이에서 유독 빛이 나는 한 사람을 바라보자 마치 제가 다가가서는 안 되는 높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다정히 있는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른 남자와 다정히 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라……. 아도라야, 아마도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나 보구나.”

목각인형은 안데르센의 대답을 듣고 믿기지 않은 듯 눈을 뚱그랗게 떴다.

“좋아한다고요?”

“그래, 내 생각에는 네가 그 사람을 몹시 좋아하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 보잘것없는 나무조각으로 만들어진 저도 사람을 좋아해도 되나요? 하찮은 인형주제에 감히 사람을 좋아해도 되나요?”

안데르센은 목각인형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도라야, 너는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이세상

에서 그 누구보다도 값진 생명을 가진 인형이란단다. 그러니 너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란다. 너의 간절함이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란단다. 세상에는 해서는 안될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단다.”

안데르센은 목각인형의 등을 어루만져주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아도라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의 그 소중한 감정을 포기하지 말거라. 너의 질투, 슬픔, 괴로움을 모두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위해 참아내어라. 그리고 항상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목각인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데르센의 말에 위안을 크게 얻었고 간만에 표정이 밝아졌다.

안데르센은 식탁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 식탁 위에는 황금빛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잔이 올려져 있었다. 그는 잔을 들더니 황금빛 물을 기분 좋게 마셨다.

“역시 축제에는 이 것이 빠져서는 안되지.”

안데르센의 얼굴에는 희색이 넘쳐흘렀다. 목각인형은 안데르센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그 잔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빛깔의 물은 무엇인가요? 그 물이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다지도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나요?”

안데르센 할아버지는 술잔을 들며 대답했다.

“이 것은 말이지, 바로 맥주라고 불리는 마법의 물이란단다. 밖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꼭 이 마법의 물을 마신단다. 그들은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마치 물을 마시듯이 이것을 마시지. 이 것을 마시면 그 동안 쌓여있던 고민과 걱정은 눈이 녹는 것처럼 마음 속에서 사라진단다. 즐거운 축제를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손님 중에 하나지. 이 황금색을 띤 맥주는

말이야.”

“그 마법의 물을 마시면 밖에서 사람들처럼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보낼 수 있나요?”

안데르센 할아버지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시원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목각인형은 황금빛을 띄는 맥주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밝게 웃었다.

무도회가 끝나고 에이미는 로이스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다. 방안에는 목각인형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방안을 바라보며 걱정스레 중얼거렸다.

“아도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네. 아도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에이미 공주님, 제가 사람들을 시켜서 목각인형을 보거든 공주님의 방으로 빨리 오라고 전할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로이스, 고마워.”

“아니에요. 공주님, 저는 이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로이스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로이스는 에이미의 이마에 살며시 키스를 하고 방을 나갔다.

로이스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드렸다. 문이 똑똑 울렸고 가늘고 고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주님, 저예요.”

“아도라? 아도라야?”

에이미는 문 앞으로 뛰어가 방문을 활짝 열었다. 문 앞에는 목각인형이 서있었다. 공주는 무의식적으로 목각인형을 꺼안았다.

“많이 걱정했잖아, 아도라. 오늘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썽을 일으켜서 죄송해요, 에이미 공주님.”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너를 혼자 두게 해서.”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그렇고 제가 공주님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요.”

“선물?”

목각인형은 옆에 놓여있는 작은 오크 통을 가리켰다. 그 물통은 너도밤나무로 만들어졌고 짙은 갈색을 띠었다. 그 나무통으로 부터 은은한 나무향기가 방안으로 퍼졌다.

“이게 뭐야? 무슨 물통 같은데?”

“저번에 공주님이 밖에 사람들이 벌이는 새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안데르센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밖에 사람들은 새해에 이 황금색 물을 마시며 서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주님을 위해 안데르센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황금색 물을 얻어왔어요. 물론 밖의 축제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희 둘이라도 밖에서처럼 즐겁고 유쾌한 축제를 만들어요.”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

“전에 내가 했던 말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구나. 아도라, 너무 고마워. 근데 어찌지?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목각인형은 물통을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잔을 두 개 꺼내더니 물을 따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황금색을 띄는 물을 유심히 살펴보며 에이미가 물었다.

“아도라, 이 물 이름이 뭐야?”

“안데르센 할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이 물의 이름은 맥주래요. 밖에 사람들은 이 맥주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물 대신 이 황금색 음료를 마신대요.”

“음료? 풋! 아도라는 이 맥주가 원지 모르는 구나. 아도라, 이 맥주는 음료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

“조금 그렇다니요?”

“맥주는 바로 술이야. 어른들은 아이들이 못 마시도록 높은 선반에 몰래 숨겨두는 그런 거지.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이 술을 마시면 못된 어른으로 자라거든.”

목각인형은 깜작 놀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면 이 술을 마시면 안되겠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등을 손바닥으로 크게 두드리며 안심시켰다.

“농담이야. 아도라는 너무 속이기 쉽다니까?”

“공주님, 근데 술은 어른들만 마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아직 어른이 아니잖아요.”

“몰래 마셔야지. 어렵게 구했는데 버리기는 아깝잖아.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마실 거야. 아주 조금만.”

에이미와 목각인형의 대화 사이로 궁의 나팔수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나팔이 들려왔다. 흥겨운 가락은 어두운 밤하늘 속으로 널리 울려 퍼졌다.

“어!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되려나 보다. 어서 창가로 가자.”

에이미와 목각인형은 난간에 걸터앉았다.

“공주님, 저기를 좀 보세요. 땅에서 빛 줄기가 솟구쳐 올라와요.”

갑자기 땅에서 빛 줄기가 솟아오르더니 큰소리와 함께 여러 작고 아름다운 불꽃으로 퍼져 내렸다. 수많은 오색의 불꽃들이 하늘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며 땅으로 떨어졌다. 목각인형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아도라, 너무 예쁘지?”

“예, 공주님. 하늘에 불꽃으로 그림을 그린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아차! 깜박 잊을 뻔했네. 아도라, 우리도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건배하자. 너와 나의 행복한 새해를 위해서 건배!”

“건배!”

목각인형과 에이미는 창가에 앉아 술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했다. 에이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술잔을 들이켰다.

“으으, 씨.”

에이미는 혀를 빼고 얼굴을 찡그렸다.

“우웁, 생각보다 맛있지는 않네. 어른들은 왜 이런 술을 좋아할까? 그건 그렇고 아도라, 오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야 돼, 내 말 알겠지?”

“네. 알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꽃은 흐드러지게 하늘로 퍼져갔고 불꽃의 긴 꼬리는 수많은 별빛과 섞여 춤을 추며 대지를 향해 입맞춤을 했다. 술기운에 얼굴이 빨개진 에이미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감상에 젖었다. 그녀는 술기운을 빌어 목각인형의 어깨에 서서히 머리를 기대었다.

“아도라, 나 말이지 가끔씩 엉뚱한 질문을 내게 하곤 해.”

“엉뚱한 질문이요?”

“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 까?’ ‘왜 엄마랑 그렇게 일찍 헤어졌을까?’ ‘왜 아빠는 항상 바쁠까?’ 뭐 이런 바보 같은 질문 말이야. 매일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을 알 수가 없어. 아도라는 어때? 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어?”

“그럼요. 저도 공주님처럼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저도 한때는 ‘내가 왜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이 곳에 있는 것 일까.’라는 질문을 꽤 오랫동안 한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답을 알아내지는 못하지만요. 그런데 공주님, 무엇이 저를 이 넓은 세상 속에 지금 이 순간, 이 곳을 향하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이미가 목각인형에게 물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데?”

목각인형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에이미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공주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오로지 그것뿐이에요.”

“아, 아도라…….”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소녀의 심장이 두근 두근 뛰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얼굴도 서서히 붉게 물들어갔다. 그녀는 마음을 졸이며 고개를 살며시 들어 목각인형을 쳐다보았다. 목각인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부서지는 불꽃 아래서 에이미와 목각인형의 사랑은 서로를 향하여 서서히 피어 올랐다.

CHAPTER NINE

위대한 수업

“피고름을 쏟아내고 피를 토해내며 괴로움이 덮쳐와도
캐네스는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묵묵히 마지막 위대한
수업을 준비했다.”

새벽이 돼서야 잠을 이룰 수 있었던 에이미는 로이스의 시끄러운 목소리에 잠을 깼다. 그녀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듯 피곤해 보였다. 에이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고 나서 평소처럼 목각인형을 붙였다.

“아도라, 나 물 좀 갖다 줘.”

목각인형은 늘 그래왔듯이 환한 미소로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공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밤새 도록 몹시 몸을 뒤흔치시던데요.”

에이미는 졸린 듯한 눈으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어, 그래? 조금 피곤했었나 봐. 그건 그렇고……. 어?”

에이미의 두 눈에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아침에 막 일어나 부스스한 머리와 말끔하지 못한 얼굴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순간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이 밀려들어왔다. 에이미는 지저분한 얼굴을 목각인형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자 몹시 창피했다. 그녀는 급하게 얼굴을 감싸고 뒤로 돌아섰다.

“아도라, 부탁인데 내가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 밖에 나가있어 줄래?”

“네? 왜 갑자기.”

“왜? 응, 그러니까……. 이, 이유는 나중에 알려줄게. 어서 나가죠.”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밀어내듯이 방밖으로 내보냈다. 목각인형은 공주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방밖으로 나갔다.

“아도라, 곧 나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공주님,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일을 보세요.”

“잠깐이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방 문을 살며시 닫은 에이미는 곧자 세숫대야로 달려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었다. 그녀는 세수를 하는 동안 기분이 좋은 듯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에이미를 보며 로이스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노래를 다 흥얼거리시고, 움직임이 매우 가벼워 보여요. 꼭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처녀처럼 설레 보이시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처녀 같다고?”

에이미는 로이스의 말에 흠칫 놀랐다. 하지만 애써 태연스레 거짓말을 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래.”

“그런데 오늘은 왜 목각인형을 밖에다가 세워 두셨어요? 예전에는 목각인형이 옆에 없으면 세수도 안 하시고 목각인형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고집을 피우셨잖아요.”

“그랬었나? 그냥. 그러고 싶어서.”

에이미는 말끝을 흐리며 질문을 피해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유쾌한 노랫가락처럼 사랑의 설렘이 흥얼거렸다.

오후가 되자 에이미는 배움터 안에서 책상에 턱을 괴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지루한 듯 연신 하품을 쏟아냈고 쏟아지는 하품을 숨기려 꽤나 애를 먹었다. 그 시간은 메기 선생님의 수업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었지만 에이미는 수업은 안중에도 없는 듯 먼 창문을 바라보며 골똘히 딴생각을 했다.

‘왜 그러지? 오늘따라 이상하게 아도라를 바라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묘한 기분이 북받쳐올라.’

뚱뚱한 메기는 에이미에게 오늘 수를 놓은 문양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에이미 공주님, 오늘 배울 문양은 예쁜 나비모양입니다. 호호

호. 이 나비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비의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날개의 문양입니다. 아시겠죠?”

에이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메기 선생님.”

에이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다.

‘설마 내가 아도라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도라는 여태까지 내 오랜 친구였는데. 하지만 이 가슴 떨림은 뭐지? 아무튼 아도라도 은근히 멋진 말을 한단 말이야.’

에이미는 혼자 킁킁 웃었다. 옆에서 열렬히 나비 문양을 설명하고 있던 메기는 공주가 실없이 웃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에이미 공주님, 오늘따라 유난히 집중을 못하시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자수 도구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웃으시나요?”

“네?”

에이미는 화들짝 놀라며 자수 도구들을 주섬주섬 들었다.

“죄송해요, 메기 선생님.”

“아무래도 조금 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공주님, 쉬고 난 다음에는 집중하고 수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율리우스 전하께 공주님이 배운 내용을 보여드리는 날이 돌아오니 말이죠. 그리고 공주님, 하라는 공부는 안 하시고 뭐를 그렇게 열심히 쓰고 계세요?”

“네? 쓰다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미는 딴 생각을 하느라 자수 바늘로 책상에 글씨를 새기고 있는 줄도 몰랐다. 공주는 급히 자수 천으로 책상을 덮고 말을 얼버무렸다.

“책상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어서 긁어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하, 그럼 선생님 말대로 밖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어볼까?”

에이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밖으로 나갔다. 공주가 나가자 메기는 호기심에 자수 천을 들어 공주가 새긴 글을 봤다.

“이건 뭐지? 이, 이럴 수가! 설마 공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걸 거야. 하긴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무튼 이 일을 마르켈루스에게 전해야겠어. 요새 돈벌이가 시원찮아 고민이었었는데 이 정보를 팔아 용돈 벌이라도 해야지. 호호호.”

메기는 고개를 저으며 건물 밖으로 나갔다. 건물 안에 홀로 남겨진 책상에는 ‘아도라, LOVE’ 라고 적혀있었다.

새해가 시작되고 2주일이 지나갔다. 오늘은 에이미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모두 내일로 미루어 두었다.

“에이미 공주님,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일찍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오늘 혹시 제가 모르는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방안으로 로이스가 들어왔다. 그녀는 에이미가 아침 일찍 일어나있는 것을 보고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로이스, 내가 일주일 전에 말했잖아. 오늘은 캐네스 선생님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고. 설마 잊어먹은 거야?”

“아차! 내 정신 좀 봐. 깜박 잊고 있었네요.”

“로이스 답지 않네. 이런 중요한 일도 잊어먹다니?”

로이스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감으면서 얼버무렸다.

“죄송해요. 공주님. 요새 좀 바쁜 일이 워낙 많아서…….”

“아도라, 너도 오늘 나와 같이 캐네스 선생님의 병문안을 갈 거니까 서둘러서 준비를 마쳐야 돼. 곧 궁 밖으로 나갈 거니까.”

“에이미 공주님.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캐네스는 힘없고 약한 병자가 되어 있었다. 가족 하나 없는 그에게 괴로운 병마가 찾아왔고 병마의 고통은 그의 작은 몸은 갉아먹었다. 율리우스 왕의 배려로 왕

실 의사가 그를 간호하고 있었지만 병마의 고통보다 끝없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로이스가 물었다.

“공주님, 이번 궁 밖을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면 서요?”

“응, 아바마마를 설득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어. 아바마마는 궁 밖을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극구 반대하셨지. 하지만 계속 되는 청에 결국 궁 밖을 나가 캐네스 선생님의 병문안을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 메기 선생님과 록산느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그리고 루쿨루스가 많은 수의 호위대를 거느리고 나를 호위한다는 조건하에 말이야.”

“메기와 록산느 선생님이랑 같이 간다구요? 예휴, 오늘 하루 고생길이 흰하네요. 그래도 루쿨루스가 공주님을 호위한다니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저 혼자로는 공주님의 말괄량이 기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로이스도 참…….”

밖으로 나갈 준비가 다 끝나자 에이미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을 데리고 궁의 입구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루쿨루스가 많은 수의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메기와 록산느도 옆에 서있었다. 두 여자는 귀찮은 여행에 억지로 동참하게 된 것에 기분이 상했는지 연신 얼굴을 찡그리며 인상을 썼다.

루쿨루스가 정중하게 한 쪽 무릎을 꿇고 에이미의 손에 살며시 키스를 했다.

“공주님을 호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잘 부탁 드립니다, 루쿨루스 경.”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도움으로 마차에 올랐다. 모든 일행이 마차에 탑승하자 루쿨루스는 마부에게 신호를 내렸다.

“출발!”

루쿨루스의 함성에 마부는 포동포동한 말 엉덩이를 채찍질 했고 이에 고무된 튼튼한 말은 바퀴를 힘차게 굴리며 마차를 끌었다.

“로이스, 캐네스 선생님이 묵고 있는 병원이 성벽 밖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캐네스 선생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은 수도의 중앙의 위치한 넓은 광장 바로 옆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멀지는 않네. 그건 그렇고 처음으로 성밖을 나간다고 생각하니 조금 설레는 걸. 아도라, 너도 처음으로 성밖을 나가는 거지? 그렇지?”

“예. 성밖을 구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너도 나처럼 많이 설레?”

“예, 공주님. 저도 공주님처럼 너무나 설레요.”

“아도라, 성밖에 세상은 어떨까? 재미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일까? 아니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일까?”

“그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보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주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이미는 호위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지혜로운 캐네스가 묵고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무겁고 커다란 궁문이 열리자 새로운 세상이 에이미와 목각인형의 눈 앞에 펼쳐졌다. 화려한 마차는 성문을 나와 수도 중앙에 위치한 넓은 광장을 향했다. 병원 바로 옆에 있는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들끓어서 혼잡했다. 그 광장에는 활기찬 소음이 흘러 넘쳤다.

“와! 성 밖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 줄 몰랐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에 사는 거지?”

“아마 공주님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에이미는 목각인형과 함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아도라, 저기를 좀 봐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로이스, 저기 저 곳은 뭐야?”

“저 곳은 시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죠.”

“저기는 항상 저렇게 사람이 많아?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러
 워 보이는데? 하지만 모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

“예, 시장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린답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물건과 많은 사건들이 쏠
 아지지요. 저 커다란 시장은 도시에서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곳
 중 하나랍니다.”

“아! 가보고 싶다”

에이미는 신비로운 바깥세상에 그녀의 마음을 훌쩍 빼앗긴 채
 즐거운 구경을 만끽했다.

마차는 광장을 가로질러 커다란 3층 건물 앞에 도착했다. 루클
 루스는 말에서 내려 에이미에게 보고를 했다.

“에이미 공주님, 캐네스 선생님이 묵고 있는 병원에 다 도착하
 였습니다.”

루클루스의 보고가 끝나기 무섭게 마차 안에 타고 있던 메기가
 불평했다.

“벌써 도착했나요? 하긴 마차를 그렇게 거칠게 운전하니 이렇
 게 빨리 도착할 수 밖에 없지. 참나 숙녀분들이 타고 있다는 생
 각은 잊어먹은 거야 뭐야.”

옆에 있는 록산느가 맞장구를 쳤다.

“역시 무식한 군인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 아무튼
 그 따분한 늙은이를 보러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오
 래 살고 불일이야.”

메기와 록산느는 캐네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캐네스는 두 사람에게 공주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입에 가시

가 돌치도록 설교했다. 이에 그들은 캐네스를 귀찮고 짜증나는 늙은이로 치부했다.

에이미는 두 선생님의 몰상식한 불평이 신경에 거슬렸지만 못들은 척 그냥 넘어갔다.

“음산하고 차가운 건물이네.”

메기가 에이미에게 말했다.

“공주님, 저희는 이 마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무래도 다친 사람들이 많은 병원에 들어가기가 좀 꺼림칙하네요. 물론 저희가 캐네스 선생님의 병문안을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병문안을 가면 선생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픈 사람은 사람들이 부산스레 들락거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편히 쉬고 계세요. 로이스, 아도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동동한 한 중년의 남자가 병원의 정문에서 일행을 맞이했다. 그 옆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렬로 늘어서있었다.

“에이미 공주님,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을 해주셔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제가 캐네스 선생님이 묶고 있는 병실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환대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군요.”

“어이구, 누를 끼치다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다 송구스럽습니다.”

에이미는 병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내부는 막 새로 지은 건물처럼 깨끗했다. 에이미가 병원장에게 말했다.

“병원 안이 매우 깨끗하네요.”

“저희 병원은 위생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두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죠.”

로이스는 이상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병원에 환자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질 않네요.”

병원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환자들이 문 밖으로 나오고 싶지가 않은가 보군요. 환자들이 방안에만 있고 싶어하는 그런 날이 있죠. 특히 오늘 같이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더 심하답니다.”

병원은 항상 심각한 부상자들로 인해 항상 분주하였지만 에이미가 병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병원은 입원해있는 환자는 모두 다른 병원으로 강제로 이송했고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환자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커다란 병원 안은 매우 조용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병원 안은 무섭고 차가운 적막을 풍겨왔지만 에이미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3층의 제일 큰방에는 캐네스가 누워있었다. 그는 에이미를 비롯한 사람들이 3층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는 간호사를 급히 불렀다.

“간호사, 미안하지만 나의 몸을 일으켜 주시오.”

“침대에 오랫동안 앉아계시면 병마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소. 진통제를 먹었으니 잠시 동안은 괜찮을 거요.”

캐네스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작은 몸을 침대의 끝에 기댄 채로 앉았다. 몸은 병마로 인하여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은 아직까지 생기가 돌았다.

“캐네스 선생님, 저 에이미예요. 들어가도 되나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여.”

에이미는 방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에이미는 수척해진 캐네스를 보고 몸이 딱딱한 돌덩이처럼

럼 굳어버렸다.

“선, 선생님 몸, 몸이…….”

캐네스는 가녀린 목소리로 인사 말을 건넸다.

“어서 오세요. 제가 공주님을 마지막으로 본지도 벌써 1년이나 지났군요.”

에이미는 간호사가 가져다 준 의자를 캐네스의 침대 옆에 내려 놓은 뒤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양상한 뼈만 남은 캐네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흑흑.”

눈물을 흘리는 에이미를 바라보며 캐네스는 눈물을 천천히 닦아주었다.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여, 나의 사랑스런 공주여,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저의 몸 상태는 공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사랑하는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기쁘군요.”

지혜로운 캐네스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에이미를 안심시켰다.

캐네스와 에이미는 한참 동안 화목함으로 가득했던 지난 추억들을 생각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갑자기 창문으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시원한 바람을 타고 향기로운 꽃 냄새가 온 방안에 퍼졌다.

“시원한 바람과 붉은 꽃 향기…….”

캐네스는 등 뒤에 있는 커다란 창문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는 창문 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외로운 미소를 띤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린 시절 저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작은 저의 몸을 바라보며 항상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혼자 울고 있으면 작은 손에 붉은 꽃 과자를 쥐어주곤 했지

요. 그러면 울고 있던 저는 그 과자의 달콤함에 사로잡혀 현실의 괴로움을 잊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늙고 나니 어릴 적 먹었던 그 과자가 생각나는군요.”

“붉은 꽃 과자요? 지금도 그 과자가 먹고 싶으세요?”

“먹고 싶다가보다 그저 생각이 나네요. 아무것도 아닌 추억 속 과자가 이 나이든 늙은이를 향수에 젖게 합니다.”

에이미는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선생님, 제가 그 과자를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붉은 꽃 과자를 사올게요.”

“제가 어찌 감히 공주님에게 그런 번거로운 일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에이미는 캐네스가 정중히 거절하자 고집을 꺾지 않고 때를 부렸다.

“선생니~임, 제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그 붉은 꽃 과자는 제가 아주 어릴 때에 먹었던 과자입니다. 그 과자를 파는 가게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리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게가 없어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 찾아보기라도 해봐야지요. 선생님, 예전에 그 가게는 어디에 있었나요? 이 병원에서 먼 곳에 있었나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

캐네스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의 끝을 가리켰다.

“그 붉은 꽃 과자를 파는 가게는 시장의 맨 끝에 위치해있었습니다. 가게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진 않았지만 그 가게에서 파는 과자의 달콤함은 그 어떤 꿀보다도 달았습니다.”

로이스가 말했다.

“시장의 끝자락에 위치한다면 그리 멀지는 않군요. 에이미 공

주님, 그 가게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시장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시장 구석구석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로이스, 정말이야? 휴, 다행이다.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시장을 다 뒤져서라도 꼭 붉은 꽃 과자를 사올게요.”

“에이미 공주님,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침대 옆에 서있던 로이스가 캐네스에게 물었다.

“캐네스 선생님, 혹시 가게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게 이름을 알면 찾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캐네스가 대답했다.

“미안하네, 로이스.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 가게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를 않는 다네.”

“아도라, 로이스, 이제 한가하게 서있을 시간은 없어. 서둘러 내려가서 시장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빨리 과자를 사올 수 있을 테니까.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에이미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의 팔짱을 낀 채 서둘러 병원을 나왔다.

“아도라, 로이스, 우리는 반드시 붉은 꽃 과자를 구해야 돼. 그것이 내가 존경하는 캐네스 선생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공주님, 이 로이스를 믿어주세요. 성심 성의껏 공주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공주님, 이 아도라도 공주님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옆에 서있던 루쿨루스가 세 사람의 대화를 중간에서 끊고 말했다.

“에이미 공주님, 그것은 예정에 없는 일입니다. 시장을 둘러보시다가 만약 갑작스런 위험에 처하시기라도 하면 수가 많지 않은 호위병들로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과자를 사는 일

이라면 시녀를 시켜서 사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에이미가 루쿨루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 제가 집적이 일을 하고 싶어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절대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을게요.”

“에이미 공주님, 아무리 그러셔도……”

루쿨루스는 망설이며 말을 끝맺지 못했다. 평상시 일에 관해서는 절대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였지만 공주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오랜 망설임 끝에 마지못해 승낙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다는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고마워요, 루쿨루스 경. 이 빛은 꼭 갚을게요.”

루쿨루스와 에이미의 대화가 합의점에 도달할 때쯤 록산느가 마차에서 점잖게 내려왔다. 덩달아 메기도 뚱뚱한 엉덩이를 뒤통거리며 록산느를 쫓았다.

록산느가 에이미에게 훈계조로 말했다.

“안됩니다. 안돼요. 공주님, 시장에 가신다니요? 그런 누추한 곳은 공주님처럼 고귀하신 분이 가실 데가 아닙니다. 예의범절도 모르는 백성들이 비천하게 뛰어다니며 노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이제 그만 캐네스 선생님의 병문안도 하셨으니 그냥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기가 옆에서 거들었다.

“호호호. 어쨌 록산느 선생님은 그렇게 옳은 말만 할까? 공주님, 이제 그만 궁으로 돌아가죠. 오늘 이렇게 밖에서 고생을 하니깐 너무 몸이 피곤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장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보다 이게 다 공주님이 피곤해하실 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호호호.”

루쿨루스는 에이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에이미의 편을 들어 두 사람을 나무랐다.

“조용히 하시오. 어디 선생 주제에 공주님이 결정하신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한단 말이요. 더 이상 그 입으로부터 불평이 쏟아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소. 내 말 잘 알아들으셨소?”

루쿨루스가 두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자 두 선생님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네, 네. 물론 그, 그렇게 해야지요. 사, 사실 저희들도 시장에 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호오오. 호오오오.”

록산느와 메기의 불평이 루쿨루스에게 진압되자 병원으로부터 한 간호사가 나왔다. 그녀는 캐네스의 방에서 캐네스를 간호하던 그 간호사였다.

“애기를 하시는데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캐네스 선생님께서 로이스 님과 목각인형 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잠시 방으로 와주셨으면 한다고 전해 달라하십니다.”

에이미는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했다.

“무슨 일이시지? 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

“뭐 가게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죠? 아님 가게의 이름이나 그 무엇이 기억나셨을 지도 모르죠. 공주님, 그럼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각인형아, 어서 올라가자.”

“네, 알겠어요.”

로이스와 목각인형은 캐네스를 보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다. 3층으로 올라온 로이스와 목각인형은 방으로부터 새어 나오는 불길한 소리를 들었다.

“아도라,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 신음 소리 같은데?”

“예, 저도 방금 들었어요. 캐네스 선생님 방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목각인형과 로이스는 캐네스의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캐네스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침대는 캐네스

가 토해낸 피로 물들어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붉은 핏덩이를 밖으로 토해냈다. 간호사는 몹시 안쓰러운 듯이 캐네스의 등을 어루만져주었지만 고통은 멈추질 않았고 더욱 그를 괴롭혔다.

로이스는 그녀의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캐, 캐네스 선생님…….”

목각인형도 심한 마음의 동요로 인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캐네스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 채로 서있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에게 천천히 말했다.

“로이스 그리고 목각인형아, 사실 나는 오늘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있단다.”

로이스가 물었다.

“선생님, 아까는 이렇게까지 몸이 아프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에이미가 내방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를 먹었다네. 그래서 에이미 앞에서는 병이 다 나은 사람처럼 연기를 할 수 있었지.”

“아니, 왜 그런 연기를 하신 겁니까? 공주님에게 병을 숨길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만약 이 사실을 에이미가 알게 된다면 착한 에이미는 깊은 슬픔에 휩싸일 것이라네. 그리고 하루 내내 나의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고 나를 간호하려고 하겠지.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이미 앞에서 매우 건강한 사람처럼 연기를 했다네.”

로이스는 캐네스의 입에 묻은 피를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 마음속에 감춰진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저와 목각인형을 부른 진짜 이유와 왜 공주님에게 병을 감추려고 하셔야만 했는지 도요.”

캐네스는 방안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향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래, 다 말해주겠네. 붉은 꽃 과자를 파는 가게는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네. 그 과자는 오래 전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신 과자였네. 그러니 붉은 꽃 과자를 파는 가게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런데 내가 왜 에이미 공주님에게 그것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는지 자네들은 짐작이 가는가?”

로이스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로이스와 목각인형은 캐네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캐네스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 캐네스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에이미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라네. 율리우스 왕의 집착적인 보호 때문에 그녀는 성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올 수 없었지. 아마도 공주는 오늘 처음으로 성밖을 나왔을 거라네. 내 눈에는 마차 안에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며 즐거워하는 공주의 모습이 보인다네.

나는 에이미가 하루 종일 나를 간호하기보다는 더 갑진 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네. 그녀에게 성 밖에서의 하루는 그 어느 것보다도 얻기 힘든 시간일 테니까. 오늘 그녀에게 세상의 아름다움, 고통, 그녀가 알지 못하는 성밖에 펼쳐진 진짜 세상을 가르쳐주고 싶네.

이 보게들, 너무나도 작은 세상에 갇힌 채로 살아온 에이미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길 바라네. 붉은 꽃 과자를 사러 간다는 핑계를 이용하여 그녀에게 활기찬 시장, 넓은 광장,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위해 벌이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행동들, 그들의 기쁨과 고통, 행복과 불행 등, 에이미에게 그런 진짜 삶을 보여주길 바라네.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라네.”

캐네스는 붉은 피로 물든 자그마한 손으로 조그만 상자를 꺼내

어 로이스에게 건네었다. 그 속에는 붉은 꽃 모양이 새겨진 과자가 들어있었다.

“에이미는 만약 붉은 꽃 과자를 못 구했을 경우 매우 큰 상심에 빠질 거라네. 여린 공주가 상심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에 이 과자들을 그녀에게 전해주게.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비밀로 해주게나. 그럼 자, 어서 공주에게 진실된 세상을 가르쳐주기 위한 길을 떠나주게나.”

작은 몸을 지닌 캐네스는 말을 마치고 나자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그의 자그마한 입에서는 핏물이 솟구쳐 올라왔고 얼굴은 커다란 고통으로 인하여 일그러졌다. 그의 몸은 괴로움에 뒤엉켰지만 그는 피로 얼룩진 작은 입으로 일체의 비명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로이스와 목각인형은 고통에 휩싸여 작은 숨을 쉬고 있는 캐네스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캐네스 선생님,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에이미 공주님에게 반드시 값진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캐네스는 로이스와 목각인형에게 손짓을 하며 그들을 떠나 보냈다. 목각인형과 로이스는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을 마음속 깊이 감추어둔 채 병원 밖으로 나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에요. 캐네스 선생님이 붉은 꽃 과자를 파는 가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셨어요.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게로 가는 길을 아주 상세히 말해주셨어요. 그렇지 아도라?”

목각인형이 짧게 대답했다.

“예.”

“그럼, 어서 가자. 캐네스 선생님은 아마도 우리가 붉은 꽃 과자를 빨리 사오기를 원할 거야. 그러니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해.”

에이미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캐네스를 발견했다. 에이미는 손을 높이 흔들었다.

“어머! 선생님께서 창문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붉은 꽃 과자를 사가지고 올게요!”

캐네스도 에이미를 향해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마음 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세상에 갇힌 소녀여, 너 자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열길 바란다. 너의 맑은 눈으로 세상을 깨닫고 너의 작은 손으로 세상을 느끼며 너의 고운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기 바란다. 그렇게 너로 인해 다시 태어난 너의 진짜 세상을 찾길 바란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여.’

캐네스의 마지막 위대한 수업은 에이미의 밝은 손짓과 함께 시작되었다.

에이미는 우선 병원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넓은 광장을 향해 걸어가다. 광장에서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에이미는 익숙하지 않은 놀라움에 넋을 잃어버렸다. 그녀의 관심을 빼앗은 첫 번째 광경은 바로 서커스였다. 많은 광대와 서커스 단원들은 수많은 신기한 동작을 보여주며 관객을 즐겁게 했다. 많은 사과를 하늘 높이 던져 올려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받고 던지는 사람, 외 발 자전거를 타고 물구나무를 서는 사람, 입으로 커다란 불을 뿜는 사람, 손에 가지고 있던 카드를 사라지게 하고 다시 나타나게 하는 마술사 등 에이미는 처음 보는 환상적인 서커스 공연에 심취했다.

“아도라! 저 사람들이 펼치는 묘기를 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과를 던지고 받고 할 수 있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에이미는 서커스 단원들이 하는 신기한 행동을 손으로 가리켰다.

“예, 정말로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동작들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지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요.”

에이미와 목각인형은 배우들이 환상적인 묘기를 부릴 때면 손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박수를 치며 즐거움에 소리쳤다. 서커스단의 환상적인 공연이 끝나자 에이미는 공연을 즐긴 대가로 금화한 닢을 돈을 거두는 상자 안에 넣었다.

옆에 있던 로이스가 에이미에게 말했다.

“에이미 공주님, 이제 술술 시장으로 가죠. 아마 그곳에서는 붉은 꽃 과자를 파는 가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응, 알았어.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 더 보고 싶은데.”

에이미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향해 걸어갔다.

시장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어느 한 중년의 아저씨가 에이미를 불러 세웠다.

“저기 아름다운 숙녀분, 초상화 하나를 그리시지요. 싸고 아름답게 그려 드리겠습니다.”

에이미는 고개를 돌려 관심을 나타내었다.

“초상화를 그려준다고요?”

화가의 앞에는 자그마한 이동식 책상이 놓여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중년의 남자가 그린 듯이 보이는 작은 그림들이 놓여있었다. 그림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둥근 타원형종이 위에 그려져 있었으며 매우 정교하고 섬세했다.

에이미는 앞서 가던 로이스와 목각인형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중년의 화가에게 데려갔다.

“이들과 함께 있는 그림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저 혼자만 아닌 우리 셋 모두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세요?”

화가는 인상을 살며시 찌푸린 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손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손히 말하려는 듯

이 자신의 거친 수염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물론 그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만한 종이의 세분의 모습을 그려 넣으려면 매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돈을 조금 더 주신다면…….”

중년의 화가는 부끄러운 듯 말끝을 흐렸다. 이에 에이미는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열어 금화 한 닢을 화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화가는 에이미가 쥐어준 돈을 바라보며 매우 놀라워했다. 그녀가 주어진 돈은 그가 생각하는 돈의 액수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돈에 부끄럽지 않게 멋진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자, 그럼 편안하게 자세를 잡으세요. 웁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가는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붓 놀림은 푸르른 풀잎 사이를 스치는 봄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한 시간이 지나자 화가는 손에 쥐고 있던 붓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에이미에게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과 그 양 옆에 로이스와 목각인형이 그려져 있었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아도라, 이 그림 어때? 마음에 들어?”

“예,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뒤에 서있던 로이스가 목을 길게 빼고 그림을 보았다.

“정말로 마음에 쏙 드네요. 꼭 가족같이 다정하게 나왔네요.”

“로이스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멋진 그림을 얻다니 오늘 너무 신난다.”

에이미는 값비싼 보물을 다루는 듯 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소중

하게 간직했다. 그녀는 화가에게 감사의 표시로 동전 두 닢을 그의 거친 손위에 얹어주었다. 화가는 거듭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붉은 꽃 과자를 사러 가야겠어. 선생님이 기다리시지 않게 말이야.”

에이미는 로이스 그리고 목각인형과 함께 시장으로 걸어갔다. 뒤로는 메기와 록산느가 연신 투덜거리며 따라왔다. 루쿨루스는 여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호위병들과 함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에이미가 알아채지 못할 거리에 서서 그녀를 호위했다.

에이미는 시장에 들어서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품이 진열되어있는 가게들을 보았다. 그와 더불어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장사람들은 마치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노래를 부르듯 높이 소리쳤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팔기 위해 박수를 치며 물품을 알렸고 어떤 사람은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물건을 살피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이 에이미에게는 새롭고 신기했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팔을 잡아당기며 시장 앞에 위치한 생선가게로 끌고 갔다.

“아도라, 이리 따라와 봐.”

에이미는 생선가게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진열되어있는 다양한 생선을 구경했다. 공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죽어있는 생선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그리고 생선의 붉은 눈을 가리키며 징그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다.

“우, 징그러워. 아도라 너도 좀 만져봐. 물렁물렁한 게 감촉이 매우 이상해.”

목각인형은 죽은 생선이 무서운 듯 뒷걸음질 쳤다.

“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어! 아도라, 이것 좀 봐. 이 꽃게들은 살아있네. 어쭈, 이 조그만 것들이 집게로 나를 위협하는데. 도전을 한다면 피할 내가 아니지.”

에이미는 꽃게의 날카로운 집게를 피해 꽃게의 눈을 툭툭 건드리며 장난을 쳤다.

“어라! 이 꽃게들 슬슬 약이 오르나 본데. 아도라, 너도 한번 해봐. 매우 스릴이 넘치고 굉장히 재미있어.”

“아니예요. 저는 구경만 할래요.”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너도 해봐. 정말 재미있다니까?”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손가락을 억지로 꽃게를 향해 끌었다. 목각인형은 겁에 질려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 발버둥쳤다.

“안, 안돼요. 으아아아. 싫어~”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당황하는 표정을 바라보며 재미있다는 듯 방긋 웃었다.

“아도라는 완전 겁쟁이야. 남자가 무슨 그리 겁이 많아?”

생선가게의 주인은 에이미와 목각인형이 진열되어있는 상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보자마자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나무랐다. 주인은 화가 나서 그들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팔려고 내 논 상품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장난을 치시다 혹여 물건을 상하게 하시면 어느 손님이 그 물건을 사가겠습니까?”

주인의 목소리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의 모습처럼 굵고 거세었다.

옆에 있던 로이스는 생선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그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주인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란을 일으킨 대가로 드리는 돈이니 사양하지 말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데…….”

로이스가 돈을 쥐어주자 주인은 돈을 호주머니의 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들어가자 로이스는 뽀로통한 표정으로 에이미를 쏘아보았다.

“공. 주. 님.”

로이스의 화난 모습에 에이미는 미안해하기 보다는 장난끼가 넘치는 미소로 로이스를 대했다.

“고마워, 로이스. 역시 나한테는 로이스 밖에 없다니까? 로이스, 짱!”

로이스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숙녀가 되셨지만 아직도 어릴 적 호기심은 여전하시군요.”

에이미는 시장의 구석구석을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머! 저기 좀 봐. 너무 예쁜 동물들이 전시되어있네. 아이 예쁘다. 아도라, 어서 이리로 와봐.”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손을 잡아 끌며 이제껏 보지 못한 신기한 동물이 진열되어있는 애완동물 가게 앞으로 달려갔다. 가게 앞의 진열대에는 귀여운 토끼부터 시작하여 사나운 족제비, 둔한 거북이, 징그러운 지네까지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나무로 엮어진 우리 안에 들어있었다. 동물들의 생김새를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한 공주는 많은 동물들 중에서 유독 한 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와! 예쁘다. 아도라, 이 새를 좀 봐봐. 너무 귀여워.”

에이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새는 몸집이 아주 작았지만 날개는 작은 몸과는 다르게 길고 넓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검은색 깃털이 하늘 향해 찌르듯이 나있었다. 온 몸은 초록색 깃털과 붉은색 깃털로 덮여있었는데 두 색깔이 묘하게 어우러져 환상적인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가게 주인이 달려 나와 새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손님, 참 안목이 있으시네요. 그 새는 우리 가게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랍니다. 그 새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투명하죠.

그리고 이 새에는 아름다운 모습과 맑은 목소리에 견줄만한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이미는 매우 궁금하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여주인에게 물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니요?”

여주인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공주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새는 전설로 내려오는 빛나는 새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람이 다가가갈 수 없는 넓은 하늘 아래에는 공중을 떠다니는 숲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동물이 산다고 알려져 있죠. 그 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빛나는 새라고 전해진답니다.”

로이스는 의심하는듯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새는 빛이 나지도 않고 말도 하지 못하잖아요?”

여주인은 말을 끊은 로이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공주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물론 아직 빛이 나지도 않고 말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 새가 커서 자신의 시련을 이기고 커다란 날개로 바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이 새는 알에서 다시 깨어난 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답니다. 바로 빛나는 새로 말이죠.”

“아름다운 빛을 내는 새라. 정말 멋지다.”

로이스는 에이미의 옆으로 살며시 다가가더니 귓속말을 건넰었다. 그녀는 옆에 서있는 여주인이 듣지 않도록 조심스레 조용히 말을 했다.

“설마 저 바보 같은 거짓말을 믿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에이미는 로이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새의 값을 주었다. 에이미는 고개를 숙여서 새 장안에 있는 새에게 말을 걸었다.

“빛나는 새야, 오늘부터 너는 나와 같이 살게 될 거야. 앞으로 잘 부탁해.”

새장 안에 앉아있던 새는 마치 에이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빛나는 새는 아니지만 예쁘긴 예쁘군요.”

로이스는 투덜거리며 빛나는 새가 갇혀있는 새장을 들었다. 에이미는 고개를 돌려 목각인형에게 물었다.

“아도라, 너도 이 새가 마음에 들지? 그렇지?”

“예,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련을 이겨내면 커다란 날개로 바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역시 너와 나는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에이미는 둘의 마음이 일치하자 크게 기뻐했다.

시장을 한 바퀴 돌아 구경을 마칠 때쯤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시장을 다 돌아다녔지만 붉은 꽃 과자를 파는 가게를 찾지 못하자 매우 불안해했다.

“왜 붉은 꽃 과자를 파는 가게가 나타나지 않지? 이제 곧 궁안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에이미가 많이 불안해 하자 로이스는 숨기고 있던 상자를 그녀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공주를 나무랐다

“그렇게 목각인형과 시장을 뛰어다니시며 구경에 열중하시는데 골목 구석에 위치한 작은 가게를 놓칠 수밖에요. 제가 공주님이 다른 데에 신경이 팔린 틈을 타서 과자를 사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로이스는 목각인형에게 윈크하면서 에이미에게 거짓말을 했다. 목각인형은 로이스를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보였다. 이를 본 에이미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손으로 목각인형의 어깨를 톡 건들며 말했다.

“아도라도 모른 척 한 거야? 다들 너무해.”

어둠이 넓은 하늘을 감싸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주히 짐을 챙겼다. 그들의 힘든 하루를 축복으로 마치게 하려는 듯이 거리의 악사들은 광장 중앙에 자리를 잡고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음악소리는 곧 넓은 광장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광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악사들이 연주하는 감미로운 음악을 감상했다.

“어라? 이건 음악 소리 아니야?”

“에이미 공주님, 이 소리는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네요. 거리의 악사들은 이렇게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퇴근하는 사람들의 편안한 길동무가 되어주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노라면 하루의 피곤도 싹 가시겠어.”

에이미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거리 악사들의 음악을 감상했다.

“우리 이렇게 아니라 차라리 바로 앞으로 가서 음악을 감상하자. 거기에서 들리는 음악소리는 지금 여기서 듣는 것보다 맑고 선명할거야.”

투덜거리며 뒤따라 오던 록산느가 앞을 가로질러 막았다.

“공주님, 그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까? 공주님이 비천한 우리들이 모여있는 추잡스런 곳에 가신다니요? 저는 공주님의 지도를 맡은 선생으로써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메기가 록산느의 말에 또 한가지의 변명을 덧붙였다.

“호호호. 공주님, 저 곳에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 아주 불안하네요. 호호호. 더불어 말하자면 저 거리에 기생하는 악사들의 연주 실력은 너무 형편없네요. 음악을 듣고 싶으시다면 궁으로 돌아가셔서 궁전 악사들을 부르세요. 그들은 여

기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보다 몇 갑절이나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겁니다.”

이에 에이미는 그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기 의사를 나타냈다.

“록산느 그리고 메기 선생님, 충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왕국의 백성들을 비천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연주는 비록 궁전악사들의 비해 화려한 기교가 떨어지지만 단백하고 소박한 맛이 있네요. 그냥 조용히 음악만 들을 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도라, 어서 가자. 로이스도 빨리 따라와.”

에이미의 대답을 들은 록산느와 메기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지며 사색이 됐다. 그들은 에이미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 게 못내 괘씸한 모양이었다. 특히 록산느는 마른 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록산느는 분노의 감정이 격앙되었다.

“감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대꾸를 하다니?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 혼이 쏙 빠질 정도로 호되게 꾸짖어 벌을 줄 테니.”

에이미는 군중을 헤치며 악사들이 연주하는 무대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자리를 잡자 그녀는 악사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귀에 담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목각인형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역시 가까이에서 들으니깐 더 좋다. 그렇지?”

“예, 음악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연주가 무르익어 갈수록 구경꾼들이 점점 더 많이 모였고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다. 좋은 분위기에 화답하는 뜻에서 악사들은 분위기를 바꿔 신나는 무도곡을 연주했다. 연주는 매우 흥이나 어깨가 저절로 들쭉들쭉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구경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추기 시

작했다.

“어머! 무도회 곡이잖아? 아도라, 준비됐어?”

갑자기 에이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목각인형의 손을 잡고 악사들의 앞으로 뛰쳐나갔다.

“네? 뭘요?”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했다. 에이미는 당황해 하는 목각인형을 보고 피식하고 웃더니 목각인형에게 속삭였다.

“저번에 같이 춤을 추기로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목각인형은 놀라며 물었다.

“여기서 춤을 춘다고요? 하지만…….”

“뭐 어때? 어색해하지마.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춤도 추질 않고 뻔뻔하게 서있는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럴 때는 이곳 분위기에 맞춰줄 필요도 있어.”

“그렇지만 저는 춤을 잘 추지를 못하는데…….”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입에 검지 손가락을 살며시 올려놓았다.

“췌! 걱정하지마. 그제 내가 이끄는 데로, 네가 느끼는 데로 움직이면 돼.”

에이미는 무작정 목각인형의 손을 마주잡았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에이미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목각인형의 심장은 터질 듯이 강하게 뛰었다. 그녀의 숨결이 목각인형의 목을 살며시 스치자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목각인형은 숨을 죽이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음악에 몰입을 하자 박자가 말을 걸어왔고 음률이 인사를 하며 다가왔다. 이윽고 목각인형의 몸은 음악과 하나가 되었다. 음악과 하나가 된 목각인형은 에이미가 이끄는 데로 마치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

는 것처럼 막힘이 없이 에이미의 동작을 따라갔다. 아무런 멈춤과 어색함 없이 처음 춤을 추는 것 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감히 아름답기까지 했다. 두 사람의 춤은 음악, 바로 아름답고 성스러운 음악 그 자체였다.

무도회 곡이 끝나자 모두들 춤을 멈추었다. 주위를 둘러싼 구경꾼들은 목각인형과 에이미를 향해 열렬히 박수를 쳤다. 길거리 악사들 또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악사들 중에 한 명이 에이미에게 말을 건네었다.

“제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춤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시는 연인이신가 보군요. 정말로 두 분의 깊은 사랑이 녹아있는 춤에 감동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연인을 위하여 뜨거운 박수를 부탁 드립니다.”

에이미는 거리의 악사와 구경꾼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감사를 표현했다.

“별 볼일 없는 춤을 그렇게 높게 칭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 멀리서 두 사람의 춤을 구경하고 있던 록산느가 씩씩거리며 거리의 악사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성난 얼굴로 거리의 악사들에게 따졌다. 그녀는 여태까지 마음 속으로 감추고 참아왔던 불만을 폭발했다.

“이딴 춤이 아름답다고요? 춤을 전공하여 교수가 된 제가 보기에 그저 망측한 율동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그건 그렇고 무슨 큰일날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연인이란이요! 지금 이 숙녀분에게 그런 수치스런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록산느가 화를 내자 거리의 악사가 정색을 하며 되물었다.

“네? 수치스럽다니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사실 생명의 축복을 받은 목각인형이에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아니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죠. 인형이랑 사람이랑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두 번 다시 그

런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록산느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마음속에 찌찌하게 남아있던 불만과 분노를 떨쳐버리려든 듯 더욱 거세게 화를 냈다. 영리하게도 분노의 대상은 에이미가 아니라 만만한 목각인형이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에이미에게 면박을 당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복수였다.

악사는 서둘러 에이미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로 깊이 사과 드립니다.”

에이미는 당황해 하며 악사들의 사과를 무심코 받아들였다.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에이미는 화가 난 록산느를 달랬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발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이미가 록산느를 달래는 동안 목각인형의 머릿속에서는 록산느의 차가운 말이 귀에 맴돌았다. 그의 가슴은 심하게 무너져갔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니. 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하찮은 존재란 말인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 나를 하찮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목각인형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록산느는 고개를 돌려 목각인형에게 소리쳤다.

“야! 목각인형! 오늘날과 같이 생각 없이 행동해서 공주님을 난처하게 만든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부터 네 주제를 알고 행동해! 알아 들겠어? 어디서 하찮은 인형 주제에 감히 사랑하고 춤을 춰! 춤이란 너 같은 존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송고한 것이라고! 감히 춤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내 말 잘 알아 들었으면 썩 꺼져! 재수없게시리. 뭐해? 어서 사라지지 않고!”

록산느의 말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공주? 저기 저 여자가 에이미 공주님이라고?”

“뭐라고? 공주가 인형이랑 뭐 어쨌다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공주가 나타났다는 말에 웅성거렸다.

메기가 에이미에게 다가와 잔꾀를 부리며 공주를 위하는 척 했다.

“호호호. 록산느 선생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나 보네요. 에이미 공주님, 제발 목각인형을 인형이상으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공주님이 목각인형에게 너무 정이 들까 봐 걱정이 된답니다. 인형은 단지 인형일 뿐이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에이미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했다.

“호호호. 어머! 목각인형아, 넌 여기서 뭐하고 있니? 참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형이로구나. 귀찮은 존재 같으니라고. 호호호.”

목각인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에이미를 슬픈 눈으로 쳐다보았다.

‘공주님에게도 저는 하찮은 존재인가요? 공주님도 저를 그저 보잘것없는 인형으로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대의 침묵은 그 어떤 잔인한 말보다도 저를 더 큰 슬픔 속으로 몰아넣는 군요. 이 커다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무거운 절망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목각인형의 마음은 끝없는 고통과 절망에 휩싸였다. 그의 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광장 밖을 향해 무작정 뛰어가기 시작했다.

CHAPTER TEN

도시의 빛 그리고 그림자

“밝은 활기가 넘친 도시의 뒷골목에는 세상으로부터 소외 받은 자들의 슬픔과 절망이 새겨진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목각인형은 어두운 도시의 뒷골목을 아무 생각 없이 달렸다. 뒷골목의 흐리고 으스스한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컷가에는 선생님들의 냉정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목각인형은 자괴의 탄식으로 몸부림쳤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니. 내가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하찮은 존재일수 밖에 없다니. 나의 가슴은 공주를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나의 간절한 마음을 잔인하게 가로막는 구나.’

목각인형은 한참을 정신 없이 달린 후에야 슬픔으로 부서져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는 차가운 건물의 벽에 기대에 숨을 골랐다. 그리고 토해내는 숨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본 목각인형은 처참한 뒷골목의 모습에 크게 놀랐다. 목각인형의 건너편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길거리에 누워있는 부랑자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힘없이 쪼그려 앉아있는 어린 거지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다 해진 옷을 입고 강통을 들고 있었다.

“내가 어디까지 달려온 거야. 이 음산한 침묵이 흐르는 이곳은 도대체 어디지? 이 지옥같이 처절한 거리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어린 거지는 목각인형을 발견하자 쓰러질 듯 걸으며 다가왔다.

“아, 아저씨, 저기 도, 동전 한 푼만 주세요. 며칠간 굶었어요. 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목각인형에게 양상한 뼈만 남은 팔을 뻗어 애원했다. 어린 거지들은 지치고 피곤한 눈빛으로 힘없이 구걸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많이 아픈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콜록. 콜록.”

거지는 몸이 안 좋은 듯 쉴 새 없이 기침을 심하게 했다.

“애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단다. 정말 미안하다.”

어린 거지들은 목각인형의 말에 크게 실망하고 어두운 거리 속으로 쓰러지듯 사라졌다.

“여기가 정말로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인가?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곳이 있었다니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믿기지가 않아. 어서 이곳에서 벗어나야겠어.”

목각인형은 달려 온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가 걷는 길, 바로 옆에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서는 악취가 새어 나왔다. 한걸음 걸어갈 때마다 포장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에 널려있는 오물들이 질퍽거리며 신발을 삼켰다. 더러운 물 웅덩이를 뛰어넘고 골목의 모퉁이를 돌아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한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을 좀 차려 보세요.”

목각인형이 쓰러져 있는 노인에게 바짝 다가서자 노인의 몸에 숨어있던 쥐들이 순식간에 튀어나와 도망쳤다. 그 노인은 오래전에 죽어 몸은 단단하게 얼어있었다.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듯 아무렇지 않게 노인의 시체를 그냥 지나쳐갔다.

한 사나이가 목각인형에게 말했다. 사나이의 손에는 반쯤 비워진 술병이 들려 있었다.

“이 보게, 그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쥐떼가 그 시체를 파먹었으니 그 시체 가까이 있다간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네. 어차피 건달들이 그 시체를 발견하면 그 놈들이 알아서 치워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게. 죽은 시체를 병원에 팔면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거든.”

목각인형이 물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이 친구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건달의 돈벌이에 손을 댔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네. 젊은 양반, 자네는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군. 그런데 왜 이런 누추한 곳을 오

게 됐나?”

“그냥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의 사람들은 왜 모두가 영상실조에 걸린 것처럼 뻘뻘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나요? 또 왜 저 아이들은 뻘만 앙상한 체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죠?”

“허허, 이 사람아. 그것을 몰라서 묻나?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전쟁이 끝나자 귀족들의 수탈에 남아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긴 사람들이네. 가진 거라고는 가난한 육신과 비굴함 그리고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뿐이지. 그리고 저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한 아이들은 부모가 죽거나 버린 아이들이라네. 아무도 그들을 돌보려 하지 않으니 굶주리고 아플 수밖에 없지.”

술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사내는 목각인형에게 충고했다.

“자네는 어서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을 거야. 이 어두운 뒷골목 세계는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곳이라네.”

그 말을 듣자 목각인형은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 시간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들어간 골목길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루쿨루스가 에이미의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의 호위병은 마치 두꺼운 벽처럼 에이미를 동글게 에워싸고 소란스러운 사건으로부터 보호했다. 에이미는 병사들 때문에 움짱달짝할 수가 없었다.

구경꾼들은 공주가 광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서히 몰려들었다. 루쿨루스가 밀려드는 군중들을 향해 소리쳤다.

“모두들 물러나시오! 이것은 왕실수비대의 명령이오! 내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하겠소! 이 칼에 베이고 싶지 않다면 어서 물러나란 말이오!”

구경꾼들은 루쿨루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이런, 성가신 일이 벌어졌군. 이렇게 군중들이 계속 밀려들다

가는 에이미 공주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어. 사람들이 더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공주님을 이 광장으로부터 피신시켜야 해.”

이때 에이미가 루쿨루스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말했다.

“루쿨루스, 아도라가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 저쪽 골목길로 달려들어간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저 골목길로 들어가서 아도라를 찾아야 해요.”

루쿨루스는 대답과 더불어 손을 가로저었다.

“에이미 공주님,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찮은 목각인형의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돼요. 지금 당장 아도라를 찾으러 가야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곳을 벗어나면 제가 왕실수비대 병사들을 시켜 목각인형을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위험한 광장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봐라, 길을 열어라. 지금부터 이곳을 빠져나간다. 앞에서 우리의 길을 막는 자는 가차없이 혼쭐을 내주어라.”

루쿨루스와 병사들은 군중들을 밀치며 길을 열었다.

‘아도라, 도대체 어디를 간 거니. 내 두 눈에는 아직도 너의 슬픈 뒷모습이 아른거려. 너의 슬픔을 감싸주지 못하고 너를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다니. 내가 경솔했어. 참, 이렇게 아니라 나 혼자서라도 아도라를 찾으러 가야 해.’

에이미는 루쿨루스와 병사들이 구경꾼을 밀쳐내느라 바쁜 틈을 타 호위를 빠져나갔다.

“루쿨루스 경, 미안해요. 저는 아도라를 찾으러 가야만 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 공, 공주님! 공주님,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돌아오세요. 여봐라, 어서 공주님을 막아라. 어서 공주님을 막아! 어서 공주님을 뒤쫓으란 말이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에이미는 루쿨루스를 밀치고 병사들의 손길도 뿌리친 채 혼자 목각인형이 사라지 뒷골목을 향해 달려 들어갔다.

“안됩니다. 공주님! 거기 멈추세요! 그리 가시면 안됩니다!”

루쿨루스와 병사들은 에이미를 뒤따라 가려 했지만 밀려드는 군중에게 가로막혀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루쿨루스는 멀어져 가는 에이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애타게 소리쳤다.

“그 골목길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애원을 뒤로한 채 골목길 안으로 들어갔다.

“루쿨루스 경, 미안해요. 저는 지금 아파하고 있을 아도라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루쿨루스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밀치며 골목길을 향해 달렸다. 그는 입을 꼭 물고 손을 힘을 꼭 쥐었다.

“그 곳은 공주님이 알아서는 안될 수많은 끔찍하고 슬픈 인생들이 쓰러져있는 곳입니다. 그 곳은 저주 받은 도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란 말입니다. 왜 하찮은 목각인형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시는 겁니까?”

루쿨루스는 허리춤의 칼을 매만지며 도시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목길로 달려들어갔다.

“골목길 안에 숨어있는 늑대 같은 인간들이 나보다 먼저 에이미 공주님을 발견하면 그들은 반드시 공주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큰일을 당하시기 전에 어서 공주님을 찾아야만 해.”

도시의 음침한 뒷골목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 에이미는 그 곳의 처참한 환경에 크게 놀랐다.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술 취한 사람이 미친 듯 소리치며 신음하고 있었다. 길에는 쥐떼들이 무리를 지어 사라졌다. 그리고 슬픔과 저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벽에 부딪쳐 메아리 쳤다. 주위에서 느껴지는 시기에 가득 찬 눈길과 거리에서 풍기는 썩은 악취 또한 에이미를 두렵게 만들었다.

“이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인가? 정말로 이 세계가 평화로운 왕국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갑자기 건장한 남자 한 명이 에이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예쁜이. 어디를 그렇게 서둘러 가시나?”

남자는 몹시 험상궂고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얼굴에는 보기 흉한 흉터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에이미는 무서워서 그의 말을 못 들은척했고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반대쪽에는 이미 그의 패거리로 보이는 남자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에이미는 무서움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이! 아가씨. 내 말을 무시하면 쓰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죄송하지만 지금 급히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 실례하겠습니다.”

건달은 에이미의 팔을 힘하게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그는 냄새나는 입을 에이미의 얼굴에 가까이 댄 채 거친 말들을 내뿜었다.

“이 여자가 말귀를 못 알아 듣는구먼. 길을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셔야지. 옷을 보아하니 높으신 분의 따님 같으신데, 없는 사람들에게 적선한다 생각하고 돈을 좀 내놓으시지.”

에이미는 건달의 손을 뿌리치고 그 남자의 뺨따귀를 올려 붙였다.

“이 손 치우세요!”

매운 손에 싸대기를 올려 맞은 남자는 화가 나서 칼을 뽑아 들었다.

“이 여자가 미쳤구먼. 돈을 준다면 곱게 보내주려고 했건만 이거 안되겠구먼. 애들아! 이 여자를 끌고 가!”

곧 에이미의 주변으로 대여섯 명의 남자가 몰려들었고 에이미는 공포로 인해 얼굴이 사색되었다.

“무, 무슨 짓이에요? 다, 다가오지 말아요! 더, 더 이상 다가오면 소, 소리를 지를 거예요!”

“어이, 예쁜이. 그냥 순순히 우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거야. 괜한 반항을 해서 우리가 폭력을 쓰게 만들지 말라고.”

건달들이 에이미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저기 멀리서 한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소리쳤다.

“어서 그 손 놓지 못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목각인형이었다. 목각인형은 커다란 몽둥이를 있는 힘껏 휘두르며 건달들을 위협했다.

“꺼져, 이 자식들아! 어서 비키라고!”

“이 새끼는 또 뭐야?”

건달들은 목각인형이 필사적으로 몽둥이를 휘두르자 잠시 뒤로 주춤거렸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손을 잡고 도망쳤다.

“달리세요! 어서요!”

“아도라, 어떻게 여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서 달리세요.”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손을 잡고 있는 힘껏 뛰었다. 그들은 미로 같은 도시의 뒷골목을 따라 도망갔다.

“절대 제 손을 놓으시면 안돼요! 절대로요!”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손을 꼭 쥐어 잡았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손을 잡아주자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진정되어 갔다.

“거기서! 이놈들. 너희들이 우리를 따돌리고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건달들이 에이미와 목각인형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길가에 널려진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그들은 토끼를 덮으로 몰듯이 목각인형과 에이미를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갔다.

갑자기 에이미와 목각인형의 앞에 막다른 골목길이 나타났다.

“아니! 막다른 골목길이잖아! 공주님, 건달들이 길을 가로막기 전에 이 골목길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뒤로 돌아 막다른 골목길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건달들이 나타나서 남은 길을 가로막았다.

“어디를 그렇게 서둘러서 가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지. 어디 다시 한 번 껌싸게 도망쳐보시지? 이 쥐새끼 같은 놈들.”

막 도착한 건달의 두목은 숨을 헐떡이며 마치 늑대가 먹잇감을 보는 것처럼 목각인형과 에이미를 쏘아보았다.

“헉헉, 저 자식들 참으로 빠르기도 하군. 어이, 멍청한 친구. 네 놈이 저 여자와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야. 이 거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그런 우리한테서 도망치려고 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군.”

목각인형이 두목에게 경고했다.

“우리를 그냥 놔둔다면 내 이번 일을 그냥 눈감아 주겠다. 그러니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건달 두목은 목각인형을 비웃었다.

“어이, 친구. 부탁을 할 생각이라면 말을 더욱 공손하게 해야지. 네 녀석은 지금 네가 처해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군. 손을 좀 봐줘야지 암전해지려나? 제프, 저 남자에게 매운맛을 좀 보여줘!”

“예, 알겠습니다. 두목님.”

두목 옆에 있던 건장한 남자가 칼을 빼어 들고 목각인형에게 슬금슬금 다가갔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목각인형은 몸뚱이를 높이 들고 경고했다.

“더 이상 다가온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죽고 싶지 않으면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제프가 비아냥거렸다.

“킁킁. 꿀꺽하고 하고 있네. 그래도 여자 앞이라고 가진 품은 다잡는군. 자, 이제 처리해볼까?”

건달은 칼을 빼어 들고 목각인형에게 달려들었다.

목각인형은 칼을 가까스로 피한다음 건달의 머리를 몽둥이로 세게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제프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솟아올랐다.

“으악! 내 머리! 아, 아퍼. 누가 나, 나 좀 살려줘! 으악!”

제프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데굴데굴 굴렀다. 목각인형은 피로 물든 몽둥이를 들고 재차 경고했다.

“너희들 중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서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에게 덤빈다면 누구든지 저 녀석처럼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건달의 두목은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목각인형에게 말했다.

“제프, 저 멍청한 자식. 어이, 친구. 자네는 나에게 부하의 피를 보게 했네. 그러니 살아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싸움을 좀 하나본대 오늘은 상대를 잘못 만났어!”

두목은 허리춤에서 작은 손도를 꺼내어 들었다. 그리고 매서운 눈초리로 목각인형을 바라보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비열한 살기로 물들어갔다. 두목이 중얼거렸다.

“죽여버리겠어. 건방진 쥐새끼.”

“다가오지마. 더 이상 다가오지 말란 말이야!”

목각인형은 두 손으로 몽둥이를 꼭 쥔 채 두목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커다란 바람소리와 함께 몽둥이를 있는 힘껏 휘둘렀다.

딱!

두목은 들고 있던 칼을 크게 휘둘러 몽둥이를 막았다. 몽둥이와 칼이 서로 부딪치자 둔탁한 소리가 어두운 뒷골목에 울려 퍼졌다. 두목이 휘두른 도끼의 날은 몽둥이에 깊숙이 박혔다. 목각인형은 몽둥이를 빼내려고 했지만 도끼에 단단하게 박혀 도무지 빠져 나오질 않았다.

“크크, 이제 몽둥이를 휘둘러 수도 없게 되었군. 잘생긴 친구.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어.”

“아아, 안, 안돼.”

두목은 뒷춤에 꽂아두었던 손도끼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목각인형의 왼팔을 무자비하게 찍었다.

“으악!”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목각인형의 왼팔이 떨어져나갔고 목각인형은 큰 충격에 뒤로 넘어졌다. 왼팔은 바닥에 떨어지자 생명의 활기를 잃어버려서 딱딱한 나무 팔로 변했다.

에이미는 소리를 지르며 두목에게로 달려들었다.

“이 나쁜 놈! 아도라를 다치게 하다니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이 년이! 건방지게!”

두목은 에이미의 뺨을 향해 따귀를 갈겼다. 두목의 거친 손이 공주를 향해 날아가자 넘어져있던 목각인형은 아픔도 잊은 채 얼른 몸을 일으켜서 두목에게 달려들었다.

“네 이 자식,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목각인형은 두목을 거세게 껴안고 공주로부터 멀리 밀어냈다. 두목은 목각인형의 얼굴을 손을 거칠게 밀었다. 두목은 목각인형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 건방진 쥐새끼 같으니라고. 저리 안 떨어져!”

목각인형은 더욱 더 껍 두목의 몸을 껴안았다. 목각인형이 기를 쓰고 달라붙자 두목은 다시 한번 손 도끼를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 목각인형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런 끈질긴 자식! 죽어! 죽으라고!”

목각인형은 몸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날카로운 도끼 날은 그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몸을 휘청거리면서도 두목의 옷자락을 껍 쥐어 잡았다.

“안……돼. 더 이……상 다가 오지……마.”

목각인형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꼬꾸라졌다.

“안돼애애! 아, 아도라!”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향해 달려갔다. 목각인형의 어깨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나있었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죽은 줄 알고 그를 껴안고 울며불며 소리쳤다.

“아, 아도라! 제, 제발 정신을 차려봐! 제발 눈을 좀 떠봐!”

두목은 인상을 찌푸리며 거친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애들아, 어서 저 여자를 끌어내.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뜨자!”

건달들이 험한 손으로 에이미를 끌어내려 하자 갑자기 한 남자가 검을 빼어 들고 건달들에게 달려들었다. 그 남자는 순식간에 공주를 둘러싼 건달들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두목에게 달려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손도끼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손도끼는 거친 쇠소리와 함께 하늘로 뿔뚝 올라 빙글빙글 돌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루쿨루스는 두목의 목에 칼을 겨누며 말했다.

“이제 그만 하시지. 쓰레기.”

“제, 제발 모,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루쿨루스가 냉정하게 대꾸했다.

“법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당장 죽이지는 않겠으나 목숨을 부지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공주님에게 위해를 가하였으니 네 어찌 그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겠느냐?”

조금 뒤 왕실수비대병사들이 도착했다. 병사들은 나머지 건달들을 포박해 루쿨루스 앞으로 끌고 갔다. 루쿨루스는 사태가 일단락이 지어지자 목각인형을 껴안고 울고 있는 에이미를 안심시켰다.

“에이미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루쿨루스, 아도라가 깨어나질 않아요. 제발 아도라를 구해주세요요.”

“지금은 하찮은 인형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공주님께서 이 위험한 골목길을 안전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공주님이 안전하게 피신한 다음 제가 사람들을 시켜 목각인형을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는 울며 루쿨루스에게 부탁했다.

“안돼요! 제발 목각인형을 구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간절히 빌게요.”

루쿨루스는 안타까운 마음에 에이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목각인형은 바로 전에 받은 충격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은 서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서둘러 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이미는 정신을 잃은 목각인형을 품에 더욱 껏 안았다.

어두운 골목길을 벗어나자 로이스가 마차와 함께 에이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공주가 걱정이 되어서 발을 동동거리며 한시도 가만이 있지를 못했다. 잠시 뒤 루쿨루스가 공주를 데리고 골목길을 빠져 나왔다. 로이스는 에이미가 무사한 것을 보고는 안심했다.

“에이미 공주님, 무사하시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영영, 아, 아도라가 나 때문에 많이 다쳤어. 나, 나 때문에.”

로이스의 눈에 호위병의 등에 업힌 목각인형이 보였다. 그의 왼쪽 팔은 잘려져 나갔고 어깨에는 깊은 상처가 나있었다.

“목각인형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 울지 마세요.”

로이스는 에이미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그녀를 달랬다. 호위병사들은 목각인형을 마차에 조심스레 태웠다. 에이미도 마차에 올라 정신을 잃은 목각인형을 품에 안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두 뺨에는 아직도 붉은 눈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에이미 공주님, 목각인형은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세요. 제가 성에 도착하거든 안데르센 할아버지를 불러올게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목각인형을 잘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캐네스 선생님의 일말인데요…….”

“맞다! 붉은 꽃 과자. 선생님께 과자를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말인데요, 붉은 꽃 과자는 제가 직접 캐네스 선생님께 전해드릴게요. 그러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그, 그렇게 해줄래? 정말 고마워, 로이스.”

“그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세요. 목각인형은 괜찮을 겁니다.”

“맞아. 아도라는 괜찮을 거야. 암, 괜찮을 거야.”

에이미는 훌쩍거리며 목각인형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도라, 정말로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줘서.”

호위대는 건달들을 포박한 체로 마을 광장을 지나갔다. 광장을 반정도 지나가자 갑자기 열댓 명의 사람들이 루쿨루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바로 건달들의 가족들이었다.

“나으리, 제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저들의 잘못을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루쿨루스는 건달의 가족들을 매섭게 쏘아보며 칼로 위협했다.

“무엄하게 저리 비키지 못할까?”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루쿨루스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끌려가는 건달들을 바라보며 그저 한없이 울 수 밖에 없었다. 건달들은 부끄러움에 가족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소란스런 소리에 에이미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부에게 마차를 세우게 했다.

“여러분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서글피 우시는 겁니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 노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공주님, 이 미천한 친네의 이름은 아우렐리아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저기 묶여있는 자들의 가족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제발 단 한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노파는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부탁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고개를 저으며 노파의 부탁을 거절했다.

“저들은 저를 위협해 돈을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들은 다른 선량한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주님, 저들도 본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 것이지요. 저기 저 건달의 두목은 사실 저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세상이 착한 제 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갔죠.”

“세상이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니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선량한 사람이 흉악한 도적무리의 두목이 됐다는 것입니까?”

에이미는 노파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노파는 마차 앞에 서서 에이미에게 아들의 기구한 운명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아우렐리아의 이야기 - ‘농부의 눈물’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성품이 천성적으로 순박했다. 그는 땅의 향기를 사랑했고 농작물을 키우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친척에 권

유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로 이사를 갔다. 젊은 나이의 낯선 땅에 홀로 정착하게 된 농부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자 마을 구석 구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한참 동안을 돌아다닌 끝에 그는 황폐한 땅 다섯 마지기를 발견했다. 버려진 황무지는 완만한 경사가 진 둔덕 위에 있었다. 그 땅은 거친 돌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지만 기름지고 물을 얻기 쉬운 곳에 위치해있었다.

농부는 다음날 그 황무지를 주인에게 싼값에 샀다. 그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그 황무지의 땅을 개간했다. 많은 날이 지나자 농부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거칠었던 땅은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땅으로 변했다. 농부는 땅으로 일군 땅을 바라보며 뿌듯했다.

농부의 부지런함은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누리게 했고 그는 그의 나이 스물 다섯에 착한 아내를 얻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고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기라도 하듯 귀여운 아들 하나가 태어났다. 농부는 매우 기뻐했고 아들의 이름을 조지(George)이라고 지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땅처럼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순수하게 자라다오.”

아기는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농부를 보며 밝게 웃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조지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키가 크고 가슴팍이 떡 벌어진 다부진 몸매였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모난 데가 없고 순박하기 그지 없었다. 조지는 아버지처럼 땅의 향기를 사랑했다. 그는 자신이 농부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농부가 되고 싶어했다.

조지는 착실하게 일을 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배 이상 불렀다. 그의 나이 스물 다섯이 되자 그는 착하고 예쁜 아내를 얻었다. 부부는 서로를 깊이 위해주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

의 행복한 생활도 얼마 가지 못했다.

바로 얼음왕자가 대군을 이끌고 왕국을 쳐들어온 것이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다. 조지도 가족을 이끌고 깊은 숲 속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을 다 챙기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쯤 마을의 촌장이 그를 마을 회관으로 불렀다. 조지가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었다.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자 마을의 촌장이 젊은이들 앞으로 나갔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왕의 명에 따라 나라를 지키는 병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밤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이곳에 내일 아침까지 다시 모여주십시오.”

조지가 말했다.

“하지만 촌장님,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농부들입니다.”

“왕의 명령이니 나도 어쩔 수 없네. 만약 내일까지 이곳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네들은 국가의 명을 어긴 죄로 사형에 처해질 걸세. 그리고 가족들은 죄인의 가족이란 명예를 평생 지고 살아야겠지. 그럼 어서 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마지막 밤을 보내게.”

조지는 집으로 돌아가 촌장이 말한 뜻밖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조지는 담담하게 마지막 밤을 보냈다. 아침의 해가 뜨자 조지는 부모님에게 이별의 인사를 올렸다. 아우렐리아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무시무시한 전쟁터로 너를 보내야 한다니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조지는 어머니를 다독였다.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내가 없어도 부모님을 잘 모셔주게.”

“서방님, 집안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부디 몸 건강히 돌아오세

요.”

아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조지는 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최전방에 배치가 되었다. 그가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얼음왕자는 대군을 이끌고 조지가 있는 성을 포위했다. 얼음왕자는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 하루에 수 차례씩 공격을 되풀이했고 그가 공격을 할 때마다 성안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조지는 전투를 거듭할수록 훌륭한 군인이 되어갔다. 그는 수많은 적을 죽이고 용맹을 떨쳤다. 조지의 활약은 적군에까지 알려져 적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얼음왕자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성안의 수비군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둘러 성을 버리고 후퇴했다. 병사들이 무질서하게 후퇴를 하였고 얼음왕자의 기마대는 도망자들을 맹렬히 쫓았다. 가까스로 후퇴하는 병사들의 후미에서 한 장교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는 무방비의 상태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었다.

“부디 나를 버리지 말게! 나의 전우들이여! 부디 나를 적의 손에 죽게 내버려두지 말게, 나의 전우들이여!”

장교는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모든 전우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들 중에 조지만이 방향을 바꿔 적을 향해 칼을 빼어 들었다. 그는 쓰러져있는 장교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를 향해 돌진하는 적병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이 조지의 칼에 쓰러지고 싶지 않은 놈은 어서 칼을 거두고 이 자리를 떠나라!”

“뭐? 그 용맹한 조지라고?”

적병들은 동요했다. 그들은 앞에 있는 적이 용맹한 조지라는 것을 알자 싸우기를 포기하고 모두 공무니를 빼었다. 적군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조지는 장교를 일으켜 세웠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나를 살려주어서 정말로 감사하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

오.”

“은인이라니 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역시 소문대로 당신의 용맹은 하늘을 찌르는군. 나의 이름은 페사크일세. 자네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네.”

“괜찮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자네는 겸손하기까지 하구먼.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나를 찾아오게나. 수도에서 페사크를 찾는다고 말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 집을 찾을 수 있을 걸세.”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왕국의 수도가 얼음왕자의 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율리우스 왕은 얼음왕자에게 무조건 항복을 했고 얼음왕자와 맺은 조약대로 왕국의 모든 군대를 해산시켰다.

“끔찍한 전쟁이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곧 가족을 만날 수 있겠지? 모두 무사해야 할 텐데……”

조지는 부대가 해체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생기가 없는 가족들이 그를 반겼다. 그들은 고된 노역과 굶주림으로 뼈쩍 마르고 병들어 있었다. 조지는 가냘픈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힘든 시절은 다 끝나고 행복한 날이 올 거요. 내 당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소.”

하지만 세상은 조지의 행복을 바라지 않았다.

조지가 힘들게 일구어 논 논과 밭들은 모두 황폐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황폐해진 논과 밭들을 열심히 다시 일구었다. 그는 씨를 뿌리고 작물들을 열심히 길렀다. 수많은 땀과 끝없는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작물들은 풍성하게 자랐다.

조지는 황금 빛으로 물들은 땅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추수를 할 때가 다가오자 지방 관리가 조지의 집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은 조지의 기쁨과 행복을 산산이 부수었다. 관리는 조지에게 말했다.

“조지 씨의 농작물은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랐군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곱절은 노력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땅이 저를 아껴주고 보살펴준 덕이죠. 그건 그렇고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조만간 있을 세금징수를 위해 사전 답사를 왔습니다.”

“세금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풍작이 예상됩니다. 아마도 세금을 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손가방에서 장부를 꺼내더니 조지에게 보여주었다.

“전쟁의 여파로 각 백성들에게 할당된 세금이 곱절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 조지 씨도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아마 조지 씨가 기른 농작물을 다 바쳐야 세금을 메울 수 있을 것 같군요.”

“세금이 갑절이나 올랐다고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나라의 명이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오르면 저를 포함한 모든 소규모 농부들은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항의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한가지 알려드릴 것은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지 씨의 땅을 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저는 할 말을 다 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조언을 하

나 하자면 조금 힘들더라도 세금을 다 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방 관리가 돌아간 뒤 며칠 동안 조지는 근심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세금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관리를 찾아가다. 그가 관청에 다다를 무렵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관청을 둘러싸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조지는 시위대중 한 사람을 불러내어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부의 무자비한 세금 정책에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관리들과 의논을 하시면 되질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밖에서 과격하게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밖에 서있는 줄 아시오? 관리들이 우리를 만나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관청 밖에서 소리라도 지를 수 밖에 없질 않소?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오!”

남자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달려가 고함을 지르며 시위에 다시 참가했다. 조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시위대의 밖을 서성거렸다. 갑자기 덩치 큰 한 남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외쳤다.

“이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우리는 관리들과 이성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노력을 모두 허사로 만들며 무시했습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정부의 불합리한 세금정책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남자의 연설의 고무된 시위대는 관사의 철창문을 흔들고 건물에다 돌을 던졌다. 그들은 관사의 경비병들을 때려눕히고 담장을 넘어 안으로 진입했다. 멀리서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을 바라본 조지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다.

“저들도 본디 선량한 농부들이었을 텐데, 거친 세상이 그들을 흉악하게 만드는 구나.”

시위대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수많은 군사들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들은 광장의 주변의 길을 모두 통제하

고 포위망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무차별적인 진압에 희생이 되었다. 조지도 병사들에게 심하게 구타 당하고 경찰서로 끌려갔다.

조지는 병사들에게 애원했다.

“저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풀어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땅만을 일구는 농부란 말입니다.”

“닥쳐라! 네놈은 시위현장에 있었으니 과격한 시위대와 한통속이 분명하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니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풀어주십시오.”

“닥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병사는 조지에게 몽둥이를 세차게 휘둘러 그의 입을 막았다. 조지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감옥으로 질질 끌려갔다.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재판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법관들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피고인들을 변호해야 할 변호사들은 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무관심했다. 조지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법관은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조지에게 징역 일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조지는 분개하며 항의했다.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판사는 차가운 눈으로 조지를 쳐다보며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법은 죄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소.”

판사의 대답에 조지는 절망했다.

“내가 감옥에 가면 누가 나의 가족들을 보살핀단 말인가.”

감옥으로 이송되는 날, 가족들은 그를 보기 위해 하루 종일 길가에서 조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가족들은 조지의 마지막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아내는 먼발치서 울먹이며 소리쳤다.

“서방님, 부디 건강하셔야 해요.”

조지는 눈물로 대답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조지가 도착한 감옥은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그 산에는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금광이 있었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은 하루 종일 그 광산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새로 들어온 죄수 다섯 중에 한 명이 한달 안에 과로로 죽을 정도였다.

조지가 감옥의 간수들에게 항의를 했다.

“아니 이렇게 고된 노동을 시켜는 것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간수는 매서운 채찍을 휘두르며 대답했다.

“죄인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어서 일이나 해.”

조지는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고 그저 간수들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옆에 있는 동료 죄수들이 쓰러져가도 그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자신을 위로하며 묵묵히 형량을 채워나갔다. 고통스런 일 년의 감옥생활이 끝났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드디어 벗어나는구나.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모두들 건강해야 할 텐데.”

조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감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들은 조지의 가족이 집을 팔고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조지는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집을 겨우 찾았다. 그를 맨 먼저 반긴 것은 바로 쓰러질 듯 낡은 집과 누추한 옷을 입고 누워있는 그의 아내였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게요?”

“여보, 죄송해요. 당신이 잡혀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금징수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곡식 한 톨을 남기지 않고 모든 식량을 다 세금으로 가져갔죠. 우리는 할 수 없이 마을의 고리대금업자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들은 일부러 관리들과 짜고 우리들이 돈을 못 갚도록 여러 가지 수를 썼어요. 그들은 세금을 내는 날짜와 고리대금의 기일을 서로 맞추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했죠. 같은 날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우리는 결국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었어요. 돈을 못 갚자 관리들과 고리대금업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땅과 집을 빼앗았죠.”

“이런 죽일 놈들…….”

조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여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 계시요?”

“어머니께서는 일을 나가셨어요.”

“그럼, 아버지는?”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아버님께서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이럴 수가.”

조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크게 놀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바닥을 치며 비통에 잠겼다.

“왜? 도대체 왜?”

“아버님께서서는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화병이 나셨습니다. 병이 심해지자 아버님께서서는 다리를 심하게 저셨지요. 우리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하루에 한끼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자 아버님은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을 매셨어요.”

아내의 바깥 마른 볼이 괴로움에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배

고품에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입을 웅얼거리며 신음하듯 가까스로 울음을 토해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하오. 당신에게 이런 큰 고통을 준 나를 용서해주오. 내가 집에 왔으니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마오.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당신과 어머니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구하겠소. 반드시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무서운 가난은 조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조지는 다음날부터 일 자리를 구하려 온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은 조지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가고 또 한 달이 지나갔지만 그는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아무 의미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조지는 하는 수없이 페사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다. 페사크는 생명의 은인인 조지가 찾아오자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게 누군가? 조지가 아닌가? 어서 이리 와서 안게.”

눈치가 빠른 페사크는 조지의 얼굴 표정만 보고 그에게 무슨 큰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말을 길게 하는 성격이 아닌지라 대뜸 그 이유를 물었다.

“자네의 얼굴이 근심으로 어두워졌다네. 자네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보러 오진 않았을 테고, 어떤 일로 나를 찾아오셨나?”

“돈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돈을 빌리고 싶다고? 내 자네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으나 한가지 부탁이 있네.”

페사크는 커다란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그 조직은 갖은 부정과 불법적인 활동으로 돈을 모았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페사크는 조지가 용맹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싶어했다.

“부탁이라니요?”

“내가 요새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데 고약한 사람들이 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네. 자네가 그 사람들을 좀 혼내주었으면 싶네.”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빈민촌을 밀어버리고 그 곳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 계획이라네.”

“하지만 그 곳이 사라진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길거리를 떠도는 부랑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네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네. 만약 일을 잘 처리해 준다면 자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겠네.”

“그러면 부탁이라는 것이 그 빈민들을 폭력으로 몰아내는 것입니까?”

“역시 자네와 나는 말이 잘 통하는 군. 하하하. 물론 이 일을 맡아주겠지?”

조지는 얼굴이 굳어지며 페사크의 제안을 심사 숙고했다.

‘지금 돈을 빌리지 못한다면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어.’

조지는 페사크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페사크. 당신의 제안은 받아드릴 수가 없군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 까지 돈을 구걸하고 싶진 않습니다.”

조지가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페사크의 얼굴에는 싸늘한 독기가 풍겨 올랐다. 그는 조지에게 통명스럽게 말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당신은 사람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으니 아무도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을 거요.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어두운 뒷골목의 일뿐일 게요.”

조지의 아내는 병이 더욱 심해져서 하루에 다섯 번씩 정신을

없었다. 조지는 초조해하며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돈이 없는 그를 반겨줄 의사는 없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곳마저 아내의 진료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죄인의 아내였기 때문이었다. 조지는 분노했다.

“이 미친놈의 세상! 내 아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나! 죄를 지은 것은 나인데 왜 나의 아내를 차별하느냔 말이나!”

조지는 땅을 치며 울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당신을 이렇게 병들고 아프게 해서…….”

아내는 조지의 수척해진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아내의 병은 더욱 깊어져 그녀는 쓰러져 가는 집안에 시체처럼 누워있었다. 조지는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어쩔 수 없이 폐사크를 다시 찾아갔다. 조지를 맞이하는 폐사크의 말투가 전과는 다르게 쌀쌀하기 그지 없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나? 지금 몹시 바쁘니 어서 말하게.”

“일 자리를 얻고 싶습니다.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일 자리를 주실 수 없습니까? 아내가 위독한 상태입니다.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조지는 폐사크에게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정말로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나?”

“그렇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제 앞에 사나운 불길이 놓여져 있다 해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요?”

조지는 폐사크의 물음에 놀라 뒷걸음질쳤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니요?”

폐사크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나 같으면 아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 따윈 중요하지 않소. 그것이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나의 의무라 생각하오. 참으로 불쌍하지 않소? 자네 아내가 무슨 죄가 있나? 당신을 열심히 사랑한 죄밖에 없질 않는가? 하지만 이 미친 세상은 당신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당신의 아내를 손가락질 하고 있소. 당신의 아내가 아파서 울고 있어도 그들은 그녀를 치료해주지는 못할망정 죄인의 아내라고 비난하고 있소. 세상이 우릴 저주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을 저주할 수밖에 없질 않겠는가?”

조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날밤이 지나고 조지는 다 쓰러져 가는 집으로 돌아갔다. 피가 묻은 손으로 돈 주머니를 든 체로. 그날 이후, 조지는 어두운 뒷골목의 저주 받은 일상에서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땅의 향기를 사랑했던 한 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땅의 온기를 느꼈던 한 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조지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The End

이야기를 마친 아우렐리아는 손이 닳도록 빌며 아들의 선처를 바랐다. 에이미는 노파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듯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루쿨루스가 달려들어 노파를 밀치며 멀리 쫓아냈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공주님을 현혹시키지 말아라! 너의 아들이 받은 유혹을 우리도 한번쯤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악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저 죄인은 순간의 이기심과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죄를 짓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바로 저 죄를 지은 자의 잘못이지. 비켜라! 법은 지엄하니 결코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루쿨루스는 고개를 돌려 에이미에게 말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세상의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정에 휘둘리시면 안됩니다. 이런 광경을 보시는 게 괴로우실 테니 차라리 커튼을 내려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오늘 비로소 진짜 세상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정 그리 하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의 가족들을 모두 끌어내라!”

루쿨루스가 호위병에게 손짓을 하니 호위병들이 달려와 죄인들을 감싸던 가족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울며 건달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 에이미는 눈을 부릅뜨고 끌려나가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보았다. 그녀는 낯선 장면에 놀라고 두려웠지만 결코 시선을 떼지 않았다.

갑자기 끌려가는 건달들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 사내가 건달들에게 돌을 던지며 소리쳤다.

“이 사회의 쓰레기들을, 어서 죽어! 죽어!”

다른 사내가 건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네 놈들의 목을 잘라 성문에 걸어놔야 해!”

구경꾼들은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건달들을 희롱했다. 그들은 끌려가는 건달들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돌맹이를 던졌고 마치 신나는 유희를 즐기는 것처럼 괴롭혔다. 이에 아우렐리아가 구경꾼들에게 울며 부탁했다.

“제발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이, 귀찮은 할망구 같으니라고. 저리 비키세요.”

남자는 아우렐리아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하고 건달들을 향해 거친 돌을 사정없이 던졌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은 건달들을 온몸으로 감싸고 보호했다.

시민들은 이제 건달의 가족들까지 조롱을 퍼부으며 돌을 던졌다. 그들은 마치 벌레를 죽이듯 건달과 그들의 가족에게 돌맹이를 던지고 침을 뱉었다. 시민들이 벌이는 끔찍한 축제를 바라본 에이미는 큰 충격을 받고 루쿨루스에게 말했다.

“루쿨루스, 어서 잔인한 저들의 행동을 막으세요. 저러다 사람이 죽겠어요. 어서요!”

그러자 루쿨루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풀 대상을 찾는 겁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받은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푸는 것이죠. 비열함이란 비천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저 건달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잠시나마 시민의 한을 풀 장난감이 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런 일은 궁밖에 펼쳐지는 수많은 광경 중 사소한 유흥에 불과하죠. 그러니 너무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루쿨루스는 성난 시민들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다.

에이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건달들을 바라봤다.

‘궁 밖에서 바라본 세상은 도시의 빛 그리고 그림자가 깊게 드리우고 있었다. 두려움과 편안함,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는 도시에서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은 처절한 생활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었다.’

온 도시를 덮은 잔인한 축제 속에 캐네스의 마지막 위대한 수업은 조용히 그 막을 내렸다.

CHAPTER ELEVEN

오랜 기억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름다운 공주의 눈에는 눈물이 머물렀고 어둡고 쓸쓸한 방 안은 그녀의 오랜 기억들로 채워졌다.”

안데르센은 목각인형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에이미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오른 손에 작은 도구 함을, 왼쪽 어깨에는 윤기가 나는 작은 통나무를 매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데르센은 마음처럼 빨리 달리 수가 없었다. 숨을 헐떡이며 한참 동안을 힘겹게 달려온 뒤에야 에이미의 방 문 앞에 겨우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 시간, 에이미는 안데르센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헉헉, 에이미 공주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에이미는 방문을 활짝 열고 안데르센을 급하게 맞이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어서 이쪽으로. 지금 아도라가 많이 아파요. 제발 아도라를 살려주세요.”

안데르센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목각인형에게로 곧장 달려갔다. 그리고 목각인형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런, 이런. 이렇게 큰 상처가 나다니. 아도라야, 조금만 참거라. 이 할아버지가 다 고쳐줄게.”

안데르센은 아도라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옆에 서있는 에이미를 안심시켰다.

“공주님, 천만다행으로 요정의 눈물로 만들어진 심장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네요. 심한 충격을 받고 잠시 기절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치료를 하면 금방 나을 겁니다.”

에이미는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정말, 정말 다, 다행이다.”

“지금부터 이 늙은 수리공이 아도라를 치료할 것이니 공주님은 의자에 앉아서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루쿨루스가 에이미 앞으로 의자를 가져왔다.

“공주님, 수리공의 말대로 의자에 앉아서 쉬시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일 때문에 그만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사들을 방 앞에 대기시켜놓을 테니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병사들을 부르십시오. 끝까지 자리를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 때문에 적잖은 곤란을 당하신 것에 대해 깊이 사과 드려요.”

루쿨루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공주님을 좀더 안전하게 호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루쿨루스가 방에서 나가자 마자 안데르센은 목각인형의 상의를 벗기고 치료 준비에 들어갔다.

“아도라야, 내가 치료를 잘해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잠에서 깨어나면 언제 다쳤냐는 듯 상처하나 없는 깨끗한 몸이 되어있을 게야. 그럼 맨 먼저 더러워진 너의 몸을 닦아야겠구나.”

늙은 수리공은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물에 수건을 적셨다. 그가 목각인형의 몸을 닦으려 하자 에이미가 다가와서 부탁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 그냥 쉬지 않으시고요.”

“저 때문에 생긴 상처를 제 손으로 닦아주고 싶어요. 제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공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야…….”

안데르센은 에이미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에이미는 수건을 받자마자 목각인형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목각인형의 살결에 닿자 목각인형은 몸을 뒤흔치며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아, 안돼. 더 이상…… 다, 다가오지……마. 공주님, 어, 어서 도망치……세요!”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아도라, 너는 꿈속에서도 나를 위해 싸우는 구나. 정말 고마

워. 정말 고마워.”

에이미의 눈에서는 붉은 눈물 방울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루쿨루스는 아직까지도 궁에 남아 일을 했다. 한 시간가량 서류작업에 매달린 끝에 그는 율리우스 왕에게 공주의 호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보고를 끝내고 왕의 집무실을 나와 군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에 마르켈루스가 뒤에서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천하의 루쿨루스 경도 사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군요.”

“어? 마르켈루스 님, 어째서 이곳에……. 아니, 그건 그렇게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다니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루쿨루스 장군께서 공주님의 부탁 때문에 일정을 무단으로 바꾸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 어떻게 그것을…….”

“그건 그렇고 이번 호위에는 전하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소한 말썽이 있었다군요. 오늘 광장 뒷골목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르게 묻혀버렸더군요. 수하들의 입 단속을 철저히 시키셨습니다.”

루쿨루스는 뜻밖의 말에 신경이 곤두선 듯 마르켈루스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잘못을 추궁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헐뜯으려 하고 하는 겁니까?”

“헐뜯으려 하려 하다니요? 루쿨루스 장군께서 저를 그런 몰인정한 농으로 보시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흥분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주십시오. 오늘 사소한 말썽이 있긴 했지만 원만히 잘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까지 알고 계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저의 눈과 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아! 그리고 이제가 한가지 깜박할 뻔 했네요. 요새 루쿨루스 경을 괴롭히는 사소한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서요?”

루쿨루스가 되물었다.

“사소한 걱정거리라니요?”

“요사이 보아하니 에이미 공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루쿨루스는 마르켈루스의 말에 흠칫 놀랐다.

‘아니, 이자는 어떻게 내가 공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 성안의 많은 귀족들이 한결같이 마르켈루스를 조심하라고 충고를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군.’

루쿨루스는 애써 태연한 척 마르켈루스에게 대답했다.

“제가 어찌 감히 공주님을 마음에 품겠습니까?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까? 이런 저의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 알았나 봅니다.”

마르켈루스는 그의 말과는 다르게 루쿨루스의 심중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씩 웃었다. 그는 루쿨루스의 주변을 돌며 나지막이 말했다.

“한가지 충고를 해드리자면 공주님의 곁에 있는 목각인형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루쿨루스는 마르켈루스의 충고에 의아했다.

“목각인형을 떨어뜨려 놓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에이미 공주님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녀에게는 곁에서 사랑을 나누어줄 가족이 없지요. 그나마 그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는 목각인형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목각인형을 공주님에게서 떼어놓는다면 이야기를 할 사람 하나 없는 공주는 많이 외로워 할 것입니다. 공주가 외로움에 많이 힘들어할 때 루쿨루스 경이 외로움을 달래준다면 공주의 마음을 얻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물론 공주님의 충직한 신하로써 마음을 얻는 것이겠지만요. 하하하.”

“신하로써? ‘신하로써 마음을 얻는다’라……. 하지만 어떻게 목각인형과 공주님을 떨어뜨려 놓습니까? 분명히 공주님께서 일이 그리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루쿨루스 경, 궁은 소문이 빨리 퍼지는 곳입니다. 소문이 과장되고 거짓일수로 더욱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지지요. 그리고 추문은 언제 어디서 전하의 귀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루쿨루스 경,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사소한 물 한 방울이 호수의 전체에 파면을 일으킨답니다.”

루쿨루스는 마르켈루스의 말 뜻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이라…….”

“소문만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게. 이 마르켈루스가 반드시 목각인형을 먼 곳으로 쫓아버릴 테니까.”

마르켈루스는 루쿨루스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치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루쿨루스는 한참 동안 마르켈루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마르켈루스의 말대로 목각인형을 멀리 쫓아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군. 하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긴 했지. 그건 그러고 무서운 남자로군. 저 마르켈루스는 말이야.’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서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목각인형의 몸은 안데르센의 정성이 어린 작업으로 인해 상처 하나 없는 온전한 몸으로 돌아와있었다.

“아도라, 네가 어제 나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달려갔을 때 마

음속에 있던 불안과 공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어.”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손을 들어 볼에 살며시 대었다. 그의 손은 어제처럼 포근하고 따스했다. 그녀는 목각인형의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너는 항상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데 나는 너에게 커다란 상처만을 주는 구나.”

한참이 지나자 목각인형은 몸을 뒤척이더니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앞에 후물거리는 에이미의 모습이 보이자 그는 힘겨운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 공……주님, 께, 괜찮으…세요?”

“이 바보야, 지금은 내 걱정보다는 네 걱정을 해야지. 그, 그리고 나를 이렇게 걱정시키다니 넌 나쁜 놈이야. 나, 나쁜 녀석. 엉엉. 나는 정말로 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내가 얼마나 거, 걱정했는지 알아? 엉엉.”

에이미는 울며불며 목각인형을 심하게 책망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엉엉. 아, 아도라, 그, 근데 말이지……. 흑흑.”

에이미는 훌쩍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공주님, 왜 그러세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말씀하세요.”

“아도라, 나에게 한가지만 약속해줘.”

“약속이요?”

“그래. 이 바보야. 이제 두 번 다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나의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해줘.”

“네, 공주님. 그렇게 할게요.”

목각인형은 울고 있는 에이미의 모습이 무척 안쓰러웠는지 가녀린 손을 들어 공주의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에이미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런, 아름다운 얼굴이 눈물로 젖었네요.”

목각인형이 볼을 만지자 에이미는 깜작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볼에 전해지자 에이미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목각인형은 에이미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운율을 타고 흐르는 음악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에이미게 말했다.

“에이미 공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공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공주님은 이 세상이 저에게 내린 단 하나의 운명입니다. 저의 생명이 사그라질 때까지 항상 공주님 곁에 공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 내려진 모든 기쁨이자 유일한 숙명이니까요.”

“아, 아도라…….”

목각인형의 말에 에이미는 거대한 파도같이 웅장한 감동을 받았다. 에이미의 머리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녀에 눈과 마음에는 오로지 목각인형만이 존재했다. 가슴 한쪽이 찡하게 울려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감정이 벅차 올랐다. 에이미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만 목각인형을 안아버렸다.

“아도라, 고마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공, 공주님?”

에이미의 갑작스런 행동에 목각인형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공주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같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향해 피어나는 사랑을 느꼈다.

갑자기 로이스가 공주의 방안으로 황급히 달려 들어왔다.

“공주님, 좋은 소식입니다. 전하께서 오늘 아, 아치메…… 에구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로이스는 에이미와 목각인형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몸이 돌처럼 뻣뻣이 굳었다.

목각인형과 에이미도 로이스를 보자 크게 놀랐다. 두 사람은 서둘러 포옹을 풀었다.

“로, 로이스!”

“아, 아주머니.”

로이스는 영문을 몰라 정신이 얼떨떨했다.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난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고, 공주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에이미가 몹시 당황하여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아도라가 몸이 불편하다 길래……. 어, 맞아. 일으켜주려고 그랬어. 몸이 불편하다 길래 내가 일으켜줬어. 불편하다 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몸이 불편하다고 할 수도. 그랬지? 아도라? 내가 네 몸을 일으켜줬지? 네가 불편하다고 해서.”

“네? 네. 네. 제가 몸이 불편해서요. 몸이 불편한데 일어날수가 없어서요. 공주님이 일으켜줬어요. 제가 물론 부탁을 했지요. 몸을 일으켜달라고.”

목각인형은 이마를 타고 줄줄 흐르는 식을 땀을 닦았다.

“아하? 그런 거였어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저는 두 분이 마치 연인처럼 포옹을 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하긴 그건 도무지 말도 안되는 일이지.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공주님, 어서 내려가야 해요. 오늘 아침 동료들로부터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전하께서 식당으로 향하실 예정이래요.”

로이스가 두 사람의 거짓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자 에이미와 목각인형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에이미는 로이스가 다시 의심하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둘러 무작정 방을 나섰다.

“식사 시간이 다가왔으니 서둘러 내려가야겠다. 로이스, 뭐해? 빨리 나오지 않고. 아도라, 꼭 쉬고 있어. 내가 오늘 일정이 끝나는 대로 곧장 달려올 테니까. 알았지?”

에이미는 아도라에게 슬쩍 윈크했다. 목각인형은 그 모습을 보고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푹, 예,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이미와 로이스가 방을 나가자 목각인형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멍하니 창 밖을 바라봤다. 창문 가까이에 있는 높은 책상에는 어제 공주가 사온 새장이 놓여져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워 새장으로 걸어갔다. 그 새장 안에는 빛나는 새라고 불리는 새가 바닥에 누워있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빛깔의 털을 가졌네.”

목각인형은 새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얼굴을 새장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자 아름다운 새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졸린 듯 하품을 크게 했다. 그리고 목각인형에게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인형 친구, 어디다가 그 못난 얼굴을 들이미나?”

아름다운 새가 말을 하자 목각인형은 매우 놀라 뒷걸음쳤다.

“설마? 새가 말을 하잖아?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목각인형은 귀가 이상해졌나 생각하고 귀속을 손가락으로 몇 번 후볐다. 그리고 다시 새 장안에 있는 아름다운 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름다운 새는 이번에는 큰 날개를 펼럭거리며 목각인형을 향해 인사를 했다.

“반갑소, 인형양반. 나의 이름은 브라이트라고 하오. 만나서 영광이오.”

목각인형은 어리둥절하여 그를 향해 말을 하고 있는 새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목각인형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확인한 브라이트는 통명스럽게 목각인형을 쏘아붙였다.

“내가 내 이름을 밝혔으면 자네도 자네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요사이 인형들은 다 자네처럼 버릇이 없나? 말세야 말세. 이렇게 작은 새장에 갇혀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저런 인형에게 무시를 당하다니 이대로 꼭 죽을 수도 없고…….”

브라이트는 날개로 뒷짐을 쥐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이름은 아도라입니다. 새가 말하는 것은 처음 보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목각인형이 정중히 사과를 하자 브라이트는 머리 위에 솟아있는 아름다운 오색 빛 깃털을 추켜올리며 목각인형을 거만하게 나무랐다.

“아니, 이 양반아! 나도 말을 하는 인형은 처음이라네. 하지만 그대가 자신의 잘못을 성심을 다해 뉘우치니 잘난 내가 용서해주지. 그건 그렇고 자네는 공주에게 감사해야 돼. 공주는 자네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더군.”

목각인형이 물었다.

“네? 에이미 공주님이 저를 깊이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거짓말이라도 할 것 같나? 저 아리따운 공주는 달콤한 잠을 마다하고 밤새도록 자네를 간호했다네. 정말로 지극 정성으로 자네를 보살폈지. 그녀는 계속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더군. 그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고약한 공주 같으니라고.”

“공주님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위해주실 줄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정성에 감동했고 또한 행복했다.

“자네의 그 멍청한 표정을 보니 자네는 공주를 좋아하나 보군. 참으로 마음을 숨길 줄 모르는 친굴세 그려. 그보다 인형 양반, 나를 이 새 장안에서 잠시 꺼내어 줄 순 없겠나? 작은 새장 안에 오래 갇혀있었더니 몸이 심히 피곤하구려. 바깥공기를 좀 쐬어야겠어.”

“새장에서 꺼내달라고요?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인가? 잔말 말고 어서 날 꺼내주게.”

“새장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먼저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 친구는 속고만 살았나? 알겠네. 알겠어. 내 도망을 가지 않는 다고 약속을 하지. 자 이제, 약속을 했으니 어서 문을 열어 주게.”

“그럼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목각인형은 새장의 문을 열었다. 새장 밖으로 걸어 나온 브라이트는 목각인형을 바라보며 투덜거렸다.

“이 보게, 이 무관심한 친구야. 새장을 열어주었으면 나를 안전하게 밑으로 내려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쫓쫓! 저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목각인형은 브라이트가 화를 내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으로 날갯짓을 하는 흉내를 냈다.

“날개가 있으니 날아서 내려가면 되지 않나요? 별로 높지 않은 책상인데.”

갑자기 브라이트는 얼굴을 찡그리며 버럭 화를 냈다.

“설마, 자네는 내가 날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요새 인형들이란 무슨 그리 의심이 많아. 그냥 어서 날 내려주게.”

목각인형은 브라이트를 두 손으로 살며시 감싸 안은 후 그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놓아주었다. 브라이트는 날개를 펼치며 기지개를 폈다. 그리고 답답한 기분을 벗어나려는 듯 깊은 숨을 쉬었다. 십 분 정도 공주의 방을 산책하고 난 브라이트는 목각인형을 다시 불렀다.

“인형 양반, 이제 나를 그만 새장 안으로 넣어주게나.”

목각인형은 브라이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브라이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아니, 보통 다른 새들은 새장에 나오면 저기 저 넓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새장 밖을 나와서 고작 한 다는 것이 숨 한번 쉬는 것입니까? 혹시 진짜 날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목각인형의 추궁에 브라이트는 성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고래

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내가 날지 못한다고? 아니 자네는 나의 아름다운 두 날개가 보이지도 않는가? 자네가 그렇게 쓸데없는 의심을 하니 내가 멋지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닌가! 나중에 나의 아름다운 비행을 보고 반하지나 말게!”

브라이트는 머리 위에 솟아나있는 오색 빛 깃털을 매만지며 몸을 풀었다. 그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린 후 커다란 날개를 우아하게 펼쳤다.

“잘 보게 이 우아한 비행을 말아야.”

브라이트는 두발을 종종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속도가 붙자 그는 두발로 대지를 힘차게 차고 뛰어올랐다. 그는 커다란 날개를 펼친 채 힘찬 날갯짓을 했다. 하지만 브라이트는 어른의 허리 높이에 다다르자 더 이상 날아오르지 못하고 천천히 땅을 향해 내려왔다. 짧은 비행을 마친 그는 자랑스러운 듯 목각인형을 거만하게 올려봤다.

“어떤가? 나의 아름다운 비행을 바라본 소감이?”

목각인형은 브라이트의 말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혔다.

“설마 지금 그걸 하늘을 난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브라이트는 다시 성을 내며 많은 말들을 부리로부터 쏟아내었다.

“아니, 이런 답답한 사람아. 내가 저 높은 하늘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말인가? 내가 이 튼튼한 두 다리로 굳은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뛰어올라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말인가? 허허, 이런 자네의 눈이 안 좋은가 보군. 어쨌든 오랜만에 날았더니 몹시 피곤하구려. 인형양반, 나를 어서 새장 안으로 데려다 주게. 어서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자야겠어.”

목각인형은 너무나도 기세 당당한 그의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브라이트를 살며시 안고 다시 새장 안으로 데려다 주

었다.

“이 보게, 인형 친구. 내가 자네에게는 나를 부를 때 특별히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내려주지. 보아하니 내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냥 나를 친구라 여겨주게나. 참고로 나는 아홉 번째 겨울을 맞을 정도로 나이가 많다네. 허허, 이거 나이든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그건 그렇고 자네는 몇 살인가?”

브라이트의 물음에 목각인형은 손가락으로 나이를 세어보았다.

“안데르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태어났으니 한 오십 살쯤 되었을 겁니다.”

“뭐라고? 오, 오……십 살?”

브라이트는 흠칫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 행동했다.

“이런 고리타분한 사람을 보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나이를 따지나? 요새는 그저 마음만 맞으면 친구인 거지. 그럼 친구, 나는 이만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네.”

“하하하.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목각인형은 브라이트를 재미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어두운 궁의 지하 복도에서 루쿨루스는 늙은 시녀 한 명과 함께 서있었다. 지하 복도는 햇빛이 들지 않았고 오로지 횃불의 희미한 빛만이 음산하게 타올랐다. 루쿨루스는 사방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시녀에게 물었다.

“자네가 이 궁에서 아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지?”

“예, 제가 시녀들과 하인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궁 안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서슴없이 친한가?”

“그렇습니다. 모두들 저를 친형제자매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적인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좀 부탁할 것이 있네.”

“무슨 부탁이신지?”

루쿨루스는 시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속삭였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녀는 크게 놀라 얼굴이 굳어졌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저 소문을 내서 궁 안을 시끄럽게 하면 되는 거야. 에이미 공주님과 목각인형의 은밀한 관계를 소문을 내라고. 만약 일이 잘 풀려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진다면 내 돈을 두둑이 더 얹어주지. 어때?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하지만 제가 이런 추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만일 알려지거나 한다면…….”

루쿨루스는 시녀의 입을 막으며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나의 조그만 성의이니 받아두게나. 이 정도면 섭섭하지는 않을 걸세.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해주게나.”

시녀는 주머니를 풀어보더니 크게 놀랐다. 수많은 금화가 햇불에 반짝거리며 빛나자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십시오.”

캐네스 선생님의 병문안을 다녀온 지 수주가 지났다. 붉은 해가 하늘의 한가운데 솟아오르자 에이미는 귀빈실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귀빈실 안에는 참한 부인 한 명이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웃나라 사신의 부인이었다. 공주가 귀빈실로 들어가자 귀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다.

“에이미 공주님, 만나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공주님을 뵈니 역시 소문대로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에이미는 귀부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귀부인이 앉아 있던 의자 옆에는 페르시안 고양이 한 마리가 바닥에 누워있었다. 그 고양이는 길고 하얀 털로 온몸이 덮여있

었고 몸통은 둥글고 땅딸막했다. 고양이의 두 눈은 마치 초록빛 에메랄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저기 옆에 있는 고양이는 매우 깜찍하네요.”

에이미는 페르시안 고양이를 가리켰다.

“아! 이 고양이는 페르시안 고양이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애완동물이죠. 이 종은 순진한 성격과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많은 여성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지는 않나요?”

“이 페르시안 고양이는 여러 고양이종에서도 가장 온순하답니다. 그리고 매우 조용하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방 안에서 기르기에 아주 좋죠.”

에이미는 바닥에 누워있는 고양이를 들어서 품에 안았다. 고양이는 졸린 듯 크게 하품을 했다.

“어쩜 하품하는 모습도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저렇게 편하게 품에 안기는 것을 보니 고양이도 공주님이 마음에 드나 보네요.”

에이미와 귀부인은 한 시간 동안 이야기 꽃을 피웠다. 대화가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길어지자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로이스가 공주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에이미 공주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부인을 3 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미는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바라보며 화들짝 놀랐다.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대화에 너무 푹 빠져있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오랜 여행을 하신 손님을 붙잡고 눈치 없이 제 이야기만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천만예요. 여행의 여독이 풀릴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로이스가 귀부인에게 말했다.

“사모님, 제가 앞으로 묵으실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이미는 귀부인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갔다. 로이스는 말끔히 청소가 된 방으로 부인을 안내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눈부신 햇살이 방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정말로 크고 넓은 방이네요. 이렇게 좋은 방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갑자기 귀부인의 품에 안겨있던 고양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그녀의 품속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복도의 끝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어! 안돼! 멈춰! 프랑세, 어디를 가는 거야?”

에이미는 고양이를 쫓아갔다.

“거기서! 고양이아.”

이에 목각인형도 고양이를 쫓아서 복도의 끝으로 달려갔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페르시안 고양이는 쭈그리고 앉아있었고 고양이의 주위에서는 쥐 울음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작은 생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었다.

“생쥐를 발견해서 방을 뛰쳐나간 거구나. 고양이아, 생쥐를 괴롭히면 안돼.”

목각인형은 고양이에게 잡혀 있는 쥐를 풀어주었다. 고양이는 생쥐를 가로챈 목각인형이 미운지 얼굴을 찡그리며 계속 사납게 울어댔다.

“에이미 공주님, 고양이가 작은 생쥐를 잡았네요. 이 통통한 고양이가 생각보다 많이 날렵한데요?”

“.....”

에이미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떤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 있는 것은 바로 오래된 나무 판자로 가로막혀있는 커다란 방문이었다. 에이미는 안색이 굳어졌다.

목각인형이 에이미에게 물었다.

“에이미 공주님, 괜찮으세요?”

“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고양이는?”

에이미는 정신을 차리려 손으로 볼을 톡톡 쳤다.

“여기 이렇게 제가 안고 있잖아요.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어, 난 괜찮아. 잠깐 딴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제 도망친 고양이도 찾았으니 그만 부인에게 되돌아가 고양이를 돌려 줘야지.”

귀부인과의 미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에이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창가에서 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목각인형은 무엇인가가 공주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공주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하루 종일 공주님의 얼굴이 밝지가 안아요. 무슨 고민이 있으시면 저에게 털어놓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랜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래. 그 기억이라는 것이 그리 유쾌한 추억은 아니거든.”

“혹시 그 나무판자로 막혀있는 방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질문에 흠칫 놀랐다.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기를 망설이더니 목각인형에게 가슴속 깊이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 방은 나의 어머니인 다리아 여왕님께서 쓰시던 방이야. 내가 글을 읽고 쓸 나이가 되자 어머니의 건강은 하루를 멀다 하고 나빠지셨어. 몸이 허약해지신 어머니께서는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지. 유명한 의사의 진료도 값비싼 약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어머니께서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지.”

“다리아 여왕님께서 쓰시던 방이면 그렇게 험하게 방치해서는 안되지않아요. 그런데 왜 그 방문을 두꺼운 널빤지로 막아놨나요?”

“그 방을 막아놓은 건 카밀라 여왕님께서 하신 일이야. 아버지께서는 카밀라 여왕님과 결혼을 하신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셨지. 아바마마께서는 카밀라 여왕님의 방을 찾아가는 대신 돌아

가신 어머니의 방에서 홀로 슬픔을 달래셨어. 카밀라 여왕님은 옛사랑을 잊지 못하는 아바마마에게 화가 나서 어느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커다란 나무판자로 방을 막아놔지.”

“카밀라 여왕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그 방에 들어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목각인형의 질문에 에이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괴로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카밀라 여왕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방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그 방에 들어가면 아직도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야.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에이미는 손을 매만지며 대답하기를 망설였다.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에이미 공주님, 그럼 저랑 같이 그 방에 들어가요. 용기가 나질 않으시다면 그저 저의 손을 꼭 잡고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공주님이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앞에서 공주님을 이끌어 드릴게요.”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손을 잡고 3층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목각인형이 손을 잡아주자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불안은 서서히 진정되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아. 항상 나를 감싸던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로지 아도라의 따뜻한 손길만이 느껴져.’

둘은 곧 무거운 널빤지로 막아 놓 어두운 문 앞에 섰다. 커다란 나무판자로 가로막힌 방을 바라보며 에이미는 두려운 듯 한참 동안 아무 말없이 서있었다. 조금 뒤 그녀는 긴장한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도라, 잠깐만. 나 지금은 안되겠어.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다음에 다시 오자. 나 내려갈래.”

에이미는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에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팔목을 잡고 그녀를 멈추어 세웠다. 그리고 두꺼운 나무 판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커다란 나무판자로 막아 놓 것은 다리아 여왕님의 방이 아니에요. 바로 저 나무판자로 막혀있는 것은 상처를 받은 채로 숨겨져 있는 공주님의 슬픈 추억이에요. 언제까지 슬픈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감추어 둘 것인가요? 공주님, 제가 곁에 있을 테니 부디 이전까지 도망쳐왔던 아픈 추억과 당당히 맞서 이기세요. 공주님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알았어. 근데 나 너무 떨리고 무서워. 부탁인데 네가 앞장서 주라.”

“네, 그럴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손을 꼭 잡으세요.”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손을 살며시 잡고 방을 향해 걸어갔다. 에이미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그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공주님, 나무판자를 천천히 떼어낼게요.”

목각인형은 커다란 나무판자를 문으로부터 떼어냈다. 나무조각이 문에서 떨어질 때마다 마음속 깊이 감추어둔 슬픔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 먼지 구름이 소용돌이를 치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에휴, 이 날아다니는 먼지 좀 봐. 콜록, 콜록, 먼지가 상당히 많네요. 공주님,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켜야겠어요.”

목각인형은 방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거 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네. 초가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이건가? 아니야, 이건 아니고. 그럼 저건가? 먼지가

좀 쌓여있는데.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보통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말이야. 앗! 저 것 같은데. 맞아, 저거다.”

목각인형은 어둠을 헤치며 먼지로 덮여있는 양초에 불을 붙였다. 오래된 양초의 불이 불자 희미한 빛이 어두운 방안 구석구석을 향해 서서히 퍼져나갔다. 방이 환해지자 목각인형은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방안으로 들어와 방안을 떠다니던 먼지를 내쫓았다.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겠네요. 공주님, 다 됐어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도라, 나 무서워. 나 발이 떨어지지 않아.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예, 알겠어요. 저랑 같이 들어가요. 공주님, 무서우시면 제가 열을 켜 때까지 눈을 감고 저만 따라오세요. 자, 제 손을 잡으세요. 어서요.”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에이미는 무서운 듯 두 눈을 꼭 감고 목각인형의 팔소매를 단단히 붙들었다. 목각인형은 숫자를 세며 천천히 방안으로 들어갔다.

“여덟, 아홉, 열. 에이미 공주님, 이제 눈을 뜨세요.”

“어, 알았어. 아도라, 나 눈 뜬다. 난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에이미는 눈을 살며시 떠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물건 위에는 회색 먼지가 소복이 앉아있었다. 오랜 어둠에서 깨어난 방은 에이미의 어린 시절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익숙한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지자 마음이 서서히 차분해졌고 가슴을 옥죄고 있던 두려움 또한 그대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가구들, 그림들, 조각품들, 책들 그 모든 것이 옛날과 똑같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 어른이 된 나와 항상 내 앞에서 밝은 웃음을 보여주시던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것뿐이야.”

에이미는 방을 둘러보면서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며 기뻐했다, 그리고 또한 슬퍼했다.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슬픈 추억에 잠겨있던 에이미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그림 앞에 섰다. 그 그림은 푸른 바다가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림 속 바다는 커다란 물결이 일었고 그 위로 는 갈매기 두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다. 에이미는 그 푸른 바다가 그려진 그림을 보며 오랜 기억을 끄집어냈다.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적 바닷가에서 사셨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어머니는 항상 성 앞에 있는 바닷가로 나가서 소금 향이 나는 바닷바람을 맞으셨대. 신기하게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몸 안에 있던 모든 답답함이 파도에 쓸려나가는 것 같으셨다고 말하셨어. 이 성으로 이사를 온 뒤로 어머니께서는 항상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하셨지. 하지만 어머니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이 그림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했어.”

이야기를 마친 공주는 다리아 여왕이 항상 누워있던 침대 옆으로 걸어갔다.

“어머니께서는 이 침대에서 돌아가셨어. 자신은 삶의 끝을 향해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나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었어.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며 어머니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나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쉬셨어.”

오랜 기억을 떠올리는 에이미의 얼굴을 커다란 슬픔이 번져갔다.

“어! 공주님, 여기 뜯지 않은 채로 놓여져 있는 오래된 편지 하나가 있어요.”

목각인형은 침대 옆에 책상에 놓여져 있는 작은 편지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 편지봉투를 조심이 들어 에이미에게 건넸었다. 빛깔이 바랜 편지봉투에는 ‘사랑하는 나의 천사에게 사랑

하는 엄마가’ 리고 적혀있었다.

“어머니의 편지?”

에이미는 어머니의 편지를 건네 받고 손을 바르르 떨며 편지를 꺼내었다. 공주는 천천히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나의 소중한 에이미, 많은 것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의 곁을 떠나는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주렴. 밝은 미소와 따스한 마음을 잃지 말고 엄마가 곁에 없더라도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 엄마는 너와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할거란다. 그러니 너도 이 엄마를 잊지 말고 기억해주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의 작은 천사여.”

에이미는 편지를 다 읽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영. 엄마, 우리 불쌍한 엄마. 제가 엄마를 잊다니요? 미안하다니요? 못난 엄마라니요? 제가 감히 엄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최고의 엄마였어요.”

에이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슬프게 울었다.

“영영.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어, 엄마. 영영.”

목각인형은 곁으로 다가가 울고 있는 에이미를 따스하게 안았다.

“에이미 공주님, 마음껏 목놓아 우세요.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추억이 흐려질 때까지요.”

“아도라, 엄마가 보고 싶어.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어.”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품 안에서 구슬프게 흐느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다시 느끼면서 한없이 밀려오는 그리움으로 슬퍼했다.

다음날, 루쿨루스와 밀담을 나누었던 시녀는 2주전부터 그의 명령대로 목각인형과 에이미가 서로 깊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소

문을 빠르고 은밀히 퍼뜨리고 있었다. 소문은 마치 발 없는 말처럼 사람들의 입을 타고 궁 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로이스는 아침 일찍 입궁해서 시녀들의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시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여인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서로 깔깔대며 수다를 늘어놓았다.

“아니, 대낮부터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그리 크게 웃고 떠드는 거야?”

로이스가 대화 속에 끼려 하자 여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기들끼리 귀속말로 소근거렸다.

“난 이만 먼저 가봐야겠어.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거든.”

한 여인이 말했다.

“아차! 나도 화분에 물주는 것을 깜박했네.”

다른 여인이 말했다.

여인들은 하나같이 대화를 멈추고 핑계거리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그들은 마치 로이스에게서 도망치려는 것 같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로이스는 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에게 다가가 그녀를 휴게실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신참, 아까 저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고 있지?”

“아니예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이러면 곤란해. 앞으로 궁 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설마 내가 너를 괴롭히길 원하는 것은 아닐 테지?”

“아니예요. 사실은…….”

“사실은 뭐?”

신참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이야기했다.

“사실은 요새 궁전에 퍼지는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궁전에 퍼지는 소문? 좀더 자세히 말해봐.”

“그게 그러니까…….”

신참이 말을 어물거리며 망설이자 로이스가 대답을 재촉했다.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

“에이미 공주님하고 목각인형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소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공주님하고 목각인형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도 대체 누가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저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언니들이 말하길 에이미 공주님이 목각인형하고 성밖 광장에서 몰래 춤추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애인처럼 시장을 거닐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다들 제정신이야. 이런 이야기를 소곤거리게. 행여 이 말도 안 되는 추문이 율리우스 왕의 귀에 들어가다간 소문을 퍼트리는데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야. 알아듣겠어?”

로이스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이에요. 저는 대화에 끼지도 않았어요.”

“하여튼 간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곳에는 얼씬대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신참, 알겠어?”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신참이 서둘러 휴게실 밖으로 나가자 로이스는 의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에이미 공주님하고 목각인형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 나 참여자가 없군. 하지만 이런 소문이 괜히 나도는 건 아니야. 내가 보기에도 공주님하고 목각인형은 너무 허물없이 지내고 있어. 이제 내가 옆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목각인형과 에이미 공주님의 행동을 단속해야겠어.’

CHAPTER TWELVE

전할 수 없는 마음

“차가운 천장만이 나를 내려다 보는 어두운 병원 작은 방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전할 수 없는 마음과 가질 수 없는 사랑뿐이었다.”

율리우스는 마르켈루스와 루쿨루스와 함께 궁정식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긴 복도를 지나 직각으로 굽어진 복도의 바로 맞은편에서 두 명의 시녀가 칠칠맞지 못하게 깔깔거리며 수다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율리우스가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못 큰소리로 서로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들은 성 안에 퍼지고 있는 목각인형과 에이미의 추한 소문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속닥댔다.

“저기 있잖아,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혹시 에이미 공주님에 대한 소문 말이야? 요새 궁에서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너도 들었어? 나는 처음에 그냥 헛소문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래. 그 소문이 정말 맞데.”

“그게 진짜였어? 어머, 어머. 항상 처신을 조신하게 하셔서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니까?”

“이런 속담도 있잖아. 양전한 고양이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잖아.”

“그래도 설마 인형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일 줄은 몰랐지. 어떻게 사람이랑 인형이랑 사랑을 할 수가 있니?”

루쿨루스가 큰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에헴. 여기가 어디라고 실없이 까불거리며 수다를 떠느냐!”

루쿨루스는 두 시녀에게 한 쪽 눈을 깜박거리며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루쿨루스에게 사주를 받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이었다. 두 시녀는 루쿨루스가 뒤를 봐주기로 철석 같이 약속했고 후한 보상을 하기로 맹세했기에 이 위험한 연극에 선뜻 참여했다.

율리우스 왕은 그녀들의 대화를 듣고 불같이 노했다.

“그 무슨 소리냐?”

시녀들은 깜작 놀라 고개를 숙였다. 아니 깜작 놀란 척 했다.

“아, 아니옵니다. 전하, 저희는 아, 아무 말도…….”

“닥치거라! 내 방금 전 너희들의 이야기 중에 목각인형과 에이

미가 무엇을 한다고 말한 것을 얼핏 들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하나 거짓됨 없이 다 고하라. 만약 짐을 속이려 한다면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알겠느냐!”

율리우스가 성난 얼굴로 두 시녀를 심하게 추궁하자 두 시녀는 사전에 서로 약속한 대로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척 했다.

루쿨루스가 율리우스에게 말했다.

“아마도 요사이 궁 안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듯싶습니다.”

“소문이라니? 어떤 소문 말인가? 자세히 말해 보게.”

“그게 너무 해괴망측한 소문이라 제 입으로 말하기가…….”

“해괴망측? 도대체 무슨 소문이길래, 말하는 것조차 꺼린단 말이오!”

루쿨루스는 의도적으로 뚝을 들이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내심 옆에 있는 마르켈루스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루쿨루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는 마르켈루스가 루쿨루스를 대신해서 대답했다.

“전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며칠 전부터 에이미 공주님과 목각인형이 서로 깊이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요! 누가 감히 그런 천인공노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오!”

“소문을 퍼뜨리려는 주모자를 은밀하게 색출해 내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공주님의 체면과 품위에 손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 놓고 조사를 하지 않으니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도록 나두면 공주의 체면 물론이고 왕국의 위신이 뭐가 되겠소! 쫓쫓!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율리우스 왕은 근심에 휩싸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르켈루스가 왕에게 한가지 계책을 내

놓았다.

“전하, 이런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저에게 한가지 해결 방도가 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구려.”

“제 생각에 소문이 진정이 될 때까지 목각인형과 에이미 공주님을 잠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문은 금새 사그라질 것입니다.”

“음, 그거 괜찮은 생각이로군. 역시, 마르켈루스 경이야. 자네의 머리에서는 놀라운 해법이 금방금방 쏟아지는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루쿨루스 경.”

“예, 정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루쿨루스가 대답했다. 그는 마르켈루스를 쳐다보며 짧게 목례를 했다. 마르켈루스는 미소로 이에 답했다.

‘이로써 루쿨루스와 조금 이나마 가까워졌군.’

에이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목각인형의 옆으로 다가갔다. 목각인형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이미는 쑥스러운 듯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배배 꼬며 목각인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도라, 어제는 너무 고마웠어.”

“아니에요.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목각인형은 짧게 대답한 뒤 다시 창 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머,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짧게 말하면 대화가 끝나버리잖아. 나한테 아무 거라도 좋으니깐 질문을 해줘. 내가 자존심 상하게 계속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잖아.’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향한 감정에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는 몰라도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에이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치,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지. 아니, 그냥 내가 먼저 말을 걸

어 볼까? 그런데 무슨 말을 꺼내야 하지. 갑자기 꺼안고 좋아한다고 말해버릴까? 아니야, 이건 너무 뜬금없어. 난 쉬운 여자가 아니야. 맞아. 그런 것은 남자가 멋있고 로맨틱하게 리드해야지. 그건 그렇고 아도라, 왜 아무 말도 없이 창 밖만 바라보는 거야. 이 바보야, 나에게 관심을 보여줘. 나 지금 네 뒤에 있다고.’

한동안 에이미는 침묵 속으로 자신을 숨겼다. 긴 정적이 흐르고 난 뒤 에이미는 어색함이 부담스러웠는지 에이미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의미 없는 휘파람을 불었다.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속도 모르고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게 창밖을 바라봤다. 에이미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목각인형이 미웠는지 그의 옆구리를 세게 꼬집었다. 그리고 불만을 툭 뱉었다.

“미워.”

목각인형은 에이미가 뽀로통한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

“공주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게 서운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몰라! 아무튼 미워.”

‘바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어쩜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에이미는 통명스럽게 돌아섰다.

바로 옆에 새장에서 자고 있던 브라이트는 두 사람이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자 몹시 불쾌했는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야! 이 무식한 것들아! 잠 좀 자자. 어디 무식한 상놈처럼 꼭두새벽부터 사랑 타령을 해! 나 같은 미남 새는 하루에 18시간씩 자줘야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 멋진 얼굴에 잡티가 생기면 책임질 거냐! 이 날개도 없는 하등 동물들아!”

브라이트의 목소리는 목각인형에게 시끄러운 잔소리로 들렸지만 에이미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 소리처럼 들렸다. 에이미는 브라이트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에이

미는 언제 토라졌었냐는 듯이 아도라를 불렀다.

“아도라, 여기 와봐. 빛나는 새가 드디어 아름답게 지저귀네. 아도라, 빨리 와봐. 와, 너무 예쁘게 노래한다. 어쩔 이렇게 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에이미는 방안에 로이스가 들어 온지도 모른 채 브라이트의 목소리에 푹 빠졌다.

“에이미 공주님, 비싼 돈 주고 산 보람이 있네요.”

“어머? 로이스, 언제 왔어? 로이스도 온 김에 가까이 와서 들어봐. 여기 가까이서 들으면 진짜로 멋있어. 빨리잉.”

브라이트는 세 사람이 새장을 뺄 둘러싼 것에 대해 불평했다.

“그렇게 해를 가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개념 없는 잡식 동물 같으니라고. 역시 부리가 없는 동물들은 개념이 부족하다니까. 이 못생긴 동물들은 왜 나에게 얼굴을 들이키는 거지? 새 부당스럽게 말이야. 음, 아마도 나의 맑고 고운 목소리 때문인가 보군.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목각인형은 브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웃음을 지었다.

“그건 그렇고 인형친구, 매일 이 시간에 나만 두고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건가? 혹시 아침식사를 하러 가는 거라면 나도 데려가 주게나. 어허, 뭘 꾸물거리나? 어서 빨리 네 왕초에게 말을 전해줘.”

목각인형은 에이미에게 브라이트의 말을 전했다.

“에이미 공주님, 브라이트가 자기도 궁정식당에 같이 가고 싶네요.”

“뭐? 브라이트?”

에이미는 이상한 눈빛으로 목각인형을 쳐다보았다.

“브라이트라니? 혹시 이 새를 말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도라, 너무해. 나에게 상의도 없이 새의 이름을 정하다니.”

사실인즉 에이미는 여태까지 새의 이름을 정하지 않고 브라이

트를 그저 빛나는 새라고 불러 왔다.

“공주님, 그게 아니라……”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불만스러운 눈빛에 당황했다.

“공주님, 그게 아니라……. 저 새가 자신의 이름이 브라이트라고 말했어요.”

“저 새가 너에게 말했다고? 그럼 너는 저 새의 말을 알아들 수 있다는 말이지. 정말로 그런 거야?”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브라이트가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와! 너무 부럽다. 새와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아도라, 브라이트에게 반갑다고 전해줘.”

에이미는 브라이트 앞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안녕, 브라이트. 내 이름은 에이미야. 앞으로 잘 부탁해.”

이에 브라이트도 날개를 펴럭이더니 고개를 숙여 공주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허허, 이 하급 동물들도 나에게 경의를 표하는 군. 못생기긴 했어도 예의를 아는 족속이구먼.”

옆에서 브라이트의 대답을 들은 목각인형은 혼자 킁킁 웃고 서 있었다. 목각인형은 브라이트를 새장에서 꺼내어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브라이트, 말썽 피우면 안돼.”

브라이트는 목각인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허, 이 친구 나를 월로 보고. 나는 점잔 빼면 시체라고. 아무튼 인형친구, 인사성 바른 네 왕초에게 내가 이 자리에서 노래 선물을 띄우노라고 전해주게나.”

말이 끝나자 브라이트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었다.

“공주님, 브라이트가 공주님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정말이야? 어머, 브라이트. 너무 고마워. 아차! 그럼 나도 답례해야지. 뭐가 좋을까? 아! 그러고 보니 어제 들어온 맛있는 과

자가 있었지. 그래, 이게 좋겠다. 브라이트, 이것은 아름다운 노래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야.”

에이미는 브라이트에게 작고 달콤한 비스킷을 건네었다. 브라이트는 비스킷을 쪼아먹으며 목각인형에게 말했다.

“음~ 네가 사랑하는 저 공주는 예의를 아는군.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게나. 나는 사람의 말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사람처럼 말을 할 수는 없다네. 인형 친구, 그건 그렇고 이 비스킷 상당히 맛이 좋구먼.”

목각인형은 게걸스럽게 비스킷을 먹고 있는 브라이트를 바라보며 피식하고 웃음을 흘렸다.

에이미가 궁전 식당에 도착했을 때 루쿨루스는 호위 병사들과 함께 식당 앞을 지키고 있었다.

“에이미 공주님, 조금 늦으셨군요. 전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아바마마가 벌써 도착하셨다고요? 어라? 웬 일로 아바마마께서 이렇게 일찍 오신 거지? 오늘 내가 너무 굼뜨게 행동했나?”

에이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루쿨루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목각인형이 공주를 뒤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루쿨루스가 목각인형을 가로막았다.

“목각인형아, 너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에이미 공주님의 아침식사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라.”

에이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루쿨루스에게 항의했다.

“루쿨루스 경, 왜 아도라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공주님, 저는 전하가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일 뿐.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아바마마가 시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폐하께서 아까 전부터 공주님이 오시기를 기

다리고 계시니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바마마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지? 내가 모르는 무슨 오해가 있었나?”

에이미는 어쩔 수 없이 목각인형을 밖에서 세워둔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율리우스 왕을 보자마자 공손히 문안인사를 올렸다.

“아바마마, 소녀 문안 인사를 올리옵니다.”

“그래, 어서 자리에 앉거라. 그건 그렇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루쿨루스 경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듯 말하는 것 같던데?”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사소한 오해가 있었습시다.”

“보아하니 내가 목각인형을 이 식당 안으로 못 들어오게 시킨 것 때문에 속이 상했나 보구나.”

“사실 왜 아바마마께서 그러한 명을 내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미는 몹시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율리우스는 에이미를 다독이며 설득했다.

“에이미야, 이제 너도 너의 행동에 주의를 해야 할 만큼 나이가 들었단다. 목각인형은 생김새가 마치 사람 같아서 주위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가 쉽단다. 그러니 이제 목각인형과 어릴 때처럼 너무 살갑게 생활해서는 안 된단다.”

“사람들의 오해라니요?”

율리우스는 에이미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딸의 추문을 입에 담는 것이 꺼림칙했다. 옆에서 왕의 눈치를 살핀 마르켈루스는 율리우스 대신 대답을 했다.

“공주님, 요즘 궁 안을 떠도는 추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에이미가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다.

“추문이라니요?”

“입에 올리기 두렵사오나 굳이 아시겠다고 하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궁 안을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공주님과 목각인형이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해도 하도 해괴망측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칠만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죠.”

“네? 뭐라고요? 정말 그런 소문이 궁 안에 돈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마르켈루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율리우스 왕은 굳게 닫혀 있던 입을 열었다.

“에이미, 그래서 말인데. 잠시 목각인형과 떨어져 있는 게 좋을 듯싶구나. 물론 목각인형이 너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은 내 알고 있단다. 어려서부터 외로운 너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문이 진정될 때 까지만이라도 서로 떨어져있는 것이 나을 듯싶구나.”

“아, 아바마마, 하지만…….”

에이미는 갑작스런 통보에 정신이 잠시 멍해져 말문이 막혀버렸다.

“네가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버지가 루쿨루스에게 목각인형이 새롭게 목을 거처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내렸단다. 지금쯤 루쿨루스가 그 곳으로 목각인형을 데려가고 있을 거다.”

“네? 벌써 데려가다니요?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란다. 한 나라의 공주는 어떠한 소문에 휩싸여서도 안 된단다. 그것은 곧 왕국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일이기엔 너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조심히 행동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럼 나는 이만 중요한 국사가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야겠구나.”

율리우스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난처한 자리를 피하려는 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궁정식당을 빠져나갔다. 그 뒤

를 마르켈루스가 뒤따라 갔다. 그는 일이 잘 풀린 데에 만족한 듯 속으로 크게 웃었다.

‘하하하. 일이 의외로 잘 풀리는 군. 이 걸로 루쿨루스의 환심을 산 것 같으니 오늘 저녁부터 다음 작전을 준비해야겠어.’

에이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목각인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다. 에이미는 큰 상실감에 빠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큰 바닥에 풀썩 주저 앉아 공허한 마음을 곱씹는 것뿐이었다.

“아바마마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정말 이견 너무해. 정말 말도 안돼. 아도라가 곁에 없는 하루라,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

로이스가 에이미를 위로했다.

“에이미 공주님,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만 참으세요. 목각인형하고는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원히 이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속상해 하시나요?”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괴롭힐 텐데…….”

로이스는 에이미를 다독이며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에이미 공주님을 위해서는 차라리 잘 된 일이야.’

루쿨루스는 반 강제로 목각인형을 궁 밖으로 데리고 갔다. 루쿨루스가 아무 설명도 없이 목각인형을 끌고 가자 목각인형은 몹시 어리둥절했고 급기야 조금 무서움을 느꼈다. 브라이트 또한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는지 목각인형의 어깨에서 연신 투덜거렸다.

“인형 친구, 저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는 양반에게 어디를 가는 지 좀 물어보게. 이거 원 이유를 알려주고 사람을 데려갈 것이지, 저렇게 무작정 사람을 끌고 가면 쓰나?”

“알았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사실 나도 지금 그게 몹시 궁금

했거든.”

지금 루쿨루스는 휘황찬란한 군복에, 옆구리에는 번쩍이는 긴 칼을 차고 있었고 거기다가 화려한 백마까지 타고 있어서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있었다. 그래서 목각인형은 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루쿨루스에게 물었다.

“루쿨루스 님,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왜 저를 궁에서 쫓아내듯이 끌고 가시는 거죠?”

루쿨루스는 목각인형을 쳐다보지도 않고 곳곳이 앞만 보며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닥치고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오늘부터 너는 에이미 공주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네가 알 필요도 없고 너에게 이유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다. 율리우스 전하의 명령이니 무조건 따라라. 알겠느냐?”

“예? 공주님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요? 공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언제까지 공주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나요? 곧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제발 조금이라도 좋으니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목각인형은 크게 놀라며 루쿨루스에게 질문을 쏟아내었다. 하지만 루쿨루스는 목각인형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를 본 브라이트는 루쿨루스의 무례한 태도에 분개했다.

“저런 버릇없는 종자를 봤나? 그냥 한대 때려줄 수도 없고. 저런 놈은 콧구멍에다 말벌 침을 싸 넣어야 해!”

한 시간 동안 고된 행군을 한 끝에 루쿨루스는 성벽아래에 남은 2층 건물 아래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안으로 목각인형을 데려갔다. 건물의 입구에는 누추한 차림과 찡그린 얼굴을 한 환자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이 곳이 오늘부터 네가 지내야 할 곳이다. 이곳은 궁 밖에서 사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너는 앞으로 이곳

에 머무르면서 여기 사람들이 시키는 잔심부름을 하면 된다.”

목각인형이 물었다.

“공주님은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죠?”

루쿨루스는 갇은 인상을 쓰며 얼굴을 디밀었다.

“이 비천한 인형 놈아, 내가 충고하겠는데 공주님을 다시 만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여기서 쥘 죽은 듯 찌부러져 살라고. 알겠어?”

루쿨루스는 목각인형을 병원의 책임자에게 데려갔다.

“조세프, 이 놈을 잘 부탁하네. 공주님의 장난감이니 알아서 잘 챙겨주게.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곳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마음 폭 놓으시지요.”

“그럼 자네만 믿겠네.”

루쿨루스가 방을 나가자 통통한 체격에 구레나룻가 멋지게 난 조세프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목각인형에게 다가왔다. 조세프는 웃으며 악수를 건넸다.

“반갑네. 나의 이름은 조세프라네. 보다시피 이 병원에 책임자지. 일손이 많이 모자라니 열심히 도와주게나.”

조세프는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사람처럼 인상이 좋았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도라라고 합니다. 앞으로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성심 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세프는 2층에 단칸방으로 목각인형을 안내했다. 방은 매우 작았고 거친 벽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나있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놓여져 있었다. 조세프는 잠시 밖으로 나가 투박한 옷 세 벌을 가지고 들어왔다.

“목각인형아, 여기서는 이 옷만 입어야 한단다. 네가 여태까지 입었던 옷보다 볼품이 없고 재질도 나쁘지만 여기에 오는 환자들은 네가 입은 화려한 옷보다 이 투박한 흰옷을 더 좋아한단다. 이 흰옷은 특이하게도 환자들의 신뢰를 가져오지. 오늘은 이곳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 옷을 갈아입고 건물을 둘러보도록 해라. 환영인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 이해해주길 바란다.”

“아닙니다. 저도 옷을 곧 갈아입고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세프가 방을 나가자 브라이트가 좁은 방을 둘러보며 불평을 했다.

“쫓쫓, 이런 좁은 방에서 살아야 한다니 참 애석하군. 그나저나 인형친구, 나는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아겠어.”

“어? 그래. 그럼 난 옷을 갈아입고 밑에 내려가서 선생님을 도울 테니 그 동안 꼭 쉬고 있어.”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자 1층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의사들은 위급환자들을 서둘러 수술실로 데려갔고 병원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의사의 수발을 들었다. 목각인형도 간호사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시키는 심부름을 들었다.

밤 10시가 되어서도 병원 밖에 줄을 서고 있는 환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병원을 지키는 경비는 사람들에게 오늘 진료는 끝났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말했다. 이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울며불며 진료를 더 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경비는 진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냉정하게 내치며 쫓아냈다.

환자들이 빠져나간 건물 안은 피곤한 적막이 흘렀다. 여러 명의 의사들은 몹시 지친 듯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휴식을 가졌다. 지쳐서 의자에 앉아있는 목각인형에게 조세프가 다가왔다. 그는 따뜻한 우유한잔을 건네었다.

“어떠한가? 오늘 잠깐 일을 해본 소감이?”

“뭐가 뭔지도 모르게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수의 환자들로 북적거립니까?”

“뭐, 항상 이렇게 북적거리지. 환자들의 수에 비해 의사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네.”

“저번에 캐네스 선생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가본적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여기처럼 바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병문안을 갔던 곳은 돈이 많은 부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설 병원이라네. 그리고 그날은 에이미 공주님이 병원을 방문한다고 해서 하루 동안 환자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네.”

“저번 병문안에 그런 사정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겠지. 인형 친구, 내 한가지 말해 줄 것이 있네.”

“네. 말씀하세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료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하층민들이라네. 그들은 하루 세끼를 챙겨먹기도 힘든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러니 몸이 많이 힘들더라도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 성심껏 보살펴주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조세프는 피로 얼룩진 옷을 벗어서 간호사에게 주었다. 그는 찢뚝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다.

목각인형도 2층에 마련된 좁은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브라이트의 코고는 소리가 뽁뽁하게 메아리쳤다.

“드르렁 드르렁. 비스킷야! 어디를 가느거여……. 음냐, 너무 맛있떠. 드르렁 드르렁. 마디따. 마디떠.”

“훗,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네.”

목각인형은 브라이트가 깨지 않도록 창문을 열고 조용히 열고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높고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낮선 곳에서 하루는 눈 깜작 할 사이에 지나갔다. 나를 향해 항상 환하게 웃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천장만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오로지 전할 수 없는 마음뿐이었다.’

목각인형이 궁 밖의 병원으로 거처를 옮긴지 이 주일이 지났다.

아침 해가 뜨자 에이미는 몸을 뒤척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피곤한 듯 눈을 반쯤 감고 습관적으로 목각인형을 불렀다.

“아도라, 나 몰.”

하지만 목각인형의 대답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항상 앉아있던 의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내 정신 좀 봐. 아도라는 여기에 없지.”

에이미는 한숨을 쉬며 창문을 열었다.

“후유, 아도라를 못 본지 벌써 2 주나 됐네. 지금쯤 아도라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겠지?”

에이미는 화가가 그려준 작은 그림을 꺼내었다. 작은 그림 속에 목각인형은 언제나 그랬듯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겨주었다. 그녀는 그림 속 목각인형에게 말을 걸었다.

“아도라, 잘 잤어? 오늘 난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드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고 있어. 다행히도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분다.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쯤 너도 이 바람을 맞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겠지?”

에이미는 고개를 내밀어 창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예전에 어린 아이들과 눈싸움을 했던 공터가 눈에 들어왔다.

“아도라, 저기서 꼬마 귀족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놀았던 거 기억나니? 그때 네가 날 마귀할머니라 놀려서 내가 네 얼굴에 눈 뭉치를 제대로 맞쳤잖아. 그때 네 표정 정말 웃겼었는데. 아, 이 곳에는 너와 함께 했던 추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든 무슨 일을 하던 과거 너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가.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우울해질 때 곁에서 나를 웃게 만들던 네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이나. 네가 내 옆에 없으니까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정말이지 너무 보고 싶어.”

잠시 뒤, 로이스가 방으로 들어왔다.

“공주님, 아침 일찍 무엇을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세요? 밖에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벌어졌나요?”

로이스가 도착하자마자 에이미는 로이스에게 달려가 물었다.

“아니, 그냥. 심심해서. 근데 로이스, 저기 내가 부탁한 것은 알아봤어?”

“네, 그게 알아보긴 했는데요.”

“그래서 아도라가 어디 묵고 있는지 알아냈어?”

“죄송해요. 저도 사방팔방으로 알아봤지만 목각인형이 묵고 있는 곳은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제가 안간힘을 써서 알아내려고 했지만 목각인형의 거취 문제는 루쿨루스 장군님의 소관이라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편지라도 보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아니 작은 소식이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이 기뻐 텐데.”

실망낙담 해 있는 에이미를 로이스가 다독였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율리우스 전하께서 다시 목각인형을 불러 오실 거예요. 이제 소문도 거의 잠잠해 지고 있으니깐 며칠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자, 기운을 내세요!”

같은 시간, 궁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국영병원에서 목각인형은 옷을 입고 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조세프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올라와 방문을 두드렸다.

“인형 친구, 아직 준비가 덜 됐나? 환자가 줄을 서기 시작했어. 오늘은 아침부터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군. 어서 서두르게나.”

“예, 지금 내려갑니다.”

목각인형은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건물 안은 어느새 환자들로 북적거렸다. 목각인형은 분주히 움직이며 환자들을 정성스레 보살폈다. 바쁜 오전 진료가 끝나자

그는 잠시 건물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었다. 조세프가 얼굴의 땀을 닦으며 불편한 걸음으로 건물에서 나왔다.

목각인형이 조세프에게 물었다.

“요 며칠 사이에 환자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서 그런 건가요?”

조세프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닐세, 여기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병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겨울 때문에 환자가 늘었다면 감기환자나 동상환자가 늘어야 하지. 요즘 환자들이 느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란단다.”

“다른 이유요?”

조세프는 주위에 있는 환자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게 말이지, 사실 환자가 늘기 시작한 것은 작년 겨울부터라네. 그 때부터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증상으로 오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했지. 그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환자들은 처음에는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슴의 통증을 호소했다네. 그러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게 되면 그들은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피를 토하고 죽었지. 저기 누워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라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환자들에게는 백약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참으로 애석하기만 한일이지.”

“그런 병이 퍼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내셨나요?”

“췌! 말 소리가 너무 커. 환자들이 듣겠네. 소리를 좀 낮추게.”

조세프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저기 보이는 매혹의 연기상자가 들어온 뒤로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야.”

“매혹의 연기상자라고요? 그게 뭔가요?”

“매혹의 연기상자가 뭐냐고? 바로 저걸세.”

조세프는 벽에 붙어 있는 광고물을 손으로 가리켰다.

목각인형은 조세프가 손으로 가리킨 광고물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모든 건물의 벽에는 커다란 광고물이 붙어있었다. 조잡하게 인쇄된 그 광고물에는 ‘매혹의 연기상자, 당신의 힘든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감미롭고 달콤한 향을 맡게 되는 순간, 당신의 고민과 스트레스는 모두 어두운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

“히히히. 저 포스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 제품에 관심이 생기셨나 보군요. 조세프 병원장님.”

얼굴은 창백하게 하얗고 코가 마치 바나나처럼 길쭉하게 생긴 남자가 조세프와 목각인형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조세프는 방금 등장한 남자가 아니꼬운지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왔는가?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어서 돌아가게.”

“히히히. 온지 얼마 돼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쫓으시려고 합니까? 오늘은 그럴 줄 알고 특별한 용무를 온 몸에 단단히 두르고 왔습죠. 히히히.”

저질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서 있는 남자의 이름은 베시우스였다. 머리는 머리카락을 모두 뒤로 빗어 넘겼고 그 넘긴 머리에 기름을 온통 발라 반짝반짝 윤이 났다. 그의 눈은 참으로 보기가 흉했는데 오른 쪽 눈은 평범했지만 왼쪽 눈은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심하게 돌아간 사시였다. 몸은 마치 뼈다귀를 보는 것처럼 볼품없이 매우 뼈쩍 말랐다. 그는 연신 고개를 흔들며 양손을 비벼댔다.

“무슨 용건인가? 시간 끌지 말고 어서 말하게.”

“히히히. 병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이 병원의 운영비 중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히히. 그럴죠. 이 병원은 우리의 도움 없이 운영조차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병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병원은 우리를 썩 내켜 하지 않는 듯싶습니다. 아니, 병원이 아니라 소수의 의사와 병원장이라고 해야 하나? 히히히.”

조세프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아닐세. 자네 회사가 이 병원에 보내는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네.”

“히히히. 병원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군요. 아! 이야기가 자꾸만 다른 데로 새고 있네요. 히히히.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매혹의 연기상자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요사이 못된 협잡꾼들이 우리의 제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회사가 아~주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곳에 우리 제품이 안전하다는 홍보 포스터를 붙였으면 합니다.”

“무슨 소린가! 우리 병원에서 매혹의 연기상자를 홍보하잔 말인가! 내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네. 나는 매혹의 연기상자가 사람의 건강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물건이라 생각하고 있소. 그러니 두 번 다시 그런 부탁을 하지 말게!”

베시우스는 조세프의 비난에 질색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이런 죽일…….”

베시우스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본 성격이 나와버렸지만 곧장 태도를 바로 잡았다.

“아니, 히히히. 병원장님, 그렇다면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히히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아무래도 이번 달 지원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대폭 삭감될 것 같네요. 히히히.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습죠. 히히히.”

말을 마치자 베시우스는 일행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베시우스가 사라지자 조세프는 땅을 치며 분개했다.

“지원을 핑계로 우릴 협박하려 하다니 이런 몸쓸 놈 같으니라고!”

목각인형은 조세프를 진정시키며 물었다.

“병원장님, 저 사람이 누군가요?”

“저 놈은 매혹의 연기상자를 판매하는 회사의 사장이란다. 가까이 해서는 안될 악마의 상인이지.”

목각인형은 병원의 건너편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응시했다.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매혹의 연기상자는 고운 포장지로 꾸려져 있었는데 그 포장지에는 예쁜 소녀가 활짝 웃으며 제품을 들고 있었다.

‘감미롭고 달콤한 향을 맡게 되는 순간, 당신의 고민과 스트레스는 모두 어두운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달이 어두운 밤하늘 높게 휘영청 밝게 떠오르자 밀려드는 환자로 분주했던 병원에도 적막이 찾아왔다. 목각인형은 힘든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갔다. 브라이트는 두꺼운 책 위에 앉아 목각인형을 반갑게 맞이했다.

“인형친구, 오늘도 많이 수고 하셨네.”

“브라이트, 못 보던 책이네?”

“아! 이 책을 말하는 건가? 오늘 너무 심심해서 병원 이곳 저곳을 둘러보던 중에 바닥에 떨어져있는 이 책을 우연히 발견했지. 먼지가 쌓인 체로 놓여져 있길래 내가 그냥 가졌네. 내 이 책을 방까지 옮기느라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네. 지금도 허기가 육신육신 쑤신다네.”

“근데 왜 그 책을 가지고 온 거야? 책을 읽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은 아닐 거고. 도대체 책 위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브라이트는 책 위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그리고 한심하다는 듯 목각인형을 바라보았다.

“허허, 이 친구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나는 책 위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 바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네. 몸이 작고 책은 크니 올라가서 읽을 수밖에 없지를 않는가? 그건 그렇고 이 책 상당히

재미있는걸.”

목각인형은 브라이트의 말에 깜작 놀라며 물었다.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고? 브라이트, 진짜로 글을 읽을 줄 알아?”

그러자 브라이트가 목각인형에게 날개를 퍼덕이며 다가왔다.

“물론이지. 나를 뭐로 보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건가? 요새는 무식한 들짐승들도 3개 국어를 하는 판에 말이야. 혹시 자네는 글을 읽지 못하는가?”

“응, 아직 배우지 못했어.”

브라이트는 뒷짐을 지고 목각인형을 거만하게 올려다 보았다.

“허허, 이런 무식한 자를 보았는가? 자네가 나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이 심히 부끄럽구먼.”

“글을 읽을 줄 안다니 정말로 대단하다.”

“허허, 뭐 이런걸 가지고.”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혹시 글도 쓸 수 있어?”

“이런 답답한 친구 같으니라고. 글을 쓰려면 펜을 잡아야 하는데 너 같으면 이 우아하고 멋진 날개를 글을 쓰는 데 흑사시키겠냐? 그건 좀 품이 안 나잖아.”

“하긴 그 작은 날개로 글을 쓰기는 좀 어렵겠다. 근데 브라이트, 내가 한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부탁? 무슨 부탁?”

“나 예전부터 공주님에게 편지를 쓸려고 했는데 내가 글을 모르니 쓸 방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네가 편지를 쓰는 것을 좀 도와주라. 내가 문장을 말하면 네가 그 책에서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줘. 그러면 내가 종이에 그 글자를 옮겨 그릴 테니까.”

브라이트는 한참을 빼다가 불쌍한 농 도와준다는 심보로 마지 못해 승낙했다.

“허허, 이렇게 번거로운 부탁을 들어줘야 하다니 유식한 게 죄지. 알겠네. 그럼 내가 내일부터 편지 쓰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

지. 자네는 참으로 운도 좋아. 이렇게 훌륭한 친구를 옆에 둘 수 있으니 말이야. 하하하.”

브라이트는 긴 날개로 마치 수영을 쓰다듬듯 턱을 매만지며 크게 웃었다.

달이 검은 하늘을 가로질러 질주하듯 사라지자 수도에서 세 번째로 큰 대저택의 하인들은 때 아닌 외출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 남자가 널찍한 마당 한 가운데에 서서 더 빨리 일하지 못하느냐고 하인들을 다그쳤다. 그는 바로 루쿨루스였다.

“어서 움직여라. 어어, 이 녀석, 꽃이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거기서 일하는 놈. 일루 와봐. 야, 이 멍청한 자식아, 그런 못생긴 꽃을 가져가면 공주님이 좋아하겠나?”

두 시간가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욕을 퍼부은 끝에 에이미에게 보낼 꽃다발이 완성되었다. 루쿨루스는 공주에게 보낼 선물이 멋지게 만들어지자 내심 흡족한 듯 미소를 연신 띠었다.

“이 정도 선물이면 공주님의 마음도 당장 내 것이 되겠군.”

루쿨루스는 선물을 마차에 싣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린 채 에이미가 공부를 하는 배움터로 갔다. 배움터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는 건물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어디 보자,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나 보군. 음……. 수업 분위기가 좋은 것을 보니 공주님의 기분이 좋은 것 같군. 참으로 다행이야. 하늘이 나를 도와주시는 군.”

루쿨루스는 수업이 끝나기를 건물 밖에서 기다렸다. 그는 건물 주변을 서성이며 옷 매무새를 수십 번 다시 다듬었다. 한 30분 정도를 기다리자 수업이 끝났고 에이미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건물 밖에서 루쿨루스가 있는 것을 보자 매우 의아해했다.

“루쿨루스 경, 참으로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루쿨루스는 목소리를 느끼하게 깔며 대답했다.

“저번에 공주님을 안전하게 호위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기 위해서 예의와 염치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사죄를 해야죠. 제가 막무가내로 행동을 해서 루쿨루스 경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를 두둔해주시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공주님에게 지난 일을 사죄하는 의미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를 했으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루쿨루스는 손뼉을 쳐서 뒤에 서있는 하인들에게 신호를 내렸다.

“여봐라, 선물을 이리 가지고 오너라.”

하인들은 아침에 열심히 준비한 꽃을 한아름씩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 꽃들은 하나같이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고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 정도로 화려한 색을 띠고 있었다.

“어머! 꽃이네요.”

에이미는 하인들이 들고 있는 많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크게 반색했다. 그녀는 선물이 몹시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정말로 이 많은 꽃을 저에게 다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 공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에이미는 꽃 한아름 중에서 백합 한 송이를 빼어 들고 향기를 맡았다. 그녀는 백합 향기에 흠뻑 취했다.

“아직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거죠?”

“아마 공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꽃들이 계절도 잊었나 봅니다.”

“아이, 루쿨루스 경도 참~”

루쿨루스의 대답에 기분이 좋아진 듯 에이미는 싱글벙글 미소를 지었다.

“뭐, 로맨틱하진 않지만 방금 전 공주님의 사전적으로 대답한

다면 이 꽃은 온실에서 키운 것들입니다.”

“온실이라니요?”

“햇빛, 습도,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앞에서 말한 세가지 조건을 조절할 수 있는 작은 건물이 있지요. 그곳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좋네요. 루쿨루스 경은 참으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사시사철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주님께서는 정말로 꽃을 사랑하시는 가 보군요. 음, 그런데 공주님도 사시사철 꽃을 보셔야 할 텐데. 아하! 아주 좋은 생각이 떠 올랐네요. 오늘부터 제가 매일마다 이 아름다운 꽃을 공주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주신다면야 한없이 기쁘겠지만 루쿨루스 경이 매우 번거롭고 귀찮으실 텐데.”

“번거롭고 귀찮다니요? 공주님께 작은 기쁨을 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아부에 살며시 웃었다.

“저를 그토록 생각해주시다니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루쿨루스 경은 좋은 사람 같아요.”

“저를 좋게 봐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루쿨루스는 에이미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녀의 방으로 꽃을 옮겼다. 그는 옆에서 걸어가는 에이미를 바라보며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한걸음씩 그대의 마음을 쟁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공주여.’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목각인형은 브라이트의 우렁찬 코를 고는 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이했다. 그는 온몸이 뻣적지근해서 크게

기지개를 켜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음, 시원하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달리 날씨가 포근하네. 이제 봄이 오는구나.”

“쩍쩍, 인형 친구우, 아침부터 왜이리 소란을 피우나?”

브라이트는 크게 하품을 하며 일어났다. 그는 졸린 듯 눈을 비비며 이불을 겹쳤다.

“깼어? 그냥 평소처럼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브라이트는 잠이 덜 깬 듯 벽에 기대어 쉬었다. 그리고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며 깃털을 다듬었다.

“인형 친구우, 오늘 나 말이야, 이 좁은 방안을 벗어나 네 왕 초에게 가볼 생각이야. 공주가 예전에 주었던 맛있는 비스킷도 생각이 나서.”

“공주님에게 간다고? 근데 어떻게 이 방을 나가려고? 나는 이 병원 밖으로 나가면 안돼. 안됐지만 나는 너를 공주님의 방까지 데려다 줄 수가 없어.”

브라이트는 목각인형의 걱정이 가소롭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이 친구 좀 보게. 내가 누군가? 그건 나에게 말기고 어서 창문이나 좀 열어주게나.”

“창문? 창문은 열려있는데?”

“그래? 내가 잠결에 그걸 확인하지 못했군. 자, 저리 좀 비켜주게나. 내 잠깐 할 일이 있다네.”

목각인형이 자리를 비키자 브라이트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얼마 뒤 커다란 비둘기 한 마리가 방안으로 날아들어왔다.

브라이트가 목각인형에게 비둘기를 소개했다.

“인형친구. 어서 인사하게. 나의 새로운 하인이자 친구인 비둘기라네.”

목각인형은 비둘기가 날아든 영문을 통 몰랐지만 우선 비둘기

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도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브라이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과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다니요.”

“네? 바보 같은 사랑이요?”

비둘기의 말에 목각인형이 브라이트를 찌려보았다. 그러자 브라이트가 눈치 없는 비둘기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핀잔을 주었다.

“이런 개념 없는 비둘기 같으니라고. 그건 그렇고 인형 친구, 나는 지금 네 왕초를 만나러 갈 거니까 전해줄게 있으면 지금 나에게 주게나.”

“정말? 잠시만 기다려줘. 잠시면 돼.”

목각인형은 며칠 전부터 브라이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편지를 책상에서 꺼냈다. 그는 그 편지를 브라이트의 발에다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었다.

“음, 발에다가 편지를 묶으니 꽤나 불편하구먼. 하지만 내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쯤은 참아 줄 수 있지. 어이 비둘기 친구, 어서 공주의 방으로 가세.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갈 방에는 맛있는 비스킷이 산처럼 쌓여있다는네.”

“정말? 그럼 어서 가자고. 나 배고파 죽겠어.”

둘은 서로 군침을 삼키며 창 밖으로 날아갔다.

두 새가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자 목각인형은 두 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흔들었다. 그리고 브라이트의 최종 행선지인 궁전을 바라보며 감상에 빠졌다.

“에이미 공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지, 몸이 아프진 않으신지, 제 생각은 하시는지, 공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너무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공주님.”

브라이트는 비둘기에 올라타 에이미의 방을 향해 날아갔다. 비둘기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시간 정도 힘겹게 날갯짓을 하자 거

우 에이미의 방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방 안에는 공주가 보이지 않았다.

“낭패다. 방에 공주가 없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줄이야. 눈앞에 맛있는 과자가 저렇게 뽕뽕하게 보이는데.”

“브라이트, 문을 좀 열어봐. 나 배고파 죽겠어.”

“이 무식한 것아, 누구는 그렇고 싶지 않아 이려고 멀뚱히 있는 줄 아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문을 열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공주를 찾아야겠다. 가만있어보자. 지금쯤 공주는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 배움터로 가면 공주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비둘기 친구, 저기 저 건물로 가세. 고고고.”

브라이트와 비둘기는 방향을 바꿔 배움터로 날아갔다.

그 시간, 에이미는 메기가 가르치는 자수 수업을 받고 있었다.

“찾았다. 저기다. 저기. 비둘기 친구, 저 건물 안에 있는 여자가 공주야. 보이지? 어서 저 여자한테 가자고.”

“응, 알았어. 근데 뚱뚱한 여자가 우리 길을 가로 막는데?”

“그냥 무시해. 그럼 비스킷을 향해 돌진!”

브라이트와 비둘기는 메기를 향해 쏙살같이 돌진하다 메기의 코앞에서 몸을 틀어 방향을 바꾸었다. 메기는 비둘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기겁을 하며 방구석으로 도망쳤다.

“까아아아, 이건 뭐야? 저리가! 저리 가라고!”

비둘기는 날개를 퍼덕이며 교실 천장을 한 바퀴 빙글빙글 돌고 에이미의 책상에 사뿐히 착지했다. 에이미는 건물 안으로 날아든 비둘기에 호기심을 느꼈다.

“어머, 웬 비둘기지? 비둘기야, 여기에 이렇게 무턱대고 들어와서는 안돼. 어라? 등위에 저건 뭐지? 작은 새인 것 같은데. 어머! 브라이트? 너는 브라이트가 아니니? 이게 얼마만이야?”

에이미는 브라이트가 몹시 반가운지 브라이트를 살며시 손에 들어 얼굴에 비볐다.

“으으, 비비지마. 안돼. 나의 멋진 깃털이 다 상한다고! 이 무

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제발 그만 나를 나줘.”

브라이트가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친 보람이 있었는지 에이미는 브라이트를 책상 위에도 살포시 내려놓았다. 브라이트는 거친 환대에 정신이 아찔한지 몸을 빙글빙글 돌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정신을 바로잡자마자 브라이트는 날개를 크게 휘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시오, 공주. 뭐 내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인형 친구의 편지를 가지고 왔소. 역시나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군. 이거 말이 안 통하니 이제 남은 방법이라고는 손짓,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아, 이거 괜히 쑥스럽구먼. 차라리 엉덩이로 이름을 쓰는 것이 보기에 더 좋겠어. 쫓쫓.”

브라이트는 고개를 숙여 부리로 발에 묶여있는 편지를 가리키며 빙글빙글 돌았다.

“브라이트? 갑자기 왜 그래? 어라? 애가 왜 뜬금없이 이러지?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에이미는 브라이트의 이상한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더니 발에 묶여있는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 웬 종이가 여기 묶여있지? 혹시…….”

에이미가 브라이트의 다리에 묶여있는 종이를 풀려고 할 때, 겁에 질려 얼찌감치 피해있던 메기가 빗자루를 들고 두 새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세차게 휘둘러 비둘기와 브라이트를 쫓아냈다.

“에이미 공주님, 잠시 비켜주세요! 이런 건방진 새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날아드는 게냐!”

브라이트는 놀라며 비둘기 등에 얼른 탔다.

“이게 웬 날벼락이야! 친구, 어서 도망치자. 저러다 저 여자에게 맞아 죽을 지도 몰라.”

비둘기는 메기가 휘두르는 빗자루를 피해 건물 밖으로 쏜살같이 날아갔다. 식은땀을 뒹으며 브라이트가 비둘기에게 말했다.

“저 뚱뚱한 여자는 몸매에 비해 몸이 상당히 날렵하군. 그건 그렇고 감히 우리를 내쫓다니 저 여자는 참으로 성격이 모질군. 과파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근데 브라이트, 맛있는 비스킷은 언제 주는 거? 나 배고파.”

“이런 생각 없는 밥통 같으니. 너는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하나? 조금만 기다려. 저 뚱뚱한 선생의 수업이 끝나면 저 아리따운 공주가 우리를 데리고 그녀의 방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에 가면 배터져 죽을 만큼에 비스킷이 싸여있다고. 흐흐.”

두 새는 서로를 바라보며 군침을 삼켰다.

“메기 선생님, 제발 진정하세요. 저 새들은 제가 키우는 새들이라고요.”

에이미는 메기 여사를 진정시키며 빗자루를 빼앗았다. 그리고 비둘기와 브라이트가 도망을 가지 않고 창문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휴, 다행이다. 브라이트, 조금만 있으면 수업이 끝나니까 심심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브라이트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끝나자 에이미는 두 새를 데리고 방으로 달려갔다. 방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브라이트 발에 묶여있던 종이를 풀었다. 다리에 족쇄가 풀리자 브라이트는 선반 위에 놓여있는 과자 통을 향해 쩍싸게 뛰었다. 에이미는 서둘러 여러 번 꺾어서 접힌 종이를 빠르게 폈다. 그 편지에는 목각인형의 서투른 글씨가 빼뿔 빼뿔 적혀있었다. 편지 하단부에 ‘아도라 올림’이란 문장을 보자마자 그녀는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

“브라이트, 아도라가 쓴 편지를 가지고 왔구나. 고마워. 고마워.”

에이미는 편지를 읽어내려 갔다.

“에이미 공주님, 저는 궁의 밖에 위치해 있는 병원에 묵고 있

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시키는 잔심부름들을 도맡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려서 쉴 시간이 거의 없답니다. 모두들 저에게 가족처럼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에이미 공주님의 소식이 몹시 궁금합니다. 어디는 아프시지 않은지,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시는 않은지, 수업은 재미있으신지, 되도록이면 빨리 공주님의 편지를 받아보고 싶네요. 보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주님만을 생각하는 아도라가.”

에이미는 편지를 수십 번을 읽은 후에야 겨우 편지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아도라,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보아하니 국영 병원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많은 환자들을 보살피려면 많이 힘들겠다. 아차, 가만이 이렇게 감상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지. 나도 어서 아도라에게 답장을 써야지.”

에이미는 의자에 앉아 종이를 펼치고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글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답답한 듯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신을 닦았다.

“아이, 이 돌머리. 어서 답장을 써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하지? 편지를 쓰지가 하도 오래돼서 뭘 써야 할지 도무지 감을 못 잡겠어.”

에이미는 한 시간 동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에 매달린 끝에 겨우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붓 놀림은 설레는 그 마음처럼 가만이 움직이질 못하고 자주 떨렸다.

브라이트는 커다란 쟁반에 담겨 있는 비스킷을 쪼아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친구, 어때? 맛있지? 아구. 아구.”

“응. 너무 너무 맛있어. 역시 너는 대단한 친구야. 이런 곳까지 알고 있고. 짹. 짹.”

흰 비둘기는 아예 쟁반위로 올라가 체면을 차리지 않고 비스킷을 마구 먹었다. 과자의 달콤함에 두 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입을 헤 벌리며 행복에 젖었다.

시간이 흘러 두 새의 먹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자 에이미가 브라이트에게 다가와서 부탁했다.

“브라이트, 먹는 데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이 편지를 아도라에게 전해줄 수 없겠니?”

브라이트는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미는 곧장 편지를 브라이트의 발에 묶었다. 브라이트는 입에 물은 과자를 긴 날개를 움직이며 털어내고 비둘기 등에 올라탔다. 비둘기는 아직도 정신 없이 과자를 먹고 있었다. 브라이트가 비둘기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이 먹보 비둘기야! 그만 좀 쳐먹어라! 공주가 특별한 부탁을 했으니 인형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지금 가야 해. 그러니 작작 좀 먹고 그만 출발하자.”

“아우……알……아……떠.”

비둘기는 입에다 과자를 가득 문체로 하늘을 날아올랐다.

“브라이트, 다음에는 더 맛있는 과자를 준비해둘게. 그러니 편지를 잘 좀 전해줘”

에이미는 크게 손짓을 하며 브라이트를 떠나 보냈다.

그 시간 궁의 다른 한편에서는 뜻하지 않은 소님이 가지고 온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우왕자왕했다. 오전까지 평온했던 궁의 분위기는 얼음왕자의 사신이 불시에 궁을 방문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험악해졌다. 얼음왕자의 사신이 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궁 안에 퍼졌고 모든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율리우스는 대신들과의 회의를 중단하고 사신을 접대했다. 왕과 대신들은 모두 사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마르켈루스는 서신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사신은 거만하게 얼음왕자가 작성한 서신을 읽기 시작했다.

“왕 중의 왕, 온 땅의 주인이 명하노라. 짐은 율리우스 왕에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노라. 첫째, 지금 국경지대에 몰래 양성되고 있는 십 만의 병사들을 즉각 해산시킬 것. 둘째, 조약을 어긴 대가로 에이미 공주를 인질로 보낼 것. 이 두 가지를 즉각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목숨은 위태로울 것이고 그대의 왕국은 파괴를 면치 어려울 것이다.”

사신이 서신을 다 읽자 율리우스와 대신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심각하게 일그러졌다. 걱정과 두려움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휘몰아친 그 순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얼음왕자의 마수가 왕국에 뻗치기 시작했다.

CHAPTER THIRTEEN

불길 속으로

“사랑이 나를 부른다면 설령 그 곳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길에 끔직한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절대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신이 돌아가자마자 율리우스는 모든 대신들을 긴급히 소집했다. 이내 궁전은 대신들의 격렬한 논쟁 소리로 인해 마치 시장 바닥처럼 무질서하게 시끄러웠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주장을 소리쳤고 상대방의 의견에 비난하는 논조로 노래를 부르는 듯 따져 물었다. 그들의 중심에 앉아있는 율리우스는 대신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쓰며 들었다.

한 대신이 일어나 말했다.

“전하, 송구스럽지만 얼음왕자의 요구대로 에이미 공주님을 인질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얼음왕자에게 대항할 만큼 국력이 세질 않습니다. 만약 그들의 뜻을 거스른다면 얼음왕자는 대규모 군대로 우리 땅을 다시 유린할 것입니다.”

많은 대신들이 의견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오. 하지만 어찌 공주를 사지로 보낸단 말인가?”

“전하, 대사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주를 보내고 왕국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것 역시 값진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대신의 말을 들은 루쿨루스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신에게 샷대질을 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요! 공주님을 지켜주질 못할 망정 사지로 보내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찌 굴욕적인 평화만을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얼음왕자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얼음왕자의 영토를 먼저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문제를 외교로 풀려고 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루쿨루스의 의견에 화가 난 대신이 일어나 맥살을 잡으며 소리

쳤다.

“자네는 이 왕국을 망하게 만들 속셈인가! 우리나라의 군사로 얼음왕자의 막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자네가 주장하는 전쟁은 우리나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네.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면 백성들은 살육을 당할 것이고 유구한 역사는 그들의 칼에 찢어지고 불태워질 것이네. 나는 이 나라를 걸고 도박을 하려는 자네를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야!”

“얼음왕자는 우리가 조약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우리 왕국을 침략할 것입니다. 이 문서는 그저 트집을 잡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대신이 벌떡 일어나 루쿨루스의 발언에 이견을 개진했다.

“전하, 미천한 저의 생각으로는 얼음왕자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 선부른 행동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국경의 수비를 보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경 지대에 빈틈없이 세워진 성의 그물망을 얼음왕자라고 해도 쉽사리 뚫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방어가 견고해지면 아무리 얼음왕자라고 해도 선불리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율리우스 왕은 그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는 말ियो.”

하지만 루쿨루스는 강하게 반대했다.

“경은 십 년 전 일을 잊었던 말ियो! 십 년 전, 우리나라는 국경지대에 건설된 많은 성을 믿고 방어에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얼음왕자는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방어를 뚫고는 수도로 빠르게 진군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우리를 가르쳤는데 또 다시 실수를 저지르자는 것입니까?”

이에 옆에 있는 대신이 루쿨루스에게 물었다.

“자네의 말은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하자는 건가? 이 왕국의 존망을 걸고? 그럼 자네는 우리가 만약 먼저 공격을 한다면

얼음왕자의 막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장담을 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이 루쿨루스의 말을 잘랐다.

“루쿨루스 장군, 자네는 너무 가정을 좋아하는 군. 내가 보기에 자네는 왕국의 존망보다는 아버지의 복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안다면 모든 장군들과 대신들이 반대하는 그런 무모한 작전계획을 끈질기게 주장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아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수 때문이라니요! 제가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놈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화를 내지 말고 진정을 좀 하게나. 여기는 사적인 장소처럼 울분을 쏟아내는 장소가 아니니 말아야. 하하하.”

“으…….”

루쿨루스는 대신의 비아냥에 분노가 폭발했지만 그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몹시 험악해지자 마르켈루스가 두 사람을 진정시켰다.

“자자, 두 분 모두 마음을 추스르시고 진정을 좀 하십시오. 전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이래서는 이성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리우스가 마르켈루스의 말의 힘을 보탤다.

“그렇소. 마르켈루스 경의 말이 전적으로 옳소.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소.”

루쿨루스는 회의실을 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 끝으로 혼자 걸어갔다. 그는 아까 대신의 반박에 속이 상한 듯 연신 인상을 쓰며 씩씩거렸다.

“젠장 할 자식! 뭐 사적인 일도 구분을 못하는 놈이라고! 똥린 입이라고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막 쏟아내다니.”

마르켈루스가 몰래 뒤따라와 말을 걸었다.

“루쿨루스 경, 아까 대신의 말이 아직까지 거슬리는 가 보구려.”

“아, 아닙니다, 마르켈루스 경. 아까는 제가 주제도 모르고 소란을 피운 것 같습니다.”

“소란을 피우다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루쿨루스 경의 분석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했소. 저는 경이 세운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하오. 저도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라도 열음왕자의 침략을 막거나 멈출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오. 다들 대신들은 루쿨루스 경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일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한탄스럽기 그지없소.”

마르켈루스는 루쿨루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위를 맞췄다. 그 행동이 얼마나 감쪽같고 치밀한지 눈치가 빠른 루쿨루스조차 그런 김새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부족한 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르켈루스 경께서 저의 생각에 동조를 해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안심이 됩니다.”

“천군만마라니요? 제가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된다니 그저 기쁠 뿐입니다. 그러나 루쿨루스 경, 제가 주제넘은 행동이지만 허락을 해주시면 한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주제넘은 행동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조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르켈루스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이 루쿨루스 귀에 속삭였다.

“루쿨루스 경, 이 다음 회의 시간에는 의견을 주장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전하께서는 아직 귀하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전하를 천천히 설득하겠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조금 기운 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내놓으신다면 분명히 전하께서도 귀

하의 의견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루쿨루스는 마르켈루스의 조언을 곰곰이 생각했다.

“예, 마르켈루스 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하께 잘 좀 말씀해주십시오.”

“하하하.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자, 쉬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 다시 안으로 들어갑시다.”

루쿨루스는 계속 거듭되는 마르켈루스의 호의가 찜찜했지만 그의 말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었으므로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본능적인 의심은 그의 마음을 어쩔 수 없이 불안하게 했다.

만물의 새로운 탄생을 축복하는 봄이 오자 에이미는 바쁜 수업을 모두 빼고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목각인형의 일을 제외하고는 큰 걱정이 없이 평온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얼음왕자의 서신 내용이 회의에 참가한 대신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내용은 국가의 중대 기밀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함부로 누설하려 하지 않았다. 에이미도 얼음왕자가 자신을 인질로 원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다.

한편으로 오늘 에이미는 루쿨루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가 겨울 내내 무상으로 아름다운 꽃을 공급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였다.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자 루쿨루스는 한껏 차려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된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한 루쿨루스는 에이미가 오기를 기다렸다. 곧 에이미가 나타났다.

루쿨루스는 에이미를 보자마자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살며시 키스했다.

“에이미 공주님, 보잘것없는 장수에게 이런 만찬을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장수라니요? 루쿨루스 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장군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너무 낮추시는 군요. 어서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지만 입에 맞으실 줄 모르겠네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군요.”

두 사람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서로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역사와 시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역사와 시에 대해 상당한 흥미가 있고 그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루쿨루스가 수저를 내려놓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에이미가 물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시기에 그리 큰 한숨을 쉬시나요?”

“저의 짧은 행복이 이제 곧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으로 답답함이 밀려들어오는 군요.”

“짧은 행복이라니요?”

“요 몇 주 동안 에이미 공주님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찾아왔으니 공주님께 더 이상 꽃 송이를 전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드네요.”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저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루쿨루스 경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외로운 궁전생활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공주님에게 도움을 드렸다니 저 스스로 너무 뿌듯하군요. 아차! 제가 공주님과 대화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잊어먹고 있었네요?”

“중요한 일이라니요?”

루쿨루스는 주머니 속에서 붉은 비단으로 단정하게 포장되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내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에이미에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 작은 상자를 건네었다.

“이 작은 상자는 훌륭한 만찬에 초대를 해주신 공주님께 드리는 저의 작은 선물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니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에이미는 고개를 살며시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선물을 건네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비단 포장을 벗겨내고 상자를 열어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 상자 안에는 작은 목거리가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목거리 중앙에는 커다란 물방울 모양에 다이아몬드가 영롱하게 빛을 내며 반짝거렸다. 에이미는 매혹적인 빛을 발하는 목걸이를 보자 얼굴에 희색이 가득했다.

“어머! 어쩔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나.”

에이미가 매우 기뻐하자 루쿨루스의 얼굴에는 미소가 살며시 떠올랐다.

“공주님,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매혹적인 목걸이는 처음 보아요. 이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는 다른 보석들이 무색할 정도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군요.”

루쿨루스는 에이미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부탁했다.

“무례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공주님 목에다 손수 목걸이를 걸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에이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몸을 뒤로 돌아서서 머리카락을 들어올렸다. 루쿨루스의 눈에 눈처럼 하얀 공주의 목이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채웠다. 에이미의 티 하나 없이 맑은 얼굴은 반짝이는 목걸이와 어우러져 한 폭에 여신을 보는 것 같았다. 루쿨루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폭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에이미 공주님,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귀중한 물건을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

다. 루쿨루스 경.”

에이미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바라 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빨리 보여주고 싶네요. 이 목걸이를 찬 제 모습ைய요.”

에이미의 아리송한 말에 루쿨루스가 물었다.

“보여주고 싶다니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질문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아도라에게 지금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 네요.”

순간 루쿨루스는 가슴을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부르르 떨며 아버지의 칼을 매만졌다. 그는 부서지는 가슴을 추슬렀다.

‘공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목각인형이라니. 아직도 나는 공주님의 마음, 그 주변을 떠도는 사람으로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건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아닌 하찮은 목각 인형에게 밀렸단 말인가! 정녕 공주님은 나는 눈에 차지 않는 단 말인가! 공주님의 마음 속에 목각인형만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한가지로군. 공주님의 마음에 오직 한 사람 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로 내가 되어야 해. 얼음왕자도 목각인형도 절대로 나에게서 공주님을 빼앗아갈 수 없어!’

다음날 저녁 마르켈루스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루쿨루스의 저택을 불쑥 찾아왔다. 그는 큰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단 한 명에 호위병사와 하인도 없이 홀로 저택을 방문했다. 더욱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검은 외투를 걸쳤고 긴 책이 달린 모자를 꼭 눌러써 얼굴을 가렸다. 그는 마치 노름판을 떠돌 아다니고 싸움터를 쫓아다니는 험잡꾼처럼 은밀하게 어둠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루쿨루스는 마르켈루스에 갑작스런 방문에 크게 놀랐다.

“아니, 마르켈루스 경, 어찌 이 늦은 밤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내 긴히 할말이 있어서 자네를 찾아왔네.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라 사전에 알릴 수가 없었네.”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루쿨루스는 마르켈루스를 정중히 맞이했다. 커다란 집무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방 안에 있던 하인들을 모두 물리쳤다. 하인들이 모두 방을 나가자 루쿨루스가 마르켈루스에게 물었다.

“긴급한 상황이라니요? 도대체 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르켈루스는 굳은 표정으로 루쿨루스의 질문에 대답했다.

“내일 전하께서 군부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실 모양일세.”

“군을 개편하신다고요? 왜 그런 중대한 사안을 대신들과 회의도 없이 갑자기 진행하려 하시는 겁니까?”

루쿨루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했다. 그는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이건 최고 기밀이지만 자네를 깊이 신뢰하기로써니 자네에게만 알려주겠네. 지금 첩보에 의하면 얼음왕자가 우리나라와 경계가 맞닿는 국경지대에서 비밀리 대군을 소집하고 있다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나?”

“아마도 전쟁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이번 개편은 전쟁을 대비한 사전 포석을 놓으려는 의미가 크겠군요. 그 말은 외교적 해결 원칙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군이 개편되느냐가 문제인데…….”

“역시 루쿨루스 장군의 추리력은 정말로 뛰어나시군요. 제가 긴 설명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군의 기동성을 줄이고 독립성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하시려

고 합니다.”

루쿨루스는 손으로 턱을 괴고 방안을 천천히 돌며 생각에 잠겼다.

“음, 기동성을 줄인다면 공격 우선 전략을 폐기한단 뜻이겠고 부대의 독립성을 늘인다면 통합작전계획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사단 병력의 협력을 통한 지연전략을 사용하겠단 뜻이군요. 결국 국경지대에 산개해있는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을 취하시겠다는 거군요.”

마르켈루스는 루쿨루스의 뛰어난 상황분석에 감탄해 마지않았다.

“굉장하시구려. 장군의 말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전부터 많은 장군들이 지지하고 있는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에 내심 마음이 기울어계셨소. 하지만 많은 대신이 이번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내일 신하들 몰래 군을 개편하려는 것이요.”

마르켈루스의 설명을 들은 루쿨루스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휴, 이거 정말 큰일 났군요.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이 위형성이 가장 적고 성공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전략으로는 얼음왕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얼음왕자처럼 뛰어난 군사령관의 앞에서 병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자충수를 두는 꼴입니다. 그는 압도적인 속도를 앞세워 우리의 사단 병력이 서로 협력하기도 전에 각개격파할 것입니다.”

“저도 장군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군을 찾아온 것입니다. 루쿨루스 경, 전하께 이 방어 전략의 부당성을 알리는 상소를 올려주십시오. 정말 이 대로 가다가는 10년 전 얼음왕자의 침략 때처럼 온 국토가 그들의 손에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마르켈루스는 절박한 심정에 루쿨루스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부탁했다. 그의 간절함은 루쿨루스의 마음을 울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모습은 마르켈루스의 연기였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비록 글재주가 없고 능력이 미력하나마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전하께 상소문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정말 루쿨루스 경은 이 나라의 보배 중에 보배요. 아차, 그렇고 요사이 공주님과 관계는 어떨소?”

루쿨루스는 마르켈루스의 뜻밖에 질문에 안색이 확 바뀌었다.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농을 하시는 거라면 심히 불쾌합니다.”

“제가 농을 하다니요? 어제 아는 사람으로부터 좀 뜻밖에 소식을 전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보시지요.”

마르켈루스는 작은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루쿨루스에게 주었다. 그것은 에이미가 목각인형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낮 뜨거운 사랑의 표현들이 수두룩하게 적혀있었다. 그 편지의 일부 내용에는 너무 적나라한 음담패설이 아무렇지 않게 써있었다.

“이것은 제가 에이미 공주님의 시녀 중 한 명에게 얻은 편지입니다. 놀랍게도 공주님은 목각인형과 새를 이용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공주님은 몹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 편지는 마르켈루스가 조작한 편지였다. 그는 시녀들을 통해서 에이미와 목각인형이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루쿨루스에게 거짓 편지를 보임으로써 그의 감정을 격앙케 했다.

루쿨루스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루쿨루스는 편지를 짓구겨 벽에 던져버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분노했다.

“목각인형! 이런 죽일 놈 같으니라고! 감히 공주님을 범하다니!”

“루쿨루스 경, 제발 좀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화만 낸다고 일이 풀리겠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매우 중요하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공주님이 목각인형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기 전에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알,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흥분했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실 것까지야 없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시구려. 장군께서는 전쟁터에서 어려운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항상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하시질 않으셨습니까? 혹시 평화로운 도시 생활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잊어버린 겁니까? 경은 적이 누구든지 간에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지 않았습니까?”

루쿨루스가 마르켈루스를 쳐다보았다.

“나만의 방식이라?”

마르켈루스는 루쿨루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목각인형이 불에 약하다는 걸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우연히 일어난 화재에 목각인형이 목숨을 잃는다면 공주님도 어쩔 수 없이 목각인형을 잊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죽은 것을 사랑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마르켈루스는 말을 끝내고 천천히 방을 나갔다. 루쿨루스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 크게 웃었다.

“하하하, 우연한 화재라. 내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루쿨루스는 옆에 놓여있는 촛불을 입으로 훑 불어 켰다.

“이 촛불처럼 목각인형의 목숨도 어둠 속으로 사라지겠군. 하하하.”

마르켈루스가 밖으로 나가자 루쿨루스는 하인 두 명을 집무실로 불렀다. 곧 건장한 체격의 두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루쿨루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숨겨둔 돈 뭉치를 꺼냈다.

“너희 둘이 할 것이 있다. 피트는 이 길로 마르켈루스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 지 누구를 만나는 지 나에게 보고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르켈루스의 집에 하인이나 시녀들 중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자를 알아보고 포섭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루쉬는 내일 궁의 성벽 아래에 있는 하층민을 위한 병원에 들어가 그들 중 한 사람을 우리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니 돈으로 꺾다면 쉽게 우리 편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베시우스는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먼저 베시우스의 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면 일을 좀더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너희 둘이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충분한 돈이 필요할 것이다.”

루쿨루스는 돈뭉치를 두 사람에게 건넸다.

“사용처를 일일이 보고 할 필요는 없다. 일이 잘 풀린 다면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일에 착수하도록.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피트와 그뤼시가 방을 나가자 루쿨루스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펜을 들어 목각인형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냉혹한 그의 눈빛처럼 날카로운 펜은 무차별적으로 종이에 글을 새겼다. 목각인형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 속으로 빠지고 있었다.

일과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자 에이미는 올리우스 왕의 집무실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녀는 집무실 문 앞에 들어가기를 한참 동안을 망설였다. 일일 보고를 하기 위해 입궁한 루쿨루스가 에이미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루쿨루스는 어제 읽은 편지내용이 마음에 걸렸지만 겉으로 불편한 내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에이미 공주님,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니 오늘은 저에게 정말로 운이 좋은 날이군요. 공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침부터 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쿨루스 경. 이렇게 이른 시간에 궁에 오시다니 역시 루쿨루스 경은 부지런하시군요.”

“아리따우신 공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니 쑥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하하하.”

루쿨루스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 가득 묻어났다.

“공주님, 그런데 전하의 집무실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아도라의 일 때문예요.”

순간 루쿨루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의 머리 속에 어제 읽은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네? 목각인형의 일 때문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로…….”

“아도라를 본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아바마마께 부탁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아도라를 만나러 밖에 나갈 거예요. 아바마마께서 허락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이제야 소문이 잠잠해지려고 하는 데 다시 목각인형을 만나신다면 사그라졌던 소문이 다시 살아나 공주님을 괴롭힐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도라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따윈 모두 버릴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목각인형이 공주님에게 소중한시다는 겁니까?”

“예, 아도라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소중한데요.”

에이미의 단호함에 루쿨루스의 기분은 괴롭고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싫은 내색을 겉으로 나타낼 수 없었다. 그는 허리에 찬 칼을 괴롭게 매만졌다.

‘어떻게 해서든 공주님과 목각인형이 만나는 것을 막아야만 해. 그러려면 계획을 앞당길 필요가 있겠어. 목각인형, 내 너를 뜨거운 불길 속으로 밀어 넣어 살이 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마. 너의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로 만들어진 심장을 태워버려 너의 생명의 축복을 거두리라.’

루쿨루스의 눈에서는 분노와 질투의 태풍이 휘몰아쳤다. 그는 에이미가 그보다 목각인형을 더 아끼고 더 많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질투는 그를 더욱 냉혹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두운 하늘에서는 눈과 비가 한데 섞여 쏟아지기 시작했다. 루쿨루스는 가볍게 숨을 쉬면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비에 젖어 차갑게 식은 몸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전에 일을 맡겼던 피트와 그뤼시를 불렀다. 잠시 뒤 그뤼시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르켈루스를 감시하라고 보낸 피트는 왜 들어오질 않느냐?”

그뤼시가 참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게, 피트는 오늘 아침 도시 밖에 한 농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 피트가 죽었던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범인은, 범인은 밝혀냈는가?”

“송구스럽지만 범인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마르켈루스를 몰래 정탐하다 살해당한 듯 보입니다.”

루쿨루스가 고개를 가우뚱 숙이며 물었다.

“여러 가지 정황?”

“네, 피트의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더 이상 위험을 자초하지 마라. 지금은 가지를 부러뜨리지만 다음에는 그 뿌리를 자를 터이니’란 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글씨는 피로 써져 있었는데 아마도 피트를 죽이고 그의 피를 받아 쓴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섬뜩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놈들이 피트의 시체를 가지고 장난을 쳤단 말이냐!”

루쿨루스는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주위에 있는 집기들을 벽에다 마구 던졌다. 그의 분노는 땅으로 내리 꽃은 번개와 천지를 울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세상을 향해 쏟아졌다.

한참을 그렇게 분노에 몸을 맡긴 루쿨루스는 가까스로 격한 감정을 억눌렀다.

“피트의 복수는 다음으로 미룬다. 우선 사람들을 시켜 피트를 정중히 장사 지내고 그의 유가족들을 잘 보살펴주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각인형을 내일 죽일 것이다. 그를 무너진 탑에 가둔 뒤 불태워 죽인다.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 내일 오후까지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다음 명령을 기다려라.”

그워시는 루쿨루스에게 작전계획이 적힌 편지를 건네 받고 방을 나갔다.

혼자 방에 남게 된 루쿨루스는 번개가 치는 어두운 하늘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매만졌다.

‘에이미 공주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부수어야 하는 나를 가엽게 여겨 주소서. 오직 당신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저주를 받는 악마가 된다고 해도 저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대한 음모로 뒤섞인 운명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목각인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했다. 평범하게 되풀이 되는 일상에 그의 얼굴은 그 어떤 불만이나 걱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해당될 정도로 위태로운 것이었다.

조세프가 다가와 목각인형에게 인사했다.

“인형 친구, 일찍 일어났구먼. 정말 자네는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구만.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항상 나의 게으름을 반성하게 된다네.”

“아닙니다. 제가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요. 그건 그렇고 오늘 하루는 정말로 맑네요.”

개점 시간이 되자 병원의 문은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활짝 열렸다. 환자들은 물말듯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정신 없이 그들을 치료했다. 목각인형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쉬지 않고 바쁘게 일했다.

해가 질 무렵 한 의사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목각인형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는 주위의 눈치를 몹시 살폈다.

“목각인형아, 오, 오늘 나와 같이 구, 궁. 그렇지. 궁 안에 가 봐야겠다.”

“네? 궁 안에요? 무슨 일 때문에 궁에 가는 것이죠?”

의사는 다시 한번 주위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마음이 불안한 듯 말을 더듬으며 이야기에 두서가 없었다.

“그, 그게 말이지. 구, 궁 안에 있는 무너진 탑에는 오래된 치, 치료서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단다. 너도 그 치료, 아니, 아니지. 그 이야기는 아, 안 해도 돼지. 이, 이번에 그 탑을 보수한다니 이 기회에 그 의료서적들을 가, 가져와야겠구나.”

“하지만 이렇게 밤이 늦어서 어두운데 책을 가지러 갑니까?”

목각인형이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하자 의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 긴장했고 말을 더욱 심하게 더듬었다.

“그. 그게 말이지. 그러니까. 너, 너도 알다시피 낮에는 환자들. 그래. 화, 환자들을 돌보느라 시, 시간이 없지 않는가? 그, 그러니 밤에라도 시, 시간을 내서 가져올 수 밖에. 마, 맞아. 바, 밤에 가지고 와, 와야지. 바, 밤에, 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서, 서 두르게나.”

“예, 알겠습니다. 잠시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겠습니다.”

사실 무너진 탑에는 거대한 서재가 있었는데 그 탑의 주인이었던 카밀라 여왕은 여러 방면의 책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목각인형은 의사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다.

목각인형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혼자 방 안에서 뒹굴고 있던 브라이트가 물었다.

“인형 친구, 이 밤에 어디를 가려고 그렇게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나?”

“어, 잠시 궁에 들어가려고. 오늘 무너진 탑에서 의료 책들을 가져와야 한데.”

“이 늦은 밤까지 자네를 부려먹다니, 참 나쁜 사람들이네 그려. 그런데 인형 친구, 자네는 이 병원밖에 나가서는 안되잖아?”

“나도 자세한 것은 잘 몰라. 그저 가라고 하니 가는 것뿐이야. 근데 브라이트 여기 걸어두었던 내 외투 못 봤어?”

“아, 오늘 아침까지 걸려있던 그 밝은 흰색의 외투를 말하는 거야? 그거 간호사가 와서 가져가던데.”

“그래? 빨려고 가져갔나 보구나. 이런, 이런.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흑갈색의 외투를 입어야겠다. 좀 칙칙해서 되도록이면 안 입으려고 했는데 외투가 이 한 벌 밖에 없으니……. 아차! 내 정신 좀 봐. 이걸 깜박할 뻔 했네. 내가 어제 여기다가 편지를 써 놔었는데. 어디 보자. 음. 앗, 여기 있다. 브라이트,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이 편지를 에이미 공주님에게 전해주라.”

목각인형은 브라이트의 발에다 편지를 묶기 시작했다.

“아니, 이 친구 보게? 지금? 지금 말인가? 이 제정신 아닌 친구를 보게. 이 늦은 시각 나를 꼭 번거롭게 해야 하겠나?”

“그럼 내일 갖다 줘도 돼. 하지만 오늘 에이미 공주님이 맛있는 과자를 많이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뭐 네가 가기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목각인형이 편지를 다리에서 다시 풀려고 하자 브라이트는 헛기침을 하며 목각인형의 행동을 가로 막았다.

“허허, 아닐세.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한번 크게 인심을 쓰지. 그럼 지금 바로 편지를 전해주어야겠군. 비둘기 친구가 이 근방에 있어야 할 텐데.”

브라이트는 곧 비둘기를 불러 에이미의 방을 향해 날아갔다.

목각인형이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가자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각인형을 밖에 세워둔 마차에 태웠다. 마차가 궁을 향해 출발하자마자 어두운 골목길 깊숙한 곳에서 검은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튀어나와 마차의 뒤를 몰래 쫓았다. 마차가 궁의 입구에 들어서자 성문을 지키는 수비대장이 길을 막았다. 잠시 뒤 의사가 마차에서 내려 수비대장에게 속삭였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수비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차를 그냥 통과시켜주었다.

성벽 위에서 루쿨루스는 궁 안으로 들어가는 마차를 내려다 보았다.

“이제 시작이군.”

루쿨루스의 주위로 병원에서부터 마차를 뒤따라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무너진 탑에서 불이 난다면 뛰어내릴 수도 없을 것이야. 그렇기에 위험을 무릎 쓰면서 목각인형을 궁 안으로 불러 들인 것이니까. 하지만 범은 토끼를 잡을 때에도 방심하지 않는 법이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모두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루쿨루스의 심복들은 그의 명령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심복의 동작은 마치 잘 길들여진 사냥개처럼 정확하고 민첩했다.

그 시간, 브라이트는 에이미의 방으로 무사히 날아갔지만 창문이 굳게 닫혀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전과 다르게 방안에 에이미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브라이트는 부리로 창문을 두드려 에이미를 불렀다.

“무슨 소리지?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밖에 비가 오나? 어머, 창가에 비둘기가 앉아있네. 이상하네. 왜 저기에……. 잠깐, 저건 브라이트가 아니야? 브라이트, 잠깐 만 기다려. 창문을 열어줄게.”

곧 창문이 열렸고 에이미가 반갑게 브라이트를 맞이했다. 에이미는 브라이트의 발에 묶여있는 편지를 보며 뿔 듯이 기뻐했다.

“브라이트, 아도라의 편지를 가지고 왔구나. 밤 늦게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너에게 주려고 맛있는 과자를 많이 준비했으니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내가 신경을 좀 써서 특별히 맛있는 과자들만 모아놨어.”

에이미는 브라이트와 비둘기를 과자가 놓인 테이블로 데려갔다.

브라이트는 목각인형이 이 근처에 오고 있다는 것을 에이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탑이 보이는 창문을 가리키며 지저귀었다.

“브라이트, 도대체 왜 그래? 과자가 맛있어?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에이미는 브라이트의 이상한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잠시 뒤에 그녀는 브라이트가 무너진 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환한 얼굴로 브라이트에게 물었다.

“브라이트, 아도라가 지금 이 근처에 있어?”

브라이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너진 탑을 가리키며 걸어가는 시늉을 했다.

“지금 저기 무너진 탑을 향해 가고 있다고?”

브라이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미는 브라이트를 껴안고 그의 얼굴에 뽀뽀를 했다.

“브라이트, 알려줘서 고마워. 아도라, 너를 또 볼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에이미는 어두운 갈색의 외투를 머리에 쓰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무너진 탑 밖에서는 서너 명의 남자가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옷을 입고 숨어있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여러 통의 빈 기름통이 놓여져 있었다.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행들에게 말했다.

“병원에 심어놓은 의사가 목각인형을 이곳으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는 마차를 중간에 세워서 목각인형을 무너진 탑으로 보내기로 했다. 아마 얼마 후면 목각인형이 도착할거다. 그가 탑에 들어가면 눈치채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불을 붙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것이다. 이 탑은 보수를 위해서 꼭 대기 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창문을 나무로 막아놔으니 탈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얼굴이 길고 압압한 눈매를 가진 남자가 말을 덧붙였다.

“작업 공들이 막 퇴근하고 나서 탑에 불이 났다면 사람들은 보수작업 중에 실수로 불이 났다고 생각하겠지. 역시 루쿨루스님은 치밀 하시군.”

“췌, 이제 조용히 숨어서 목각인형을 기다린다. 모두 숨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할거야.”

“뭐 한 두 번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장.”

괴한들은 모두 어두운 그림자에 숨어 목각인형이 오기를 기다렸다.

목각인형은 의사와 함께 마차를 타고 무너진 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의사는 마부에게 마차를 세우도록 하고 마차에서 내렸다.

그곳에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빈 건물이 서있었다.

“목각인형아, 나, 나는 이곳에서 볼일이 잠시 이, 있다. 그, 그러니 먼저 무, 무너진 탑에 가서 의, 의로서적들을 찾아내 옮기기 편하게 한데 모아두거라. 시, 시간이 촉박하니 서, 서둘러야 해. 다, 다른데 들리지 말고 고, 곧장 탑에 가도록 해. 내, 내 말 알겠지? 곧 그, 그래. 곧 마차를 이끌고 뒤, 뒤따라 가, 갈 테니까.”

“네, 알겠어요. 곧장 탑으로 가서 서적들을 모아둘게요.”

목각인형은 마차에서 내려 무너진 탑을 향해 걸어갔다. 한참을 걸어가자 더 이상 의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씩 에이미의 방이 눈에 들어왔다.

“어? 공주님의 방이 보이네. 그러고 보니 공주님을 본 게 참 오래 전 일이구나. 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목각인형은 멀찌감치 서서 공주의 방을 애뜻하게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안되겠어. 아저씨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운 좋게 여기까지 왔는데 공주님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야겠어. 공주님을 잠깐 만나고 탑에 가서 빨리 일을 한다면 아저씨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 사이 검은 외투를 쓴 여자가 목각인형의 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목각인형은 이상하게 방금 앞을 지나간 여자가 신경이 쓰였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과 몸의 형태가 어디서 많이 본듯한 여자인 것 같았다. 마치 흡사 에이미의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설마……. 아니, 아니야. 이 늦은 시간에 공주님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목각인형은 찜찜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옮겼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문을 지키는 두 명의 보초가 그의 앞을 막아 섰다. 수비병이 의심 어린 눈초리로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궁 안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목각인형이 어물뎠다.

“에이미 공주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자네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봐야 하니 잠시 여기서 기다려라.
나 참, 오늘은 왜이리 귀찮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수비병은 매우 짜증을 내며 움직였다.

그 시간 에이미는 설레는 마음으로 무너진 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횃불을 밝히고 아도라의 이름을 부르며 탑을 올라갔다. 탑 안은 보수작업에 필요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있었고 탑의 돌계단 군데군데는 무너져있었다. 돌계단이 끊긴 곳은 임시방편으로 나무계단이 놓여졌는데 엇듯 보기에 위태로워 보였다. 탑 안에서는 이상한 기름냄새가 진동했지만 에이미는 보수작업 때문에 그런 것 일거라 짐작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무너진 탑 밖에서 숨어있던 남자들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탑 안으로 들어가자 숨을 죽이며 탑의 입구로 다가갔다. 그들은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방금 탑 안에 들어간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 사람이 목각인형일 것이라 확신했다.

“목각인형이 탑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문을 잠그고 불을 붙여.”

루쿨루스의 부하들은 탑의 문을 조용히 걸어 잠그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모두 재빠르게 흩어졌다. 탑의 입구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에이미는 맨 위층까지 올라가 방 안을 살폈지만 목각인형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도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아무튼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지. 만약 탑 안으로 들어오면 숨어있다가 깜짝 놀래 켜줘야지.”

이상하게도 서서히 방안이 더워졌고 매운 연기가 마루 바닥 사

이를 뚫고 올라왔다.

“콜록. 콜록. 왜 이리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히지? 어라, 이게 뭐지? 아무래도 연기 같은데. 도대체 무슨 연기지? 콜록. 콜록.”

에이미는 방문을 열어 아래를 보았다. 탑의 아래를 본 에이미는 크게 놀라 제대로 서있기가 힘들었다. 아래서는 뜨거운 불길 이 온 탑을 삼키며 올라오고 있었다.

목각인형은 건물 앞에서 보초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기다렸다. 5분 뒤, 아까 건물 안으로 들어간 보초가 헐레벌떡 달려 나오더니 다른 수비병에게 소리쳤다.

“큰일났어! 지금 눈물의 탑에 불이 났어. 어서 그 쪽으로 가봐야겠어!”

이에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는 고개를 돌려 목각인형에게 경고했다.

“자네는 이곳에서 꼼작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게! 만약 명령을 함부로 어기면은 성치 못할 것이야!”

수비병들은 서둘러 눈물의 탑으로 뛰어갔다.

병사들이 사라지자 목각인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주의 방을 향해 뛴다 뛰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브라이트와 그의 단짝 친구인 흰 비둘기만이 있었다. 브라이트는 과자를 씹으며 놀란 눈으로 목각인형을 쳐다보았다.

“아도라? 네가 왜 여기 있어?”

목각인형은 숨을 가다듬고 물었다.

“브라이트, 에이미 공주님은 어디 가셨어?”

“에이미 공주님? 너를 만나러 무너진 탑에 가셨는데. 방금 전에 나가셨는데.”

“뭐? 눈물의 탑으로 가셨다고? 지금 그 탑에는 불이 났다는데. 설마…….”

목각인형은 브라이트의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이럴 수가…….”

목각인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탑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었다. 밤하늘 보다 검은 연기가 치솟아 어두운 하늘 속에 섞였다. 목각인형의 눈에 눈물의 탑의 꼭대기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에이미의 모습이 들어왔다.

“에이미 공주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목각인형은 눈물의 탑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갔다.

뜨거운 불길은 온 탑으로 번졌고 에이미가 갇혀있는 방안에도 메케한 연기가 사정없이 들어왔다. 에이미는 연기에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헝겊으로 입을 싸며 겨우 숨을 쉬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탑 밑에서는 어느새 율리우스 왕과 종신들이 도착해있었다. 그들은 공주가 불타는 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왔다. 그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허둥대고 있었다. 루쿨루스도 왕의 곁에서 불타는 탑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병사들은 긴 사다리를 가지고 에이미를 구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다리는 에이미가 갇혀 있는 층까지 닿질 않았다. 구조가 실패한 것을 확인한 마르켈루스가 침착하게 왕에게 조언했다.

“전하,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 탑 안으로 들어가서 공주님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율리우스 왕은 마르켈루스의 의견에 근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누가 저 불길 속에 들어가려 하겠소.”

루쿨루스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자 크게 충격을 먹었

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원망하며 울부짖는 에이미를 안타깝게 바라봤다.

‘내가 에이미 공주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다니. 어쩌다 일이 이이경이 됐지. 어쩌다가…….’

루쿨루스는 옆구리에 찬 칼을 고통스럽게 매만졌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병사들은 탐의 문을 부수고 두꺼운 밧줄과 물 주머니를 가지고 마르켈루스의 앞으로 달려왔다. 마르켈루스가 왕에게 보고했다.

“이제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미치지 않고서 저 지옥에 들어가려 하겠소.”

“아마 병사들 중에 용감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르켈루스는 우렁찬 목소리로 탐 주위를 둘러싼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저 탐에 들어가 공주를 구할 용기 있는 자가 있는가? 만약 공주를 구한다면 상상도 하질 못할 만큼의 포상이 주어질 것이다.”

마르켈루스는 온갖 화려한 언변으로 병사들을 유혹했지만 아무도 공주를 구하겠다고 나서질 않았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로 눈치를 살폈다. 병사들의 행동에 율리우스 왕은 절망했다.

루쿨루스는 왕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돌을 묶어 놓은 것처럼 땅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루쿨루스는 매섭게 불타는 탐을 바라보며 망설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전……하, 제, 제가 들어…….”

루쿨루스는 두려움에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목각인형이 달려오더니 밧줄을 어깨에 매고 율리우스 왕에게 청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시오.

제발 제가 들어가서 공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옵시오.“

율리우스는 목각인형의 손을 꼭 잡았다.

“자네는 에이미의 목각인형이 아닌가? 아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어서 공주를 무사히 구출해주게나.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네. 한시가 급하네.”

“네, 기필코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병사들은 목각인형에게 밧줄과 3개의 물 주머니를 주었다. 목각인형은 물 주머니 하나를 높게 들어 온 몸에 물을 쏟았다. 그리고 불타고 있는 탑을 올려다 보았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당신을 위한 나의 사랑을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나의 사랑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목각인형은 검은 연기를 쉴 새 없이 내뿜는 탑 안으로 달려갔다. 붉은 열기가 목각인형을 뜨겁게 반겼다. 고통스런 열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목각인형은 검은 연기를 헤치며 탑의 정상을 올려다 보았다. 검은 연기가 탑의 꼭대기를 향해 질주하듯 피어 올랐다.

“불길이 너무 사나워. 잠시 머뭇거리며 어물거리다간 화염에 휩싸일 거야. 빨리 계단을 찾아서 올라가야 해.”

한걸음씩 걸을 때마다 불에 탄 마룻바닥이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다. 주위에 사납게 춤추고 있는 검고 붉은 연기는 목각인형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작은 불씨들은 목각인형의 무모함을 비웃듯 끊임없이 그의 주위를 떠돌아다녔다. 목각인형은 가까스로 계단을 찾았다. 계단의 손잡이는 불이 붙어서 이글이글 타는 소리를 냈다.

광!

갑자기 탑의 아래층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무슨 폭발이지?”

보수작업을 위해 놓아두었던 재료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이었다. 폭발과 동시에 불에 탄 잔재들이 탑 아래로 비 오듯 떨어졌다. 목각인형은 위에서 떨어지는 붉은 재들을 피해가며 힘겹게 탑을 올라갔다.

탑을 삼켜버린 거대한 검은 연기 구름 때문에 목각인형은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뜨겁게 달궜진 벽을 손으로 짚어가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손은 불에 데여 벗겨지고 짓물렀지만 목각인형은 상관하지 않았다. 불에 타고 있는 날카로운 파편들이 천장으로부터 떨어져 그의 살을 뚫고 들어갔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목각인형은 오로지 공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불 지옥을 헤치며 에이미에게로 한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에이미 공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마르켈루스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화재 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러다간 공주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어. 여차하면 내가 나서서 공주를 구해야 하겠군.”

그 순간 어둠에 묻힌 마르켈루스의 그림자가 갑자기 알 수 없는 형태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목각인형의 젖은 옷은 탑 안의 온도로 인해 빠르게 말라갔다. 탑의 중간에 다다르자 마른 옷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목각인형은 얼른 어깨에 매고 있는 물 주머니를 빼내어 온 몸에 물을 뿌렸다. 다행히도 옷에 붙은 불이 모두 꺼졌다. 하지만 불에 타서 약해진 나무 계단에 물이 쏟아지자 물이 떨어진 자리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니! 나무 계단이 부서지려고 하잖아! 이런, 내가 어리석었어. 빨리 저 높은 돌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목각인형은 돌계단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그

가 빠르게 뿔수록 나무 계단은 크게 흔들리며 부서지기 시작했다. 나무계단의 금은 달려가는 목각인형을 빠르게 쫓아갔다.

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래층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의 진동은 온 탑을 뒤흔들었고 목각인형이 딛고 있는 나무계단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나무계단은 전체가 요동치며 무너져 내렸다. 목각인형은 있는 힘을 다해 돌계단을 향해 뛰었다. 그는 돌계단에 가까스로 몸의 반을 걸칠 수 있었다. 중력이 그를 아래로 잡아당겼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

“올라가야 해. 포기할 수 없어! 힘을 조금만 더…….”

목각인형은 가까스로 돌계단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수많은 잔해들이 불길에 휩싸인 채 목각인형의 머리위로 떨어졌다.

“으악!”

목각인형은 온 몸으로 뜨거운 파편을 받았다. 파편들이 쏟아진 곳에는 깊은 상처가 났고 그 상처가 난 곳에는 딱딱한 나뭇결이 들어났다. 하지만 그는 고통도 뒤로 한 채 에이미를 찾았다.

“안돼!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저 위에서 공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에이미 공주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목각인형의 간절함이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로 만들어진 심장으로 전해졌고 심장은 강렬한 녹색빛을 사방으로 내뿜었다. 딱딱한 나뭇결이 드러난 곳으로 빛이 지나가자 벌어진 상처가 아물었다. 그리고 생명의 활기를 되찾아 부드러운 피부가 되살아났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아, 아도라?”

에이미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도라! 아도라지? 아도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공주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공주님,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목각인형은 드디어 에이미가 갇혀있는 방 앞까지 올라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물 주머니를 빼내어 온 몸에 물을 쏟았다. 그리고 이를 짊어지고 불이 붙어있는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문은 커다란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내렸고 목각인형은 몸을 구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을 향해 달려갔다.

“아도라!”

목각인형은 달려오는 공주를 온 몸으로 껍 안았다. 에이미는 울며 소리쳤다.

“왜 왔어! 이 바보야! 이 위험한 곳에 왜 왔어. 왜…….”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심장이 간절히 공주님을 찾고 있어서요. 제 마음이 필사적으로 공주님을 부르고 있어서요.”

에이미는 다시 한번 목각인형을 껍 안았다.

“이 바보야…….”

건물이 무너질 듯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천장에는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사이로 수많은 물건들이 쏟아졌다. 그 날카롭고 뜨거운 파편들은 두 사람의 머리위로 빠르게 쏟아졌다.

“공주님, 속이세요!”

목각인형은 에이미를 온 몸으로 감싸서 보호했다. 천장으로부터 떨어진 날카로운 파편들은 목각인형의 등을 뚫고 들어갔다.

“으, 으음.”

목각인형의 입에서는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등을 뚫고 들어간 커다란 나무조각들을 봤다. 그녀는 울먹이며 손으로 목각인형의 가슴을 구슬프게 쳤다.

“바보야! 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해! 왜 너의 아픔은 나를 위해 참는 거야! 왜 나를 위해 너를 위험 속에 빠뜨리

는 거야! 이 바보야!”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제 운명이니까요.”

목각인형의 말에 에이미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바, 바보야……”

갑자기 눈물의 탑 전체에서 커다란 굉음이 나기 시작했다. 벽돌이 흔들렸고 탑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공주님,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요! 서둘러야 해요! 곧 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서 이 밧줄을 타고 이 탑에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목각인형은 어깨에 매고 있던 밧줄을 풀어 에이미의 몸에 감았다.

“너는 어떻게 하려고? 같이 내려가야지! 제발 같이 내려가!”

에이미는 울며 빌었다. 목각인형은 밧줄을 기둥에 묶고 울고 있는 공주에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내려가셔야 돼요!”

“안돼. 제발 같이 내려가.”

목각인형은 에이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밧줄은 동시에 두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선 공주님이 다 내려간 뒤 저도 밧줄을 타고 내려갈 겁니다. 약속할게요.”

“약속한 거야. 꼭, 꼭 내려와야 돼.”

에이미는 울먹였다.

목각인형은 에이미를 서서히 내려 보냈다. 그는 에이미가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밧줄을 꼭 잡았다. 그는 공주가 무사히 내려갈 때까지만이라도 탑이 가만이 있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소망을 부수려는 듯 탑은 마치 마지막 숨을 쉬듯이 거대한 괴성을 지

르며 흔들렸다. 아랫부분부터 거대한 금이 탑의 벽을 타고 꼭대기까지 새겨졌다. 금은 밧줄을 묶었던 기둥에까지 새겨졌고 그 기둥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러자 밧줄이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까아아아.”

에이미는 갑자기 밧줄이 풀어지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밧줄에서 떨어질 듯이 겨우 매달렸다. 목각인형은 손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밧줄을 안간힘을 다해 다시 잡았다. 손바닥은 마찰로 인해 찢어지고 타들어갔다.

“안돼! 버텨야 해!”

에이미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줄에 가까스로 매달렸다. 그녀는 밧줄을 꼭 잡고 있었지만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위태로워 보였다.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팔의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에이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밧줄을 놓쳤다.

“까아아아!”

에이미는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떨어졌다.

“아, 안돼! 공주님!”

순간 거대한 늑대가 떨어지는 에이미를 향해 화살처럼 빠르게 달려왔다. 늑대는 마치 불꽃이 퍼지듯 하늘로 뛰어올라 공주를 하늘에서 낚아챘다. 그 늑대는 사뿐이 땅으로 착지한 뒤 그녀를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율리우스 왕은 에이미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기절해 있는 에이미를 흔들어 깨웠다.

“에이미! 의사! 의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갑자기 왕의 주위로 작은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율리우스 왕은 머리 위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 뭐가 위에서 떨어졌는데? 설마…….”

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

해 탑에서 수많은 돌 조각들이 그의 머리위로 떨어졌다.

“안……돼!”

다행히도 돌 조각들은 아슬아슬한 거리로 왕의 앞에 떨어졌다. 왕이 조금만 앞에 있었다면 그는 떨어진 돌무더기에 크게 다쳤을 것이다. 심각한 위험을 운 좋게 벗어난 왕 앞으로 루쿨루스가 달려왔다.

“전하, 곧 탑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알았다. 에이미, 일어날수 있겠냐?”

에이미는 왕에게 급하게 물었다.

“아도라는 요? 아도라는 어디 있죠?”

“지금은 목각인형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어서 이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 등에 업히세요. 어서요!”

루쿨루스는 에이미를 억지로 업었다. 에이미는 루쿨루스의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루쿨루스, 절 내려주세요. 아직 저 안에 아도라가 있어요! 아도라를 구해야 해요!”

하지만 루쿨루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주를 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업고 달렸다.

“안됩니다! 지금 탑에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안돼요! 어서 날 내려주세요!”

안전한 곳에 다다르고 나서야 루쿨루스는 에이미를 내려 놓았다. 에이미는 땅에 서자마자 목각인형을 구하기 위해 탑을 향해 달려갔다. 이에 루쿨루스가 공주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 손 놓으세요! 어서 아도라를 구해야 해요. 아도라가 아직 저 탑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에이미는 있는 힘을 다해 루쿨루스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루쿨루스는 그녀의 손을 더욱 껍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안됩니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이에 에이미는 화가 나서 루쿨루스의 뺨을 세게 때렸다. 하지만 루쿨루스는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다. 루쿨루스의 눈빛은 확고한 그의 마음처럼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루쿨루스는 에이미를 향해 거칠게 소리쳤다.

“정신차리세요! 정신차리시라고요! 저기에 가면 죽는단 말입니다!”

“제발 놔. 나……나 가야 한다 말이야. 지금 아도라가 저기 갇혀있단 말이야.”

에이미의 눈 앞에는 빠르게 기울러 지는 탑이 보였다.

목각인형은 에이미가 무사히 탈출한 것을 보고 안심했다.

“이제 나도 어서 이 탑에서 탈출해야 해. 곧 탑이 무너질 거야.”

탑이 기울어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다. 방 안은 서서히 일그러지고 있었고 바닥이 꺼져 군데군데 구멍이 크게 생겼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매운 연기가 쉬지 않고 솟구쳐 들어왔다. 목각인형은 주위를 둘러보고 밧줄을 묶을 만한 곳을 찾았다.

“저기 저 돌무더기 사이로 밧줄을 묶을 수 있을 거야.”

목각인형은 쏟아져 내린 벽돌더미에 밧줄을 묶었다.

“됐어. 이 정도면 내가 내려가는 동안은 풀리지 않을 거야.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탑아 조금만 버티줘.”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탑은 마지막 요동을 치는 듯 뒤틀렸다. 탑이 마구 흔들리자 목각인형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절망적이게도 오른쪽 다리위로 천장으로부터 떨어진 돌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 무거운 파편들은 목각인형의 다리를 깔아뭉개듯 짓눌렀다. 목각인형은 일어서려 했지만 발이 끼어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다.

“발이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제 끝인가?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해야 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목각인형의 눈앞에 마치 칼처럼 날카로운 쇠 조각이 보였다.

“그래! 저거야.”

목각인형은 팔을 뻗어 쇠 조각을 주었다. 그는 이를 꺾 물고 발을 세차게 내리찍었다. 수십 번을 내리치자 오른쪽 다리가 뚝 개지듯 끊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며 창문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죽을 수 없어! 공주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곳을 벗어나야 해! 공주님과 악속을 지켜야만 해. 공주님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서 반드시 나가야만 해!”

목각인형은 안간힘을 다해 기어갔다. 그의 팔과 다리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조각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졌다. 하지만 목각인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밖에서 에이미는 목각인형이 무사히 빠져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지극하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제발 아도라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도라, 제발. 제발 무사히 탑을 빠져 나와야 해.’

하지만 에이미의 간절한 소망과는 다르게 탑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절규를 하듯 무너져 내려갔다. 탑은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사방의 어두운 불씨의 눈물을 흠뻑리고 검은 연기를 토해냈다.

에이미는 그저 멍하니 목각인형이 돌무더기에 섞여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 아, 안돼!”

탑이 완전히 무너지자 사방을 향해 검은 먼지가 피어 올랐다. 먼지가 가라앉자 무너진 탑에는 아직까지도 잔 불씨가 살아 공중을 슬프게 떠돌아 다녔다. 에이미는 울며 무너진 탑으로 달려갔다. 에이미는 목각인형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그를 찾았다.

“아도라! 아도라! 내 목소리가 들리며 대답해. 제발 대답해, 아도라.”

돌무더기 한쪽 구석에 한 손이 빠져 나와있었다.

“손?”

에이미는 손이 빠져 나와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돌을 치웠다. 곧 불에 그을리고 끈직한 상처로 더럽혀진 목각인형의 상반신이 나타났다. 목각인형은 가파스로 숨을 쉬고 있었다.

“아도라, 제발 눈을 좀 떠봐. 내가 왔어. 너를 구하려고 내가 왔다고.”

“고, 공……주……님…….”

목각인형은 살며시 눈을 뜨고 에이미를 올려다 보았다. 얼굴은 서서히 생명의 활기를 잃어가서 차갑고 딱딱한 나무로 변하고 있었다. 목각인형은 망가진 손을 뻗어 에이미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껏 마음……속으로 힘겹……게 감춰왔었지만……”

목각인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움직였다.

“사, 사랑……해……요…….”

목각인형은 온 몸은 딱딱한 나무로 변했다. 아름다운 요정의 눈물로 만들어진 그의 심장도 그 빛을 잃었다. 그렇게 목각인형은 죽었다.

“안돼. 아도라, 제발 눈을 감지마. 제발. 제발. 제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이야. 아, 안돼…….”

에이미의 절규가 어두운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온 세상을 덮은 슬픔 속에 까마득한 어둠만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달빛의 눈물을 흘렸다.